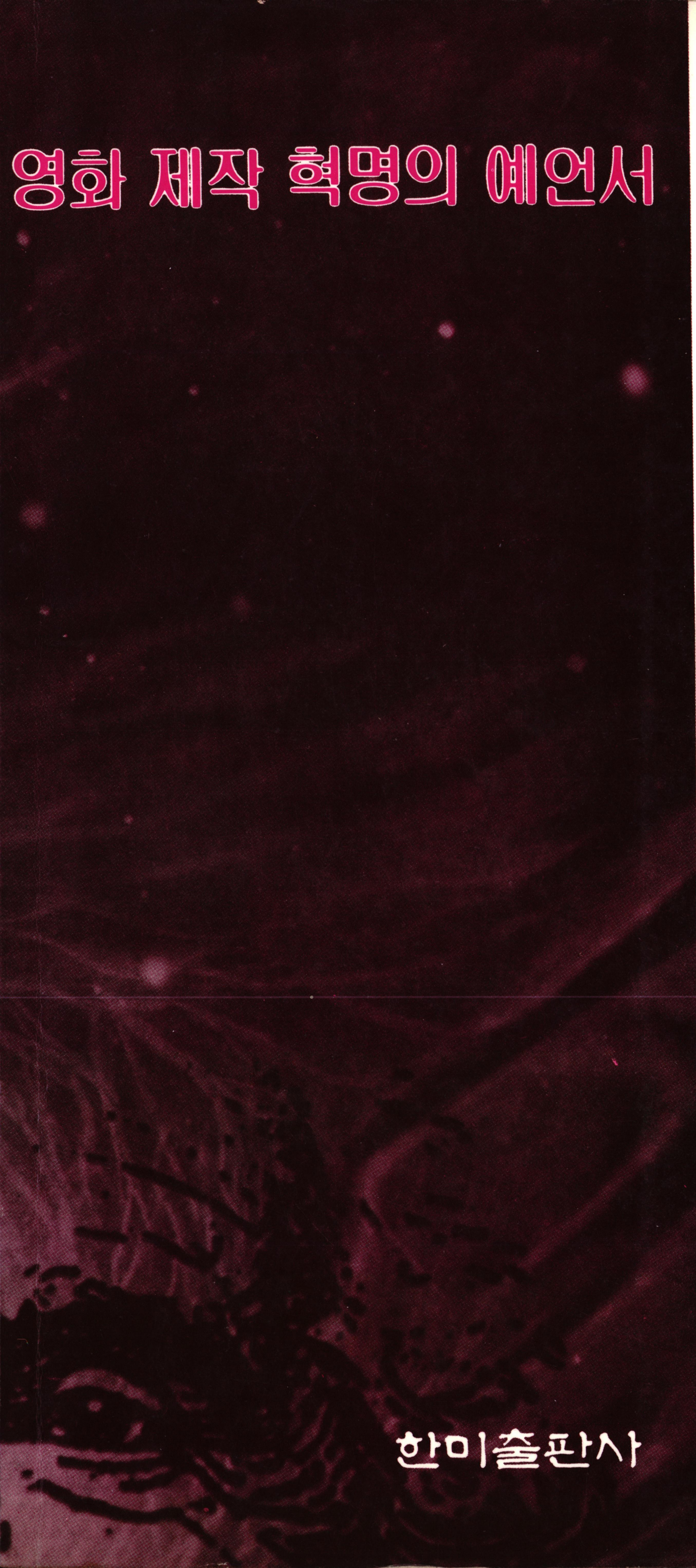
영화 제작 혁명의 예언서

컴퓨터 영화론 I

張京基 著



한미출판사

영화 제작 혁명의 예언서

컴퓨터영화론 I

張 京 基 著

한미출판사

이 이야기가 영화제작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를 없애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영화로 가는 길목을 찾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컴퓨터 영화론 강의 중에서—

프 롤 로 그

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대낮에 멀뚱멀뚱 방에 홀로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줄곧 낮잠으로 메우고, 그러다 일어나서 무심코 TV를 켰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작되려면 이십 분은 더 있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자막이 나오니 그래도 눈 요기는 되었다.

어린이 만화부터 시작해서 어제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웃고, 노래부르고 그러다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몇 번의 광고가 있고 어느덧 다시 애국가가 끝나고 그러고도 왠지는 모르지만 부글부글 끓는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아쉬움 속에 T V를 껐다.

머리는 더욱 더 맑아지고 눈도 말똥말똥 해지는 것이 드러누워도 잠이 올리는 없고 별의별 반갑지도 않은 생각만 머리통을 꽉 채울 것이 분명했다. 별 수 없이 의자 위로 기어올라 볼펜을 쥐고 뭔가 끄적끄적 해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낸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날 밤이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제법 그럴싸하고 기발하기 까지한 착상을 해내게 되었다.

— 그냥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는 직업

대학이라고 하는거 졸업하고 회사에 몇칠 동안 다니다 그만둔지도 벌써 일년 반이 다 되어가고 그렇다고 취직하기가 누구말대로 쉬워질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학교때 새마을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탄 일도 있지 않은가? 나는 그날로 원고지를 사다가 정식으로 글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어디에도 쓸모없는 나의 일과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을,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는 명화극장이나 토요명화를 빠지지 않고 본 열정 그리고, 하나 덧붙여 제임스 딘의 눈매가 매력있다는것 외에는 -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콤퓨터 영화론」이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글을 쓰게 된 말도 안되는 사실에 대한 내력을 좀더 문화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해 보려는 내 나름대로 꽤 신경을 쓴 의도에서이다.

그 한네라는 선배를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곳은 극장이었다. 그날은 희한하게 낮잠도 안오는지라 궁리 끝에 천원만 있으면 너뎃 시간은 거뜬히 보낼 수 있는 곳에 가기로 마음먹고 집앞 골목 극장에 들어간 것이 참으로 우연히 그 선배를 만났으며 궁극에는 이렇게 책까지 내게된 것이다. 하기는 선배에게는 우연이 아닌 지도 모른다. 그는 고등학교부터 영화에 빠져서 영화감독을 하겠다고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그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외국까지 가서 영화공부를 하고 왔으니 어찌보면 극장을 전전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날은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선배말에 의하면 상당히 괜찮을 뿐만 아니라 꼭 보아야 될 영화를 오랜만에 했기에 오히려 필연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다. 또 하나 그가 삼류극장에 나타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본다. 영화계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은 모르지만 유학까지 갔다왔으면, 반듯하게 옷깃 세울만한 자리하나 쯤 어려울 것은 없을텐데, 그날 선배의 행색은 너무도 초라했던 것이다. 이해야 가지 않지만 아무튼 행색으로야 이런 데가 적격이니 말이다. 그러나 정작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었다.

우리집을 물어물어 오다가 상영하는 영화가 하도 좋은 작품이기에 그냥 지날 수 없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평소에는 안하던 발걸음을 하여 나타났으니, 어찌 생각해 보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글을 쓰게 하려는 신의 조화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선배가, 어느 한 사람 거들떠 보지 않는 나를 어느날 갑자기 찾은 사연은 그 동기부터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그 선배가 무던히도 존경한다는 하길종 감독이 일찍 죽었다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분이 품었던 한을 꼭 풀리라고 청운의 꿈을 안고 외국에 가서는 영화 학원에 다녔다는 것이었다. 그런말을 하면서 창백하게 떨리는 손으로 옆구리에 끼고 있던 꽤 굵직한 종이 뭉치를 꺼내어 펼쳐 보였다. 여러색으로 혹은 부딪치고 얽히는 곡선

들이 그려진 십 미터는 될 정도로 길게 이어진 그래프용지와 시나리오, 그외에 그 시나리오를 분석해 놓은 노트 등이었다.

모두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다음부터 였다. 갑자기 말이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따발총처럼 말했는데

「제작 사무실이라고 해야 연예인 연명부하고, 바둑판과 남비가 전부이며 벽에는 그래도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벌거벗은 여자들 포스터를 붙여놓고 파이프 담배를 뻑뻑 빨아대는 사람들한데 자신의 이론이 어떻게 받아들여 지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도 버텨야 하는데, 자신은 너무 약한 놈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열기가 점점 가라 앉더니 더듬더듬 혼잣말하듯 넋나간 사람처럼 말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대강 그 요지는 이렇다.

고등학교 때 신문에 실린 글을 보고 나의 글 솜씨는 잘 알고 있었는데 요즘 문밖 출입도 안하고 글쓰기에 전념한다는 말을 듣고 나라면 이런 이론을 충분히 흥미 있게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한테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안했다.

내 실력을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더없이 고마운 일이고 사실 이렇다하게 쓸만한 소재도 없는 터에 선배님 부탁이 그렇게 절실하니 못할 것도 없지만 그 말하는 태도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같지 않았던 것이다.

분위기가 하도 어색해서 그 이론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아예 그만두고 궁여지책 끝에 내 나름대로는 위로를 한답시고 연예가 중계에서 들었던 풍월로 요즘 그래도 몇몇 젊은 감독들은 괜찮은 평을 받고 외국에서 상도 타오는 모양이더라고 말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멀리 떠나 버린듯 했다.

서른도 못되었을 얼굴인데도 늙은 사람처럼 주름살이 굵게 패인 이마를 더욱 굳히면서 눈물만 흘렸던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긴 제 정신인 사람이 나를 찾아올 리도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때는 천재 소리를 들었던

인재였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내가 TV를 켜자 제 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잘 있으라고 하며 문 밖에 따라나가는 것도 마다하고 떠났다.

내일 다시 나타나려니 싶어 인사만 꾸벅하고 들어왔는데 정확히 5일 후에 그 선배의 여동생 된다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 선배가 죽었다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서 사흘 전에 시체가 발견되어 오늘 화장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오빠의 책상 속에 내 앞으로 주소가 적혀 있는 부치지 않은 편지가 있길래 가져왔다고 했다. 그날 그 편지를 우표까지 붙이더니 다시 서랍 속에 넣고 그냥 나가더라는 것이었다.

선배인 한네씨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음부터 소개할 그 이론이라는 것과 편지에 얽힌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다.

한가지 덧붙여 책으로 나와봐야 팔리지도 않을 것을 빤히 알면서도, 또 내 글주변을 잘 알면서도 굳이 없는돈을 들여서 이렇게 출판한 것은 아름다운 소설이나 위인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뜻에서 한 것은 아님을 밝혀 두고 싶다.

다음 말만은 꼭 하고 싶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상당히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는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으로 보이는 그 이론을 나름대로 감독을 비롯해서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영화제작에 적용시키기를, 한마디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 것 같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생각 끝에 나를 찾아 온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건 내 생각이지만 그정도 수준인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라면 내용은 차치하고 그 나름대로 중요한 동기나 착상 혹은 의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언젠가 누구인가는 그 연구에서 대단한 실마리를 찾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네씨도 어쩌면 그런 사람, 아니 백마타고 올 초인을 기다리며 내게

부탁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무튼 나로서는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되어 일단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가장 하기 어려웠던, 누구말대로 심중에 새겨진 나의 말을 해야겠다. 언젠가 이 책을 통하여 만날지도 모르는 그분. 한네씨의 연구가 진정으로 필요하게 될 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용서를 빌고 싶다.

「완결된 연구 내용」은 이미 불태워졌다. 벽장에 넣어 두었는데 작년 봄에 어머니가 벽지를 바르면서 못쓰는 벽지와 함께 부엌 아궁이에 넣은것이다. 여기에는 그 편지와 초기 단계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래프와 역시 초안인 듯한 노트에 메모된 시나리오 1부와 분석, 그리고 그분의 동생을 통하여 수집한 그 이전에 다른 작품들을 분석했던 것 등을 싣는다.

다만 이것으로라도 연구를 하는데 기점이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불태워진 「완결된 연구 내용」을 다시 재현해 낼 수 있다면 그리하여 더 연구발전시킬 수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생전에 큰 죄를 더는 셈이 되겠다.

끝으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황인용, 최정식, 유영재, 이귀연, 네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6. 1. 1. 갈월동에서

目　次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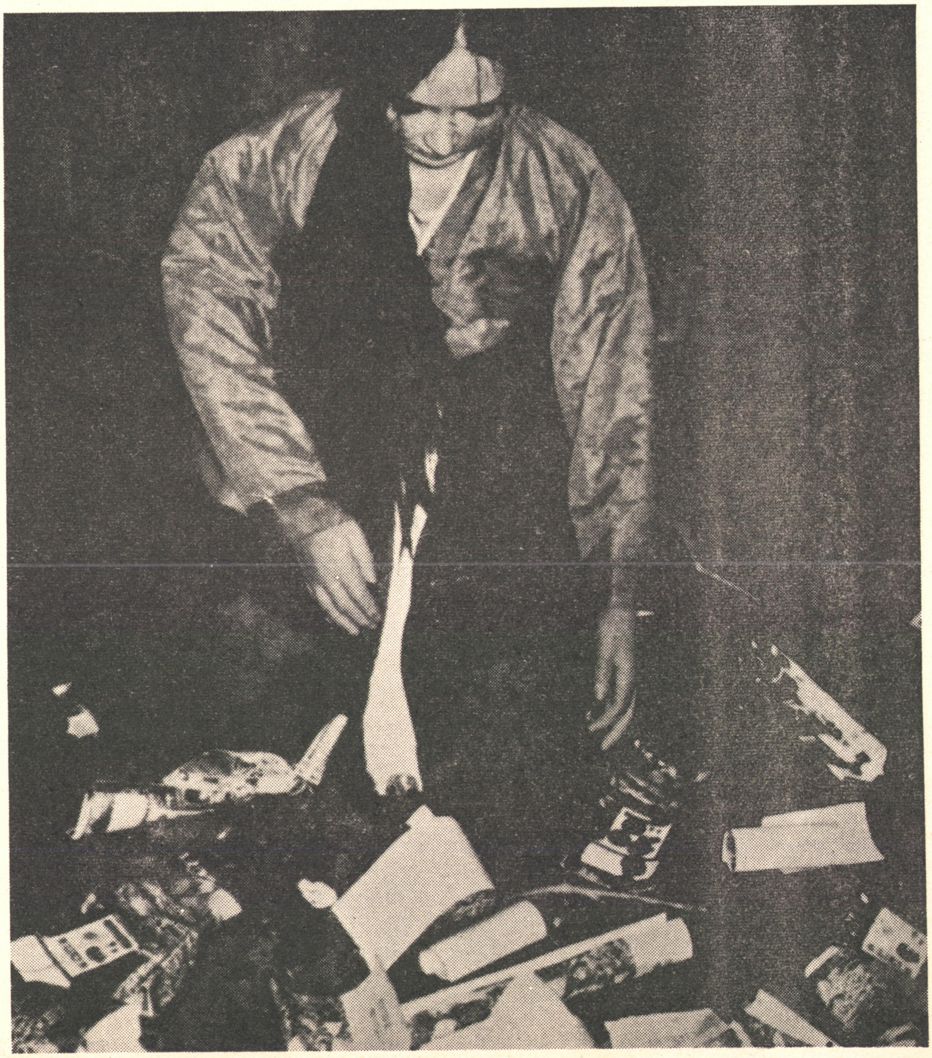
II

Ⅲ

Ⅳ

I

서문
컴퓨터 영화론



한네씨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 그의 여동생.

1. 序 文 (1)

한네씨가 쓴 서문이 두개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서문 (1)은 연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문(II)는 완결된 후에 발표하려 할 때 각각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주-

감독은 자신이 만들려는 작품이 예술성도 높고 흥행도 잘 되는 영화로 제작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같은 이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촬영 전단계인 시나리오와 콘티뉴이티를 위주로 해서 이점을 한국영화의 현시점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영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콘티단계 이전에 관객을 몇 명 정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써 흥행의 보장을 제작자에게 확신시키고 작품이 미비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미리 수정 보완하여 의도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면,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호기심이나 감동을 어느 정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지 미리 시나리오, 콘티 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써 반응 정도를 조절, 조화시켜 의도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거두고 구성, 성격, 분위기, 리듬 등 영화요소들 중에서 잘못된 점들이나 보강할 점들을 미리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

영화가 가지는 구성요소들을 객관적인 표시법으로 시각화 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써 원작자와 감독, 감독과 스텝, 케스트 상호간에 정확하고 능률적이며 빠르게 제작상 필요한 모든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지는데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을 감독이나 제작인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써 좋은 작품이 지녀야 할 모든 요소들을 아낌없이 정확

하게 발휘시켜 최대의 완성도와 작품성과 흥행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바램은 그 해답을 묻기 이전에 해답의 필요성을 먼저 절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화감독의 이상과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그중 한 사람으로 부족함을 무릎쓰고 연구에 착수한바 이제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한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시도에 불과하므로 그 논리전개나 체계 효용성 등의 불안전함은 본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여러분의 아량과 신랄한 비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빌 뿐이다.

序　文 (Ⅱ)

카메라가 개발되기 이전 시대에, 보이는 그대로를 재현해 내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일생동안 그것만을 추구하여 온 노화가가 어느날 자기 앞으로 온 편지 봉투의 칼라사진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심정이 될까? 그는 아마도 그 사진이 어떻게 해서 그처럼 잘 그려졌는지 알아 내려고 이제까지의 모든 작업을 팽개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연구에 몰두하여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습작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 바뀌던 어느 봄날 작은 상자크기의 소포가 왔는데 그 상자안에 카메라와 그 사용법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면, 그리하여 그 사진이 일순간에 찍히며 누구에 의해서건 찍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경우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화가와 같은 경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요즘 물건너 거센 돌풍을 타고 들어와 무섭게 휩쓰는 몇몇 영화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아니 언젠가 그것도 멀지않아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며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곳에서는 낡은 고물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개발한 이후일 것이다. 그리하여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본 이론이 그러한 대세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그 폭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영화제작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좀더 과학화되고 체계화된 그리고 첨단 기술을 도입, 응용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조그만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연구를 읽고 난 독자들에게는 세 가지 타잎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첫째, 타잎은 영화는 타예술에 비해 제작과정 및 규모가 크고 거대한 제작비가 필요하며 표현 매체 및 방법이 복잡 다양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히 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최대한 받아들여 점차 과학화, 체계화, 능률화된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독자이다. 이러한 타잎은 현재의 제작방식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결에 밀려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타잎은 그와는 반대로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우리 영화가 선진영화에 의해서 압도당 할 것처럼 생각하여 완전히 절망에 빠져 버리는 독자이다.

세째, 타잎의 독자는 컴퓨터 영화론이란 영화의 표현 방법 및 기술면에 현실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것임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그 실현이 요원하다거나 선진국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그치지 않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직시하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 그들의 영화에 도전하고 또한 우리의 것을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본 이론은 영화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그리고 본 이론은 뛰어 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그 속에서 머물 성질이 아님을 밝혀둔다.

2. 컴퓨터 영화론 강의

이 내용은 한네씨의 여동생이 오빠가 사망한 후에 가져온 편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한네씨가 외국에 갔을 때 어느 학원에서 들은 「컴퓨터 영화론」에 대한 강의를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

한네씨가 죽기전에 필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려 했다가 왜 설합 속에 다시 집어 넣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내용과 그가 마지막 날 내게 하던 말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보면 이 영화론 강의 내용이 흥행성을 위주로 하되, 동시에 소극적인 의미로 비평가들에게서 악담을 듣지 않는 영화를 제작하는 원리 및 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생기게될 부작용에 대한 염려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내용과 다음 장에서 문답식으로 진행한 영화론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 필자주 -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없애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영화로 가는 길목을 찾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작품이 나올 때마다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고 세계를 휩쓸어 어린아이에서 노인들까지 그 제작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영화계에 오는 사람들의 선망이 되어왔던, 그리하여 대기업이 된 그 제작사의 입심있는 한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映畵街 한가운데에 사설 영화학원을 차려놓고 학원생들을 모았다.

「일급비밀을 공개한다. 십여 년 동안 흥행과 예술 양면에서 불가사의한 역사를 낳게한 비밀, 우리 제작사의 비밀을 공개한다.」

정말 대단한 비밀인지 눈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문 앞에 써 놓았다. 뭔가 혹하는 미심적은 점도 있었지만 그 제작사가 하도 요란하게 세상을 들썩이게 했기에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예상대로 입구의 초라하고 작은 현관과는 달리 안은 대단히 넓었으며, 사람들로 꽉꽉 들어 차있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다름아닌 「컴퓨터 영화론」이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이야 어떻든, 그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리였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그때 기억을 최대한 살

려서 강의 내용을 소개해 보려 한다. 가능한한 그 강사의 좀 선동적이고 건방진 듯한 어조까지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고 메모를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강의가 그렇게 교수 강의처럼 논리적이나 체계적이지도 못하여 전개상 헛점이 많이 있음을 양해하기 바라며 어느 정도 완벽한 정보를 기대하기 보다는 새로운 착상의 기점을 마련해 보겠다는 식의 가벼운 마음으로 대했으면 한다.

강사는 먼저 다음과 같이 전제했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일반영화, 그것도 흥행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싶어하는 영화, 영화제작 단계를 제작준비, 촬영, 완성 과정의 3단계로 대별하였을 때 1단계 중에서도 시나리오, 콘티에 해당하는 영화의 원리 및 근본이 되는 요소, 비록 일부이지만 영화의 전부이기도 한 요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 한다.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기존사고 방식을 모두 버리고 백지상태로 돌아가기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지금까지의 보편화된 이론이나 제작방식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근본 뿌리부터 새롭게 가장 이상적인 원리와 방식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무한한 정보와 지식과 표현기법을 가진 영화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임을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잊지 말기 바란다.」

강의장 내의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라도 하듯 강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으로 눈동자를 반짝이며 강사의 입만 바라 보았다. 강사는 쥬스를 마셨다. 그야말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러분, 일차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마디였다. 「우리는 잠시 중학교 기술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일반제작물의 제작과정에 대해서 학습할 때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하여 배웠읍니다. 이것은 국어시간에 소설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첫째는 그제작물의 부속품이나 단편적인 원리, 분리된 에너지 등 분석 해체된 각각의 요소들의 형태

둘째는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진 형태.

셋째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발휘하는 효용이나 역할, 기능의 형태.

넷째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선택하고 취득하는 자의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강사는 옆에 놓인 TV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치면서 말을 계속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TV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속, 전류 전파와 그것들이 결합된 복잡한 모습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화면과 시청자를 생각해 보십시요. 영화도 그 범주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날 리는 없읍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듯 하여 학원생들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서로 눈빛이 오갔는데 그는 충분히 예상했다는 듯이 덧붙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혹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는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있는 이론이나 제작과정을 잘 살펴보면 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시거든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은 결국 제 말이 맞는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눈빛이 다시 그에게로 몰리자 계속했다.

영화도 그 범주에서 빗나갈 리는 없다고 했읍니다.

첫째는, 영화를 이루는 영화요소의 분리, 분석된 형태

둘째는, 분리분석된 영화요소들의 결합방법 및 결합되어진 형태

셋째는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

넷째는 관객의 반응

이것들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노트에 열심히 기록하는 바로 앞에 앉은 학원생을 지그시 응시하다가 다시 침묵을 깼다.

그러면 이 네가지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이것들의 파악과정과 결과가 흥행성과 예술성이 지극히 높은 영화를 만드

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파악할 때 적용할 기본적인 원리나 법칙, 입장을 말하려는 것 같았다.

기존 제작 방식처럼 시나리오를 먼저 써놓고 감독이나 기타 음악, 미술, 배우 등의 인물들은 소위 창조적인 해석을 통하여 자신의 분야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에서 이미 드라마투르기적인 요소는 굳어져버려 감독이 손을 댄다고 해야 말초적인 부분에 불과할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영상에 의한 번역이 될 것이다. 또한 영화요소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위기, 리듬, 관객의 반응 등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서 후에 감독이 시나리오에 의존하여 작품제작을 할 경우에 이러한 요소는 종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며, 마치 장식품처럼 영화요소 중 변두리에 머물 것이다.

잠시 학원생들의 표정을 살폈다. 아마도 뭔가 의견을 기다렸을 것이며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는 않았다.

컴퓨터, 컴퓨터는 드라마투르기라는 중요한 것을 시나리오작가 개인에게 맡기는 융통성 없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여러 영화 요소중 몇 가지는 먼저 완성시키고 나머지는 후에 부차적으로 하여 절름발이나 볼상 사나운 병신 영화가 되는 짓은 더군다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전지전능하며 현명한 컴퓨터는 여러 영화 요소들을 동시에 함께 착상단계에서부터 몇몇 요소가 부당하게 비대해지거나 추가 되거나 혹은 빠지지 않도록 하여 각 요소가 이상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상호 비교, 검토하고 수정보완 변경하여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원칙이나 입장을 택할 것입니다.

강사가 잠시 쉬고 학원생들을 둘러봤다. 이제는 모두 그의 말을 수긍하는 듯 아무런 경계의 빛도 없이 그를 주시했다.

이제 기본 원칙을 세웠으니 그 원칙을 충실하게 파악해 봅시다. 재언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흥행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높이 갖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십시요. 컴퓨터는 전지전능하고 현명하므로 시나리오, 콘티, 음악, 미술 등 잡다하게 분야를 나누어 여러사람이 제작에 참가하는 비능률적이고 그것도 영화요소들을 인간 다루듯이 주·종 식으로 결합하거나 어설프게 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빚어내는, 현재 대부분의 영화와 같은 비합리적인 제작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돌릴겸,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 고등학교 미술실에 함께 가봅시다. 대입시험을 치루려는 미술반 데생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능숙히 잘 그려내는 일류대를 눈앞에 둔 현명하고 숙달되었으며 재능 있는 저 학생을 보십시요.

그는 비디오로 실제로 미술실을 보여주면서 계속했다.

눈·코·입을 따로따로 완성하거나 선으로 구도를 먼저 잡고 명암을 나중에 일률적으로 넣거나, 분위기를 먼저 잡고 세부 묘사를 한다거나, 톤을 먼저 잡아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처음 백지 위에 한 점을 찍을 때 부터 동시에 함께 생각하면서 어느 단계 어느 시간에 보아도 그 각 요소들 간에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완성까지 끌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읍니다. 그래야만이 구도, 명암, 톤, 분위기, 세부묘사 등 어느 한 요소도 빠뜨려지지 않고, 모든 요소들이 훌륭히 몇몇 요소들에 치우치지 않게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학생들을 주시했다.

영화에 대해 전지전능하며 혼자힘으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컴퓨터는 그 학생처럼 착상단계에서 부터 영화제작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어느 한 부분이나 요소만 먼저 파악하거나 하지 않고 동시에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단계를 1차, 2차, 3차, 4차 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 그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질 때마다 각 요소나 부분을 비교하여 요소들 간에 균형과 조화와 유기적인 결합이 이상적으로 되었는지 점검한 뒤 보완 수정하고 다시 좀 더 완성 단계에 가까와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미리 자신의 몸속에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예술성과 흥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참고, 선택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꽤 중요한 일단락 강의를 마쳤다고 생각되었는지 쥬스를 길게 들이마셨다.

지금까지 제작상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할 때의 기본원칙과 파악과정을 알아봤으니, 다음에는 실제로 어떠한 표현기법과 양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실질적이며 재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이 부분을 위한 진입로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말한 원칙이나 이상들이 꿈으로 머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적용되어 흥행성과 예술성이 지극히 높은 영화를 단들 수 있을 것인 지를 판가름하는 분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첫째는 영화를 이루는 영화요소의 분리, 분석된 형태
둘째는 분리분석된 영화요소들의 결합방법 및 결합되어진 형태
셋째는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
넷째는 관객의 반응

이상 네 가지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먼저 컴퓨터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셋째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컴퓨터는 지금까지 발달되어온 시나리오의 역사를 보면서 시종 눈살을 찌푸렸읍니다. 어느때는 희곡의 모방물처럼 되어가고 어느때는 표면상 드러나는 요소에 얽매여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일부 답답한 감독들은 대사 위주로 써내려지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시나리오의 독자성을 너무 주장하는 나머지 영상은 그 번역을, 해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등, 웃지못할 일들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날, 컴퓨터가 입을 꾹 다물었읍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 이상 현명한 판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컴퓨터는 「에이젠슈타인의 시나리오 형태에 대한 이론」을 꺼내었읍니다.

> 「번호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는 시나리오는 시체수용소에 나란히 눕혀 있는 익사체의 번호와 마찬가지 정도의 역할 밖에는 영화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말하는 영화소설은 본질적으로는 앞으로 이것에 의하여 만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관중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본 영화를 언어에 의하여 재현하여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제까지의 하나하나 번호를 붙힌 기록적인 촬영대본의 형식에는 반대하며, 영화소설의 형식에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청자가 극도로 흥분한 관객이 아닌 영화를 보면서 영화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 해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화의 전문가가 완성된 영화를 볼 때 잡아내게 될 모든 영화 요소들을 미리 상징적으로 동원하여 문자로서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야만 실제 제작상에 충분한 역할을 해낸다고 했으며 덧붙여 가장 무한하고 다양한 표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자가 당연히 그 표현수단의 역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렇게하므로써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의 파악, 작성의 표현양식 및 기법은 해결되었읍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개발해 내는데 진통을 겪게 했읍니다. 흐름, 지속, 갈등, 충돌, 복잡다양, 다층의 변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줄 표현기법과 양식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은 그래프였읍니다. 고저 흐름, 지속되는 성질의 표현에 용이하여 한눈에 비교·판단·분석해낼 수 있는데 유용한 그래프가 보조역할을 할 문자 및 기호, 도표를 이용하여, 영화요소의 분리분석된 형태 및 그 결합방법, 결합된 형태, 그리고 객관반응을 한 양식안에 표현해 내었읍니다.

처음에는 클레쇼프의 시네그래프처럼 어설픈 것이었으며 그 표현영역도 단순함을 벗어나지 못했읍니다.

컴퓨터는 그래프를 주로한 이 표현 방법이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하는데에도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또한 그 어설픈 상태 만으로도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직

접 적용하면서 연구해 나가기로 했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컴퓨터는 그래프를 통하여 인간의 성격, 심리, 구성, 분위기, 리듬, 템포, 관객의 반응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얽히고 얽힌 복잡미묘한 과정까지 시각화하므로써 한눈에 보고 흥행성과 예술성을 높이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방법도 처음에는 그래프간에 또는 그래프의 흐름상에서 상대적으로 고저등을 결정하는 정도였으나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의 수집에 따라 음을 악보상에 정확히 고정시기는 것처럼 수치에 의해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현재의 구경평면좌표에 근축을 도입 표현기법을 입체화시키고 거기에 색체를 도입해서 색상,명도,채도의 관계를 적용하면서 문자에 의한 문학이나 정신분석도 잡아낼 수 없었던 무의식 중에서도 미세하고 미묘한 부분의 정도, 성질, 변화 등을 정확하게 시각화하여 표현해 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강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린 듯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학원생들은 이제 넋이 빠진 듯 했다. 모두 그를 선망의 눈으로 혹은 마술사로 보는 듯 했다. 그는 침묵을 깨면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제작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관객의 반응을 집요하게 연구한데 있읍니다. 그리고 관객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호기심이나 감동을 어느 정도 느끼고 생각하는 지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진척시켜 극장상황 관객심리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황과 비교 분석하여 관객을 몇 명 정도 끌어 들일 수 있을 지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이나 단계도 종래와는 많이 달라졌읍니다. 스텝, 케스트들은 정확하고 능률적이며 빠르게 제작상 필요한 의도를 컴퓨터로부터 전달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흥행성과 예술성을 높이는데 알게 모르게 적용되었고 표현되어야 하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 과거에는 소위 영화감독의 영감이거나,

신비하다고까지 일컬어졌던 표현기법이나 착상 분위기들 까지도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져 그 목적을 달성해내게 되었읍니다.

강사는 여기서 말을 일단 끊었다. 그리고 학원생들을 서서히 고개를 돌리면서 둘러봤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컴퓨터 영화론의 대강의 윤곽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들 중의 대부분은 반신반의할 것이며, 아무러면 그럴수가 하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마십시요. 여러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우게 됨에 따라 그체계와 규모의 정교함과 방대함에 질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강사는 학원생 한명 한명을 응시했다.

왜, 왜, 흥행성과 예술성 양면에서 십여 년 동안 역사를 이루어왔으며, 거대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되었는가? 이점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다시한번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화의 주도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겠읍니다. 이것은 컴퓨터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며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창조 영역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읍니다. 이미 쌓여진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하나 둘 보태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수천만 위에 하나 둘 더해지는 것으로 미세한 진보로 나타났읍니다. 이제 컴퓨터 자신은 다시 인간이 현 상태에서 정보와 지식을 눈에 띌 정도로 발달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것임을 또한 예감했기에 한편의 영화가 나올 때마다 불가사의라고 절찬하면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던 관객들이나 타 제작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로 했으며, 학원을 차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돈벌이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컴퓨터다운 생각이었읍니다.

강사는 여기서 잠시 쉬고 다시 생기있는 어조로 바꿨다.

그러나 여러분은 컴퓨터에 의한 영화 제작방식을 이제부터 배우게 됩니다. 흥행성과 예술성이 높아 떼돈을 벌고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명성도 얻을 수 있는 영화.

생각해 보십시요. 관객들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두세번 봐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흥미가 있고, 내면 깊숙이서 눈물이 나도록 깊은 감동을 주고, 인생에 관한 또는 그 외에 것까지도 무한한 정보와 지식을 주는 영화를 원합니다. 그런 영화라면 수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관객들은 제작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없읍니다. 그 제작자가 그의 개성과 그의 작품세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식의 물음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던 상관없읍니다. 흥미와 감동과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라면 관객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들고 극장으로 몰려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컴퓨터에 의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동안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며 상상력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흥행성과 예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흥행성과 예술성에 기여하는가가 여부입니다.

강사는 어투를 바꾸어 혼잣말하듯 계속했다.

숱한 사람들의 생각이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포처럼 변형되고 결합될 것입니다.

컴퓨터는 선택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영화들을 분석하여 공통점이나 혹은 특별한 점들을 계열별로 분석하여 아직 가능성이 있는 예술성이나 흥행성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었다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판단하고 제시할 것입니다. 슬픈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면 어떤 식의 구성이 있고 기존 영화에서는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식의 상황설정, 성격, 갈

등, 구성 방법이 있는지 수천 수만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것들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몇 가지를 동시에 내놓아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해주므로써 현명한 판단을 해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별의 방법도 마찬가지 수천 가지 자료와 기존 영화의 장면들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지전능한 컴퓨터 앞에서 인간은 버튼을 누르며, 여러 날 동안을 고민하여 생각해 낸 단세포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만 하면 됩니다. 그 지식과 정보는 이미 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정보, 지식위에 한 개를 더 추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할 것입니다.

학원생들은 점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강사가 후반에 와서 어투가 혼잣말하는 식으로 바뀌더니 점점 논리가 없어지고 횡설수설하는것 같았으며, 이제까지 제법 자부심을 가진 듯한 짜여진 태도에서 점점 어딘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뭔가 조급한지 옆쪽과 출입문 쪽을 자꾸 두리번 거렸다. 학원생들은 그에게 동정하는 눈초리까지 보냈다.

그러나 ………

가까스로 내뱉고 다시 침묵을 지켰다. 출입문 쪽을 다급하게 보더니,

아무래도 좋습니다. 흥행성과 예술성이 높은 영화가 탄생되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끝냈다. 다시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 두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요. 제 이름을 기억하십시요.

칠판에 이름을 적었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그리고 그 간판도 간데 없고 그 넓은 곳은 무용 강습소로 바뀌어 있었다. 제작자는 여전히 건재했고 그리고 우리는……………

Ⅱ

원리와 특성

컴퓨터 영화론에 대해서 문답식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전에 언급한데로 완결본은 분실되어 역시 초안을 싣는다.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 그리고 질문에 빗나간 답변, 자료의 불충실 등이 몇몇 곳에 보이기는 하지만 컴퓨터 영화론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별달리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필자주—



3. 컴퓨터의 원리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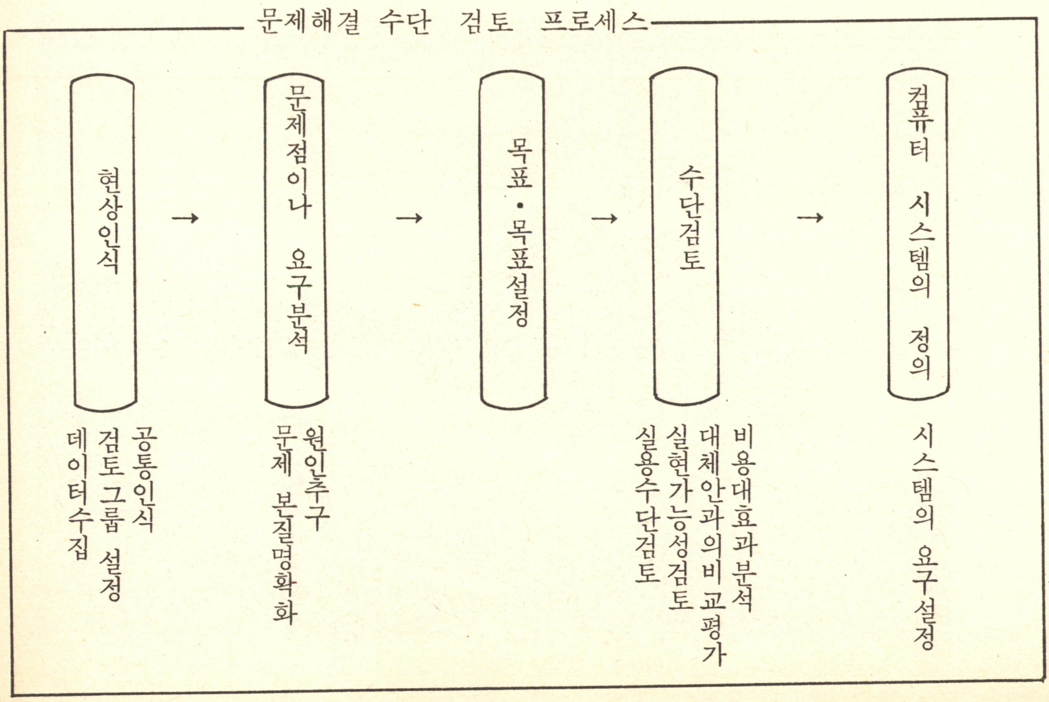
컴퓨터영화론과 밀접하게 관련된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첫째, 컴퓨터는 반드시 명백한 해결목표를 가진다.

컴퓨터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다. 각 조직이 안고 있는 현상 문제점이나 요구를 분석,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을 추구해 그 해결목표를 명확하게 한다음 해결방법을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그 결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정의짓게 된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므로써 제작 구성원들의 동일한 지향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 예는 창작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계획단계」작업 역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목표에 의해서 통제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개인의 개성이나 의지는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목표에 접근하고 달성할 수 있는가가 유일한 기준이 된다.

둘째, 컴퓨터는 반드시 모든 대상과 요소를 분석하여 통제, 처리 가능한 상태로 단순 명료하게 유형화시킨다.

「고유의 명령」의 형태, 코드번호에 의한 처리, 프로그래밍 언어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컴퓨터는 제각기 고유의 「명령」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명령의 종류나 수는 컴퓨터마다 다르며 30종류 정도의 명령만 갖고 있는 것부터 300종류 이상의 명령을 갖는 것까지 여러가지이다. 프로그램이란 그와 같은 명령들을 처리 목적에 맞추어 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각 개인별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그와 같은 번호, 즉 코드번호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데이터를 코드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① 자연언어에 의한 명칭은 너무 길어 코드화하는 것이 행수를 줄이거나 맞출 수 있다.

② 원래 漢字인 인명, 품명등을 영자로 바꿀 수가 있다.

③ 코드의 각행에 의미를 넣어 부가기능을 붙일 수 있다.

④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화 할 수 있다.

코드화를 할 때 유의할 일은 필요의 최소한만 코드화를 할 것. 장차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해가며 코드를 설정할 것 등이다.

컴퓨터를 사용해 무엇인가 처리를 하려고 할때 사람이 그 요구를 컴퓨터에 전달하는 수단은 일종의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과 컴퓨터에 모두 통할 수 있는 공통언어인데 현재 여러가지 언어에 쓰이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의 명령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형이 그 명령 자체이다. 이것은 기계고유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어(machine language) 라고도 한다. 그러

나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매우 치밀해야 하고 틀리기 쉬워 가산은 ADD, 감산은 SUB등 명령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표현 할 수 있는 언어나 더욱 알기 쉽게 산술식이나 일상언어에 가까운 문장적 표현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 계산용 FORTRAN 이나 사무계산용 COBOL, 퍼스널 컴퓨터용인 BASIC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가 각 컴퓨터 고유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표준어라는 뉘앙스로 여러가지가 쓰이고 있다. FORTRAN이나 COBOL은 소위 컴퓨터회사에서의 에스페란토(Esperanto)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도 표준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어를 그대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는 없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어뿐이다. 따라서 FORTRAN 이나 COBOL로 쓰인 언어를 기계로 번역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진다. 이것이 言語處理프로그램이다.

유형화 시킬 수 없는 요소들은 컴퓨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컴퓨터는 최대한 모든 대상을 유형화시켜 자신의 세계 안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세째, 컴퓨터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한 처리방법 및 형태 과정을 가진다. 다음 예시하는 소프트웨어 작성공정은 컴퓨터가 자신의 세계 안에서 완벽한 완전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 요구의 사양화

계획단계에서 검토된 요구사항을 사양서로 정확하게 기술한다. 이 요구사양서는 그 후의 설계, 제조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요구사양에 대한 고객측과 작성자측의 상호확인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작업이 개시되는 일이 많아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만일 소프트웨어 작성작업 개시이후 요구사양을 변경한다면 그처럼 큰 생산성·신뢰성 저해요인은 없다.

② 시스템 설계

설계단계를 레벨별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말하자면 「무엇을」

하는가를 정하는 단계와 「어떻게」할지를 정하는 단계로 나누어 이경우 전자를 기능설계 또는 외부설계, 후자를 내부설계라고 부른다. 또한 개략적인 레벨과 세분된 레벨은 개요설계와 정밀설계로 나누어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의 기능을 의식하지 않는 레벨을 논리설계, 대상 하드웨어에 맞도록 구체화한 레벨을 물리설계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③ 프로그램의 설계

프로그램 설계는 설계의 최종단계인 동시에 프로그래밍의 최초 단계이다. 시스템설계의 결과를 받아 더욱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분할, 최종적인 모듈구조와 각 모듈의 처리내용을 결정한다.

옛날 컴퓨터에서는 대체적으로 메모리의 제약이 크고 될 수 있는한 적은 스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이었다. 따라서 한 스텝이라도 적게 농축된 코팅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기발한 것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될 수 있는대로 알기쉽게, 다른 사람이 읽어내기 쉽게될 수 있으며 미리 로직의 기본 패턴을 몇가지 표준화시켜 놓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코딩이 좋은 것이 되었다. 즉 코딩의 독창성을 오히려 배제하고 표준화로 균질성이나 평이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④ 코 딩

코딩이란 설계결과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일종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코딩작업은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에 완전 의존하며 될 수 있는한 고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테스트

코딩이 끝나면 일견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이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프트웨어 작성이라는 것은 책상 위의 작업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그 후에 테스트라는 큰 일이 남아있다.

프로그램 테스트란 코딩이 끝난 프로그램을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안에서 가동을 시켜 정말 바른 프로그램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다. 테스트 데이터는 설계내용에 따라 작성되지만 프로그램안에서 짜여지는 연산논리나 제어논리가 모두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이다.

⑥ 도큐멘테이션

도큐멘테이션이란 소프트웨어에 관한 도큐먼트, 즉 기록문서를 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나와 도큐멘테이션 작업자체가 프로그램작성이 모두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작업처럼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도큐멘트의 대부분은 그 작성작업의 일부로서 요구를 정의하는 것이나 설계부터 코팅 테스트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각각 작성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는 자신이 움직이고 작업을 진행하는 명백한 결합원리와 방법과 그 표현방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컴퓨터와 영화의 원리 및 특성을 그 주체 및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컴 퓨 터	영 화
ㅇ프로그램 이후 작업은 그 누가 처리해도 결과는 명백하게 동일하다. -목표 및 과정, 표현기법이 완전히 객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상은 개체의 독창성(개성)을 떠난다.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창작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ㅇ컴퓨터의 프로그램 이후의 작업은 과정 및 방법이 명료화되어 동일한 결과를 향하게 한다.	ㅇ착상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제작자가 변경되면 작품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목표과정이 완전히 객관화 유형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창작은 착상에서부터 완료까지 계속됨을 의미한다. ㅇ예술가는 완성될 작품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하는 과정을 명료하게 타인이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해 내지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과정의 작성이 가능함을,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못한다.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제작 구성원들의 동일한 지향을 가능케 하는 명백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제작 구성원들이 누구나 처리, 통제할 수 있도록 제작과정, 방법이 명백하게 객관화 되어야 한다.

셋째, 표현기법이 구성원간의 상호 의사교환이 가능하도록 객관화, 유형화 되어야 한다.

넷째, 구성요소들이 처리, 통제, 결합 가능한 상태인 유형화가 되어야 한다.

이상 네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두 제작 구성원들 간에 공통분모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영화속에서 공통작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관객을 포함한 제작 구성원들간의 공통분모적인 요소의 확대가 역시 필요하다. 즉 목표면에서는 제작구성원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는 동일점인 동시에 관객 모두가 향수하게 하는 관객의 공통분모 역할을 하는 것을 뽑아야 한다. 표현방법, 과정 면에서는 제작구성원들 사이의 공통분모 역할을 하는 표현기법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화표현기법이 구성원간의 상호 의사교환이 가능하도록 객관화 유형화되어야 한다. 영화요소들이 처리, 통제, 결합 가능한 상태로 유형화 되어야 한다.

4. 컴퓨터와 컴퓨터 영화론의 비교를 통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라

<table>
<tr><th>구 분</th><th>컴 퓨 터</th><th>컴퓨터영화론</th></tr>
<tr><td>제작 및 처리 과정상 기본적으로 파악 제시되어야 할 사항</td><td>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되나 하드웨어는 이미 거의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작업이 주가 된다.</td><td>촬영전 단계에서도 기술, 기계, 실무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닌 원리적인 작업이 주가 된다.</td></tr>
<tr><td>내 용</td><td>소프트웨어작성에도 다른 업무처럼 계획, 설계, 제조, 검사의 4단계가 있다. 물론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공정범위나 공정세분화의 레벨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작성 공정의 표준적 모델가운데 하나이다.
<table>
<tr><th>단 계</th><th>공 정</th><th>내 용</th></tr>
<tr><td>계 획</td><td>시스템계획</td><td>현상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이 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사양서를 설정한다.</td></tr>
</table></td><td><table>
<tr><td>단 세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td><td>완성될 영화를 문자, 기호, 도표, 그림, 음등을 사용하여 완성될 영화에 최대한 가깝게 간접적으로 재생하므로써 명확한 제작목표를 가진다.</td></tr>
<tr><td>영화요소의 유형화</td><td>영화가 가지고 있거나 영화제작상 필요한 모든 요소를 분석하여 통제, 처리 가능한 상태로 단순명료하게 유형화 시킨다.</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컴 퓨 터</th><th>컴퓨터 영화론</th></tr>
<tr><td>내 용</td><td>
<table>
<tr><th>단계</th><th colspan="2">공 정</th><th>내 용</th></tr>
<tr><td>설계</td><td colspan="2">시스템설계</td><td>사양을 충족시키는 기능 성능을 가진 정보 처리 시스템의 처리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구조, 입력, 출력, 데이터 조작등 모든 요소를 설계한다.</td></tr>
<tr><td rowspan="2">제조</td><td rowspan="2">프로그램 작성</td><td>프로그램 설계</td><td>각 기능마다 프로그램을 분할하거나 상호 연결짓는 등 프로그램 구조를 정한다.</td></tr>
<tr><td>코딩</td><td>설계결과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상세한 순서로 기술</td></tr>
<tr><td>검사</td><td colspan="2">테스트
○단체테스트
○결합테스트
○통합테스트
로 세분화</td><td>작성된 프로그램의 틀린 곳을 검출, 정정하는 시스템 전체가 잘 가동하는지 검사 확인한다.</td></tr>
</table>
</td><td>
<table>
<tr><th>단계</th><th>내 용</th></tr>
<tr><td>영화요소의 결합, 방법 결합된 형태 파악 제시</td><td>영화가 가지고 있거나 영화제작상 필요한 모든 요소를 문자와 도표, 기호, 그래프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방법, 과정 및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파악제시한다.</td></tr>
<tr><td>관객의 반응 정확한 예상</td><td>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 및 영화감상중 장면장면 마다에 가지는 관객의 심리적 반응을 다량의 데이터를 고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명확하게 파악 제시한다.</td></tr>
</table>
</td></tr>
</table>

구 분		컴 퓨 터	컴퓨터 영화론
작업과정 및 단계		○작업진행 역시 계획→설계→제조→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는 반드시 해당단계가 완결된 후에 넘어간다.	○컴퓨터와는 달리 예술창작의 특수성으로 해서 미술의 데생작업처럼 네 가지를 착상단계에서 완결까지 동시에 진행시킨다.
다른점	작업과정 및 단계	〃	〃
	창작의 영역	○하드웨어는 거의 결정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도 작성자의 창작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영화는 그 내용(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과 표현매체의 복잡성으로 해서 작성자의 창작의 영역이 거의 무한대이며 컴퓨터 영화론을 아직 적용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많아 과거의 창작법 및 과정을 도입 보완해야 한다.
공통점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 ○명확한 목표달성이나 작업진행상 필요로하는 요소들을 단순 명확하게 유형화 시킨다. ○작업 진행상 필요로하는 요소들의 결합방법, 과정 및 형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시킨다. ○다량의 데이터를 고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성을 사용한다. ○표현방법으로도 도표, 기호, 그래프, 문자등 주로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한다.	

5. 영화 제작상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져야 할 것들

(1)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

완성될 영화를 문자, 기호, 도표, 그림, 음, 등을 사용하여 완성될 영화에 최대한 가깝게 간접적으로 재생하므로써 명확한 제작목표를 가지게 한다. 영화가 본래 가지고 있거나 영화제작상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의 총집결이며 동시에 그 집결된 정보와 지식의 결합방법과 과정과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며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 조직체인 완성될 영화의 분신으로써 그 자체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에 대한 또는 영화감상시 그 장면 장면마다에 나타내는 관객의 심리적인 반응을 포함하며, 작품을 평하는 비평가의 눈이 그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형태를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이라 한다.

과거 전문인의 독자성을 인정했던 제작과정의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시나리오작가, 연출가, 카메라멘, 조명, 편집, 음악, 미술, 배우, 관객, 비평가등 모든 영화관련자,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모두 수렴되어 그대로 모두 하나의 종합된 형태로써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은 제작의 지향점과 영화요소들을 결합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원칙과 원리와 기준을 제시해 준다.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자신들이 가진 영화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모두 제공하고 컴퓨터가 제시하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영화요소, 표현방법 및 과정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떠한 표현방법이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가장 다양하고 무한한 표현능력을 가진 문자가 당연히 그 표현수단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에 의한 제작방식이 실현되는데에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수용하고 선택자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며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능 및 성능을 직접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컴퓨터 영화론의 특성 및 원리를 현 영화 제작방식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지대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영화를 이루는 요소들의 분리, 분석된 형태

과학자들은 왜 사물을 끊임없이 쪼개고 분석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무엇을 찾으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본요소 즉 그것이 입자와 원리와 힘이라면 그것들의 성질이나 특성을 앎으로써 그 사물을 이해하거나 그것들을 조절, 통제,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 의해서 새로이 그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명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영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성과 성질이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

영화가 본래 가지는 요소나 영화제작상 필요한 요소는 실로 그 수나 양을 헤아릴 수 없다.

작품의 제작의도, 주제, 내용, 형식, 연출자, 배우, 촬영기사, 미술장치가, 음악 작곡가, 관객, 비평, 인물과 배경, 화면효과, 공간, 시간, 분위기, 리듬, 템포, 영상, 몽타쥬, 음, 다이얼로그, 화면묘사, 카메라의 표현심리, 온도, 인물의 의도, 주요동기 유발력, 명백한 목표, 행동, 운동반응, 내적긴장, 표현반응, 감동 등.

영화의 본질과 내용과 형태에 접근하려는 숱한 언어와 시도와 관점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는 빙산처럼 일각을 보일 뿐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깊으며 복잡성을 지닌 영화나 영화제작 과정을 분리분석하여 그 요소들을 통제, 처리, 가능한 상태로 단순 명료하게 유형화 시키려 한다는 것은 그 착상부터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다.

그런데 위와같은 현상은 현재 영화제작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은 실제로 영화를 제작해 내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제작시스템의 도입, 전문가에 의한 분업식 작업영역 할당, 시나리오, 콘티, 씬별조견표, 장면분할표 등의 표현방법 및 양식등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위와같은 제작방식이나 표현방법 및 양식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성 또는 작성되었으며 영화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 어느 요소들을 택하여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경험이나 사고를 통하여 추출해낸 영화 본래 모습의 단면도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요소들은 영화 본래 모습의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으나 이를 통하여 영화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제작할 수 있는 창구이며 열쇠이며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가 드라마투르기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요소를 다루며, 분위기, 리듬, 템포, 시간, 공간, 영상, 몽타쥬, 카메라 시점 등이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영화나 영화제작상 필요한 요소들을 단순명료하게 유형화시킨다 함은, 그 대상이 바로 단면도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유형화될 수 있는 것들에 한한다 하는 전제가 붙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 영화론는 그 대상이나 통제, 처리방법을 더욱 확대하고 효율화시키려 앞으로도 가속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3) 분리, 분석된 영화요소들의 결합방법 및 결합 되어진 형태

영화가 가지고 있거나 영화제작상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문자와 도표, 기호,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방법, 과정 및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써 파악 제시한다. 이러한 역할는 음악에 있어서 악보, 기계제작에 있어서 설계도, 컴퓨터에 있어서 프로그램 등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 영화는 영화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요소들의 결합되는 원리와 결합된 상태를 앎으로써 요구하는 흥행성과 예술성에 맞게되어 있는가를 판단,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완성될 영화의 모순,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을 발견되게 하여 좀더 이상적이고 바람

직한 방향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한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방법, 과정 및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제시한다 함은, 그 목적이 인간이 그 모든 방법, 과정 및 형태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통제, 처리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전장과 같은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수천년에 걸쳐서 철학, 문학, 예술등 온갖 분야와 인물들이 연구하고 표현,이해하려 해왔어도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는 삶, 인간의 심리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표현매체 역시 종합예술이라 표현되리만큼 다양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와 영화제작상 필요한 요소들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컴퓨터 영화론은 전장과 똑같은 방식의 답을 하게된다. 단면도 역할을 하는 부분, 원리, 법칙, 관계 등을 유형화 시킨다는 이론이다.

그 표현방법으로는 문자, 그래프, 기호, 도표, 색체,음 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용이한 영역을 표현하게하므로써 그 표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다.

흐름이나 변화로써 파악되는 분위기, 리듬, 템포 등의 그래프와 기호 등을 사용하고 x,y의 그래프에서 z축을 도입한 입체좌표를 연구하리라. 색상, 명도, 채도의 미묘하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서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판단해 낼 수 있는 색체의 도입, 활용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나 현상을 가장 용이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문자는 시각상 또는 처리, 통제상 효율적이지 못하여 도표나 기호 등이 해내지 못하는 영역을 표현하므로써 보조하는 영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역시 컴퓨터 영화론은결합방법 및 과정, 원리, 형태 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수단을 가속적으로 개발해 갈 것이며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4) 관객의 반응

영화감상시 혹은 이후에 영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관객의 심리작용 전부

를 포함하며 그것이 곧 작품제작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관객반응을 다각적이고 충분하며 정확하게 미리 파악할 수 있음은 그 제작 목적, 궁극적인 지향점, 결과를 미리 점치고 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제작단계에서 모든 요소를 수정,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영화는 관객심리 내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표현매체라 하리만큼 영화의 본질은 타예술에 비해 월등하며 감상자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현매체와 인간심리 사이의 「신인농형농성」등의 특성에 의해서 영화의 표현매체는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객의 심리적 반응을 제작단계에서 부터 파악하고 제작의 필수요건으로 삼는 일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제작비의 거대한 규모로 해서 관객동원이 중요시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 두말할 것도 없이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는 관객에게 보여지게 되며, 관객은 이것을 감상·비평하게 되다. 모든 예술의 이와 같은 작품과 관객 독자, 또는 청중과의 관계는 영화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영화는 다른 자매예술보다도 방대한 반응이 감상과 비평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
> 그러면 관객에게 그와 같은 방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감상과 비평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감상자 자신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며, 또 관객의 반응을 안다는 것은 영화예술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
> (이영일, 영화개론. 한진출판사. 1984. p.247)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 역시 그와같이 복잡 미묘하고 방대한 관객의 반응 중에서 단면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요소를 어떻게 추출 선택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유형화시켜서 실제제작에 적용 응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점에서 다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해내는 능력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가 특히 유용하리라는 것이 컴퓨터 영화론의 입장이다.

반응정도, 변화 등은 그래프가 그 표현이 용이하므로 그래프를 위주로하는 연구를 진행시킬 것이다.

초기에는 그래프의 굴곡, 선의 모형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 약속 단계에

서 출발할 것이나 점차 표현방법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 중요한 심리적 요소들은 음을 악보에 고정시키듯 정확히 절대치 기준을 두어 고정시키게 될 것이다.

6. 영화 제작상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져야 할 것들의 표현방법

(1)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을 지향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이 경향은 특히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다음은 한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나리오의 위치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의 원인은,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촬영대본이 되기때문이었다. 시나리오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영화 제작의 실정이 되었다. 초기에는 만들어질 영화의 이미지가 이미 감독의 머릿속에 있고, 시나리오는 그 메모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 오늘날은 먼저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감독이나 배우는 물론 모든 스텝과 캐스트로 나누어져서 작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되었다. 한 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스텝이나 캐스트의 각 파트는 먼저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자신의 파트를 전심으로 연구하며, 이것이 또한 실제의 촬영에 있어서 종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나리오를 흔히 건축에 있어서의 설계도에 비교하였던 것이다.

둘째의 중요성의 원인은 앞의 것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것이다. 한 편의 시나리오는 촬영의 대본이면서, 또한 만들어질 영화의 정신적인 방향, 예술적인 모든 가치를 미리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주제와 내용과 형식까지도 가지고 있고, 모든 스탭과 캐스트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하루 하루 더해가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영화의 원작은 시나리오라고 말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작가나 감독이 한 편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만들기 위하여서 몇 년씩이나 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에서 시나리오에는 개인의 상상력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

시나리오의 암시에 의하여 감독은 콘티뉴이티를 짜게 되고, 연출과 커팅을 하게 되고 몽타쥬도 하게 된다. 이것은 배우나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시나리오는 영화의 원작이며 설계도이다. 소위 원작소설이나 방송극은 영화에 있어서는 하나 소재에 불과하다.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일, 영화개론 한진출판사 1984. p.129)

그러나 시나리오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과거 한 개인이 촬영 대본을 만들고 연출을 하던 체제에서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분화되는 분업체제가 나타나 감독의 창작영역은 좁혀졌으며 그로 해서 「창조적 해석」을 내리는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일반의 문학독자나 영화관객은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인상적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이미 한 작품이 그것으로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재창조하는 과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은 시나리오를 읽거나 원작을 읽을 때에 일반 독자나 관객과 같이 인상적인 해석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은 문학적 시나리오를 다시 영화화면으로 옮겨야 하므로, 어디까지나 창조적 해석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은 어디까지나 작가이지 관객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품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제를 더욱 잘 표현하며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잘 묘사하게 되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해석이 영화를 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해 준다. 주제, 사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여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미세한 모든 극적 분위기와 화면디테일에 창조성이 미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영일, 영화개론. 한진출판사. 1984. p.201)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완성될 영화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게 된다.
－작품의 내용, 주제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누구의 작품이라고 해야 하는가?
－우리는 시나리오작가와 감독이 분화될 경우 감독의 작품세계를 논할 수 있는가?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대별할 때 감독는 결국 형식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래 개인예술에서는 부딪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닥쳤으며 이로 해서 영화작가와 감독을 구분하는 등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구분도 생기게 되었으며 창조영역이라는 개념이 문제시 되었다. 또한 시나리오가 영화의 전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드라마트루기적인 요소들 위주로 작성됨에 따라서 다른 영화 요소들은 먼저 결정된 요소에 부차적으로 맞추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시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에이젠슈타인의 반론은 이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번호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는 시나리오는 체수용소에 나란히 눕혀 있는 익사체의 번호와 마찬가지 정도의 역할밖에는 영화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말하는 영화소설은 본질적으는 앞으로 이것에 의하여 만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관중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본 영화를 언어에 의하여 재현하여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제까지의 하나하나 번호를 붙인 기록적인 촬영대본의 형식에 반대하며, 영화소설의 형식에 찬성하는 바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에이젠슈타인은 시인의 번호도 구분도 없는 연속체의 소설과 시나리오를 같은 형태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일, 영화개론. 한진출판사. 1984. p.139 ~ 144)

씬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영화요소 중 드라마투르기적인 요소를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분위기, 리듬, 템보, 문학적인 풍만감 등 영화적인 요소는 약해지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이라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 에이젠슈타인은 좀 더 많은 영화요소를 포함하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했던 것이다.

결국 에이젠슈타인의 이상은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 현단계에서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에 가장 접근하는 표현방법은 무엇일까?

청사진은 영화의 전 요소를 수용하려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하여 문자가 그 표현수단으로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실제로 그 표현된 양은 상상외로 방대할 것이며 시나리오의 산문체로는 모두 소화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영화론은 두 가지 양식을 제시하게 된다. 그 하나는 종래 시나리오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객의 반응을 포함시키며 희곡에 가까운 현재 스타일에서 소설에 가까운 스타일로 전환하여 드라마투르기 위주로 작성하는 양식이며 다른 하나는 영화적인 요소를 위주로하여 서술한 작가의 의도라는 양식이다.

그러나 다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을 한 양식안에 소화시키게 될 것이다.

(2) 작가의 의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하여 그 개념 및 표현방법을 알아보자.

o **작품내용**: 제임스 딘이 출연하는 「이유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과 애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음산한 집 정원에서 뛰노는 장면을 예로 택한다면 그런 장면에는 불량아들이 제임스 딘에게 「해」를 주기위해 그 건물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해 오는 것이며 그 후장면에서는 그들이 들이 닥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o **작가의 의도(I단계)**

- 사춘기 남녀의 청순하고 뜨거우며 생명감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 제임스 딘의 파괴적인 성격과그녀의 뭔가에서 풀려난 듯한 발랄한 성격을 나타내고 싶다.
- 전장면의 불량아들의 추적에서 느껴졌던 불안, 의혹감의 흐름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지속시켜 그들이 들이닥치는 데까지 연결시키고 싶다.
- 그러므로써 들이닥칠 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복선의 역할을 하게 하고 싶다.

— 구성상 이 장면이 절정으로 치닫는 고비에 있는 만큼 긴박한 리듬감을 지속시키고 싶다.

o **작가의 의도(Ⅱ단계)**

— 위와 같은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 공간을 음산한 장소로하므로써 죽음, 폐허 등과 대조, 사춘기 남녀의 발랄한 생명감을 부각시킨다.

· 불안, 의혹감의 지속과 남녀의 청순하고 발랄한 사랑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남녀의 행동 및 성격 등은 생동감 있고 발랄하게 처리하되

첫째 그들의 행동 속에서 불안감을 조성시키며(숨박꼭질, 잡다가 넘어진다. 평행봉 위에서 한 발로 서기 등)

둘째 긴박감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음, 역시 같은 효과를 내는 High Angle의 카메라 각도로 처리한다. 또한 이에 의해서 긴박한 리듬 효과를 거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가는 그 장면이 구성, 인물, 성격, 내용, 리듬, 분위기 등의 면에서 필요하거나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간,공간의 설정, 인물의 대사, 행동, 음, 카메라 등의 결합 방법과 그 강도 등을 제시하게 된다.

작가의 의도란 작성시 실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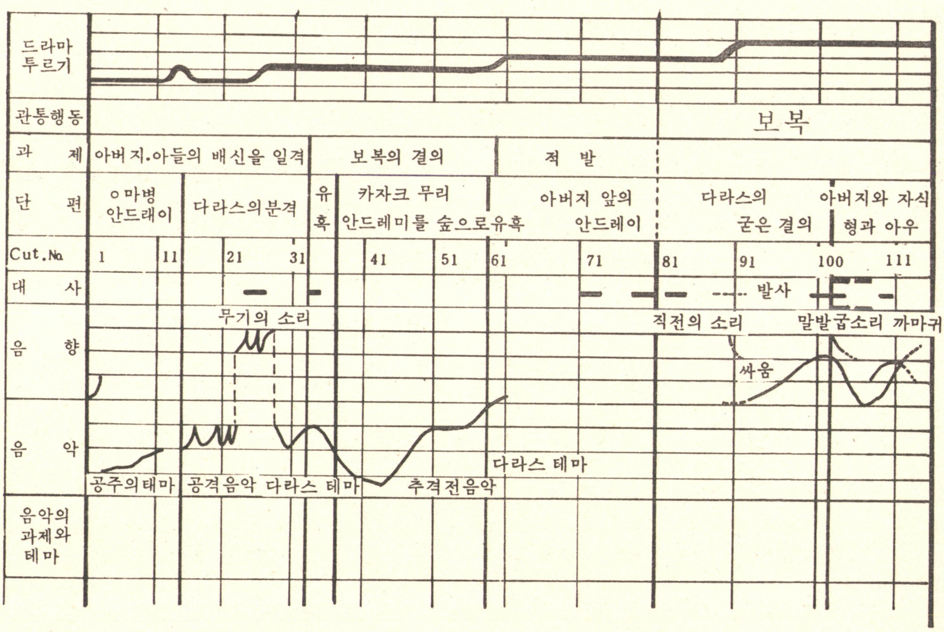
첫째, 필요하거나 의도하는 효과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강조 하고 싶거나 혹은 간과하기 쉬운 요소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 필히 기록해야 한다.

둘째, 시간 공간의 설정, 인물의 대사, 행동, 음, 카메라 등의 실질 적인 요소의 결합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하게 되나 그 구체적인 결합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바로 감독, 카메라, 음악 등 전공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3) 영화요소 및 그 결합 방법, 결합되어진 형태

영화요소 및 영화제작상 필요한 요소들 사이의 포함관계 및 구분, 명확한 특성, 상호 관련성, 결합관계 등의 파악 등은 지금까지 영화이론가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그 표현수단 및 방법, 유형화 작업 등은 거의 발전이 없는 상태여서 시네그라프나 콘티에서 약간 그 시초를 보일 뿐이다.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콘티는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화면 단편을 위한 설명이었다. 콘티 그래프는 이와 같이 세밀하게 분할·재단된 화면 단편이 그 성질과 기능에 따라서 시인과 시퀴엔스로 집합이 되어서 극적인 흐름을 예정한 효과로 통일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콘티 그라프의 형식과 실제를 쿨레쇼프가 예시한 〈대장 부리바〉의 최종 시츄에이션에서 보기로 한다.



그 주요한 원인은 개인예술의 상태(감독 위주의)에서는 기존 시나리오 콘티, 원시적인 시네그라프 이상의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 있는 것 같다.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가지면 오히려 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컴퓨터 영화론에 근거한 컴퓨터의 원리, 특성, 기능, 성능 등의 도입활용은 인간의 가능성을 훨씬 넓히게 되었으며 그에 맞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 컴퓨터의 흐름도나 프로그램 전자제품 등에서 볼 수 있는 회로도,
— x y 평면좌표나 x y z의 입체좌표 위에 그래프와 기호에 의한 표현,
— 색상, 명도, 채도의 미묘하고 다양한 속성을 가진 색채의 도입 등은 현재 사용되거나 예상되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활용은 기존 수많은 영화들에서 사용되었던 영화요소들의 결합방법, 과정, 형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그 예로 제시해 줄 것이다.

컴퓨터 영화론은 현 영화현실에서 가장 초보적인 그러나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영화요소를 드라마투르기적인 요소와 영화적인 요소로 대별하여 그래프 위주로 기술하는 표현방법이다.

A. 드라마투르기적 요소

○ 드라마투르기적 요소의 단면도 역할을 하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인물의 심리적 의도(이상, 명백한 목표, 주요동기 유발력)와 주로 그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갈등요소, 그리고 심리적 의도와 갈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물의 현실, 이상 세가지가 동시에 파악된 상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파악할 때 등장인물의 세 가지 면을 그래프화 하므로써 상호비교에 의해 극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된다. 여러명이 등장할 경우에는 그 영화가 누구의 시점을 통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구제적인 예를 살펴 봄으로써 사실을 알아보자.

○ 어느 상황 속에 다섯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 A의 시점에서 극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C . D . E는 각각 B의 누나. 동생. 아버지이고 A는 B의 절친한 친구이다. 나는 실연으로 괴로움을 당하

하고 아버지는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으며 A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경우 B의 갈등은 C+D+E가 되며 A는 B와 우정으로 결합되어 곧 A의 갈등요소는 (C+D+E)+B+가난이 된다. 물론 이 경우 결과는 숫자의 더하기처럼 1+1=2식의 가산법이 아닌 상황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나타난다.

- 그래프의 고저는 다른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심리의 정도와 비교, 또는 동일선상에서의 다른 상황과의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음을 악보에 정확히 고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이나 인간심리에 대한 측정기준이 성립되면 수치에 의한 고정이 가능하겠으나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B. 영화적인 요소

- 시공간 예술로서의 특성과 영화만의 특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 요소들 사이의 명확한 구분, 인간관계, 포함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매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의 단면도 역할을 하는 요소나 원리, 제작상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므로써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관객의 반응

관객의 비중이 작품제작 단계에서 영화만큼 큰 경우는 타 예술 분야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본다. 기존 예술들은 제작단계에서 관객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거나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객의 반응내용 및 그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절실함을 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객에 치중하던 진실의 추구라는 예술의 본질이 약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보며 특히 그 표현방법은 문자에 의한 표현 이외에 거의 개발되지 않는 상태라고 본다. 그러나 관객의 반응이 영화요소 및 그 결합방법·과정·형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표현방법 역

시 그러해야 한다고 본다.

컴퓨터 영화론이 현 영화제작 체계에서 제시한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의 내용은 그 종류나 정도. 성질면에서 다양하므로 중요시되는 심리내용을 중심으로하여 그래프화 시키며 그 상호결합관계를 해설란에서 문자로 설명한다.

둘째, 고저는 심리적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역시 타 종류의 반응이나 동일 반응 선상에서 타 장면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음의 고저를 악보 위에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심리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방법이 성립되면 절대적인 고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7. 컴퓨터 영화론에 근거하여 작품을 제작했을 때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

한네씨는 창작의 주체가 컴퓨터에 집적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취지로 소설을 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 초안은 차라리 유치한 감마저 든다.

독자 여러분 좀 더 객관적이고 예민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주-

본인은 컴퓨터와 컴퓨터 영화론에 의해서 작품늘 제작해 가는 과정의 일례를 소개하므로써 그 답변에 접근해 가려 한다.

영화계에서 이렇다할 만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영화감독 황씨는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흥행에서도 성공하는 영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고민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컴퓨터에 관한 잡지를 보게 되었다.

사회 : 그런데 지능의 입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 : 사회학적으로 가치와 기계, 곧 문화와 물리의 세계를 연결하는 「행위의 체계」가 있읍니다. 즉 정보는 문화가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통해 인간의 체계를 통제하는 위계질서 (Hjerarchy) 입니다. 그런 정보를 문화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에도 메카니즘이 있읍니다. 문화는 정보를 통해 자연계를 통제하지만 자연계 속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AI (인공지능) 의 한계는 없는가? 즉 가치판단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거죠. 사실 가치판단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기계가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기계의 능력이란 것은 이미 창의와 기능이란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컴퓨터의 이런 가능성은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모든 역사 종교·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가치판단을 내리는데 인간의 가치 판단이 과연 진보만 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역사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교훈을 망각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도 많이 했지요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것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면만 기계에 프로그램화 한다면 사회의 문제점이나 기계에 대한 우려는 과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읍니까?

사회 : 역설적인 말씀인데 기계가 상식적인 합리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정보시대가 됐을 때 인간이 더욱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즉 「조지오웰」이 염려했던 어거지쓰는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가요.

이미 누군가가 붉은 색으로 밑줄친 부분을 읽으면서 다량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컴퓨터에게 「내가 현 시점에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흥행에도 성공하는 영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해봐야 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영화관에 자료를 입력시킨 컴퓨터실에 가기로 했다.

정보센터에는 상상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서비스도 대단했다. 영화부문에 들어서자 출입문 위에 사용비가 적힌 게시판이 붙어 있었다. 의외로 높은 액수에 잠시 멈칫했지만 투자에 대한 예상이익금이 훨씬 높고 확률 역시 98.5%를 가리키고 있어 일단 입장권을 구했다. 또 컴퓨터에는 관객의 영화 선호도·심리적 반응·사회·경제·정치적인 면에서 관심거리가 될만한 사실 등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오는데 관계될 만한 모든자료가 15일 마다 파악 작성되어 입력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그에 따

라 흥행이 될 만한 영화의 성격·소재 등도 자연히 파악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성공한 작품들을 예로 제시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까지 제시해 준다고 했다.

황씨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을 집어 넣었다. 컴퓨터는 많이 해본 일이라는 듯 곧 자료를 제시했다.

관객과 영화와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이론에서 부터 시작하여 요즘 관객들의 기호, 사회적인 영향 등을 계속 열거하더니, 결론적으로 몇가지 유형의 영화를 제시하고, 관객 수 까지 몇 명이 동원될 것인가에 대해서 십 단위까지 파악 제시했다.

그는 내친김에 자신이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관객도 가장 많이 들고 비평가들 한테도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컴퓨터가 말하는 추리영화를 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계는 기계자체의 동작을 위해서 명령이나 동작등을 컴퓨터화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 사회 :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빼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메카니즘적으로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
> 라 :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선 인간이 가진 정보를 잘 처리하고픈 욕구 때문이고 기계는 기계자체의 동작을 위해서 명령이나 동작등을 컴퓨터화 하는 것이죠. 즉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계가 기계를 콘트롤 할 수 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
> 사회 : 기계가 기계를 재생산 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
> 라 : 바로 그것이 인공지능을 특징별로 분류, 소프트웨어로 집어넣겠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생산할 수도 있읍니다.
>
> \- 중 략 -
>
> 그러나 컴퓨터에는 큰 장점도 있읍니다. 다량의 정보를 처리해 주고 많은 정보 속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면이 있지요. 그러나 정보가 많다는 것은 흔하다는 것, 질이 나쁘다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읍니다. 즉 얼마나 질과 내용이 좋은 가에 따라 정보의 횡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써있는 단추를 누르자. 다음 기계에 입력시킬 프로그램이 정말 나왔다. 거기에는 「추리영화 제작과정에 대해서 알려면?」하

는 표지문과 함께 18번 컴퓨터에 입력시키라는 안내문까지 있었다. 18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키자 컴퓨터가 몇 가지 질문을 해왔다. 어떤 스타일, 몇 명의 연기자, 제작여건, 등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다. 황감독이 말이 없자. 컴퓨터는 지금까지의 영화들, 현재 우리 영화의 제작여건, 스타일에 따른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더니 오늘 이 시점에서 판단할 때 가장 흥행이 잘되고 참신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모델도 있다고 했다. 황씨는 그 모델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프로그램 스위치에 불이 켜지더니 다시 프로그램이 나왔다. 102컴퓨터에 입력시키라는 것이었다.

사회 : 즉 기업이나 국가의 빅 사이언스 (Big Science)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공학적 모델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 그 방향이 움직여 가는 것이죠"

사회가 기업이나 국가 단위로 점차 조직화 되면서 단순히 인간의 편리를 위해 무언가를 개발 한다는 개별 과학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도 영웅시대는 물러가고 과학자는 거대 프로젝트의 부품화가 되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범람하면 컴퓨터는 인간의 기계가 아니라 기계 자체가 인간을 부릴 우려도 있지 않겠읍니까? 결국 기계에 맞추어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셈인데 이때 우리 인간의 독립성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원 : 정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법칙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과 사회가치가 동시적으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일단 정책이 현실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는 Big Science이론대로 기계가 자신을 부린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인정 못받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편 보다야 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102 컴퓨터실 옆 의자에 잠시 기대 좀전에 보았던 컴퓨터 잡지의 컴퓨터예술 가능한가? 하는 란을 보았다.

라 : 컴퓨터로 작곡된 음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현대음악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컴퓨터로 작곡했다는 말을 듣기 전엔 전혀 구별을 못했었읍니다. 문제는 컴퓨터로 작곡한 음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겠지요. 랜덤 프로세서를 이용, 작곡을 했다고 해도 결국 예술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창의성의 문제로 귀착될 겁니다.

김 : 컴퓨터는 이용자가 입력한 수준 정도만큼 표현할 수는 있어도 심리적인

정감이나 감동, 센티멘탈을 스스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읍니까? 프로그램에 대해 논리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열정적인 사랑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달을 거듭해서 예술 부분까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도 컴퓨터 자체는 프로그램만 수행하는 것이고 직접 만드는 것은 사람이죠. 창의성 (creativity) 은 발휘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60년대초 미국 어느 신문 만화에 아기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만화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아기를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공수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 인류생활에는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쟁 후에는 남아가 갑자기 많아진다든가, IQ가 좋은 부부 사이에서 과히 좋지 않은 지능을 가진 애기가 태어난다든가 하는 일들은 기계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섭리인데 이런것까지 컴퓨터가 해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라 : 저는 반대의 생각이 드는데요. 기계를 만들때 디자인 과정에는 최신의 기술과 최신의 정보를 합해서 기계를 생산합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컴퓨터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컴퓨터는 사이언스 같지만 아트 (art) 입니다. 그러니 사회와 사고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회 : 제 말씀은 인간이 여태까지의 발달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발달해왔고 인간의 문명 자체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즉 신비적인 무의식은 컴퓨터가 구체화 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컴퓨터에 맡겨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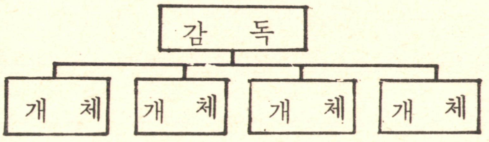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Idea가 창의성의 근원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경우 Idea 창출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던가? 시종 컴퓨터에 의존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컴퓨터가 제작한 것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감이 있으나,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중요시되는 문제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본다. 감독이 컴퓨터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완성된 작품에 나타난 요소중 창작영역은 줄어 든다는 사실이다.

결국, 창작의 주체는 개인예술에서처럼 누구이다라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몇%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8. 컴퓨터 영화론의 측면에서 본 영화의 발달과정 및 특성 (제작 시스템 중심으로)

개인예술에서 출발하여 규모의 거대화·관객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요인에 의하여 분업화·전문화된 협동예술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두뇌와 정보의 집합,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와 인간을 포함한 대상을 정보와 지식의 흐름으로써 파악하려는 사고방식의 발달은 정보와 지식의 집합체제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공동예술의 단계로 발전한다.



구분	발 달 과 정	원리 및 구조적 특성
1	◎개인이 내용과 형식의 작품 전반을 담당 - 기존 예술인 미술. 음악등과 같은 각도에서 이해됨 o **개인예술**	o 개인 창작의 단계 o 개인의 작품세계 및 표현 특징을 논함
2	◎감독전제적인체제 (하부조직은 분업화 전문화됨) • 요인①제작과정 및 규모의 거대화 (1인제작 불가능) ②두뇌를 집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다. (목표달성을 하는데) ③물량(복제품)의 대량생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체를 존중하는 체제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었음 • 특성①협동체재(감독 중심의) ②개체존중(개인은 절대적으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존재) - 한 분야를 특정인이 처리했고 그 요원은 대채불가능한 존재였음. o **협동예술**	o 감독 위주의 분업화 단계 - 개인창작 영역이 좁혀지고 영역을 % 로 정하게 되었다. - 모든 제작진들 개인개인이 개체로써 존중되었으며 자신의 범위 안에서 독창적으로 인정되었다.  Cf. 과도기 : 제작 일부과정이 분업전문화 단계에서 공동예술로 가는경우이다. (시나리오. 콘티를 작가. 감독. 카메라맨이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등)
3	◎ 개체가 없는 정보와 지식의 집합체제 - **요인** 영화의 특성은 미묘하고 복잡하게 결합된 정보와 지식을 통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방대한 량의두뇌, 창작적인 두뇌가 한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하며. 그것도 다른 분야와 해명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야에 관련된 두뇌의 집합이 절실하게 되었으며 일찍부터 꿈꿔왔다. • 두뇌와 정보의 집합 및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의 개발과 정보와 흐름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대상을 파악하는 컴퓨터의 원리에 기반을둔 사고방식의 대두는 꿈을 실현가능하게 해준다. o **공동예술**	o 정보와 지식의 집합체제 단계 - 영화에서 정보와 지식의 집합체인 공동체 시스템을 채용하게 된다. - 이 경우 목표가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가질 때 두뇌의 집합은 더욱더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관객의 시점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경우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 - 한 개인은 방대한 정보와 두뇌의 집합에 비하여 극히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서 한 개인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는 역할에 머문다. - 그래서 창작의 영역은 개인에게서 떠나고 창작의 주체로써 시스템을 내세우게 된다.

관 객 의 비 중	창 작 주 체	비평의 대상	비 고
ㅇ관객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음	ㅇ 100% 개인예술	ㅇ개인의 작품 세계 및 표현 특징이 비평의 대상이 됨	ㅇ개인예술 —미술, 음악 등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됨
ㅇ관객의 시점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Stereo Type의 등장 (마치 기름길을 발견했을 때 처럼) —제작상 거대한 제작비의 문제 표현매체가 관객심리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는 면 등으로 해서 영화는 기존예술과는 달리「관객의 시점」이 특히 중요시되었다. —그로해서 강한 전달력을 가진다는 장점과 함께 개인예술의 파괴라는 예매성을 가지게 된다.	ㅇ협동예술 —창작영역 예술성과 오락성 동시 개념이등장	ㅇ창작영역별 평가, 예술성과 오락성의 관계가 비평의 대상이됨	ㅇ협동예술 —창작의영역, 예술성과 오락성에 문제점
ㅇ완벽에 가까운 관객시점의 실현 —관객의 시점에 맞추려다 작가의 시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 흥행성 위주의 오락영화가 된다. (이런 작품의 영화들은 제작사의 요구와 감독능력이 한계성으로해서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무난히 해치우는 감독들은 찬사를 받으며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극장가를 휩쓸것이다.	ㅇ공동예술 —개인은 이미 그 존재가 없어지고 주체로서 시스템만이 남게된다.	ㅇ관객의 시절에서 작품을 비평한다. —착상(소재)이 문제시되고 —관객의 반응이 중요시되며 —과정은 Stereo 된다.	ㅇ공동예술 —개체는 붕괴 —관객의 시점이 중요시 된다.

9. 공동화 시스템의 실현시 영화예술의 경향

－3단계 예술경향은 자본·시스템, 예술 및 흥행성 등의 차이로 해서 기존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대별되던 영화들이 좀더 그 특성이 명확해지고 확실히 구분되어 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시점 : 여기서 말하는 시점이란 한 대상 (소재. 구성등 모든 영화요소를 포함)을 볼 때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를 관객시점이라 하고 작가의 내면 즉 작가의 세계를 통하여 볼 경우를 작가의 시점이라 한다.

구	분	대상을 보는 시점 및 특성
1	**Stereo Type 영화** －제1세계 영화에서 발달	ㅇ완벽에 가까운 관객시점의 실현 ㅇ제작단계 및 내용－가장 합리적. 세련됨 ㅇ영화의 주류
2	**영화감독의 영화** －제1세계 영화에서 발달	ㅇ완벽한 관객시점 및 작가시점을 동시에 실현 －제작단계 및 내용－가장 합리적 세련됨 －기계로 일률적으로 다듬은 눈반인형들 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작품이 있듯이 개인 예술세계가 표현되면서도 관객의 관점까지를 포함한 영화들이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3	**영화 작가의 영화** －제2세계 영화에서 발달	ㅇ예술성추구, 관객시점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작가의 내면세계에 귀를 기울인다.
4	**제3세계 영화의 지속** －제3세계에서 지속	ㅇ관객시이에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오히려 관객의 방향을 유도 ㅇ예술성중 표현방법 미숙, 내용은 강한 사실성을 가짐 ㅇ옛날 목각인형을 손으로 집접 깎던 시절처럼 독특한 개성(작품세계)이 담긴 영화도 만들어질 것이다.

자 본	흥 행	예술성과 흥행성	비 고
ㅇ거대한 자본투자	ㅇ극장가 주도	ㅇ흥행성이 높다.	
	ㅇ극히 소수의 작품	ㅇ흥행성, 예술성이 모두 높다.	
ㅇ소형 자본 ㅇ흥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소형일 것이며 그 가치 및 필요성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ㅇ관객의 수준 향상에 따라 관객층의 확보 가능 ㅇ그러나 소수	ㅇ예술성이 높다. ㅇ예술성이 높다. ㅇ작품내용에는 제작자의 세계도 관객의시점도 아닌 필요성이 문제시 됨	

10. 컴퓨터 영화론의 영화속에서 인간의 위치, 특히 감독의 위치

－다량의 정보와 지식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과 인간을 포함한 대상을 정보와 흐름으로 파악하려는 사고방식의 실현으로해서 컴퓨터가 영화제작상 주체가 된다고 했다.

－컴퓨터가 소형으로 한 인간에 의해서 통제될 때는 인간의 보조자로서 단순히 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컴퓨터가 대형화되어 한 인간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고속으로 처리함에 따라 컴퓨터의 판단이 명백한 목표나 상황하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인간은 정보와 지식의 제공자이며 동시에 선택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컴퓨터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료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더욱 축적하여 인간을 지시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즉 인간은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나 그 선택 역시 컴퓨터가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선택하므로 오히려 컴퓨터의 보조자 역할로 머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감독(선택자)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컴퓨터의 정보, 지식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창작의 주체는 정보와 지식의 집합체이며 한 개인은 극히 미미한 영역 밖에 담당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서 인간은 감독을 포함한 누구든 대치 가능하게 되어 필수요원이란 없게된다.

11. 창작동기, 출발점은 개인예술과 어떻게 다른가?

○개인 예술로서의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컴퓨터 영화론은 완성될 영화를 컴퓨터처럼 하나의 명백한 목표로 설정해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예술은 개인의 착상, 창작, 동기로부터 시작되어 차츰 구체화 되나 컴퓨터 영화론은 하나의 명백한 목표로부터 출발된다. 이런 특성으로해서 관객의 반응과 같은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그 시점으로 놓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은 컴퓨터 영화론이 흥행위주의 거대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이유이기도 하다.

12. 컴퓨터는 창작할 수 있는가?

○창작이란 만들되 독창성을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컴퓨터 영화론에의한 영화는 정보와 지식의 주체가 작품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정보와 지식의 원주체는 물론 인간의 집단이다.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정보와 지식은 수천 수만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독창성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은 소위 목표 설정에 있다. 그 목표에 의해서 선택기준도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목표의 제공자가 창작자인가? 그 목표 설정 역시 정보와 지식의 집체가 한다면? 결국 정보와 지식의 집합체가 창작하는 셈이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컴퓨터 영화론의 제작단계가 실현되면 누가 만들었는하는 점은 중요시 되지 않으며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품을 대하는 것처럼 비평가나 고객의 관심은 그 작품이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효율성을 가지는가? 즉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상점에서 신발을 살 때처럼 비평가나 관객은 제일 관심사가 그 품질, 효용성이며 그 보장이나 확신의 근거로 상표를 본다. 그러나 그 신발을 누가 고안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참가 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이제 만든사람이나 주체의 이야기 혹은 그 인간이라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종래 개인예술에서 창작이라는 의미와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된다. 독창성이란 작품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 및 새로 도입된 정보와 지식에 해당하는 살이 되며 컴퓨터는 어떤 완벽, 완전성을 향해서 달리게 될 것이다. 완벽한 영화란?

인간이 영화 역사를 통하여 이룩한 모든 영화요소들 중 정보,지식화로 가능한 요소들을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적용, 결합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렇게 해서 제작된 영화를 말한다.

13. 컴퓨터 영화론이 흥행위주의 대형영화에 적합한 이유?

흥행이란 관객의 관점에서 제작할 때 이루어지며, 관객은 곧 다수로 제작자는 당연히 그들의 공통분모를 포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공통분모는 어느 정도 명백한 목표를 설정 가능하게 한다. 명백한 목표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과정, 형태 등의 개발쪽으로 쏟게하며 연구의 진전에 따라 목표 달성이 점차 용이해지게 한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Idea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그 분야의 해당 인물 혼자서 그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서 제작에 참여해야 했으나, 컴퓨터 영화론에 의한 시스템에서는 무한한 두뇌와 기타 데이타에 의한 정보, 지식의 수렴 및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훨씬 유리하다.

컴퓨터 영화론은 컴퓨터의 기능과 성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이상 세가지 특성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 종래의 영화 시스템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거대한 스케일의 흥행위주로한 외국영화나 우리나라 일부 감독들의 영화는 이러한 이론의 악 이용된 실례라 볼 수 있다.

14. 진정한 종합예술로 가는 길

이제 필자가 진정 피력하고 싶어던 이론을 펼치려 한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는 여러분이 컴퓨터 영화론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종래 영화제작방식과는 그 전제부터가 다르다는 사실만을 이해했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다. 왜냐하면 전술한 내용들은 이 부분을 위한 도입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적으로 말해서 영화는 그 탄생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종합예술이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으며 그것은 현대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표현매체이며 그 진정한 의미의 종합예술의 표현은 컴퓨터 영화론에 의해서만 가능해 진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 한네씨의 본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긴 페이지를 할애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술했던데로 불태워져서 알 길이 없다. 그 분이 착상단계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이는 글로 대신한다. 이 부분이 이론을 파악하는 조그만 근거라도 되기만을 바랄뿐이다.

—필자주—

—컴퓨터는 그 가속적인 발달과 함께 「사회적 가치판단」이 따르지 못함을 안타까워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온 매체가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속화된 발전 양상 속에서 강력한 표현력과 전단력을 가진 영화를 기다린 건 아닐까?

—영화가 종래 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도되었던 개인예술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벗어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개인의 작품세계를 표현하는 매체가 아닌 어떤 공통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인간이 정보의 흐름과 지식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지는 컴퓨터와 발생을 같이하며 그 특성이나 성격상 밀접하게 관련을 가져야 함은, 그리고 컴퓨터 영화론에 의해서 만나게 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화 속에서 이미 인간의 개체로서의, 독자성으로서의, 필수요원으로서 위치는 없어지고 인간은 정보와 지식의 제공자이며 선택자로 머물러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화는 그 표현매체의 다양성,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등으로 해서 한 인간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표현하는 매체로써 택했다는 것부터가 잘못은 아니었을까?

왜 그러면서도 감독 한 개인의 독자적인 세계를 주장했을까?

그것은 표현매체의 특성을 거부함으로써 오는 과거 전제나 독제와 같은 모순을 빚어낸 것은 아닐까?

영화는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공통분모, 수많은 인간들의 그 무엇을 나타내도록 운명지어진 것은 아닐까?

—상대성 원리등 시공간의 개념이 또 한차례 바뀌어지는 세대에 그에 대한 표현매체로써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신인 동형 동성」「시간공간화」

등의 특성을 가진 영화가 탄생하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을 어떤 한 구심점으로 몰아 가려는 것은 아닐까?

—기존 개인예술의 입장에서 볼 때 영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 예술평론, 비평가들은 영화를 예술 속에 넣기를 꺼려하며 영화인들은 애써 고집하고 주장하는가?

여기에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예술은 기존 개인예술의 관점, 틀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까지 예술과는 다른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구하도록 그리고 표현주체도 다르도록 태어난 것은 아닐까?

영화는 철학속에 종교처럼 예술 속에 종교로써 인간의 공통분모를 표현하도록 태어난 것은 아니까?

—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는 물건너 넘어와 극장가를 휩쓰는 외국영화들 앞에서 영화인들은 능력과 자본만을 탓하면서 대책이 없는 것일까? 왜 겁을 내고, 방화와 외화의 상영 날짜을 미리 지정해 놓는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 영화의 진정한 모습과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이미 영화의 진정한 종합예술로서의 기능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컴퓨터 영화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객의 마음을 사로 잡으며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비평가의 입을 막거나 혹은 호평을 받는 것은 왜일까?

우리 나라의 일부 감독들의 영화는 이러한 기능을 자신도 모르게 어슬프게 이용하여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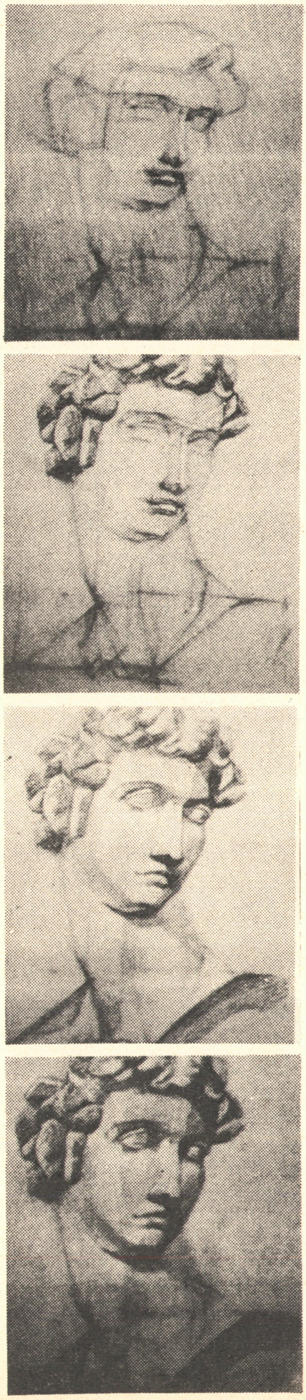
—이제까지 사람들은 영화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태시키면서 개인예술 쪽으로만 접근하려는 데에서 영화의 진정한 가능성을 키우지 못했으며 이 시대의 과학이나 사회. 경제 특성이 요구하는 「예술형태」를 부여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사회 속에서 예술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아닐까?

15. 제작과정 및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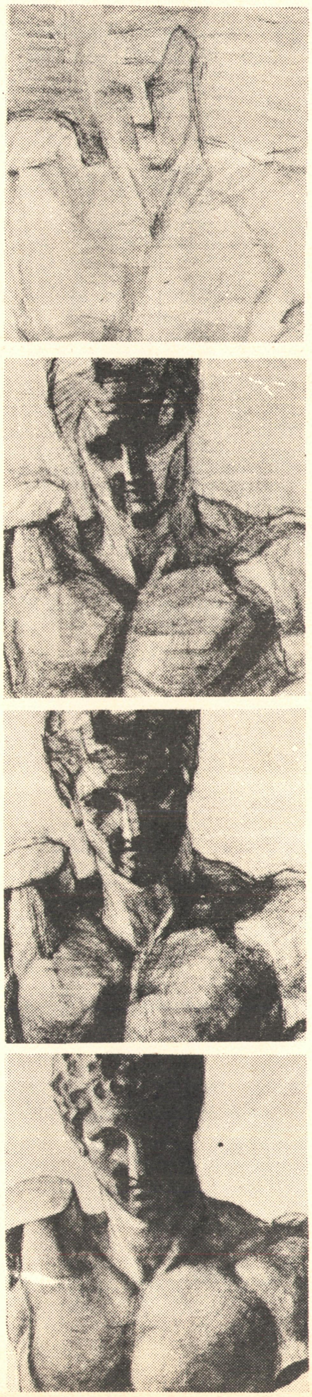
드라마투르기라는 중요한 것을 시나리오작가 한 개인에게 맡기는 융통성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여러 영화요소 중 몇 가지는 먼저 완성시키고 나머지는 후에 부차적으로 하여 절름발이나 볼상사나운 병신 영화가 되게 하는 짓은 하지않을 것이다.

석고데생 과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작성과정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부분적으로 진행〉



〈전체적으로 진행〉



부분적으로 그려갈 경우

- 눈. 코. 입을 각각 따로 완성하거나 선으로 구도를 먼저잡고 명암을 나중에 일률적으로 넣거나 분위기를 먼저잡고 세부묘사를 한다거나 톤을 먼저 잡아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나하는 방법
- 형태. 양감. 질감. 무브망. 토운 액센트 등 구성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분리가 불가능하다.
- 몇몇 요소들은 먼저 완성하고 나중에 다른 요소들을 부가할 경우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는 깨질 것이며 요소들간의 균형도 맞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릴경우

- 모든 요소들을 처음 백지위에 한 점을찍을 때부터 동시에 함께 생각하면서 어느 단계 어느시간에 보아도 그각 요소들간에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완성까지 끌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야만이 형태. 양감 질감. 톤. 세부묘사등 어느 한 요소 빠뜨려지지 않고 모든 요소들이 훌륭히 몇몇요소들에 치우치지 않게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현제작 단계(분업화 전문화된 시스템)>

ㅇ시나리오 작각각 시나리오를 제작→감독의 창조적 해석을 하여 콘터작성→촬영, 연기등→음악 (녹음) 등의 순서로 진행함을 볼 수 있다.

ㅇ시나리오를 먼저 써 놓고 감독이나 기타 음악, 미술, 배우 등의 인물들은 소위 창조적인 해석을 통하여 자신의 분야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에서 이미 드라마투르기적인 요소는 굳어져버려 감독이 손을 댄다고 해야 말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에 의한 번역이 될 것이다.

ㅇ또한 영화요소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위기, 리듬, 관객 반응 등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 후에 감독이 시나리오에 맞추어 처리하다 보면 종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마치 장식품처럼 영화요소 중 변두리에 머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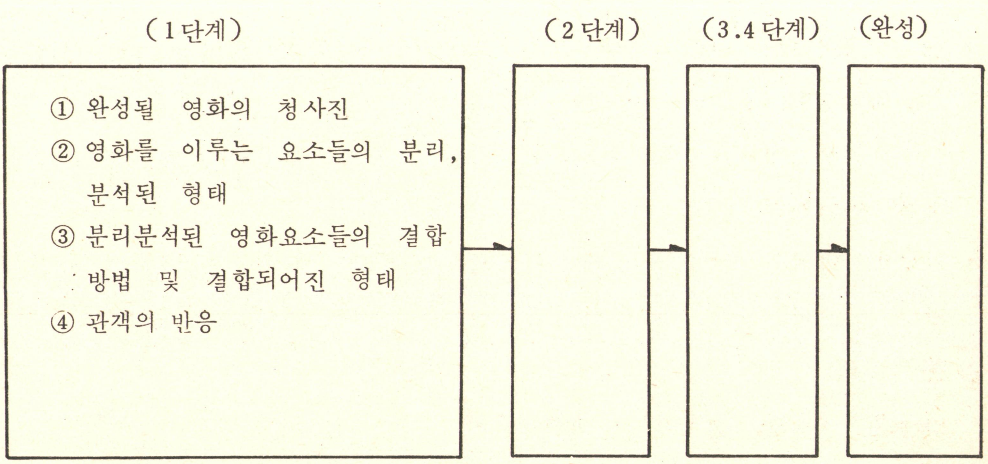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제작해 가는 경우(공동제작방식)>

ㅇ드라마투르기라는 중요한 것을 시나리오작가 한 개인에게 맡기는 융통성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여러 영화요소 중 몇 가지는 먼저 완성시키고 나머지는 후에 부착적으로 하여 절름발이나 불상사나운 병신 영화가 되는 짓은 하지않을 것이다.

ㅇ여러 영화 요소들을 동시에 함께 착상단계에서부터 몇몇 요소가 부당하게 비대해 지거나, 주가되거나, 혹은 빠지지 않도록 하여 각 요소가 이상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해내도록 하며 상호비교, 견제, 검토하며, 수정, 보관, 변경하여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원칙이나 입장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착상단계에서부터 영화제작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어느 한 부분이나 요소만 먼저 파악하거나 하지않고 동시에 해나갈 것이다.

ㅇ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 2차, 3차, 4차 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 그 한 단계에 마무리지어질 때마다 각 요소나 부분을 비교하여 요소들간에 균형과 조화와 유기적인 결합이 이상적으로 되었는지 점검한 뒤에 보완, 수정하고 다시 좀더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것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미리 자신의 몸 속에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예술성과 흥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참고 선택할 것이다.



16. 현시점에서 본 시나리오, 콘티의 문제점 및 해결책

이 장은 특히 초안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필자주—

(1) 현시점 (제작 전 단계에서)

ㅇ 원작가는 감독에게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히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감독은 받는가?

ㅇ 감독은 영화에 필요한 전 요소들을 어떠한 근거와 확신과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정확히 제작시에 적용, 표현해내는가?

ㅇ 감독은 스텝, 캐스트에게 자신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전달시키며,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율성과 능률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

ㅇ 감독은 완성되기 이전에 관객의 반응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 조절할 수 있는가?

ㅇ 감독은 실제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요소 특히 분위기, 리듬, 템포, 음악, 시간 등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으며 그 용어와 표기방법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가?

- 음악, 카메라 등이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창의성이 인정되는 이면에는 감독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으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의도하는 작품이 아닌 우연에 의한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ㅇ 거세게 밀려와 극장가를 휩쓰는 외국영화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가?

(2) 콘 티

감독은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으로써

첫째,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고 싶어한다.

둘째, 완성될 영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상하고 싶어 한다.

셋째, 같이 제작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넷째, 작품의 구성요소를 빠드리지 않고 의도대로 정확하게 적용, 표현해 내기를 원한다.

다섯째, 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싶어한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서 만든 것이 콘티이다.

그런 의미에서 콘티는

첫째,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이며

둘째, 영화요소 및 결합방법, 결합되어진 형태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며

셋째, 제작단계상 필요한 설계도이며

넷째, 관객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는 측정기 역할까지 해야할 것이다.

그럼 현 콘티는 위와 같은 역할을 적절하게 해내고 있는가?

○ 현 콘티는 촬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초적인 요소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닐까?

- 현 컷트 단위식 콘티는 단속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연속적인 흐름으로써 파악되어지는 분위기, 템포, 리듬, 등을 효율적으로 표현해 내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3) 시나리오

○ 영화제작상 원작가와 감독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작가의 의도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으로 택한 것이 시나리오이다.

○ 그럼 문자로서만 표현되어지는 현 시나리오가 작가의 의도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구성, 인물, 성격, 분위기, 리듬, 템포, 시간등 영화의 전요소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야 하는데 작가는 그 중 몇가지에만 치중하여 첫단계에서부터 치유될 수 없는 불구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 시나리오는 간략하게 대사 위주로 쓰라는 일반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어떤 의미에서 감독과 작가는 영화의 전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않고 몇 가지씩 분담하는 것은 아닐까?
- 극단적인 경우 감독은 시나리오의 영상에 의한 해석자에서 머무는 것은 아닐까?
- 연극대본과 연극을 구분하려는 개념 속에서 연극대본의 독립을 주장하였듯이 영화에서도 시나리오의 독립을 주장, 현재와 같은 시나리오가 형성된 바 그것은 영화제작에는 맞지 않거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해 결 점

지금까지 네가지 측면에서 시나리오와 콘티의 의의 및 목적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 본 바 현시나리오 및 콘티는 그것이 해야할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작에 필요한 근본적인 요소	표현 방법
작가의 의도	시나리오가 일부담당 (드라마투르기 위주로)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	
영화요소 및 결합방법. 결함되어진 형태를 보여주는 단면도	
제작단계상 필요한 설계도	콘티
관객의 반응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작가의도의 전달 수용에서 문자로 된 시나리오가 못해내는 영역

② 완성될 영화의 청사진

③ 관객의 반응을 나타내줄 표현방법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 시나리오 및 콘티를 수정, 보완하여 원래 해야할 역할을 다하게 하는 방법

둘째, 원점으로 돌아가 감독이 필요로 하는 즉 청사진, 단면도, 설계도, 측정기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게 된다. 그럼 감독이 필요로하는 위의 요소들을 모두 해결해 줄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나 수단은 없을까?

음악의 경우 올바른 음이 재생되는 데에는 가사와 곡이 동시에 필요하듯이 영화도 그 올바른 제작을 해 내는 데에는 문자로된 시나리오와 단속적인 콘티외에 보다 더 근본적인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17. 현한국영화는 컴퓨터 영화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현 실 및 문 제 점

- 컴퓨터 영화론의 입장에서 한국영화의 현실을 분석해 본다.-

ㄱ. 제작 시스템면에서

특 성	시스템 발전 과정	미 국	한 국	비 고
ㅇ개인 예술	개인 시스템			ㅇ PD는 제작 구성원이 공용 작업을 하나 사실상 구성원이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협동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예 ; 시나리오작가가 연출에 대해서 모르고 3명 연출자들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ㅇ감독 위주로 분업 전문화,개체존중 (필수요원, 독자적 영역가진다)	협동 시스템		일반감독 PD	
ㅇ구성원에 의한 공동작업	공동 시스템 초 기		B.CH	ㅇ B.Ch 는 B.Ch 모두 시나리오 연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구성원간의 완전한 공동 시스템이 가능하다.
ㅇ구성원+컴퓨터에 의한 공동작업	공동 시스템 중 기	SP 시스템		ㅇ스필버그 시스템은 구성원에 의한 완전한 공동시스템의 실현 및 컴퓨터에 의한 방대한 자료 활용
ㅇ완전에 가까운 컴퓨터 주체의 창작형태	컴퓨터영화론에 의한시스템			Cf . 1인 시나리오 연출 겸보다는 2인공동체가 일반적으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해 결 안

- 역시 정리되지 않은 초안 상태여서 「해결안」부분에는 빗나간 내용의 글들이 써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초안을 그대로 옮겼다.-

— 필자주 —

Cf

◎ 굳어진 시나리오와 굳지않은 시나리오의 비교。

- 굳어진 시나리오 : 연출자가 대부분 드라마투르기 구성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만 수정가능하다.

- 굳지 않은시나리오 : 드라마투르기 구성 능력을 가진 연출. 카메라맨이 작가와 공동작업을 통하여 점차 주형한다.

◎ 공동 시스템 초기에는 작품의 성과가

① 집단 구성원이 누구인가 하는점과

② 소재의 착상 문제가 아닌「제작과정, 처리」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 B.Ch 공동 시스템은 부분적인 작업진행을 무마시키고 전체적인 진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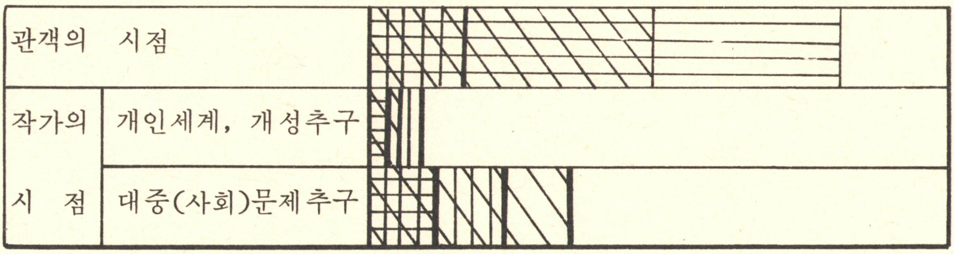
◎ 공동화 시스템
① 관객시점확보 가능
② 작가시점 중 공동화작업 가능부분 공동작업
③ 정보의 고속처리, 방대한자료 활용.

현 실 및 문 제 점

ㄴ. 작가의 시점 및 관객의 시점 면에서

<관객 시점이란 관객의 공통분모적인 관점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흥행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작가의 시점이란 예술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작가 내면세계, 개성의 추구와 대중의 문제(사회 문제등)추구로 대별되는데 그 중 대중문제 추구는 공통분모적인 요소와 관계된다. 이 경우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가진다는 작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IIIIIIII 국내 영화 및 감독 대부분
\\\\\\ B.Ch 시스템
════ 국내에서 흥행되는 흥행위주의 외국영화

ㄷ. 영화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

- 분위기, 리듬, 템포, 시간 흐름 등 영화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의 결핍 및 표현방법의 부족

ㄹ. 영화제작 과정에서

- 특히 1단계에서 분업, 전문화된 협동시스템 자체가 안고있는 모순과 불합리한 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 표현 방법 및 양식이 원시적이고 체계적 과학적이지 못하여 역시 모순과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ㅁ. 자금의 영세성.

해 결 안

◎ 공통분모적인 정보를 집산하고 판단해 낼 수 있는 조직 및 표현 방법이 문제시 된다.

◎ 작가시점

- 영화작가의 영화는 개성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협동이나 공동작업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한 고려와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굳이 감독의 내면, 개인 세계를 응시하려 하지않고 대중의 문제(사회 문제등)등에 촛점을 맞추었을 때 작가의 시점은 공동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공동작업이 가능함을 말해주며 공동작업을 하므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게 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 B.Ch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시나리오 연출 작업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 역사 정보집산에 필요한 표현방법이다.

  즉, 2.3인공동체제가 아닌 무한한 정보의 집산이 표현 양식의 변화로써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 영화적인 요소를 분석, 표현하기에 용이한 컴퓨터 영화론의 도입.

◎ 기존 표현양식의 보완, 수정 및 컴퓨터 영화론의 원리 도입 응용.

◎ 공동 시스템을 컴퓨터 사용까지 확대해야 한다.

◎ 컴퓨터 요원+컴퓨터 영화론에 해박한 요원 활용.

◎ 공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ㅇ영화요소들의 동등하고 유기적인 결합.
ㅇ작업의 공동화. 체계화. 과학화.

◎ 관객의 시점에 귀를 기울이되 외국영화들이 포착할 수 없는 좀더 한국적인 심리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

Ⅲ

작품분석실제

이 작품은 제목이 결정되어 지지 않은 한네씨의 미완성 시나리오이다. 한네씨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나리오와 비교해 볼 때 대사나 구성이 완전하게 결정되어지지 않은 미완성 시나리오를 양식에 적용한 예를 보여 주려 한 것 같다.

굳이 미완성 시나리오를 택한 까닭은 본 양식과 함께 상호 보완수정하므로써 좀 더 나은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말하는 「데생과 같은 제작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시나리오 내용과 양식의 내용을 상호 수정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한 두 곳이 불일치 하는점이 발견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 문장이 어색하고 애매한 이유 역시 다듬어지지 않은 초안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는 중간중간 몇 곳이 분실되었다 그 부분은 요약해 놓은 부분을 참고하면서 짐작해 주기 바란다. 그래프는 원래 긴 두루마리 한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면 여건상 여러 장으로 분리해 놓았다.

—필자주—



18. 작품 분석 실제

(1) 주제 및 의도

1. 원폭은 일순간에 저질러진 범죄이나 그로인한 피해는 긴 세월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파탄과 파멸로 몰고 갔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범죄를 낳게 할 요인들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함을 지남의 일가족을 묘사하므로써 보여주려 한다.
2. 일반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 속에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압박과 구속과 빈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유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여건을 주어야함을 역전광장의 아이들, 홀 등에서 노리개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빈민 수용소인들의 생활, 넝마주이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므로써 보여 주려 한다.
3. 어렵고 괴로운 상황일 수록 우정과 사랑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피어난다. 지남과 한네 두 소년의 따스하고 깊으며 변함없는 우정과 상순의 성호를 향한 순정을 그림으로써 이를 증명해 보려한다.

(2) 줄거리

원폭의 피해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불행에 빠뜨려진 지남과 소박한 가정의 조용한 파탄과 함께 미아가 된 한네가 역전골목, 광장, 보육원, 극장식 홀, 빈민 수용소 등에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던저져 전전하면서 갖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생활이 그들을 어둡고 가혹하게 덮쳐올수록 지남은 원폭의 피해로 희생된 가족들을 최대한 구하려 하며 결국 그들이 죽어가자, 지남은 자신의 흉한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자아와 자신만의 세계를 찾게 된다.(긴 세월 동안 가압기처럼 자신을 짓눌러 오던 압박감. 구속 감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나 지남은 정신이상, 패인이 되기에 이르며 그럴수록 한네의 지남에 대한 우정은 깊어간다.

최후에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난지도로 떠나며 한네는 꿈에 부풀어 이야기하나 그 순간 지남은 죽어가게 된다.

그리고 4년후 자신의 병신스런 발을 유일하게 사랑해줬던, 그러나 훌쩍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몇 년 동안을 헤메이던 지남의 누나 상순이 난지도에 나타난다. 부풀었던 그녀의 꿈은 깨어지고 상순은 절름거리며 돌아선다.

상순과 한네는 같이 걸으면서도 지남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하얀 눈을 맞으며 하얀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3) 관객의 반응

1. 지남의 여동생이 아버지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 지남 아버지가 감방에서 그 흉한 몰골로 정신이상이 된 채 패인이되어 가는 모습, 누나 상순이 절룩이는 발 때문에 걸어야 했던 정신적인 열등의식과 갈등, 그리고 끝내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는 아픔, 지남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는 달리 그의 흉한 얼굴, 자신은 새로운 모습의 자아,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 해야만 했던 고통과 갈등이 모두 원폭의 검은 버섯 구름과 함께 장면 장면마다 가슴 속에 아프게 세겨졌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저질러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었다.
2. 일반사회 이면에는 아직도 사람이면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압박감과 구속감, 빈곤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한 것이었다. 그런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됨을 느꼈다.
3. 거리의 미아가 된 한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우정에 걸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지남을 보살피고 지키는 장면들은 뜨거운 인간미를 느끼게 했으며 인간의 우정은 어두울수록 더 강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하게 피어난다는 것을 느꼈다.

4. 마지막 SCENE에서 4년이 지난 어느날 상순이 절룩거리며 난지도에 오나 담벽 안쪽에서 들려오는 몇 년 동안을 찾아 헤메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만나지 않고 부러트고 갈라진 못생긴 발을 바라보며 돌아서야만 하는 그리고 한네와 상순이 숱하게 할 이야기가 많을텐데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하얀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눈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등은 그때까지 보여 줬던 숱한 인간의 범죄, 비리, 처절하고 어둡게 얽혀진 인간의 삶을 하얀 눈이 대지를 덮듯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것만 같았으며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었다.



(4) 양식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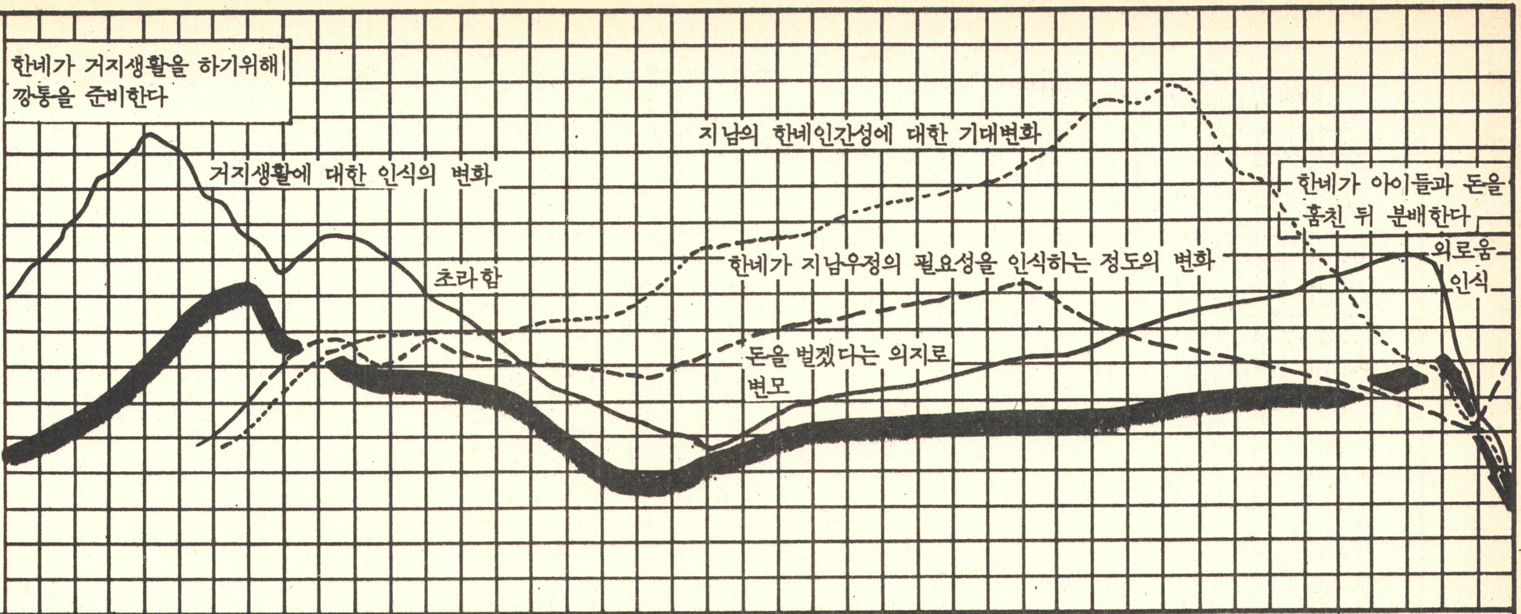
드라마 투르기		
NO		
SCENE		
내 용	SCENE 별	
	SEQUENCE 별	
작가의 의 도	SCENE 별	
	SEQUENCE 별	
분위기 . 리듬		
영화적인 요소		
NO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 응	SCENE 별	
	SEQUENCE 별	

◎ 이 책에는 편의상 대략SEQUENCE별로 분할하여 실었으나, 실제작성시에는 가로로 긴 두루마기에 한 장으로 작성한다.

◎ 이 책에 실린 이 작품분석에서는 작가의 의도란과 관객의 반응란의 SCENE별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한네씨가 따로간직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입수할 수 없어 비워둔 것이다.

◎ 모눈종이 눈금 및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절대치는 아니다.

극장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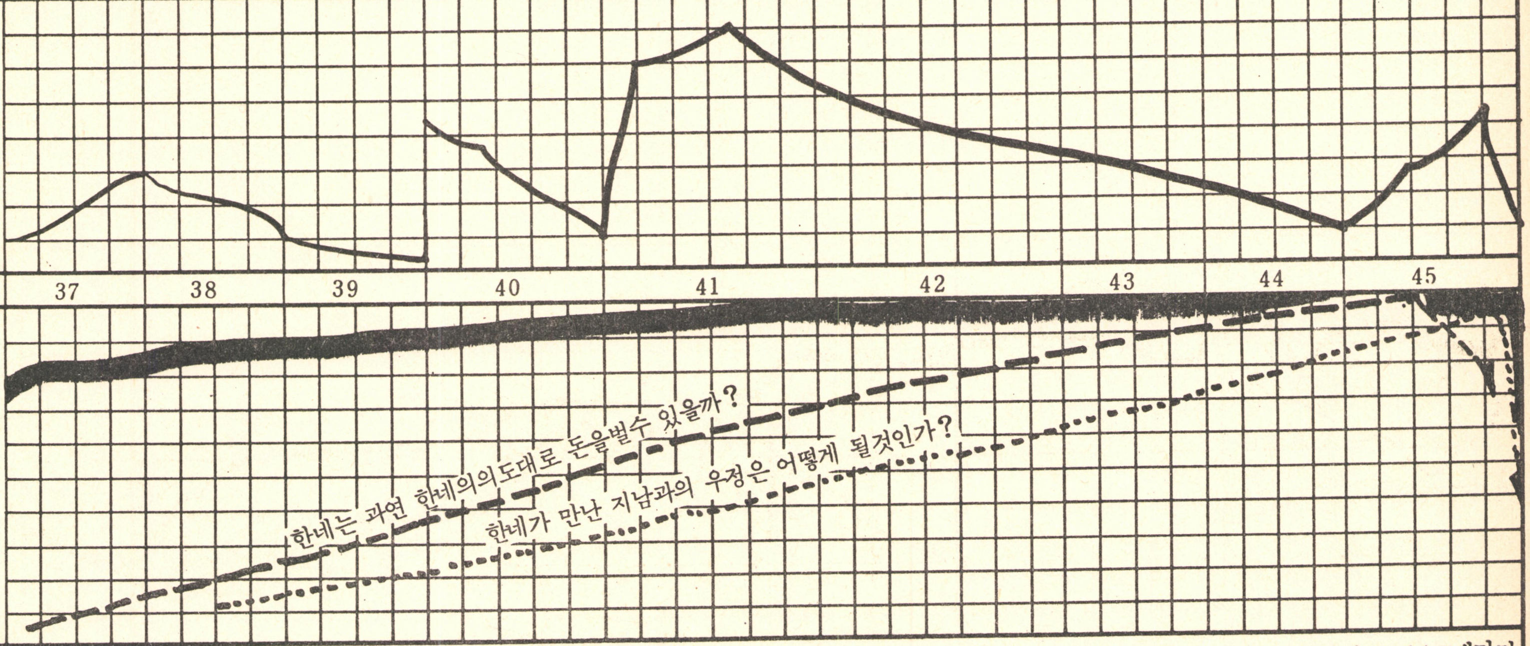
No.	37	38	39	40	41	42	43	44	45
SCENE	고물상앞	극장앞	극장안	극장로비	시장, 꽃가게앞	후미진 벽	공터	교회	골목
내용	한네는 거지가 되기위해서 깡통을 마련하고 옷도 갈아입고 분장까지 한다.	그러나 막상 거지가 되고 보니 왠지 서럽고 우울하기만 하다. 친구가 되는 지남이 우산장수를 만나게 된다.	지남이 덕분에 영화를 보게 되어 처음엔 즐거웠으나 상영힙에 따라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한네 또래의 꼬마애가 동전을 집어 넣으며 거지 취급을 하자 초라함은 극에 달한다.	지남이 한 차례 희비를 겪은 뒤 한네를 발견한다. 한네가 억지로 구걸한 돈으로 복권을 사자 지남은 그 복권을 지게꾼에게 주고 자신이 모은 돈을보여 준다고한다.	지남은 돈을 보여 준 뒤 원자병으로 시달리는 가족, 자신의 흉한 얼굴, 그 때문에 집에서 책만 보면서 지냈다는 사실, 그리고 만원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한네와 몇몇 아이들이 나쁜일을 모의하고있는 것을 지남은 보고 말리려 하나 용기와 힘이 없어 그렇게 못한다.	지남의 예상대로 그들은 한네를 시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지갑을 훔친다.	지남이 몰래 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돈을 나눈다.
SEQUENCE	한네는 거지가 되면 굶주림을 면하리라 생각하고 깡통을 만들어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막상 거지생활은 동네아이들로 해서 자신을 초라함으로 넣는데 그는 원폭제로 해서 얼굴 한 쪽이 얽은 우산장수 아이 지남을 만나게 되며 지남이 와 같은 원폭희생자인 아버지가 동생과 지남을 심하게 구박해서 지금은 보육 원 생활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지남은 생각이 깊은 아이로 한네가 교회에서 물건훔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작가의 의도

ㅇ한네가 홀로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노변아이들의 실상과 연결하여 보여준다.
ㅇ앞으로 지남을 중심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시(성격 묘사 유의)
ㅇ한네를 위하려는 지남의 마음을 극장에서부터 계속 연결시켜 다음에 올 지남의 실망을 고조시키도록 미리 준비(소극→적극적으로 바뀌는데 지남의 격려 필요)
ㅇ극장에서부터 지남을 통하여 한네를 보도록 지남의 시점으로 전환.
ㅇ깡통 만들때의 기대→극장에서의 부끄러움, 실망감→적극적인 구걸→복권→돈을 훔치는 데 가담: 이와 같은 행위의 변화에 일관성과 심리적인 변곡을 주어야 하며 사건 전개가 병렬적이지 않도록 유의.

분위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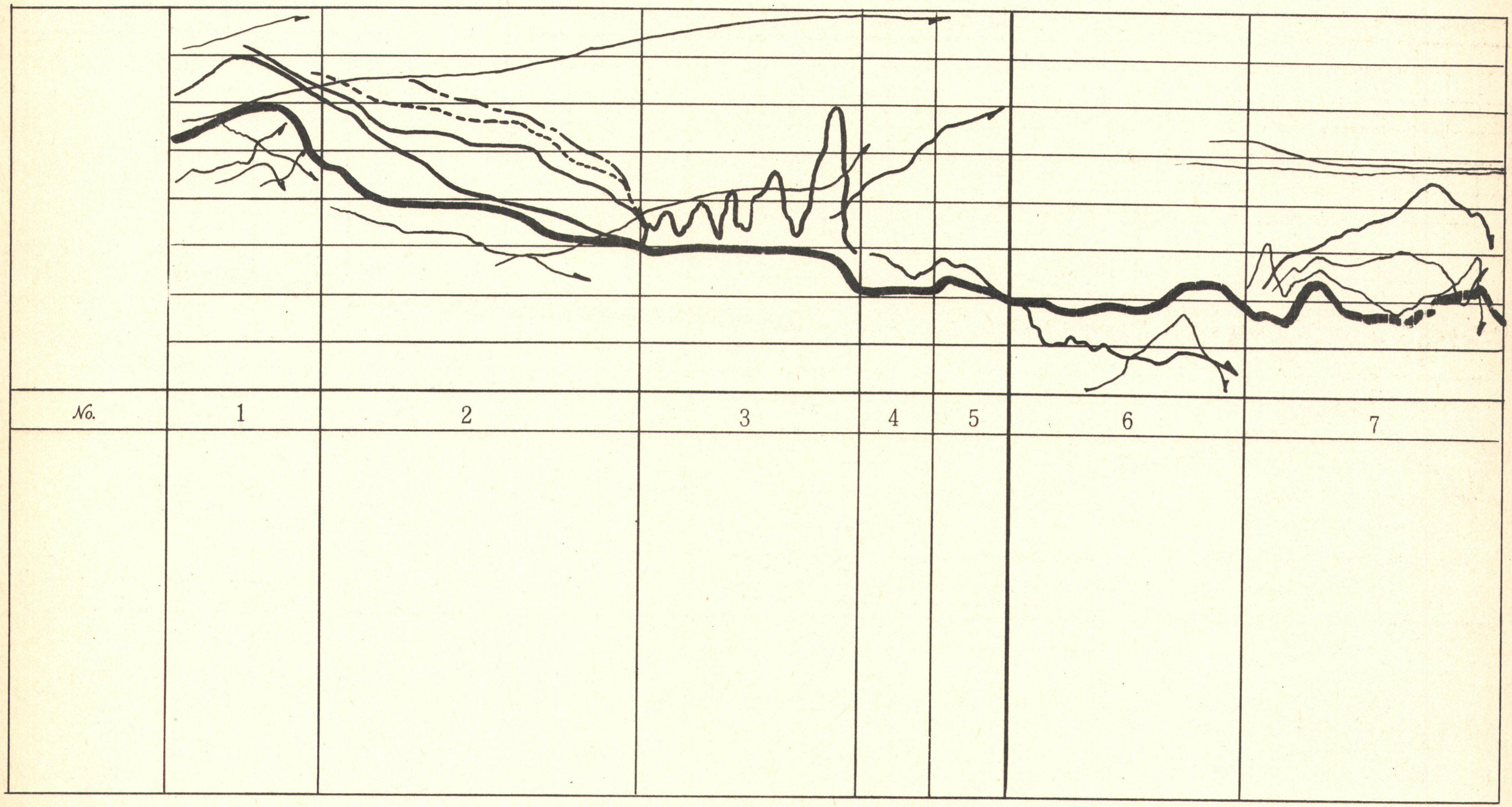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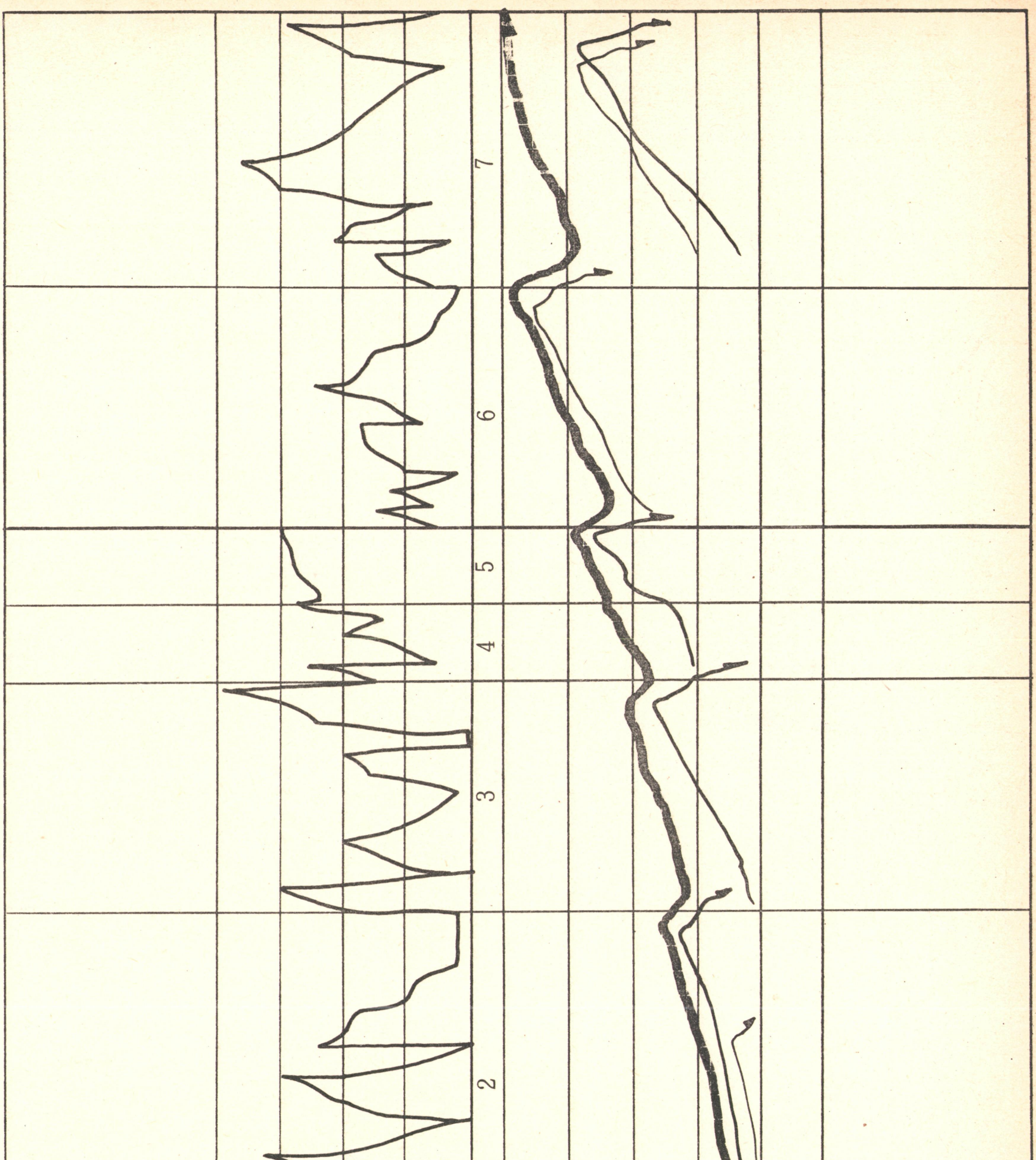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ㅇ어둡고 음울하고 사실적으로 진행되자 지리한 감을 느끼기 시작 신선하게 긴장감을 풀어줄 변화를 기대한다.
그런 가운데 〈①깡통을 차는 모습→②극장앞 모자를 짓누르는 모습→③극장안 쇠막대를 두드리다 그칠 때→④아이가 깡통에 돈을 넣을때→⑤지남이 물뿌리개를 소낙비로 착각할 때→⑥한네가 아가씨에게 구걸할 때→⑦원현이 점을 치라고 할 때→⑧지남이 한네를 데리고 광장을 지날 때→⑨돈을 보여 줄때→⑩지남이 한네와 함께 있는 패들 앞에 나설때→돈을 각자 분배할 때〉그때마다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속된다.
(웃음속에서 지남과 한네의 심리묘사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각자를 가리고 있는 그림자를 항상 밑에 깔아야 한다.)
ㅇ지남이 한네 패들의 도둑질하는 모습을 본 후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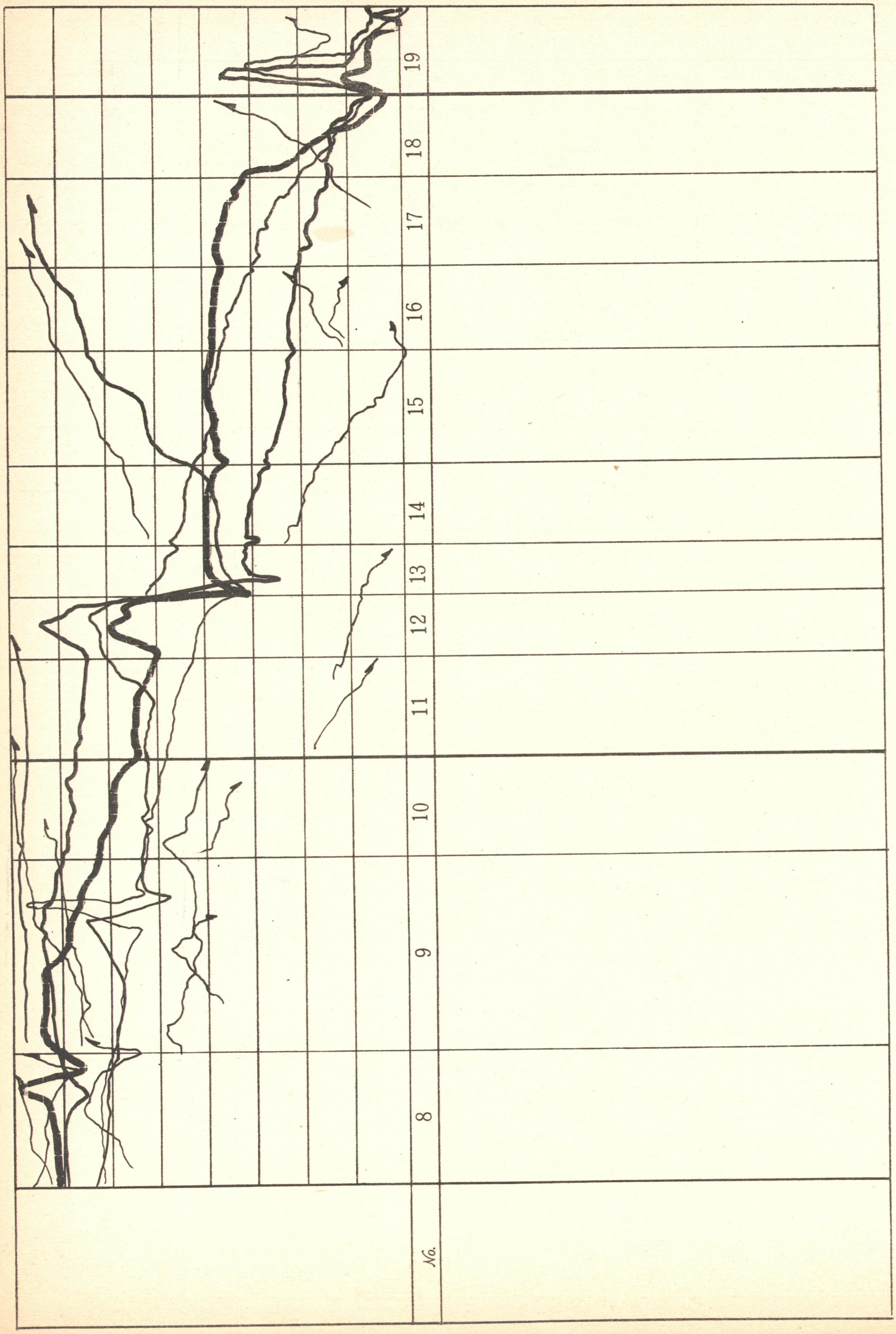
(5) 그래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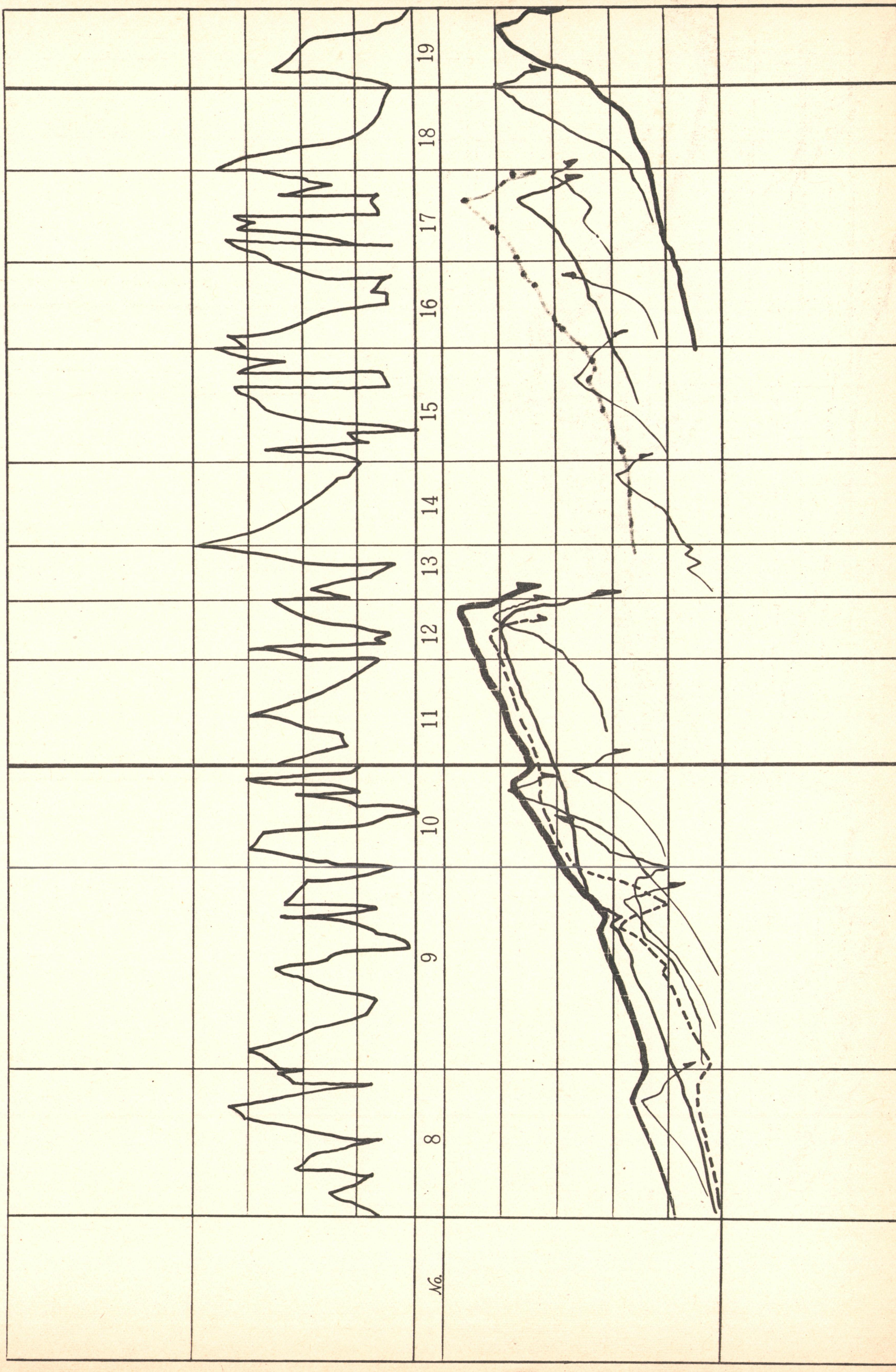
- 이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보려한 것 같다.
- 이 란은 공란이고 그래프역시 미완성이어서 그가 무엇을 설명하려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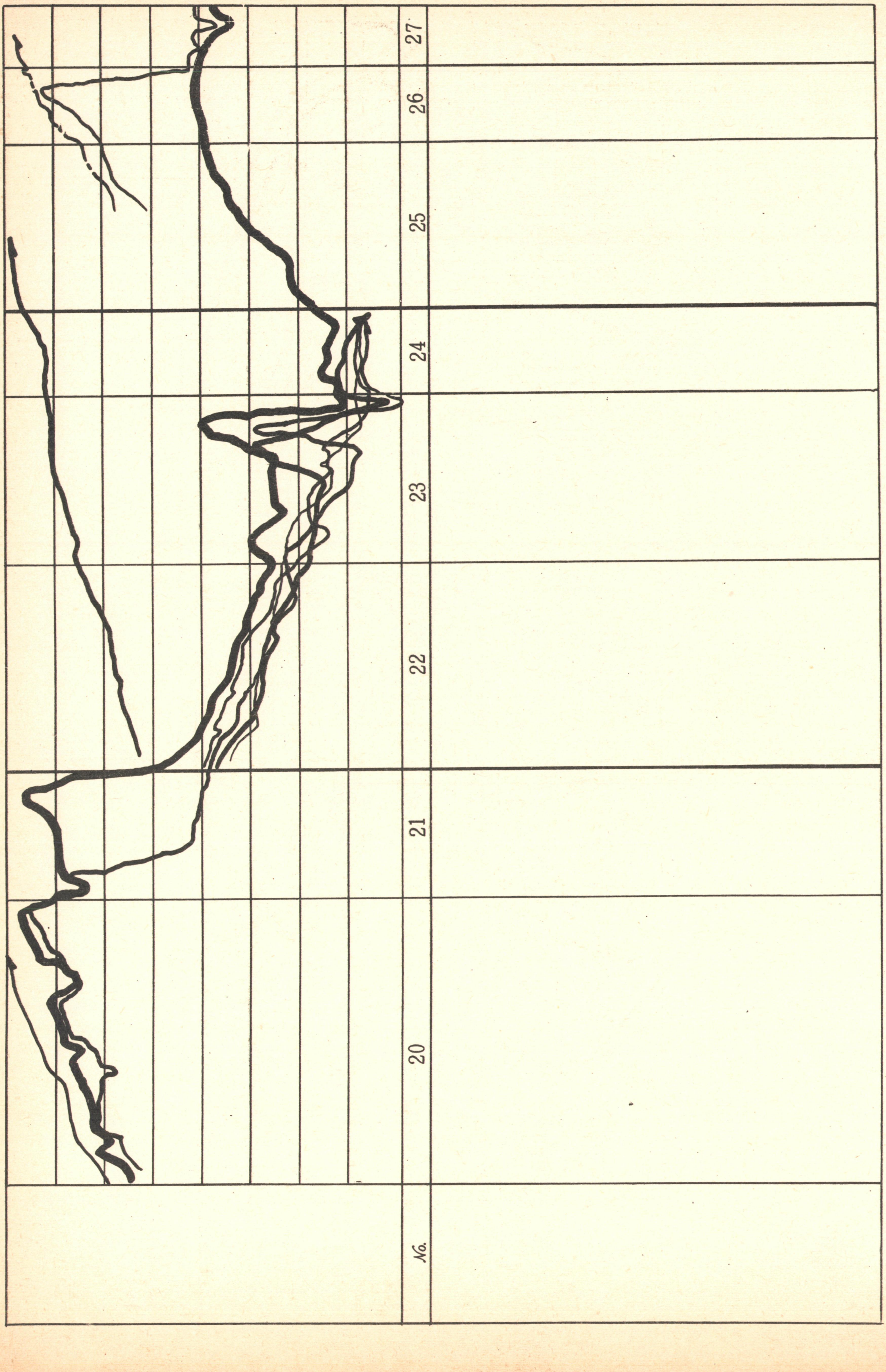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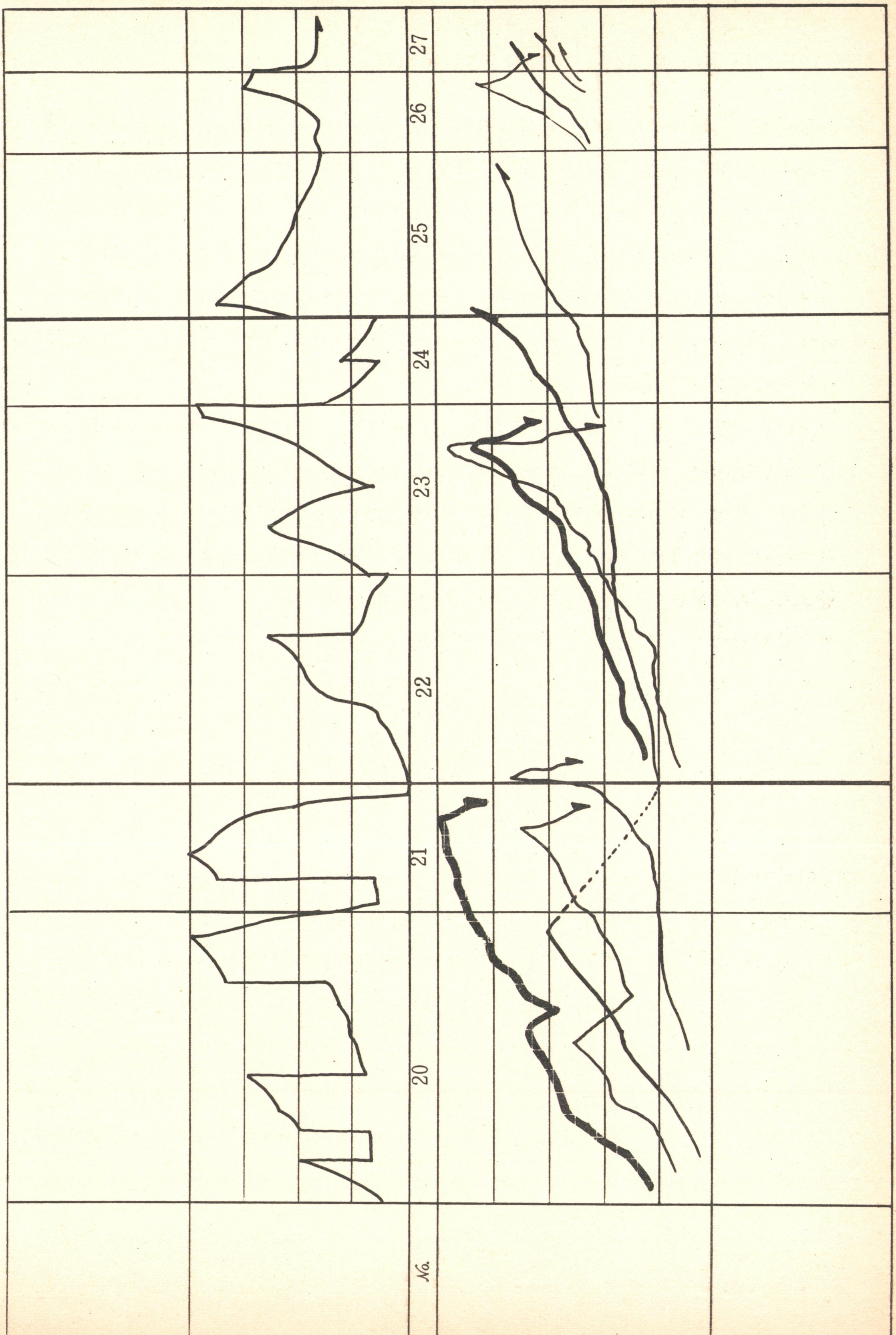
No.
1
2
3
4
5
6
7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No.
20
21
22
23
24
25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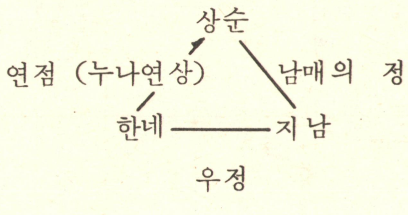

№.
20
21
22
23
24
25
26
27

(7) 명백한 목표 및 주요동기 유발력

◎ 압박감 속에서 시달리는 세 명이 그 속에서 벗어나거나 탈출하고 도전하며 쟁취하려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사랑, 우정, 연민, 정으로 그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위로하며 표류한다.

◎ 한네는 아버지, 누나를 잃고 거리에 떠도는 미아가 되면서「가난」과「애정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로 인한 압박감은 한네로 하여금 부와 사랑을 집착하게 한다. 갈등요소 역시 그의 의도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남은 얼굴 한 쪽의 흉터에 대한 열등의식, 아버지의 학대, 구속으로 인한 압박감에서 풀려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아속에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나선다. 또한 동시에 학대하고 구속하는 자에 대해서 도전하려 한다. 갈등요소 역시 그를 항상 학대 구속,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자극한다. 상순은 불구인데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감에서 탈출구를 열어준 성호의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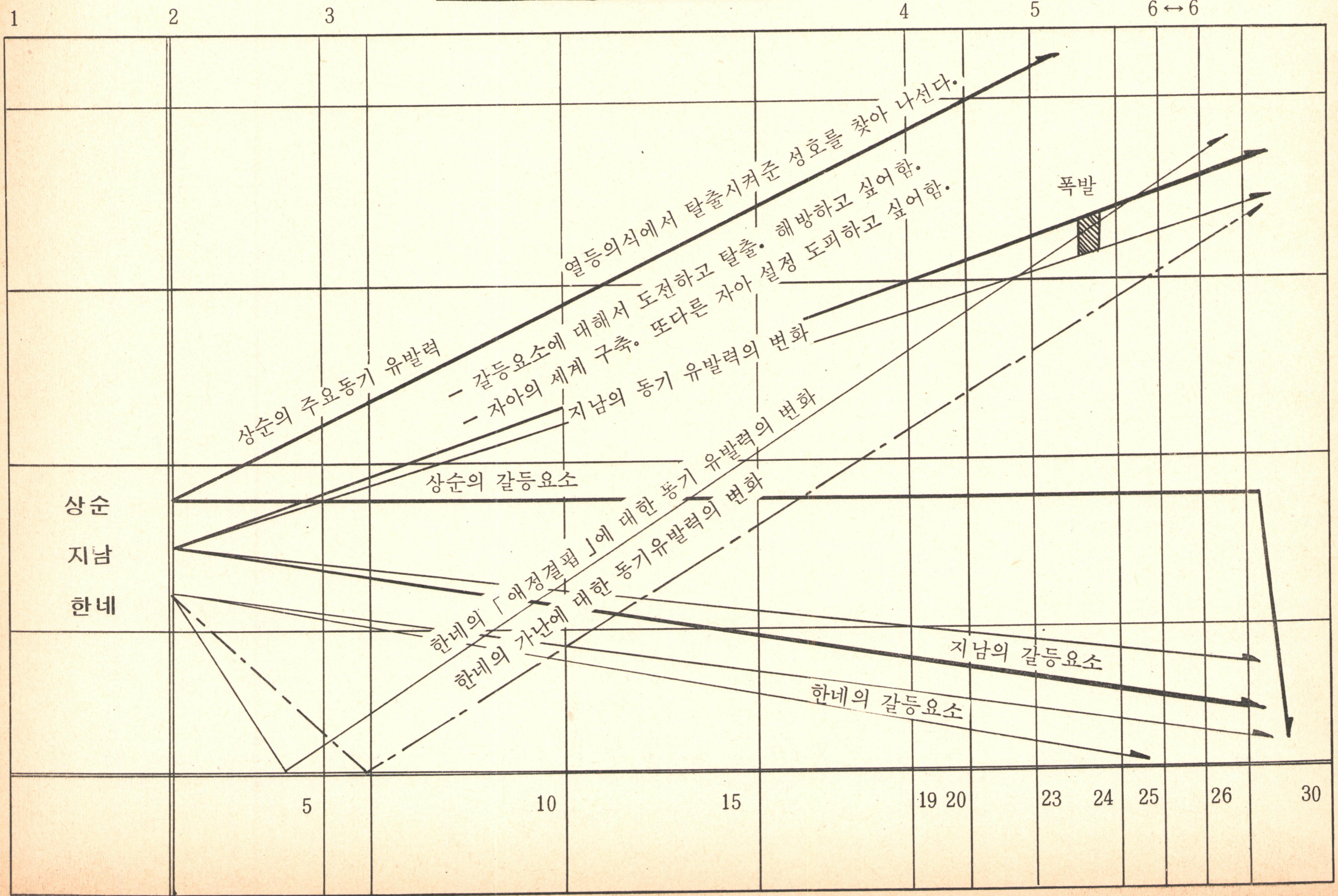
◎ 인식지점

지남은 빈민 수용소에서 분노를 터트리고 관리원에게 도전하지만 오히려 구타당하여 치명상을 입는다. 그후 해방을 찾아 떠나나 죽고만다.

한네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인간다운 삶(애정)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비인간적이고 굶주리는 빈민 수용소를 떠나나, 절친한 친구 지남은 죽고만다.

상순은 몇년 동안을 성호를 찾아 헤맨뒤 난지도에서 겨우 그를 만나나 성호는 이미 결혼한 후이다. 상순은 자신의 못난 발을 만지며 돌아선다.

주요동기 유발력 및 갈등요소의 변화표



19. 부별 분석

1 부

A. 작가의 의도

○ 작품 속의 주인공이며 관객의 시점이 될 한네를 한 인간으로서 탄생시켜야 한다.

○ 한때는 서정적이고 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다가 거리의 미아로 전락시킴으로써 후에 한네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 인간애를 찾아서 끝없이 방황하도록 한다.

○ 채석장을 중심으로 한 인부들의 서민적인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배경으로 설정한다.

○ 순박하고 무식한 진석과 나이어린 소년 한네가 한순이 그들의 곁을 떠나 버린 후 왠지모르게 외로움과 슬픔 속에 빠져들며 원인도 모르고 서로 다투는 모습, 주정뱅이인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모습을 철장 너머로 바라보는 한네, 교도소에서 아버지의 유골인지도 모르고 하얀상자를 받아쥐고 나오다가 아이들에 의해서 거리에 장난삼아 뿌려지는 장면 등을 통하여 부자간의 서민적이고도 애틋한 정을 그린다.

○ 전반부는 신성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 후반은 서민 사회의 어두운 면과 한네의 심정을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이 되게 그린다.

B. 내 용

한네가 누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거리의 미아가 되기까지

어머니가 훌쩍 그들의 곁을 떠난 후 홀애비가 된 채석장 인부이면서 주정뱅이인 마음씨 좋기만 한 아버지와 백치이며 순박하고 웃음만 아는 누나와 서울 변두리 산동네에서 소박하고 단란하게 살아가던 여덟 살배기

한네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런데 소년의 누나가 어느날 갑자기 깊은 산골로 시집을 갔다. 아내가 곁을 떠난 후로 모든 정을 주었던 딸마저 곁을 떠나자 술집을 전전하던 아버지, 진석에게는 실직까지 겹쳐 알콜 중독자가 되었다 그로해서 그는 교도소에서 죽어간다. 그리고 한네는 홀로 거리의 미아로 남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지던 날은 몹씨도 하얀 눈이 내렸다.

C. 관객의 반응

그런데로 단란하고 행복했던 조그만 가정의 세 가족이 별 다른 사건도 없이 무너져가고 결국은 여덟 살 먹은 아이가 거리의 미아로 떠돌게 되는 모습은 우리의 어느 이웃엔가 일어나고 있을 작은 슬픔처럼 공감을 일으키며 애잔하게 다가왔다.

전 편에서 보여지는 무식한데다 술꾼인 아버지와 한네 사이의 부자간의 정은 따뜻한 인간애와 함께 비애를 느끼게 하여 가슴 속에 흥건히 적셔들었다.

D. 시나리오

17. 셋방

부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울었다. 한네도 몰래 마셨다. 한네는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 때문에 울어 본 기억은 결코 없었다. 그날도 한네는 여전히 초췌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서러워 마구 울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한네는 다섯병째 소주를 비웠다.

진석「야. 석아, 난 말이야 어린나이에 혼자 객지로 돌아 다니며 고아처럼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 장래 내 아들 만큼은 적어도 양친 부모 밑에서 곱게 키워야 겠다고 입술을 깨물고 살았다.」

한네는 아버지처럼 병신같이는 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3장

18. 영세 병원실

진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삼면이 벽이고 창문 쪽은 굵은 철장으로 둘러싸인 방에 있었다. 방바닥에 기어 다니는 파리가 희한하게 개구리만 하게 커져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다. 정신을 가다듬어 보았다. 정신을 가다듬으려면 술이 있어야 했다. 진석은 술을 찾았다. 그러나 의사는 술 대신 진석을 침대위에 눕히고 사지를 모서리에 묶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도 옆에 잠이 들어 있다.
진석은 고개를 젖혀 팔 쪽에 묶은 끈을 풀었다. 한네가 도착하였을 때는 진석은 이미 방에 없었다.

19. 양주집

진석이 시뻘건 눈으로 주변 진열대의 술들을 하나하나 훑어 내리며 침을 삼켰다.

주인「돈은 가져왔겠지?」

진석은 주인 눈치를 보면서 입술을 가늘게 떨었다.

주인「작살 나기전에 못나가?」

진석「내일. 내일-」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몰아냈다. 진석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고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 부동산 소개소

진석이 친구인 소개소 주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친구 자넬 무얼 믿고 빌려주나?」

진석은 그래도 사정했다. 그러나 그 뚱뚱한 사내는 현명하고 실속있는 판단을 굳히지는 않했다.

21. 길

훤칠하고 머리가 벗겨진 사내가 보였다. 많이 보아온 인물이라고 생각되었다. 진석은 무심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돈을 빌려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틀림없는 총무였다.

그는 봉창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지나갔다. 진석은 자신의 행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만 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동전을 두 손으로 보석처럼 받쳐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흐뭇한 그 무엇이 흘렀다.

22. 허름한 주막

스텐드를 앞에 두고 굶주린 돼지새끼처럼 침을 삼키며 둘러 앉아있는 많은 인부들 사이로 진석이 비집고 들어가 동전을 스텐드 위에 정중하고도 당당하게 내 놓았다. 그 돈을 보고 난 후에야 술을 가지러 가는 주인만을 진석의 눈은 안타깝게 따랐다. 그 사이 술잔 비우듯. 재빨리 동전을 숨겨 버리는 주변 사람들. 주인이 돈을 요구하나 진석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발길이 날아오고 이어 술집 앞에 나동그라졌다.

23. 양주집 앞

진열장 유리 안 쪽에는 각종 양주들이 오랜지 빛을 띄우고 유혹했다.

진석은 참을수가 없었다. 진열장 유리를 부셨다. 술병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술꾼 진석이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기대와 만족에 찬 생기가 희미하게나마 어렸다.

24. 담 밑

진석은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얼큰히 취해왔다. 따스하게 가슴깊이 차거운 바람을 가리면서 파고 들었다. 그것이 진석이가 앞을 보지않고 무심코걷게 했으며, 결국은 벽에 부딪쳐 술병을 깨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줄이야 진석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 앉았다. 그 푸르스름한 액체가 땅속으로 사정없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헤트라이트 불빛이 엄습했다. 경찰차 뒷 쪽 철창 너머로 흐릿하게 한 꼬마가 자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진석은 그 꼬마가 한네가 아니기를 바랬다.

4장

25. 고아원 사무실

경찰이 사무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말했다. 한네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사무원이「누나가 있지 않소」하고 말하자 경찰은 「찾을 수가 없소. 그런데다 백치 벙어리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네는 경찰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26. 고아원

아이들은 작은 공처럼 될 수 있는한 추위를 막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어떤 녀석은 이를 갈면서 자고 있고 다른 녀석은 어둠이 무섭다고 칭얼댔다.

한네는 빌로드 색깔로 빛나는 어둠 속에서 체온이 아직 남아 있는 침구 속으로 들어 가면서 「아버지만 나오면」하고 다짐했다.

세월은 지나갔다.

한네는 잎새가 나고 다 떨어질 때까지 고아원 철장문을 붙잡고 날짜가 가기를 빌었던 것이다.

5장

27. 교도소

교도관 :「벌써 나갔단다」

한 네 :「그럴리가 없어요. 왜 저를 찾지 않았지요? 언제요?」

교도관 :「두달은 됐지?」

한네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더 이상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돌아 섰다. 교도관은 그 뒷 모습을 보다가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사망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교도관 :「얘야? 니 이름이 한네라고 했지?」

한 네 :「예. 한네요. 국한네」

교도관은 백색 진열장에서 백색의 네모난 상자를 꺼냈다.

교도관 :「이거 받아라」

한 네 :「뭔 데요」

교도관 : 「니 아빠가 두고간 거란다」

가벼웠다. 어쩌면 빈 껍데기 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됐다. 여기 콘크리트 벽에서 새어 나오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다고 느꼈다.

교도관 : 「애야? 버리지는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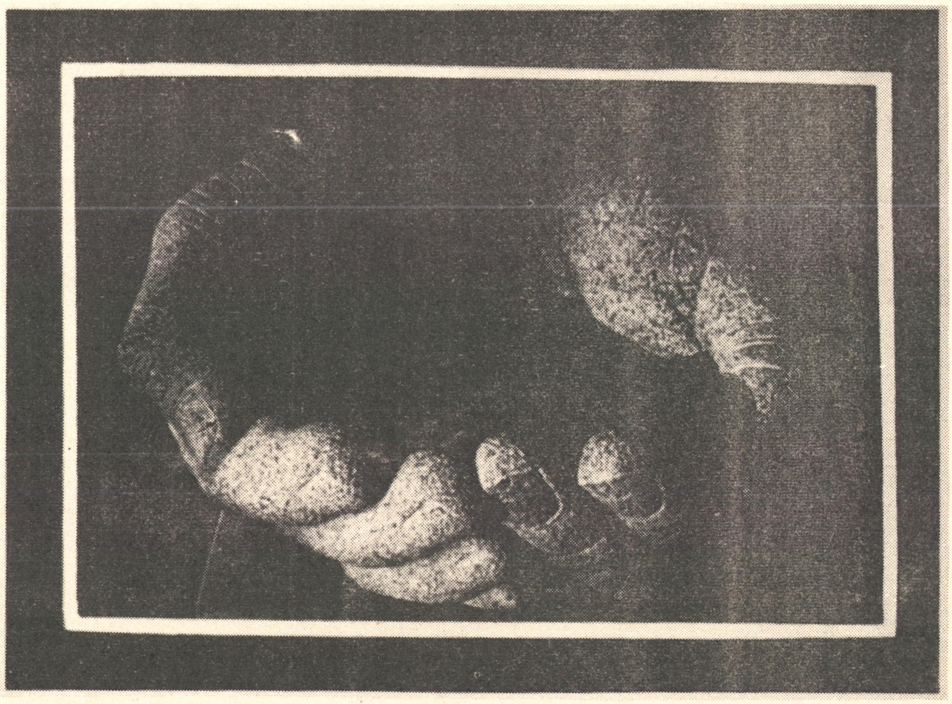
28。거 리

몹씨도 눈이 내렸다. 함박눈이 끝없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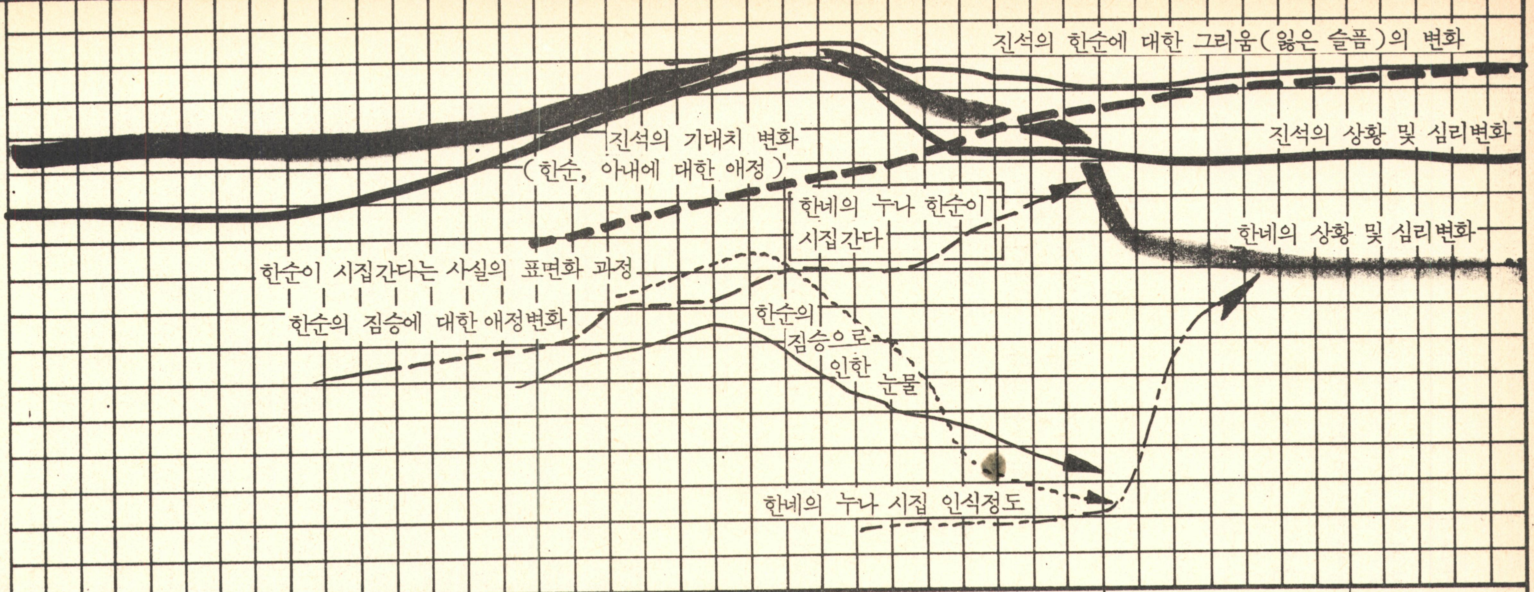
「야. 저거 한네다. 한네」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뛰어 왔다. 아이 하나가 옛날 버릇 데로 상자를 뒷 쪽에서 쳤다. 바닥에 떨어지자 부지런히 풀었다. 그러나 장난감도 먹을 것도 없었다. 허연 밀가루가 바닥에 약간 깔려 있을 뿐이었다. 한 아이가 한웅큼 재빨리 입에 넣고 상대편에게 「훅-」불었다. 다투어 서로 불기 시작했다.

한네는 빈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그 교도소 아저씨도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두고 갔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변두리마을



No.	1	2	3	4	5	6	7
SCENE	방 (가정집)	산마을 언덕	산마을(비탈)	통닭집 (시장)	한네의집 툇마루	한네의집 방	산 마 루
내 용	한순이가 마을 죽은 사람의 염을 했다.	마을 아이들이 한순이를 불렀다. 메아리 되어 답한다.	한순이 염소와 말을 했으며 한순과 술꾼 진석과 한내의 정다운 전경이 보여졌다. 한내는 8살, 한순이 19, 아버지 진석은 50 고개이다.	한내의 가족이 모처럼 통닭집에서 통닭을 먹게된다. 그러나 한순은 닭장안에 있는 산 닭 옆에 바로 죽은 닭 등을 보고 눈물만 흘린다. 두 시골사내가 아버지와 한순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녀를 아버지 진석이 통닭집에 데려온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한순이 시집살이를 떠나게 된다. 신랑은 그 두사내 중젊은 사내였다. 산골로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한순이 서울에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봤기에 고향 청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한순의 동생 한네가 한순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한순의 대답이 없는 메아리에 실망하고 내려오는 마을 아이들.

SEQUENCE

8살 한네의 가족은 스물이 채 못된 누나 한순이와 아버지 진석이까지 세명으로 달동네에서 나름대로 단란하게 살아간다. 그런 어느날 벙어리이며 백치인 누나를 진석은 자신의 고향인 시골에 시집을 보낸다. 그날은 몹시도 하얀눈이 펑펑 내렸다.

작가의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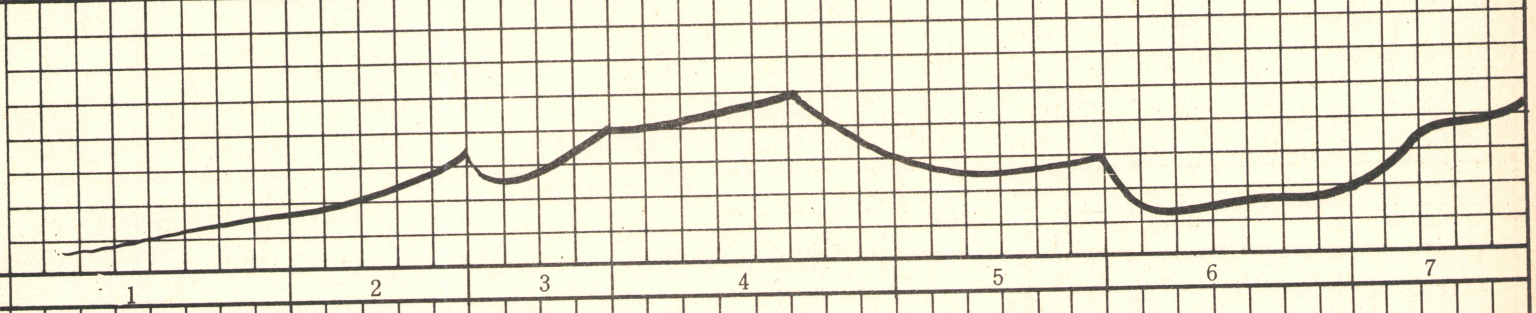
ㅇ한네의 누나 상순이 시집을 감으로써 한네와 진석이 겪게되는 외로움, 슬픔 등을 고조시키는데 그 주요목적이있다.

ㅇ아이들, 메아리, 염소 등 서정적이고 서민적이며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분위기를 통해서 관객과 동일감을 형성시켜 관객이 한네, 진석과 같은 관점이 되게한다.

- 외로움, 슬픔의 강조를 위해서 ① 나름대로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② 한순과 한네, 아버지 사이의 깊은 정을 보여준다.
- 한순의 백치, 벙어리이면서 단순하고 소박한면, 항상 먼저 남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면 강조, 관객과 동일감 형성.
- 진석이 무능하고 체념하는 생활속에서 한순에 대한 애정에 가치를 두는 면 강조.
- 처음 염을하는 장면등이 보여 주는 「삶과죽음」이 공존하는 신적인 분위기 지속.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 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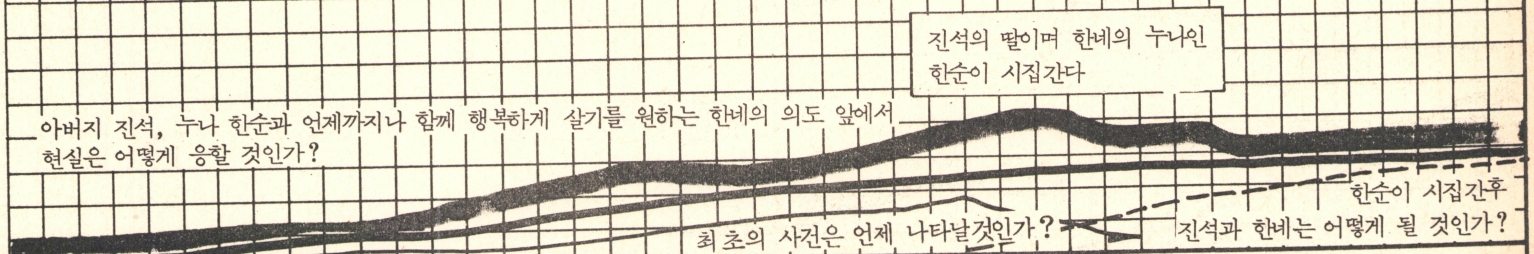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

관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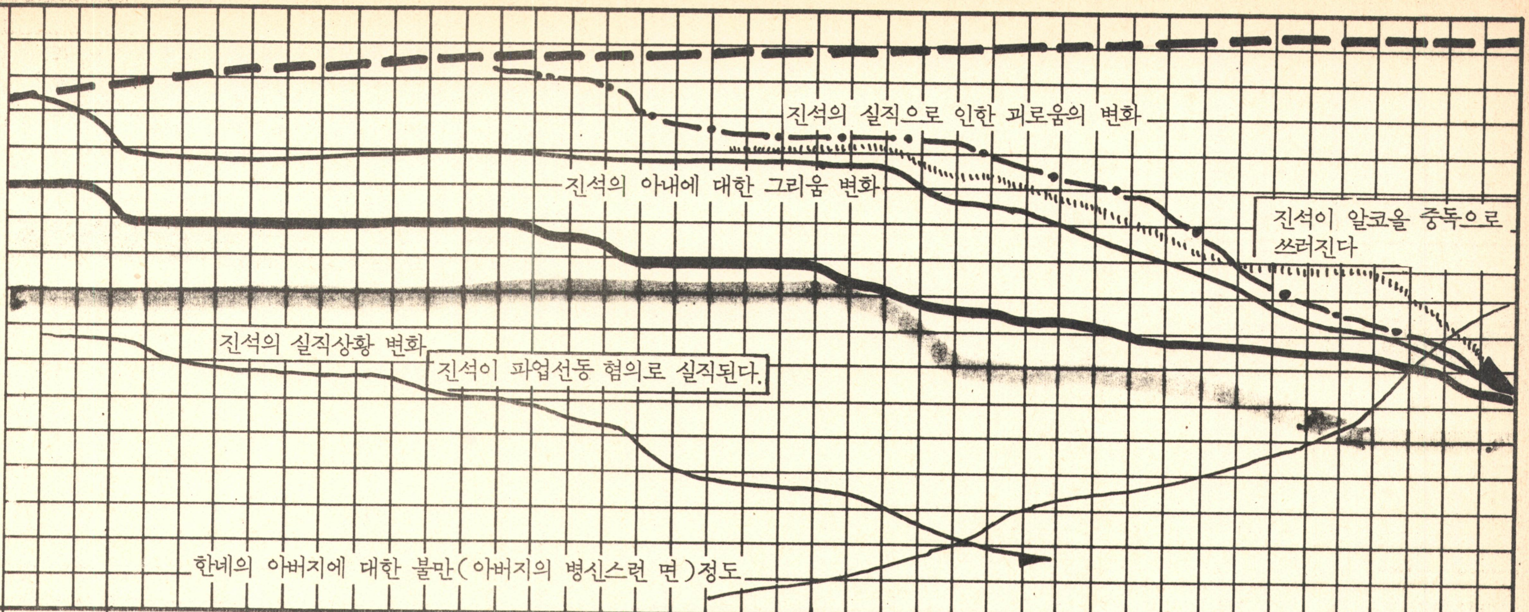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ㅇ염을 하는 첫장면으로 해서 숙연하고 신적인 분위기와, 메아리 아이들, 한순의 이미지로 서정적이고 목가직인 향수, 황혼녘같은 분위기 속에 빨려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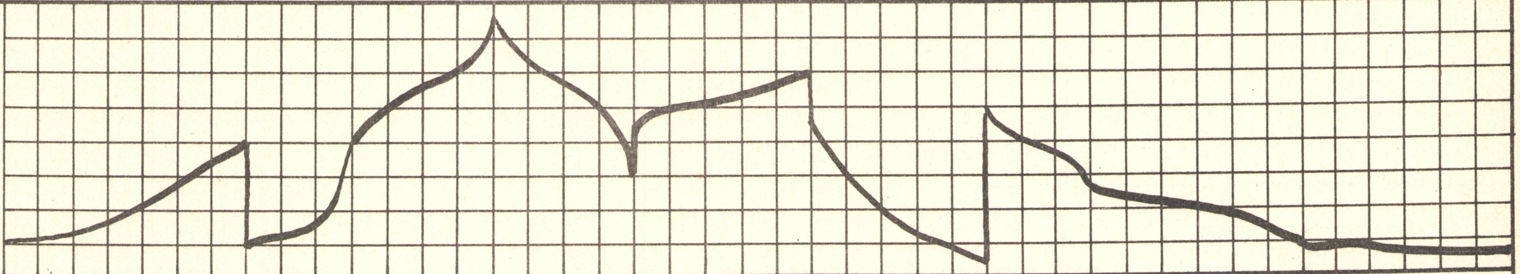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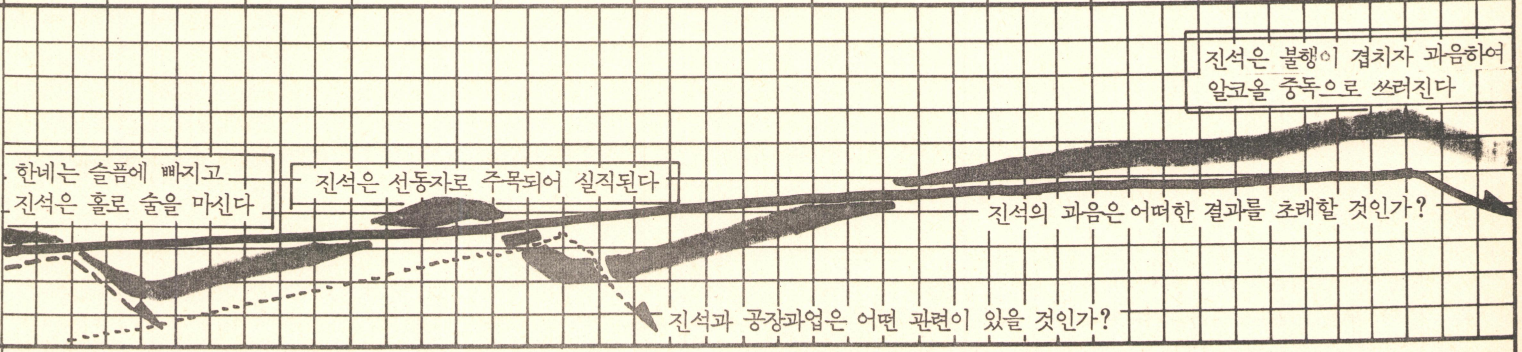
- 분위기 속에 빨려 들어 안착한 후에는 「사건발생」의 복선을 찾으려 하는데 「호기심」이 쏠린다.

ㅇ복선이 주어지지 않은채 계속되다가 S# 3에서 한순을 부르고 두 낯선 사내가 등장하므로써, 지금까지 분위기를 일변시키고, 한순과 그들사이의 관계,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S# 4에 오면 관객들은 한순의 미래에 대한관심과 진석 한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때 한순에 대한 관심을 가지쳐 줌으로써, 관객의 관심을 한네로 집중시켜 한네의 심정이 되어 슬픔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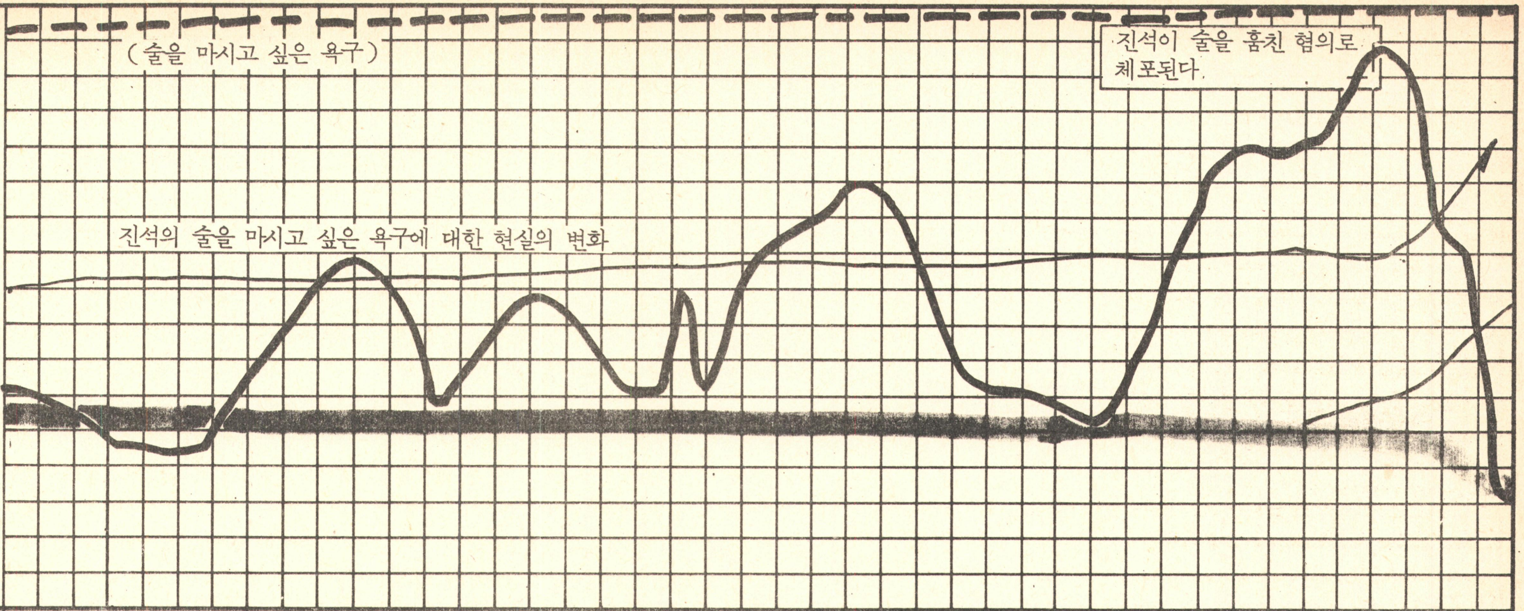
채석장주변



No.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CENE			채석장술집	·	사무실내회의실	술집골목	진석의집앞주정	·	거리	셋방
내용	진석이 까닭없이 술을마신다. 진석이 자신도 그 원인을 모른다.	인부들이 공장주에 대해서 파업운동을 한다.	진석이 혼자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데리고 나간다.	진석이 허탈감을 메꾸려는 심정에서 받은 부추겨서 선봉에 선다.	공장주 측과 인부들 사이에 회의를 하였지만 인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피하고, 진석은 선동자로 몰려 파면된다.	인부들이 각자다른 데로 떠날사람은 떠나고 혹은 머무는 등 갈림길에 선다. 나름대로 푸념도 하고 힘없는 불만도 토로 한다. 그 속에서 진석은 계속 술을 마셨다.	진석이 「한순」이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부인) 때문인지 술을 마시며 운다. 한네는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병신스럽기만 하다.	진석과 한네가 직장을 구하러 다닌다. 어느 모집 공고판 앞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진석과 한네가 직장을 구하다 지친다. 진석과 한네는 서로가 짜증을 낸다.	진석이 밤새도록 한순이 때문인지 아니면 직장을 잃은 때문인지 술을 마셨다. 한네도 옆에서 아버지의 병신스런 모습에 몰래 술을 마신다.
SEQUENCE	아버지 진석은 한순을 시집보낸 뒤 왠지모르게 스며드는 적적함에 술을 마신다. 여기에 인부파업 개입으로 인해 실직마저 겹쳐 직장을 구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자신을 떠난 마누라 마저 생각나 진석은 무능에 대한 자책감과 그리움과 서글픔으로 해서 계속 술을 마신다.									

작가의 의도	ㅇ한네의 눈을 통하여 관객이 진석을 보게 하므로써 한네와 같은 심리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 진석의 심리적인 몰락과정과 의식이 아닌 무의식속에서 미묘하고 섬세하게 아내, 한순, 실직이 얽히면서 일으키는 반응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려야 한다. - 이러한 진석의 변화와 한네의 심정(누나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병신스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는)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네의 반응을 관객이 놓치지 않고 공감하게 해야한다. - 진석과 한네사이에 자신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실은무의식속에 쌓인 욕구불만)때문에 다투고 정질을 내는 식의 사건전달에서진적과 한네의 미묘한 심리를 관객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술집과 공사판, 거리로 계속되는 장면전환 속에서 지리한 느낌의 배제와 주변 상황설정에서 절대적인 사실성(예리한 현실파악)의 부여가 필요하다. ㅇ영화「자전거도적」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진석이 왜 술을 마시는가 ㅇ공장파업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대별된다. 여기에서「공장파업」을 가르쳐 줌으로써 관심은 진석으로 돌아 오게 한다. →진석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한네의 심리로 관객이 들어 가도록 하여 S#14로 넘어간다. ㅇ그후로는 진석과 한네의 인간적인 면에 관심이 쏠리도록 해야한다. cf. 진석의 심리내에서의 미묘한 변화와 한네와의 충돌사이의 심리를 관객이 쭉 극의 진행에 따라 섬세하게 읽도록 해야 한다.

술 집 주 변



No.	18	19	20	21	22	23	24
SCENE	영세병원실	양 주 집	부동산소개소	길	허름한 추막	양주집 앞	담 벽
내 용	진석이 술을 과하여 알콜중독증세를 일으킨다. 환각증세도 보인다.	진석이 술을 마시고 싶어하나 돈이 없음을 안 주인은 쫓아내 버린다.	진석이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한테 가나 친구는 오히려 모욕만 준다.	옛날 채석장에 근무할때 그 총무를 길에서 만나자 진석은 돈을 빌리려 한다. 총무는 멸시하듯 바닥에 동전 몇개를 떨구는데 진석은 그것만이라도 한없이 기뻤다.	진석이 돈을 놓고 술을 마시길 기대하나 주변 사람들이 돈을 훔쳐가 진석은 오히려 몰매만 맞고 쫓겨난다.	진석은 기어코 양주집 진열장을 깨고 술을 훔친다.	그러나 그 술마저 벽에 부딪쳐 깨뜨리고 만다. 이때 출두한 경찰은 진석을 잡아가고, 한네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다.
SEQUENCE	진석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다 몰래 빠져나와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시려다 술집주인, 친구, 총무으로부터 모욕만 당하고 술을 참지못해 진열장을 깨고 술을 꺼내다 그것도 마시지 못한다. 결국 경찰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그 모습을 아들 한네가 바라본다.						

작가의 의도

○알콜을 중독자의 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을 사실적으로(병적이거나 파격적이 아닌) 섬세하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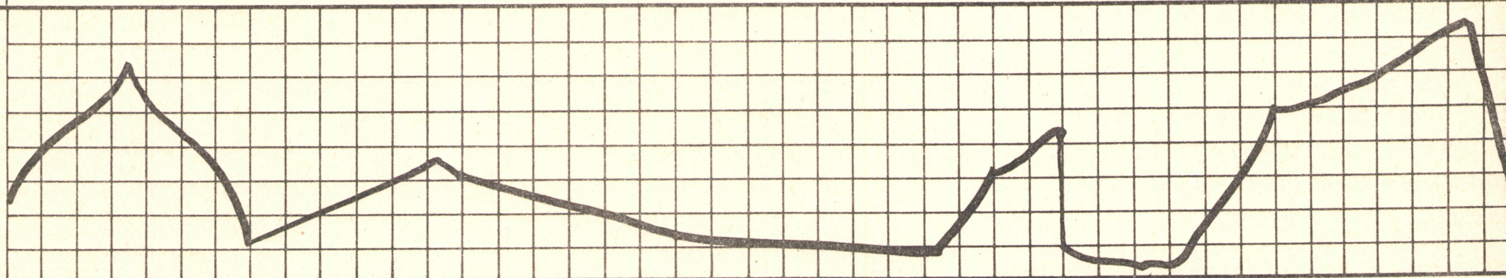
○거듭되는 시행착오
- 병원에서 탈출시 희열 - 술집에서 술병을 볼때와 쫓겨날 때
- 친구에게서 버림을 받을때 - 총무의 경멸과 돈을 볼때
- 술집에서 돈을 내 놓을때와 돈이 없어졌을 때
- 진열장을 볼 때와 술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었을때
- 다시 깨뜨렸을 때

○짧은 시간안에 거듭되는 희비극의 엇갈림을 관객도 진석의 입장이 되어 따라 가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경찰차에 실려 떠날 때는 이 모든 진석의 비극적인 상황이 한네의 가슴에 박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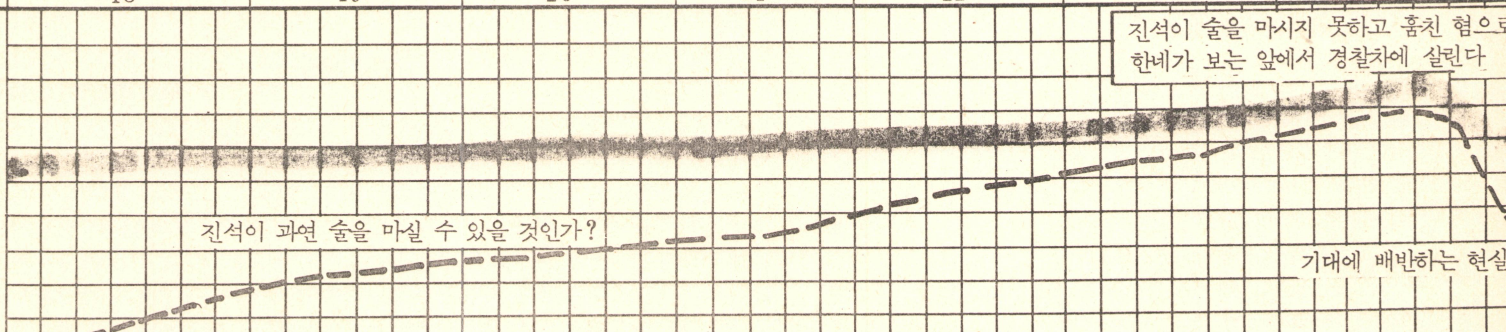
분위기

영화적인요소



№ 18 19 20 21 22 23 24

관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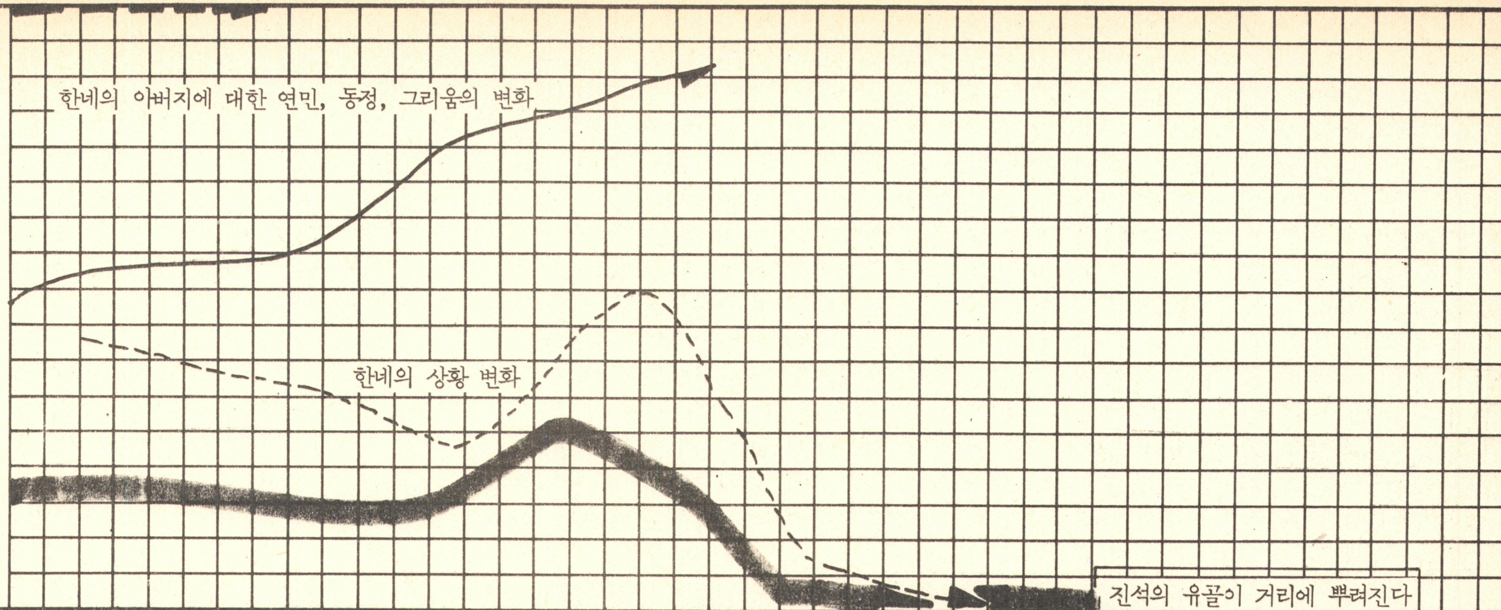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병원으로 바뀌는 장소의 비약에 관객들은 이제까지의 심리적인 흐름이 단절되고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진석이 술을 집요하게 요구)
- 병원의사의 만류는 과연 진석이 빠져나갈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병원을 나서는 순간 진석이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 관심이 쏠린다.

○진석이 경찰서로 떠날때는 진석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영원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한 인상이 한네의 가슴에 박힌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하게 뒷골목(술집골목)을 스케치하므로써, 술꾼의 생활에 공감이 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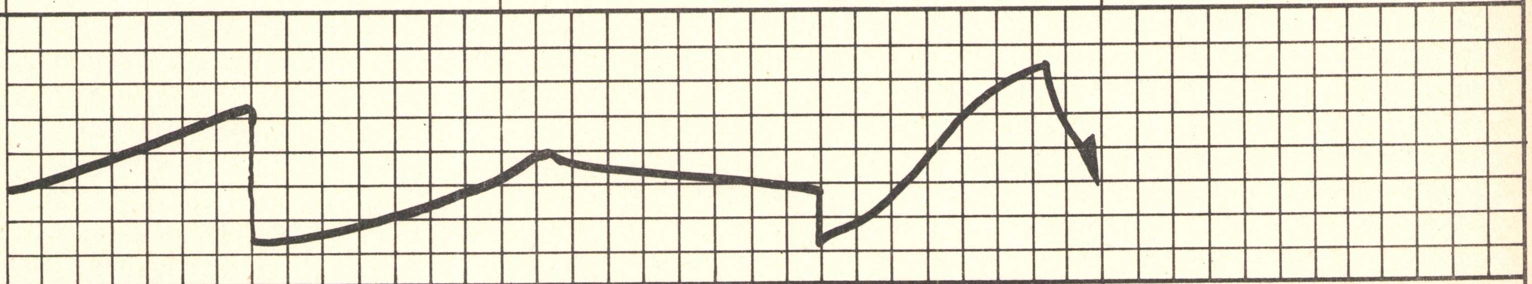
고 아 원
교도소주변



No.	25	26	27	28	
SCENE	고아원 사무실	고 아 원	교 도 소	거 리	
내 용	경찰은 한네를 고아원에 데리고 간다.	한네는 고아원의 외로운 생활속에서 아버지가 다시 나올날만을 기다린다.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찾아간 한네는 유골을 아버지가 남긴 사소한 물건으로만 알고 받아든다.	동네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아버지의 유골은 공중에 날려 버려진다 한네는 그것을 모른다.	
SEQUENCE	한네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나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한네는 교도소에 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2달전에 출감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하얀 백상자만 받는다. 한네는 그것이 아버지의 유골인지 모르고 아이들 장난 으로 공중에 날려지고 만다. 그날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 거리는 온통 하얗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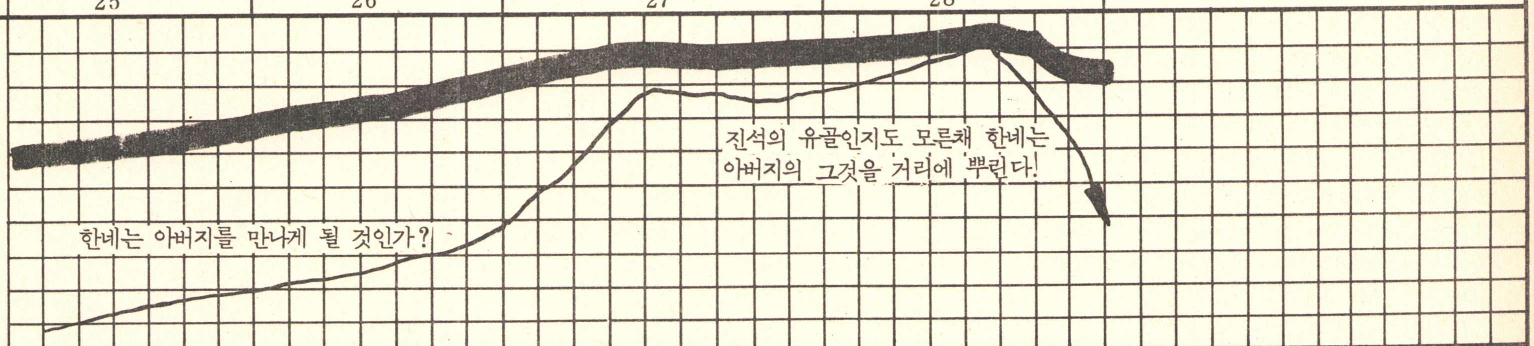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고아원 내의 사무적이고 외롭고 쓸쓸하며 통제된 생활묘사를 통하여 한네가 아버지의 출감을 절실하게 기다리도록 한다. ○시간경과(1년)를 나타내는 처리 필요 ○후에 한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지 않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상황묘사를 통하여 부여한다.	○아버지의 출감에 대한 기대와 기대가 빗나갈때의 한네의 심리변화, 한네가 모르는사이 진행되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유골이 바람에 날리는」장면 등은 관객이 한네가 아닌 전지적 시점에서 보도록 하며, 교도소에서는 교도원의 관점에서 보게 한다. ○교도소에서 교도원과 한네사이의 대화에 깔리는 심리	적인 교차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거리에 나왔을때 「기구한운영의 장난」을「한네의 관점에서 심리묘사」도 하면서 아는듯 모르는듯. 다음에올 한네의 미아생활에 대한 복선을 제시해야 한다. ○관객의 인간적인면-인생-에 호소해야한다.
분위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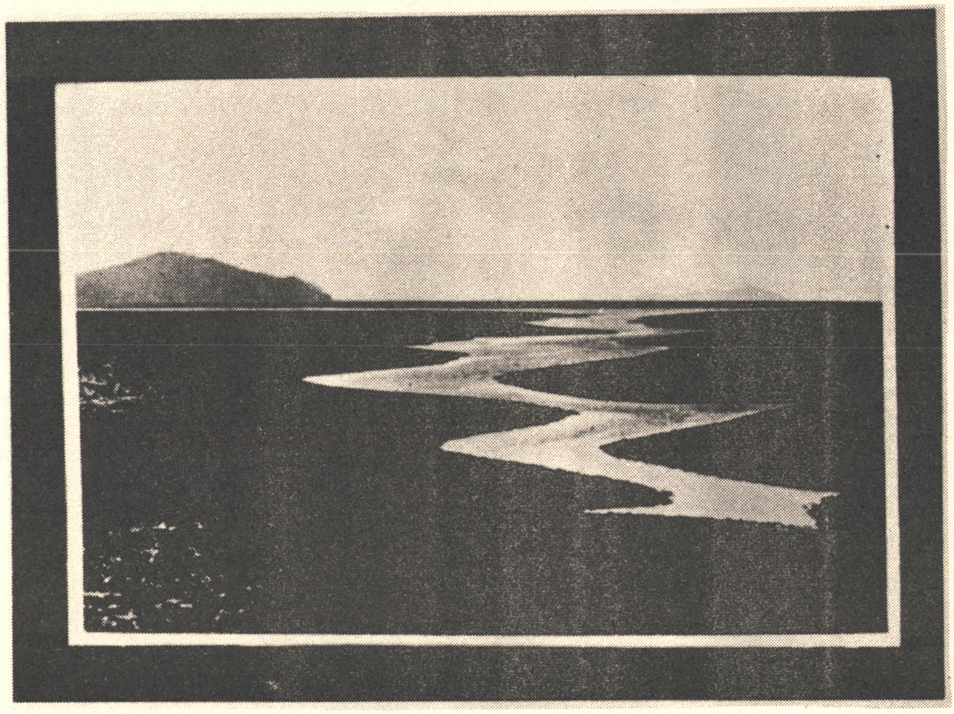
№	25	26	27	28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한네가 결국 고아원생활로 전락됨을 보면서 한네에 대한「동정심」이 생기기시작한다. (동정심이 너무 감상적이 되지 않도록 사실적으로 처리) ○한네를 통하여 아버지의 출감에 대한 기	대가 점점 배가하게 된다. (한네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면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소품등을 통하여 집요하고 섬세하게 묘사한다)	○교도소에 들어설때까지는 한네의 심리를 따라 아버지의 출감을 기대하나 교도원의 반응을 보면서, 한네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다. 미아가된 한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부



A. 작가의 의도

-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아갈려고 몸부림치는 한네와 그 주변 뒷 골목 아이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 이 작품의 커다란 맥의 하나가 되는 한네와 지남이라는 소년과의 우정을 굳게 다진다. 한네의 굶주렸던 정이 지남에 대한 우정으로 화하게 하여 지남의 갈등과 슬픔이 곧 한네의 것이 되게 하므로써 이 후에 사건을 지남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면서 한네의 관점에서 다루는 극의 진행에 대비한다. 역시 이 작품의 커다란 맥의 하나가 되는 원폭으로 인해 피해의 참상을 다루는 비판을 굳힌다.

o 지남의 가족들, 아버지, 여동생, 누나 등 모두가 원자병으로 인한 흉한 몰골 때문에 갈등하게 한다. 그 속에서도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랑으로 감싸며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갸륵한 마음을 그린다.

그들 중 지남의 누나는 불구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 있다가 그점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애틋한 사랑에 빠지나 또한 그 남자가 그녀의 곁을 떠남으로써 그 이후에 누나가 그를 찾아 극의 마지막까지 떠도는 사랑의 기점을 마련한다.

한네, 지남, 지남의 여동생 순실을 중심으로한 아이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본 어른들의 세계를 사실적이고 동화적으로 그린다.

B. 내 용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떠돌던 시절

미아 한네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허덕이다 마침내 깡통을 구해 거지로 나선다. 한네는 원폭의 희생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불구인 지남을 만나게 되며, 지남은 생각이 깊은 아이로 한네가 나쁜데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등 그들의 우정은 깊어가고 한네는 지남을 위하여 만원경을 사주게 된다.

그 망원경에 포착된 아파트에 한네는 부러움을 느끼며 지남은 아파트의 예쁜 소년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의 열등의식을 느낀다. 망원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지남의 누나 상순은 하숙생 신학대 졸업반 성호와 사랑에 빠지나 서로의 오해로 이별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병신에게 몸을 주게 된다.

지남은 상순을 비극에 빠뜨린 염소들을 풀어 놓다가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며 그로인해서 한네는 보육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상순은 다시 열애의 편지를 성호에게서 받게 되나 ……. 그날 버스 안내양이 된 상순의 얼굴이 보이는 차창에는, 몹시도 하얗고 차가운 눈이 매섭게 때렸다.

→ 2부에서는 • 한네와 지남의 우정
• 지남의 여동생 순실의 비극적인 면과 남매지간인 지남과 그녀사이의 애틋한 정
• 한네의 아파트 아이에 대한 막연한 사랑
• 상순과 성호의 사랑 등이 그려진다.

C. 관객의 반응

○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몸부림치다 겨우 벗어나자 다시 외로움이 엄습하고 그 갈증을 매우기 위해 승냥이처럼 헤매이며, 지남에 대한 우정으로 쏟아지는 한네의 마음은 그대로 꼭 감싸주고 싶은 공감을 일으켰다.

○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동화적으로 그려지는 어른들의 세계는 아기자기한 동화의 나라에 간 듯한 감을 느끼게 했으며 도처에 비극과 슬픔과 소박한 기쁨이 채색되어져 있었다.

○ 원폭의 피해로 인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버지 역시 하얀 피부를 가졌기에 아버지로부터 구박을 당해야하는 여동생 순실. 불구로해서 자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시달려야 하는 누나 상순 그리고 자신의 흉한 얼굴, 그러면서도 그것을 딪고 일어나 가족들을 돌보고 위안하며 옳은 길로 인인도하려는 지남의 몸부림은 원폭에 대한 증오와 인간의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D. 시나리오

6장

29. 지하도 내

경찰의 호각 소리가 찬 바람을 타고 새벽 기상을 알렸다. 눈동자가 밤새 더 휑해진 노인들, 연탄재를 먼지와 반죽하여 문질러 놓은 듯한 아이들이 꾸역꾸역 일어 났다. 한네는 눈꼽을 비비면서 그래도 고아원에는 절대 안들어 가리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30. 교회 앞 골목

모든 것이 얼어 붙었다. 바람도 햇빛도 얼어 붙어 그림자는 움직일 줄 몰랐다.

한네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먹을 만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라면이 눈에 띄었으나 얼지 않아 모두 밑으로 흘러 내렸다. 더 깊숙히 뒤지자 주먹만한 밥덩이가 번들번들하게 얼어 붙은 체 기다리고 있었다.

31. 다리 밑

다리와 그밑 지면이 맞닿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을 골라 양철 위에 밥덩이를 놓고 불을 지폈다. 그러나 녹아 내림에 따라 한네의 마음을 자꾸만 조이면서 부피는 점점 작아 지더니 마침내 한 숫갈남짓 되어 한 입에 털어 넣었다. 그뿐이었다.

32. 거리

밤은 길었다. 이제 경우 한 시를 넘었다. 밤은 여전히 꽁꽁 얼었다.

한네는 차가운 벽 앞에 붙어 단추를 끌렀다. 되는데로 껴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보온기를 찾기엔 힘이 들었다. 그는 오줌을 누며 기어드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속이 쓰려왔다. 빈 배의 신경을 괜히 건드렸다. 사람이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나 깡통이 없으니 거지로 볼 수도 없었다.

한네는 잠시 멈칫하다 사내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꽁초 몇 개와 먹다 남은 북어가 왼쪽 주머니에서 나왔고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전차표 두 장이 나왔을 뿐이었다. 이번에는 속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동전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지자 한네는 거친 호흡을 해가며 두개의 100원짜리 동전을 끄집어 내었다. 저 쪽에 밤을 지키는 방범이 보였고 5 m도 못되는 곳에 술집이 늘어서 있으나 한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 추운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병신스럽게 어겨졌다.

S# 33-36분실 되었음

7장

37. 고물상 앞

가게 보다야 고물상이 깡통 구하는 데는 백 번 나았다.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거나 혹은 너무 작거나, 너무 볼품이 없거나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은 것으로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한네는 구멍이 뚫린 깡통의 뚜껑을 만들고 철사끈을 달았다. 어깨에 닿는 부분은 털실로 감았다.

한네는 고물더미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다. 깡통은 몸에 맞으나 얼굴이 그래도 좀 깨끗하다고 생각되었다. 검정을 얼굴에 묻히고 옷은 고물 중에서 하나 골라 위에 껴입어다 댔다. 이젠 영락없는 거지인 거울 속의 아이에게 찡긋 윙크를 했다.

38. 극장 앞

병수, 인용이, 정식이 모두 낯 익은 얼굴들이었다. 혹시나 하고 매표원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맞은 편에 중년은 넘어 보이는 거지가 앉아 구걸하고 있었으나 한네는 맘이 내키지 않는다.

한네는 아이들을 피하여 구석 쪽으로 갔다.

아까부터 한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을 쭉 주시하던 우산장수 아이가 「한네야」하고 불렀다. 한네는 자신도 모르게 모자를 눌러썼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한번더 침착하고 확신있게 불렀다. 얼굴 한 쪽이 엉긴 지남이였다. 원폭의 피해가 유전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때문인지 학교도 일학년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그 뒤로 쭉 비닐우산 장수를 했다. 그는 공부를 기막히게 잘 했었다. 선생님도, 반 아이들도 그를 천재라고 했었다. 지남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한네를 뚫어져라 보면서 읽고 있던 책을 덮었다. 그리고 매표원에게 다가가 꾸벅인사하고 한네를 끌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눈초리가 일순 부러움으로 변했다.

39. 극장 안

좌석 한 가운데에 앉았다. 사람들이 없고 썰렁했으나 영화를 본다는 사실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면서 한네는 말이 없어지고 물끄러미 바라볼 뿐 이었다. 우울하게도 그 영화는 행복한 가정 그것도 어린애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

우산장수 아이도 그 엉긴 얼굴을 매만지면서 가끔 한네를 힐끗 바라 볼 뿐 이더니 그 동작마저 없어지고 깊은 생각에 빨려드는 듯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40. 극장로비

영화가 끝나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밀려나갔다.

「얘. 뚜껑을 열어야지」

「땡그랑」

꼬마애였다. 그 소녀애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우산장수 아이가 언제나 처럼 쇠박대로 보일러를 장단을 맞추어 두드리다. 한네를 의식하고 멈추었다. 그리고는 땡 마지막으로 쳤다. 그 마지막 소리는 유난히 크고 길게 들렸다.

41. 시장 꽃가게 앞

아침부터 비가 금방 올것 같이 찌푸등 하면서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지남이는 그렇게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잠이드는가 싶은데 갑자기 후드둑 소리가났다. 보통비가 아닌 때돈을 벌어줄 소나기 소리였다.

상호는 후다닥 뛰쳐 나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지남이는 제 풀에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비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바로 이층 꽃가게 물뿌리개에서 내린 물이었다.

상호는 하릴없이 광장을 한 바퀴 쓱 둘러봤다. 그러다 빗소리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것을 발견했다. 저쪽 골목에서 한네가 아가씨 앞을 가로막고 두 손을 그녀 앞에 모으며 한사코 보태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이 뿌리치다 결국 호주머니를 뒤지고 없자, 핸드백

까지 열어 그것도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듯이 쥐어주고 빠져 나가는 것이 보였다.

한네는 그 돈을 자랑스러운 듯이 들고 지하도를 빠져 나왔다. 그는 대뜸 복권판매대 위에서 손점을 치더니 500원을 내주고 올림픽 복권 한 장을 샀다.

「애, 복권을 살려면 되나 안되나 미리 점을 치고 구해야지」

거지 옆에서 노란새를 놓고 점판을 벌이고 있는 여덟 살 남짓한 계집아이였다. 지남은 자신도 모르게 앞에 거울에 나타난 자신의 얼굴을 봤다. 그래도 옷깃을 세워봤다. 가릴수는 없었다. 감시망처럼 지켜보던 지남은 한네 쪽을 향해서 돌아섰다. 그 순간 섬찟했다. 돌아선 쪽에서도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면서 그 얼굴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지남은 씁쓸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한네 쪽으로 다가갔다.

새는 열심히 말을했다.

「안녕히 가세요」

깜찍하고 얘쁘다고 생각됐다. 한네는 돈이 더 있으면 점이라도 쳐주고 싶었다. 아니, 한네는 지하도를 빠져나가면서 꼭 다시 만나리라 다짐했다.

지남이는 열심히 그리고 어른처럼 말했다. 복권같은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할 짓이 못된다. 저축을 해야 한다. 나는 돈을 모아왔고 지금도 모으고 있다. 보여달라면 지금 당장 보여 줄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 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공장 한 가운데에는 자선 불우이웃 돕기라는 커다란 플랭카드가 서 있었다. 그 앞에서 스님·교인 몇몇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변에 다른 몇몇 사람은 팜프렛을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장의사도 얼결에 명함을 사람들한테 넘겼다. 그 뒤로 카메라 맨들이 저마다 이름을 붙이고 빛을 터트리며 찍어댔다.

한네와 지남이는 그들을 가로질러 비집고 나갔다. 그런데 저만치 앞 쪽에는 한창인 이 운동과는 인연이 없는 듯. 비스듬히 누워 졸고 있는 지게꾼 할아버지가 보였다. 지남이는 갑자기 한네의 복권을 뺏어 들더니 할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었다.

42. 후미진 벽

역전 건물 모퉁이를돌아 건물과 건물이 50센티 남짓한 벽 사이로 들어갔다. 지남이는 말을 계속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다. 보지는 못했어도 굉장한 보물을 모아놓은 모양이었다. 한네는 은근히 호기심이 동했다.

지남이는 주변을 둘러 보더니 조심스레 벽 중간에서 벽돌 한 장을 꺼냈다. 신기하게도 안에는 가로세로 높이 30㎝되는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돈은 보이지 않았다. 지남이는 손을 집이 넣어 쌓여있는 흙을 젖히더니 동전을 꺼내기 시작했다. 다꺼내자 손바닥에 펴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산가게는 커녕 양산하나 사기에도 빠듯한 빈털터리였다.

「자, 만져봐.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어 쏟아지잖아. 자. 너도 돈이 생기면 보태는 거야. 이제부터 같이 버는거야 동업하는 거라구」

지남이는 광장에 다시 나와서도 여전히 말을 계속했다.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집 밖에 나가 놀기를 싫어하고 혼자서 방구석에 처박혀 책만 읽었다. 그 시절에 유일한 취미이자 놀이는 맞은 편 거리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망원경이 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몰랐다. 하지만 아무도 사주지는 않았다.

아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인데다 정신이 가끔 이상해져서 집에있는 물건이고 사람이고 보이는 데로 치고 부셨다. 나하고 동생을 특히 싫어했는데 그 원폭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한쪽 손이 마비되고 목에 근육이 점점 튀어 나오는 것도, 가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 2년 전에 아예 집을 나왔다.

지금은 역전 옆 산부인과 건물 안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여동생이 걱정된다. 혼자 나온 것이 비겁한 것만 같이 여겨진다. 동생을 위해서 망원경을 살 수 있다면 ……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양산가게를 차리는 것이 훨씬 늦춰질 것이다. 지남이는 평소때 말이 없는 것

에 비해 너무도 많은 말을 해 버린 듯 했다. 마치 열병에 걸린 아이처럼 열심히 말했다.

한네는 어쩌면 지남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남이처럼 막연히 돈을 모아서는 아버지처럼 되기 십상이다 생각했다.

43. 공 터

지남이는 봤다. 한네가 몇몇 아이들과 어울려 뭔가 모의를하고 있는 것을, 지남이는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 것인 지는 몰라도 최소한 나쁜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한네를 그들에게서 빼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남이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너무 무서웠다. 그 중 한 녀석이 지남에게 왜 왔냐고 물었을 때 한 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비실 물러났던 것이다.

그때 비가 내렸으면 할말은 있었을 텐데

한네는 지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싱글싱글 바라볼 뿐이었다. 지남이는 자신이 한없이 경멸스러웠다.

44. 교 회

그러나 지남이는 그들의 뒤를 추적했다. 교회 안에는 정장을 한 귀부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지남이는 이미 알아 차릴 수 있었다. 예상대로 한네가 살금살금 기어오더니 핸드백을 가지고 나갔다. 문을 나서면서 한네는 주먹감자까지 한 방 먹였다. 밖에서 망을 보던 애들이 한네를 따라 우루루 몰려갔다.

45. 골 목

아이들은 돈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었다. 한네는 자신이 돈을 나눠주고 흡족해 했다.

지남이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ㅇ아이들중에 한 놈이 벽 한 가운데가 흉하게 뚫린 벽 안쪽을 들여다 보았다.

—한 처녀가 다른 새로 온 여자인 듯한 처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벽에 붙어 선 체 술, 담배를 한 여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여자가 번갈아 마시고 피웠다.

아이들은 점점더 고개를 벽 안쪽으로 집어 넣었다. 아이들은 어느 덧 서로 뒤엉켜 싸움이 붙기 시작했다.

한네는 싫었다. 한네는 그것이 싫었다. 한네는 드럼통을 세게 차버렸다.

Cf. 아이들을 「악, 불량아들」이 아닌 맥시동료들과 같은 식으로 의리가 있게 처리 (파리대왕)

8장

46. 제과점

한네는 모두 똑같은 모양이건만 고르고 골랐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잘 싸달라고 했다.

47. 장난감집 앞

한네는 망원경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호주머니 돈을 마음 속으로 세어 보았다.

한네 : 「이건 얼마예요?」

주인 : 「5만원. 왜 4만원에 줄 수도 있다.」

한네 : 「이거는요. 」

주인 : 「3만원」

한네 : 「이거는요」

주인 : 「만원, 얼마가지고 있는데 말해봐」

한네 : 「아녀요」

주인 : 「이쪽으로 와봐라. 이거 8천원짜리다 안되니? 옛다 5천원에 준다」

한네 : 「잘 포장해 주세요」

「아이스크림은 벌써 흘러내리고 있었다.

48. 상호의 집앞

「지남아」

「너하고는 만나지 않아. 넌 나쁜애야」

한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대답이없다. 한네는 기다렸다

이대로 말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스크림의 흘러내리는 물을 손가락으로 빨아 보았다. 모양을 다시 예쁘게 만들어 보았다. 그래도 상호는 나오지 않았다.

한네는 저도 모르게 망원경을 떨어 뜨렸다. 뭔가 가슴 깊숙이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내려 앉는다고 생각했을뿐인데. 급히 포장을 풀었다. 상자를 쓰레기 통에 처넣어 버렸다.

그런데 그때 대문 안 쪽에서 지남이의 누나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좀더 놀다가지 그러냐. 아버지는 오늘 늦게 오실거다.」

여동생의 가냘픈 소리도 들려 왔다.

지남「날이 비올것 같아요. 다음에 들를께요. 순실아 잘있어」하는 지남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가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대문을 나오다 한네와 마주쳤다. 지남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지남이는 채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그 만원경을 어디서 주웠니」하면서 다가와 만원경을 들여다 보았다.

지남「얘게, 고물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한네「으응. 못쓰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해서 주워왔어」

지남이는 문득 포장지를 발견하고 이어 바닥에 떨어진 유리렌즈 조각을 발견했다. 한네가 지남의 눈빛을 살폈다. 지남이는 만원경을 다시한번 살펴봤다. 서로의 눈빛이 어색하게 마주쳤다.

「그래도 새건데」지남이가 말했다.

한네「고맙다. 지남아」

49. 버스정류장

차표관리원 찐따가 한 쪽 다리를 절면서 옥수수 같은 것을 사서 나눠먹을 때면 의례 큰 쪽을 상순에게 주곤하였다. 오늘도 지남의 누나 상순이는 그것이 싫지는 않은 듯 받아드는데 맞은 편에 보이는 상순이집 대문 쪽에서 성호 아버지가 한 손에 책꾸러미를 든채 이쪽으로 손을 까불고 있었다.

상순이는 그가 볼세라 옥수수를 통째로 찐따에게 돌려주고 곧바로 대문 쪽으로 한 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뛰어 왔다. 이리털고 저리 털어주며 책꾸러미를 받아 쥐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성호 아버지는 예나 다름없이 성호 자랑이요. 상순이는 시아버지를 모시 듯 장단을 맞췄다.

50. 지남의 집(빈민 아파트)

지남이와 한네가 망원경을 번갈아 가면서 맞은 편 아파트내를 바라봤다. 목욕탕에서 한 아이가 종이배를 욕조에 띄우고 물결을 일렁였다.

다른 한 아이는 반대편 욕조 한 끝을 잡고 수영하듯 두 다리를 첨벙였다. 다 집으로 옮겼다.

국민학교 4학년 쯤 들어 보이는 아이가 병아리 상자를 들고 난간쪽으로 가고 뒤를 6살 쯤 되어 보이는 얘가 한 마리를 양 손으로 감싼체 따랐다. 큰 애는 상자를 난간에 조심스럽게 놓더니 옷으로 고이 덮어 줬다. 작은 애도 사발에 놓더니「잘자라.」하는 듯 다독거렸다.

51. 지남의 집

성호는 신학대학 졸업반이었다. 그는 넝마주이를 하였다. 책을 세일하는 홀아버지가 나름대로 보태준다고는 하지만 학비를 대기엔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까닭은 길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아껴주고 보살피는데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런 말을 상순이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성호는 내성적인데다 결벽증이 있어 하나님의 길만을 따르려 했다.)

상순은 성호 앞을 지날 때 마다 자신의 약간씩 저는 발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오리처럼 기우뚱기우뚱 하는 모양을 성호가 뒤에서 보고 있으리

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성호가 자신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생각했다.

성호와 같은 수도를 써야하는 상순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성호와 마주쳤다. 그럴때면 상순이가 미쳐 무슨 말을 찾아 내기도 전에 그는 폭 고개를 수그리고 인사는 커녕 쳐다도 안보고 휙 비켜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상순이는 이런 상호가 몹시도 섭섭했다.

52. 지남의 집

마루 밑에 키우던 암탉 한 마리가 오늘은 앞 마당 한 가운데에서 목을 하늘로 길게 늘이빼고 시름시름 졸고 있었다. 어느새 왔는지 장닭 한 마리가 다가와 부리로 암닭의 벼슬을 쪼았다. 그러자 암탉이 길게 소리를 지르며 한쪽 구석으로 갔다. 장닭이 재빨리 뒤 좇았다.

지남이는 망원경을 눈 앞으로 바짝 당기고 이 두 마리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한쪽으로 간 암탉이 납작하게 앉자 장닭놈이 그 위로 올라타 구르기 시작했다. 이 하는 꼴을 상순이도 숨을 죽이고 지켜 보았다.

지남이 옆에서 아파트를 지켜보던 한네가 망원경을 뺏듯이 상호에게서 받아 들었다.

한네는 어제 그 병아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 했는데 마침 아이들이 난간쪽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큰 애가 병아리 상자에 덮었던 옷을 들추자 병아리들은 모두 죽어있었다.

어느 것은 옆에 세면대야의 물에 빠져 죽기도 했다.

작은 아이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의 사발을 열어 봤으나 역시 죽어있었다.

지남이는 한네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보고 있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급히 다시 망원경을 빼앗아 좀 전의 그 암탉을 쫓았다. 그런데 상순이가 렌즈안으로 들어 오더니 「얘. 흉칙하게. 」하면서 장닭을 툭 쳐서 떼어 놓았다.

상순이는 성호의 방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몰래 안

쪽을 들여다 봤다. 이때 한네가 다시 지남이가 보는 망원경을 빼어 들었다. 지남이가 렌즈를 바짝 줌인시켜 성호의 안방을 보려 했던 순간이었다.

한네는 병아리 옆집의 부엌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잡았다. 번들번들한 식탁 위에 접시 두 개가 양쪽에 놓여지고 이어 포커와 스푼 그리고 소세지와 빵이 차례로 놓여졌다. 그리고 한 가운데에는 꽃송이 하나가 꽂힌 꽃병이 놓여졌다.

아주머니는 이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예쁜 소녀가 내려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한네는 물끄러미 넋나간 듯 쳐다봤다. 천사처럼 깜찍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렌즈앞으로 추악한 몰골이 들어왔다. 한네는 순간적으로 「악」소리를 질렀다.

「미안해」지남이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이미 지남은 창유리를 보면서 뭔가 자신의 생각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문득 창 저편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듯하나 전혀 생소하기만 했다. 물결 센 해변의 바위처럼 세파에 시달려 온 저 굴곡. 미우나 차마 버릴 수 없는 얼굴, 지남은 살며시 그 얼굴에 빰을 대보다가 물러났다. 검지 손가락 끝으로 낚서를 하고 입김을 불었다. 「바보. 죄인. 무능」등의 글씨가 찬 유리 위에 나타났다. 부끄러워서 일까. 마침 떠오른 달빛 속으로 그 가련한 얼굴은 사라지고 눈 덮인 먼 산 봉우리가 이스라히 나타나고 그 때에야 마술에서 풀려난 듯 자신의 손에 들려진 만원경을 들여다 봤다.

한네가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망원경이 지남의 손에 가 있었다.

지남의 망원경은 이제 상순을 따라 성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상순이는 슬그머니 들어가 붉은 표지의 책을 빼내려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책꽂이의 책들이 와르르 쏟아진 것이다. 상순이는 정신없이 다시 꽂았다.

지남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성호가 망원경 안으로 갑자기 뛰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망원경을 최대한 줌인시켰다.

상순이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다가 성호가 나타나자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 버렸다. 성호의 눈은 유난히 크고 깊다고 생각되었다. 상순이는 죄책감에 사과하려 했으나 성호는 무관심한 듯 책을 다시 꽂았다. 상순이 사과의 말을 해도 대꾸가 없었다. 아예 상순의 존세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다. 상순은 문을 꾸욱 눌러 닫고 나오고 말았다.

「병신ㅡ」

성호는 상순의 절룩이는 발을 보고 있었다.

상순이 그것이 저주스럽도록 싫었다. 할 수만 있다면 발을 끊어내고 싶었다.

53. 거 리

찐다는 여전히 상순이에게 싱글거리며 왕군밤을 권했으나 상순은 무관심하고, 얼굴은 수심에 찬 듯 굳어 있었다.

54. 지남의 방

밤 한시는 족히 되었으나 지남이는 오랫만에 이 방에서 자보는 것이었다. 옛날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그대로 책꽂이에 사면 벽을 가리우면서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못자고 뒤척이진 않았을텐데 어머니 병 때문에 누나가 오늘 만은 꼭 집에서 자라고 신신부탁해서 누워있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들어와서 그 벌개진 술취한 눈으로 바라 보며 마구 두들겨 팰것만 같았다.

「머나먼 저곳 스와니 강물 ……」

차고 맞은편 그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앳된 목소리. 그 소녀가 공부하다 말고 잠깐 불러보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다음날 음악 실기시험이 있어서 잠시 연습하는 곡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노래가 차고 맑은 겨울밤 하늘을 건너와서 지남을 조용히 회

한의 밀물에 젖게 했다.

지남은 빨리듯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뜻 밖에도 그 목소리는 베란다에서 커튼을 거머쥔채 부르는 가엾은 여동생 순실의 것이었다. 머리와 눈썹 그리고 피부가 모두 하얗다. 마치 인형 같았다. 그것도 원폭재에의해서 이상이 생긴 유전병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동생을 귀신같은 년 이라며 때리곤 했었다.

지금은 자신 대신에 매와 구박을 한데 다 받고 있었을 것이었다.

테이블위에서 커피포트의 물이 끓고 있었다. 김이 새어 나오면서 소리가 났다. 순실은 그 앞에 다가서더니 지휘봉 하나를 들고 악대를 지휘하듯 신중하게 소리 맞춰 흔들었다. 그러다 깜찍하게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지남에게로 뛰쳐왔다. 동생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겠다며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제쳤다. 그러나 아파트도 거리도 모두 어둠 속에 잠겨있어 망원경으로 볼 데도 없었다. 그런데 한 군데 지남의 어머니의방은 아직 불이켜져 있긴 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일년이 넘도록 계속 병으로 아랫목에만 누워 있었다.

지남은 동생을 위해서 출입문 윗 창살의 투명한 부분으로 망원경의 촛점을 맞추었다. 상순이 누나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도무지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없어 동생한테 넘겨 주면서도 미안했다. 그런데 동생은 받아들자 마자 표정과 눈빛이 긴장되는 것이었다. 문쪽에 웬 사내의 그림자가 어리더니 방문을 열었던 것이다. 성호였다.

「괜찮다면 내가 몇시간 정도 지키겠읍니다. 눈좀 붙이세요. 」

상순 : 「아, 아니어요. 됐어요. 」

상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갑작스런 방문에 성호의 그 큰 눈만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상순이의 마음엔 잠을 깨우는 단비가 내리는 것만 같이 여겨졌다. 밖에서 누군가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실은 망원경을 대문 쪽으로 돌렸다. 순실의 얼굴이 금방 창백해졌다. 지남이 받아들었을 때 목쪽에 굵은 힘줄이 드러난 아버지의 얼굴이 렌즈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옆에 있는 염소에게 죽여버릴 듯이 돌을

던지며 노려봤다. 순실은 문쪽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걸어 잠궜다.

아버지는 염소가 돌에 맞지않자 집요하게 줄을 잡아당겨 목을 조였다. 염소가 소리를 지르지않자 더 조였다. 소리를 내자 그때서야 아버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55. 장례식 날

상여가 나가고 맨 앞에 지남이가 어머니 사진을 들고 섰다.

찐따가 상순의 옆으로 오더니 옆구리를 꾹 찌르고 능청스런 얼굴에 유들한 웃음을 피웠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성호는 웬지 모르게 자신이 들고가던 지팡이로 흙을 내리쳤다. 한 쪽 옆구리에 책 꾸러미를 낀 채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는 아버지가 유난히 촌스러워 보였다.

아니. 모든 것이 구역질이 나도록 더럽고 징그럽게만 성호에게는 여겨졌다.

56. 지남의 집 그날저녁 (혹은 며칠후?)

상순이와 성호 아버지가 부지런히 찾았으나 성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짐을 쌌는지 책이 흐트러져 있고 벽장에 버티고 있던 커다란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10 장

57. 지남의 집

지남의 집은 며칠 전부터 장터처럼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했다.

지남할머니가 며느리 장례식을 치른 후 빚 독촉이 심해지자 묘안을 짜낸 때문이었다. 장에서 상추 쪼가리를 주워다가 키우던 염소를 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흑염소 육골즙이란 것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예 솥단지를 장독에 따로 내놓고 때문에는 「흑염소 육골즙—정력에 특히 좋다.」는 풋말까지 붙여 놓았다. 장례식 때는 한산하던 집안이 그래서 이렇게 북적대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좀더 생각해서 소주도 몇 박스 들여놓고 안주도 따로 장만할 참이었다.

지남이도 우산장수를 그만두고 옥상위에서 장독대가 잘 보이는 곳에 망원경을 고정시켜 놓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지켜봤다. 여동생 순실이도

시어봤다. 그날은 고양이까지 합세하여 계속 울어댔다. 그 목소리는 상당히 애절하기까지 했는데 주변에 몇 마리 고양이들이 정말 모여들었다. 그 계속 우는 놈은 암놈임에 틀림이 없었다. 다른 놈들이 서로 엉켜붙어 싸우는데 이놈만은 가만히 앉아서 그놈들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남이는 최후로 이긴 놈이 그 암놈과 함께 후미진 데로 들어가는 것을 망원경으로 따라갔다. 그러나 대문 밖으로 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추적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 차표 관리원 찐따가 렌즈안으로 들어왔다.

지남이는 그 사내가 누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어쩐지 싫었다. 거기다 오늘은 그 육골즙까지 먹었는지 얼굴에 개기름이 흘렀다.

찐따가 장독으로 가려고 부엌 쪽으로 갔다. 이번엔 찐따편에서 먼저 상순을 보자 못 본 채 고개를 수그리고 걸었다. 그런데 찐따가 상순의 코앞까지 가도 상순이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요즘 찐따를 보기만하면 얼굴을 돌리고 달아나던 거리에서의 상순이와는 달랐다.

한네가 언제 왔는지 망원경을 들여다보려했다.

한네와 지남은 결국 한쪽식 봤다. 그러나 여동생의 칭얼댐을 넘길 수 없어 지남은 물러서고 말았다.

찐따가 비로소 눈을 드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상순이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여전히 찐따를 쳐다보고 있는 상순의 눈에는 스르르 윤기가 돌았다. 찐따는 솥 옆에 차표 꾸러미를 놓았다.

찐따 : 「왜 그러냐?」

상순 : 「………」

상순이는 앞으로 다가서는 찐따의 얼굴만 빤히 건너다 볼 뿐 대답이 없었다.

상순이의 눈동자는 점점 더 빛이 났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푸른 하늘이 부풀어 오른다 하는 순간 쭈르르 눈물이 뺨으로 굴렀다.

「…… 」

상순이는 가만히 고개를 떨어 뜨렸다. 누구의 힘에서 인지 모르게 그들의 어깨가 렌즈 밖으로 스러져 내렸다. 한네는 왠지 마른침을 삼켰다.

58. 거 리

그날은 눈이 내렸다. 몹시도 많은 함박눈이 내렸다고 생각되었다.

상순이는 버스 안내양이 되었다.

지남이는 누나가 그일 때문에 안내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는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찐따라는 자가 누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머리를 쥐어 박기 까지해도 누나는 예전과는 달리 고분고분 찐따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찐따도 지남의 집을 제법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고, 할머니도 웬일인지 함부로 대하지 안했고, 말을 높이기 까지 했다.

그런 어느날 (찐따는 상순의 절뚝절뚝 더디게 걸어오는 모습이 오늘 따라 지겹도록 보기 싫다)

그날도 찐따가 상순이를 뭐라고 다구친 후 상순이가 버스를 떠나게 하려는데 한네가 나타나 편지로 보이는 꾸깃꾸깃 접은 것을 상순에게 건네 주었다. 상순이는 「오라이 -. 」도 잊고 단숨에 그 편지를 읽어 내렸다. 상순이는 찐따가 다시 안 떠나냐고 다구친 후에야「오라이. 」를 했다.

버스출입문에 바짝 밀착된 상순의 멍한 표정을 지남은 잊을 수 없었다. 그 모두가 찐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상순의 얼굴로 함박눈이 자꾸만 끝없이 내렸다.

상순은 차바퀴소리가 망연해지도록 편지 글귀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이었다.

병신같이, 성호는 상순이가 한 남자가 아닌 두 남자를 사귀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자신만을 사랑해 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 하숙집을 떠났으며 그러나 지금 상순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 자신으로서는 최대의 용기를 내어 상순에게 결단을 요구하라는 것이

었다. 그러나 군이 상순씨에게 자신을 택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자신을 택하지 않는 것은 상순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나는 상순씨가 나를 택하지 않는다 해도 그대로 상순씨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끝부분에는 힘 주어 자신으로서는 최대한 용기를 내어 쓴 것이니. 비웃지는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다짐시켜 놓은 것이었다. 상순의 약간 저는 모습이 한없이 그리웠으며 사랑스러웠다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59. 지남의 집

지남이는 망원경으로 지남 집 뒷 쪽에 있는 염소시장의 염소들을 보면서도 맘속으로는 누나 생각 뿐이었다. 여동생 순실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한없이 그 하얀 얼굴에 웃기만했다.

지남은 누나를 생각하면서도 그 하얀 얼굴은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누나는 지금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그 원인은 저 염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염소를 먹으면 사람들이 짐승이 된다고 여겨졌다.

찐따도 그 염소를 먹고 그랬다. 지남은 찐따가 그렇지 않아도 절름거리는 누나를 구박하는 것이 몸서리 치도록 싫었다. 대문에 써있는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도 그런 의미리라 생각되었다.

지남이는 들여다 보던 망원경을 옆에 놓고 시장쪽으로 내려갔다.

한네는 지남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60. 염소시장

지남이와 한네가 주변에 얼씬거리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우리의 문을 열었다. 가축시장은 금새 난장판이 되었다. 부인네들은 피하고 사내들은 염소를 잡으려고 난리였다. 염소들은 주변 가게로 뛰어 들었다.

지남이와 한네는 재빨리 골목으로 숨어 들었다.

○ 그러나 결국 날뛰던 염소들은 어른들의 손에 의해서 개패듯이 타작—어차피 죽일 것들이니까— 되어 트럭에 실리는 것을 그리고 정육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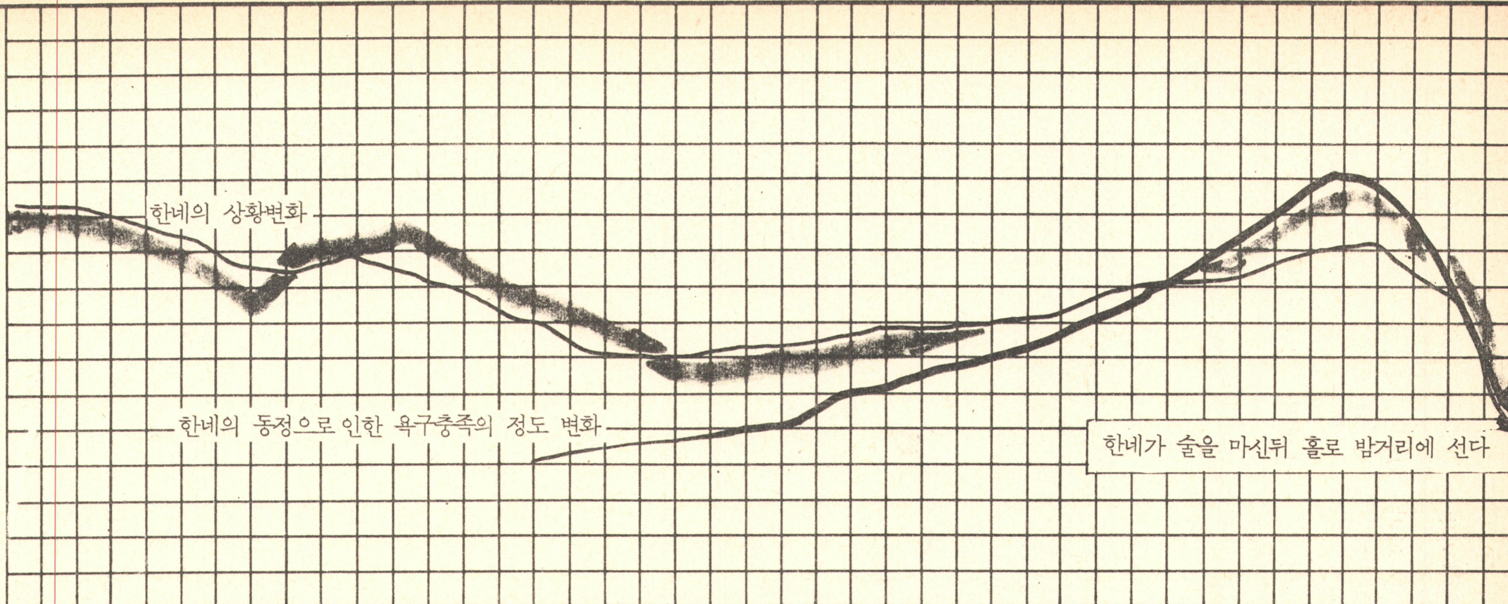
비닐옷을 입은 사람들이 뒷다리를 한꺼번에 여러마리씩 들고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네와 지남은 보아야 했다.

61. 전자 오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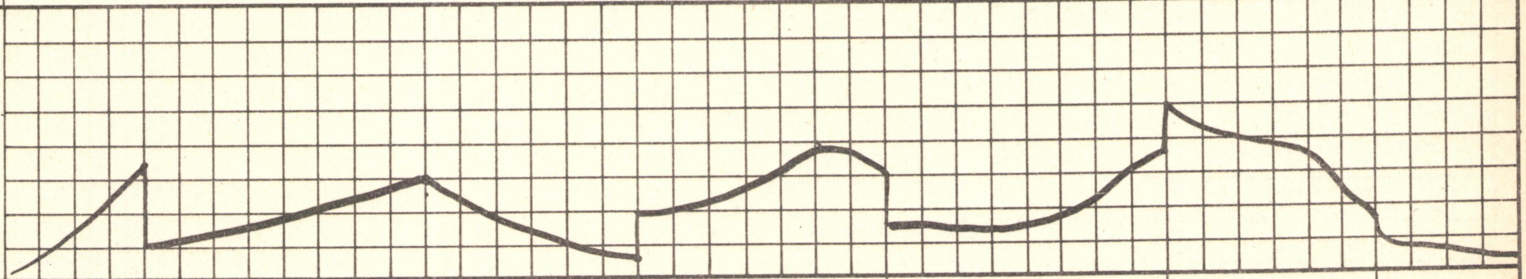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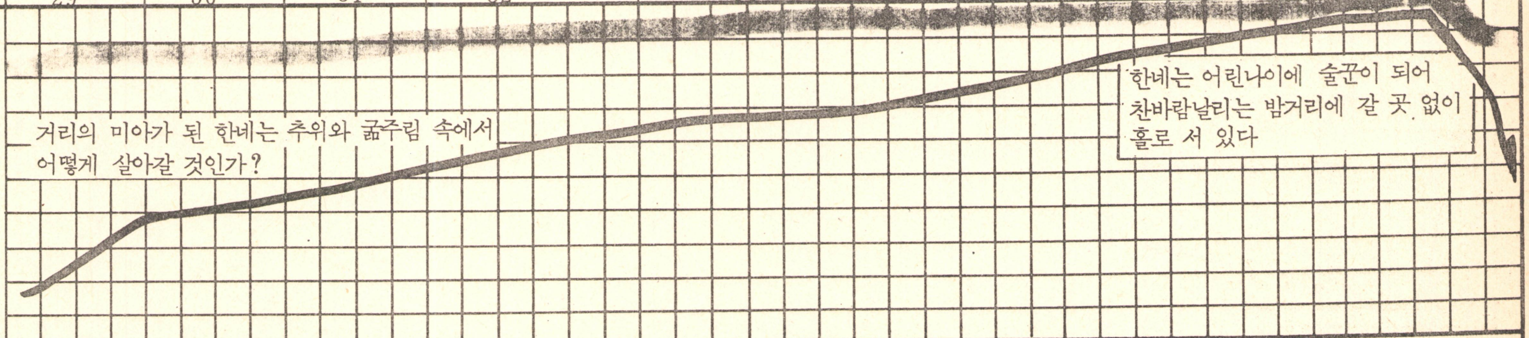
지남이와 한네는 왠지 겁이나서 더이상 집에서 망원경을 볼 마음이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한네는 아침부터 오락실 게임에 열중했다.

지남이는 왠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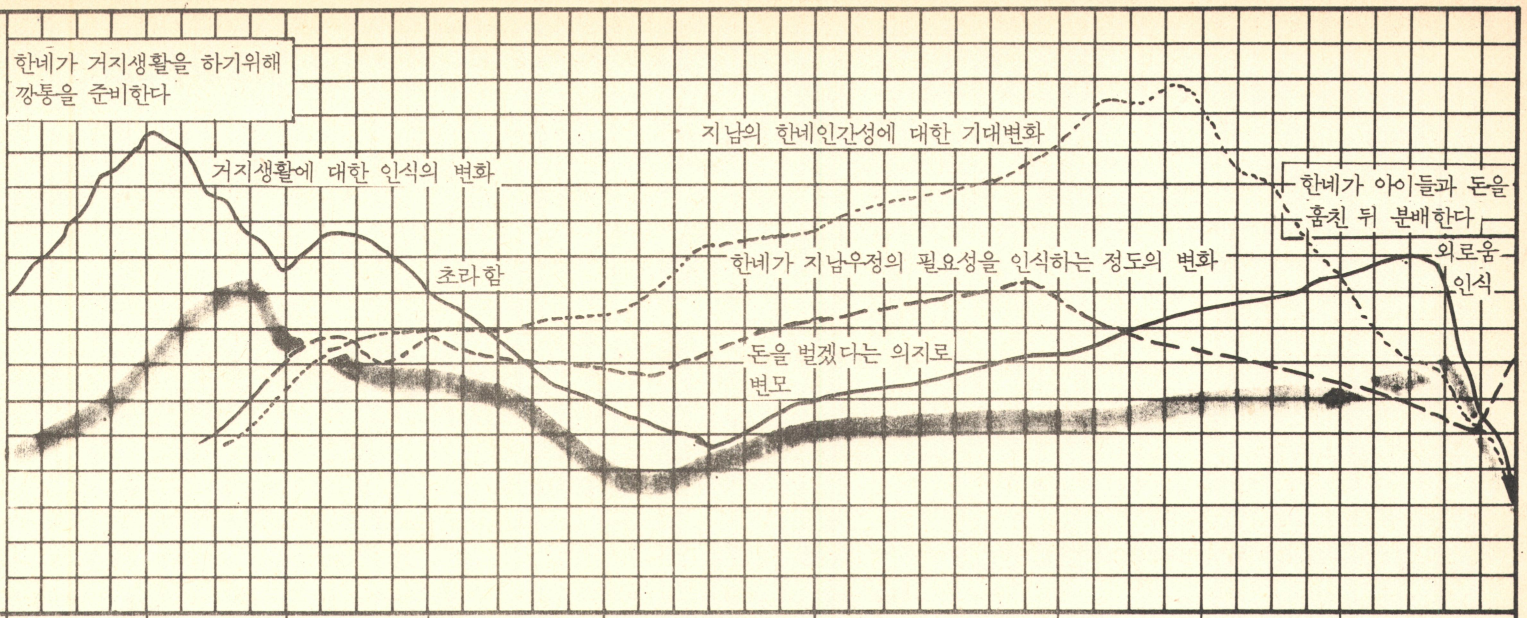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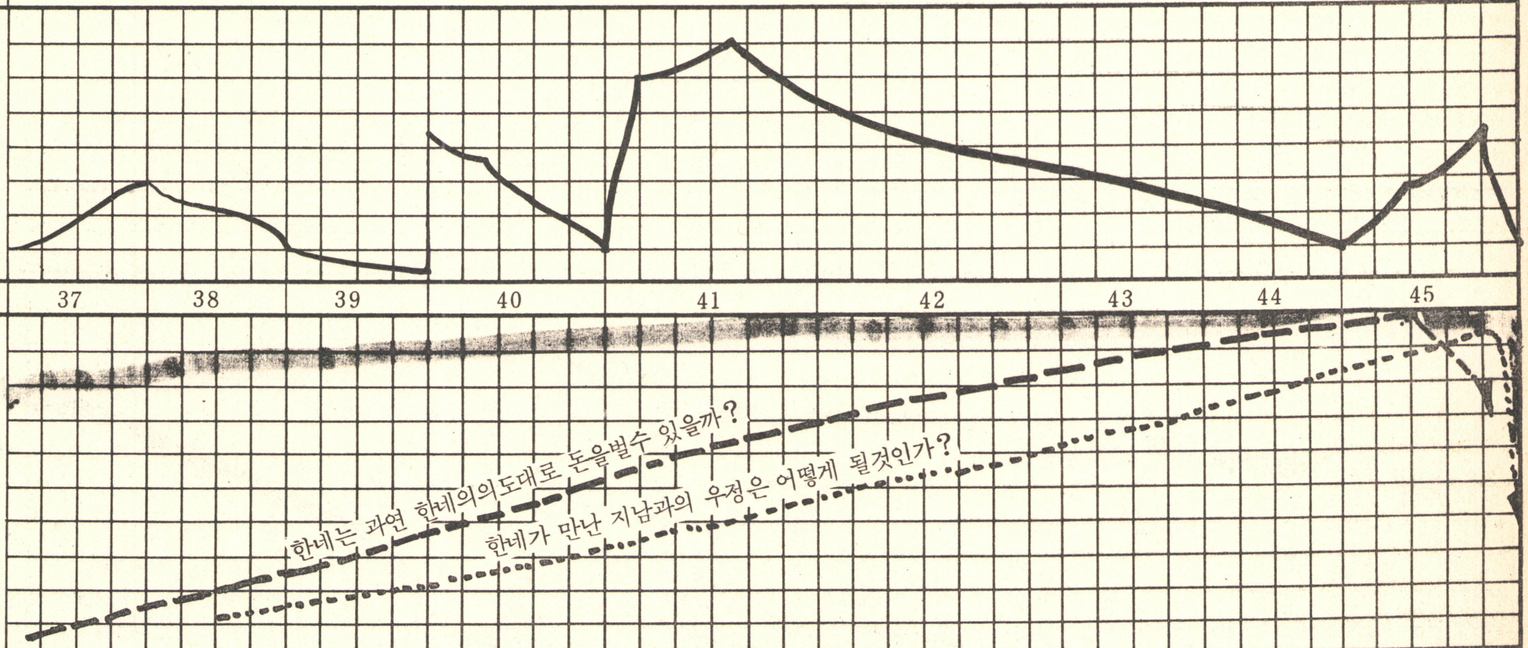
골목								
No.	29	30	31	32	33	34	35	36
SCENE	지하도내	교회앞골목	다리 밑	거리	평양집	과부집(밖)	과부집(내)	길
내용	한네는 고아원에서 나와 지하도에서 자고 주변을 전전하게 된다.	한네는 배고품 속에서 쓰레기통 안의 얼어붙은 밥덩이를 찾아낸다.	한네는 그 밥덩이를 녹이나 녹은 밥은 한입에 들어갈 정도이다.	한네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허기진 배로 돌아다니다 발길에 채이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의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빼낸다.	한네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에 들리나 술꾼들에 휩싸여 술꾼처럼 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다.	한네는 그 돈을 내고 술로 허기를 채우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얼큰하게 마신다.	한네는 뭔가 모르게 밀려 오는 설움을 으깨며 과부에게 심정을 토로하나 과부는어린 것이 술을 그만 마시기만 원한다.	한네가 밤거리를 술이 취한체 쓸쓸하고 우울하게 걸어간다.
SEQUENCE	한네는 고아원을 나와 지하도 주변을 전전하면서 추위 속에서 굶주림을 면하기에 급급한다. 그런데 거리에 쓰러진 행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술을 마시게 된다. 나름대로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만 거리는 더욱 더 차갑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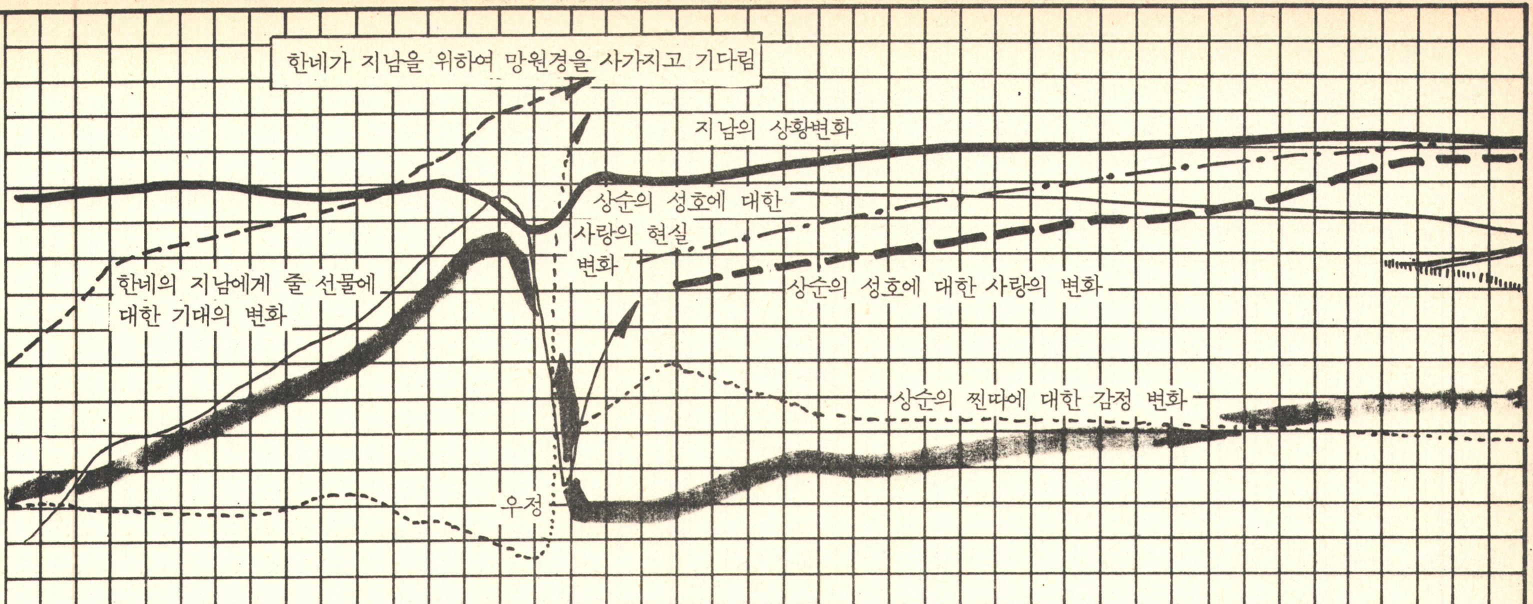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ㅇ한네가 미아가되어 거리를 전전하면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한네가 진석처럼 자아파괴 상태로 가는 과정을 장면의 진행에 따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며 관객은 한네의 심리를 따라 가도록 한다. ㅇ한네가 술꾼이 되는 장면까지 진행시키는데 과장되거나 관념적인 면이 보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ㅇ영화 (Midnight cowbody)* (Taxi driver)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No.	29 30 31 32 33 34 35 36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한네가 거리를 전전하며 어떤 식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ㅇ한네가 봉창을 뒤지고 술을 마시면서부터 「소년의 일상성」을 벗어나게 되어 허구와 사실의 경계에 유의하면서 진행을 주시하게 된다. ㅇ마지막 한네가 술집을 떠나 거리에 홀로 섰을 때는, 관객들도 한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막연하다. ㅇ극의 진행도 어떻게 진행될지 거의 짐작할 수 없다. ㅇ관객들은 여기서부터 극중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에 빠지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부터 강렬한 Reality부여 필요.

극장주변



No.	37	38	39	40	41	42	43	44	45
SCENE	고물상앞	극장앞	극장안	극장로비	시장, 꽃가게앞	후미진 벽	공 터	교 회	골 목
내 용	한네는 거지가 되기위해서 깡통을마련하고 옷도 갈아입고 분장까지 한다.	그러나 막상 거지가 되고보니 왠지서럽고 우울하기만 하다. 친구가 되는 지남이 우산장수를 만나게 된다.	지남이 덕분에 영화를 보게되어 처음엔 즐거웠으나 상영함에 따라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한네 또래의 꼬마애가 동전을 집어 넣으며 거지 취급을 하자 초라함은 극에 달한다.	지남이 한 차래 희비를 겪은 뒤 한네를 발견한다. 한네가 억지로 구걸한 돈으로 복권을 사자 지남은 그 복권을 지게꾼에게 주고 자신이 모은 돈을보여 준다고한다.	지남은 돈을 보여 준 뒤 원자병으로 시달리는 가족, 자신의 흉한 얼굴, 그 때문에 집에서 책만 보면서 지냈다는 사실, 그리고 만원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한네와 몇몇 아이들이 나쁜일을 모의하고있는 것을 지남은 보고 말리려 하나 용기와 힘이 없어 그렇게 못한다.	지남의 예상대로 그들은 한네를 시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지갑을 훔친다.	지남이 몰래 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돈을 나눈다.
SEQUENCE	한네는 거지가 되면 굶주림을 면하리라 생각하고 깡통을 만들어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막상 거지생활은 동네아이들로 해서 자신을 초라함으로 넣는데 그는 원폭제로 해서 얼굴 한 쪽이 얽은 우산장수 아이 지남을 만나게 되며 지남이와 같은 원폭희생자인 아버지가 동생과 지남을 심하게 구박해서 지금은 보육원 생활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지남은 생각이 깊은 아이로 한네가 교회에서 물건훔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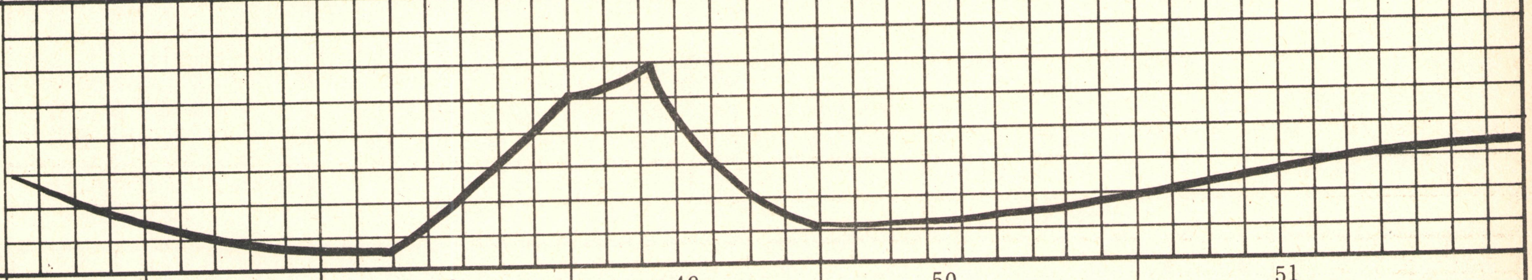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ㅇ한네가 홀로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노변아이들의 실상과 연결하여 보여준다. ㅇ앞으로 지남을 중심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시(성격 묘사 유의) ㅇ한네를 위하려는 지남의 마음을 극장에서부터 계속 연결시켜 다음에 올 지남의 실망을 고조시키도록 미리 준비(소극→적극적으로 바뀌는데 지남의 격려 필요) ㅇ극장에서부터 지남을 통하여 한네를 보도록 지남의 시점으로 전환。 ㅇ깡통 만들때의 기대→극장에서의 부끄러움, 실망감→적극적인 구걸→복권→돈을 훔치는 데 가담 : 이와 같은 행위의 변화에 일관성과 심리적인 변곡을 주어야 하며 사건 전개가 병렬적이지 않도록 유의。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어둡고 음울하고 사실적으로 진행되자 지리한 감을 느끼기 시작 신선하게 긴장감을 풀어줄 변화를 기대한다. 그런 가운데 〈 ① 깡통을 차는 모습→② 극장앞 모자를 짓누르는 모습→③ 극장안 쇠막대를 두드리다 그칠 때→④ 아이가 깡통에 돈을 넣을때→⑤ 지남이 물뿌리개를 소낙비로 착각할 때→⑥ 한네가 아가씨에게 구걸할 때→⑦원현이 점을 치라고 할 때→⑧ 지남이 한네를 데리고 광장을 지날 때→⑨ 돈을 보여 줄때→⑩ 지남이 한네와 함께 있는 패들 앞에 나설때→돈을 각자 분배할 때 〉그때마다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속된다. (웃음속에서 지남과 한네의 심리묘사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각자를 가리고 있는 그림자를 항상 밑에 깔아야 한다.) ㅇ지남이 한네 패들의 도둑질하는 모습을 본 후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남의집주변						
No.	46	47	48	49	50	51
SCENE	제 과 점	장난감집앞	지 남 의 집 앞	버 스 정 류 장	지남의 집 (빈민아파트)	지남의 집 (빈민아파트)
내 용	한네은 아이스크림을 신중을 기해서 산다.	돈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겨우 망원경을 산다.	한네는 아이스크림과 망원경을 지남에게 건네주려고 찾아가나 지남은 만나주지 않는다. 결국 실망한 한네의 손에서 아이스크림은 녹고 망원경은 깨진다. 그런데, 지남이 나타나 서로가 말없는 화해와 감사를 한다.	지남의 누나 한순이는 차표관리원 찐따가 주는 옥수수를 먹다가 하숙생 성호의 아버지를 보자, 금방 변하여 성호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 한다.	지남이와 한네가 망원경을 가지고 맞은편 아파트를 구경한다. 두아이가 병아리를 끔찍히도 위한다.	신학대생이며 결벽증이 있고 내성적인 성호에게 상순은 말을 걸기를 원하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SEQUENCE	한네가 지남을 위해서 그가 갖고 싶어하던 망원경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지남은 저번일로 해서 결별하겠다고 만나주지 않는다. 실망과 의혹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시 만나고 서로는 화해와 우정을 느끼게 된다.			지남과 한네가 망원경을 가지고 아파트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핀다. 한네는 아파트에서 병아리를 키우려다 죽이고 만 아이와 꽃처럼 예쁜 아이를 보고 사랑을 느낀다. 한편 망원경에 잡힌 지남의 누나와 신학대학 졸업반인 하숙생 성호, 찐따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된다. 성호는 상순에게서 상순의 어머니 간호 중 연정을 느끼지만 어머니 장례식때 상순이 찐따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것을 보고 집을 떠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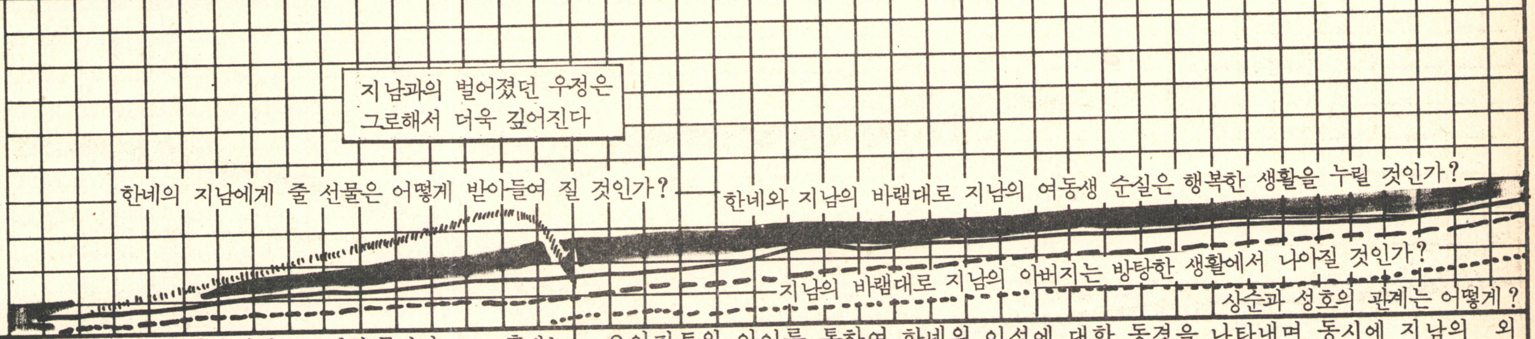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지남과 한네의 우정을 강하게 처리→극중 분수령→ 극의 전개상 추진력→결말부분 지남의 죽음에서 관객의 반응을 강렬하게 하는 데 근거가 되도록 유의 ○관객과 한네의 동일감 형성, 한네의 쑥쓰러움, 기대→ 실망감→충족 등 미묘한 심리 변화 유의. ○지남의 집 (아버지와의 관계) 복선과 아울러 지남의 인상에서 보여지는 신적인 그림자의 포착.	지남의집 주변 〈 작가의 의도 〉 ○지남과 한네의 우정을 망원경을 통하여 더욱 깊게 한다. ○지남과 지남의 여동생 순실 사이의 남매의 정을 깊게 하므로써 후에 순실의 죽음시 지남에게 충격이 크도록 한다. ○지남과 한네의 눈 (망원경) 을 통하여 상순과 성호의 사랑을 그림으로써, 작품상 시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며, 성인들의 사랑이라는 분위기의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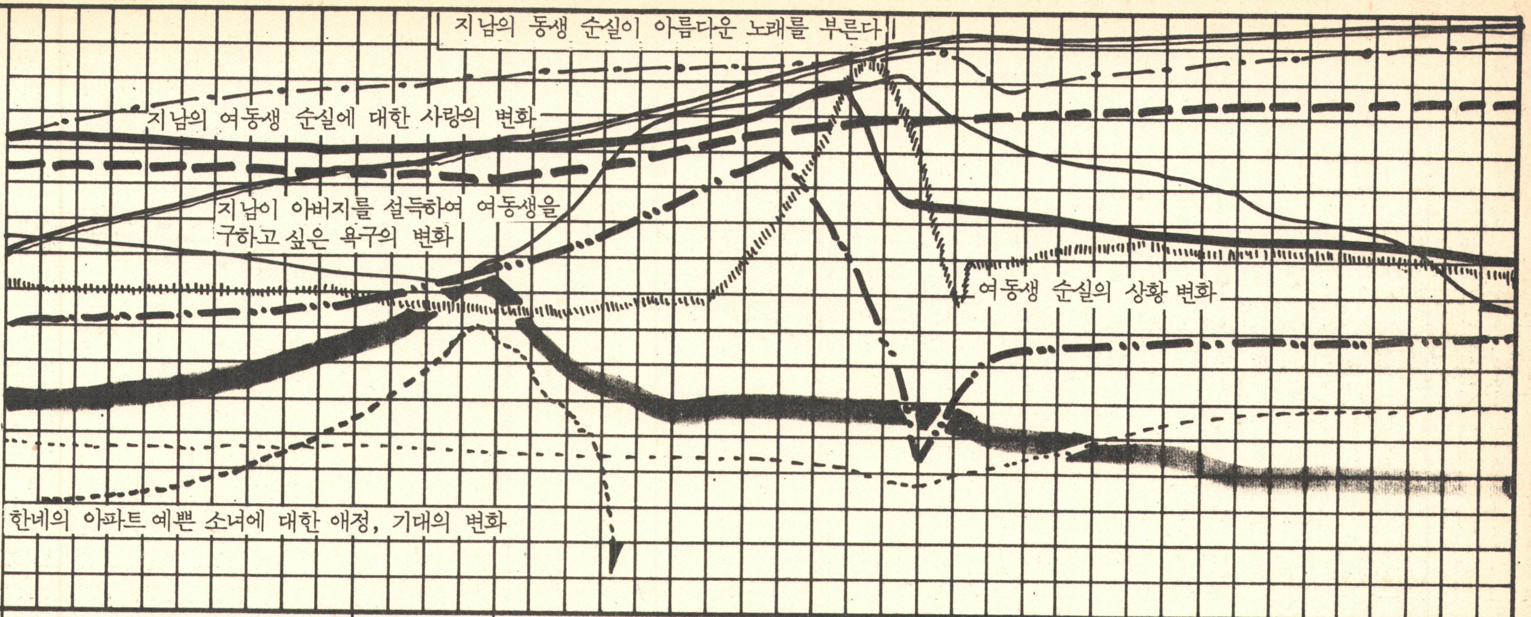
№	46	47	48	49	50	51

관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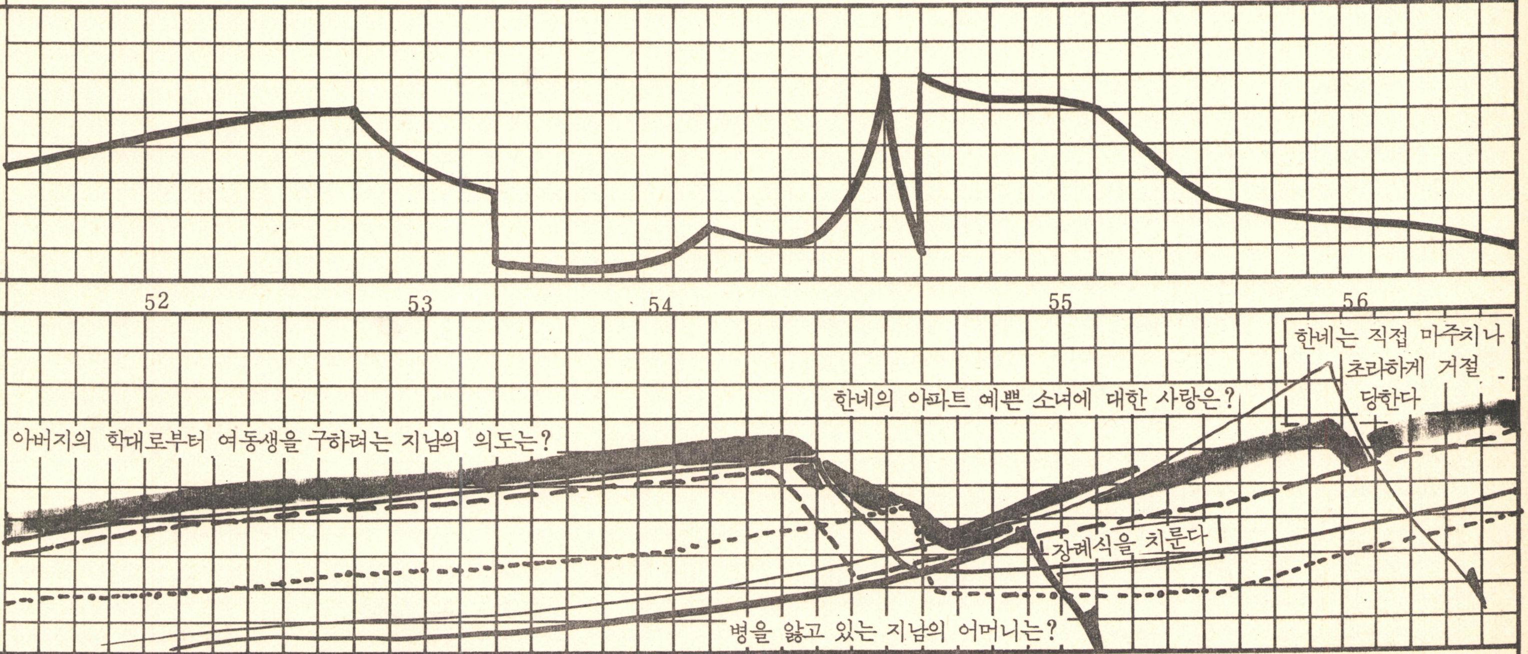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한네의 기대, 지남의 냉담으로 인한 무너짐. 그 후에는 어떻게? ○관객들은 한네와 지남의 우정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다시 극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이것이 주는 효과는?) ○뭔가 활기있는, 규모가 좀더 다르고 이색적인 장면을 기대한다.	○아파트의 아이를 통하여 한네의 이성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며 동시에 지남의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강조한다. ○상순의 동양적인 은근과 끈기, 순정을 강조하므로써 오랜세월 동안의 방랑을 뒷받침해준다. ○닭의 교미장면 한네가 아파트의 예쁜 아이를 볼 때 상순이 성호의 문을 보는 장면 등 인물 상호간의 묘한 정신적인 교감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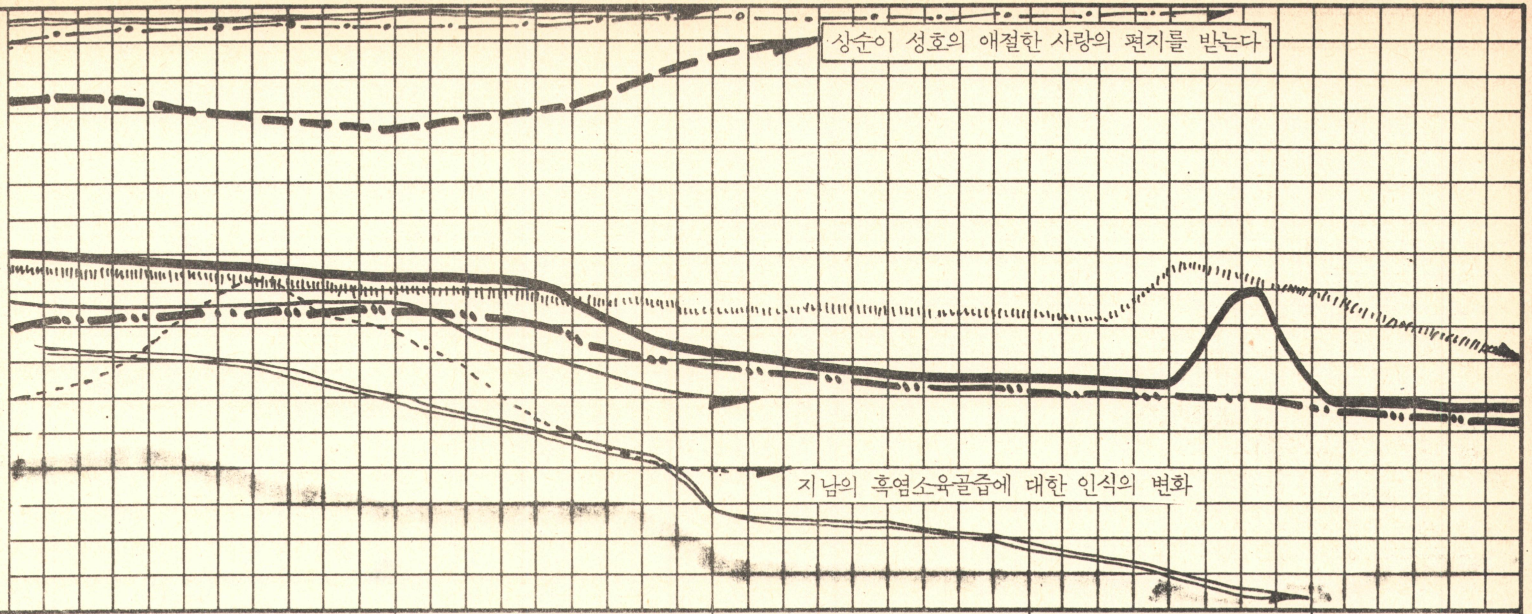
지남의집주변



No.	52	53	54	55	56
SCENE	지남의집 (빈민아파트)	거 리	지 남 의 방	장 례 식 의 날	지 남 의 집
내 용	지남과 한네가 망원경으로 아파트와 상순을 번갈아 본다. 아파트의 죽은 병아리들, 암숫닭의 교미, 아파트의 예쁜 소녀 상순이 성호의 방에서 벌이는 실수와 성호의 그녀에 대한 무관심 등이 모두 랜즈에 잡힌다.	찐따가 상순에게 수작을 거나 상순은 수심에만 차 있다.	지남이 어머니 병환으로 해서 자기 집에서 자게 되는데, 여동생 순실의 부탁으로 엿본다. — 상순과 성호가 나름대로 연정을 느낀다.	지남의 어머니 상여가 나간다. 성호는 찐따가 상순에게 거는 상스러운 수작을 보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다.	성호는 말없이 상순의 집을 떠난다.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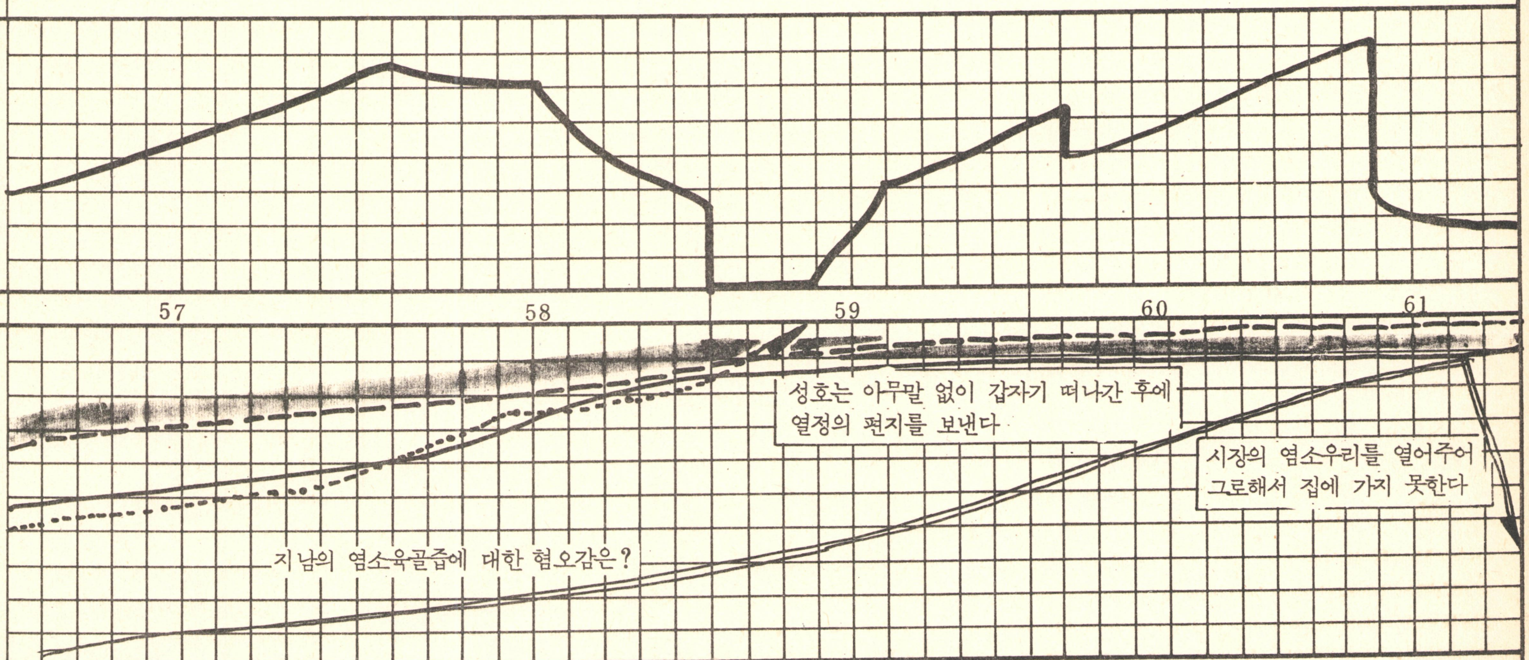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망원경을 서로 바꾸어 볼 때 생기는 심리적인 효과 아이들이 성인들의 사랑을 볼 때 생기는 심리적인 효과 } 등을 충분히 거두도록 해야 한다. 〈 관객의 반응 〉 ○ 상순과 찐따, 성호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 그 외에는 관객들이 각 장면에서 보여지는 사건들에서 깊은 공감을 가지게 한다.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No.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 관객들은 각 인물들의 인간내면에 깊숙히 자리잡은 심리변화를 읽게 되며 각 인물들의 외로운 구석으로 돌아가 본다. ⇦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극의 구성상 「박진감」의 결여, 강력한 「갈등」의 결여 등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 남의집주변



No.	57	58	59	60	61
SCENE	지 남 의 집	거 리	지 남 의 집	염 소 시 장	전자오락실
내 용	지남의 할머니는 장례식때 충당된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흑염소육골즙을 판매한다. 이통에 찐따가 드나들고 상순은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찐따에게 몸을 주고 만다.	상순이는 찐따의 소유물처럼 되어 버스안내양을 하게된다. 그런 어느날 성호에게서 애절한 편지를 받게 되나 소리없는 눈물을 흘릴 뿐이다.	지남은 누나의 아픔을 읽고 그 원인이 찐따를 짐승처럼 만든 염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남과 한네는 염소시장의 염소들을 몰래 풀어준다. – 시장은 난장판이 되고 만다.	지남과 한네는 만원경을 보지 않는다.
SEQUENCE	망원경에 잡힌 지남의 집에서는 할머니가 장례비를 치루다가 진빚을 갚기위해서 키우던 염소를 잡아 흑염소육골즙 장사를 하게되며 이틈에 드나들던 찐따에게 상순이는 성호로 인한 설움과 갈등에 못이겨 몸을 주고 만다. 그 댓가로 버스안내양을 하는 상순에게 성호의 「열애」가 담긴 편지가 오게된다.		지남은 누나의 슬픔이 염소때문이라고 생각, 시장의 염소우리를 몰래 열므로 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작가의 의도	ㅇ상순이 성호가 떠남으로써 받는 충격과 열등의식, 찐따의 상순에 대한 구박, 갈등, 상순이 편지를 받은후의 성호에 대한 강렬한 갈등을 제시하므로써 상순이 성호를 찾아나서는 추진력이 되게 하고 영화의 last scene에 매치되도록 한다. ㅇ지남과 순실의 남매의 정을 지남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부각시킴으로써 뒤에 여동생의 죽음시 지남의 반응을 강렬하게 한다. ㅇ염소를 잡는 장면을 통하여 지남이에게「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학성」을 깊이 심어 준다. 그리하여 후에 아버지가 여동생을 죽이는 장면에 매치되도록 한다. ㅇ상순이 인간의 정력(욕)에 대한 집착의 희생물이 되는 분위기 조성
분 위 기	



관객의 반응	ㅇ성호가 떠난후 상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찐따와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찐따와 상순의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성호의 편지이후 상순은 어떻게 할 것인가? ㅇ흑염소 육골즙을 판매하는데 사건의 추이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 ·찐따와 상순의 관계 ·상순의 아픔 ·흑염소 육골즙 판매 상황 에 대한 관객의 관심을 망원경으로 수렴하여「지남」에게 귀결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관객들은 염소사건이후 한네와 지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쏠리게 해야 한다.

3부



A. 작가의 의도

광장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광장주변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동시에 원폭으로 치닫는 소녀들의 광폭한 전쟁놀이, 태아를 이용하여 기름으로 짜는면, 인공수정을 통하여 다량의 아이들을 생산해 내려는 계획 등의 문명의 오용을 그림으로써 원폭의 비참함을 재현시킬지도 모를 가능성을 다루고 싶었다.

○ 지남의 아버지가 여동생 순실을 끔찍히 죽이는 장면,
정신이상이 되어 흉한 몰골로 감방에서 폐인이 되어가는 아버지,
그로해서 자신 역시 감방같은 정신수련실이라는 곳에 갖혀 자신의 현재의 얼굴이 아닌 새로운 모습의 자아를 찾으려하며 압박과 구속으로 일관된 이 세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꿈꾸기 까지하는 원폭으로 인한 비극을 일가족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고 싶었다.

○ 지남의 그래도 아버지를 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따스한 마음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헤메이는 지남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며 그를 그러한 상황속에 몰아 넣은 주변이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그것들로 부터 지키려는 한네의 짙은 우정을 그린다.

B. 내 용

역전광장 주변의 보육원 시절

한네와 지남은 광장과 거리를 전전하며 생활을 한지 1년쯤 되었을때 지남은 보육원 생활에 대한 염증과 함께 여동생이 아버지 밑에서 구박당하는 것이 염려되어 다시 집에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는날 여동생이 아버지의 구타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만다. 다시 광장으로 돌아 올때는 몹시도 많은 눈이 내렸다. 여동생이 죽었을 때의 골이 터진 모습은 지남의 뇌리에 깊숙히 박혀 그후 아이들의 시가전에서 파괴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며 실험실에서 태아를 이용해 기름을 짜고 인공수정에 의하여 다량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을 목격한 후로는 더욱더 깊숙히 새겨진다.

이러한 욕구불만은 지남을 다시 정신 수련실로 몰아 넣고 그 속에서 지남은 언어장애, 살인욕구, 인간의 잔학성과 추한 외모와 선한 마음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이중인격의 형성등 정신적인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원현에 의해서 약간 무마 되었을때 겨우 수련실에서 풀려난 지남은 초췌한 몰골과 함께 말이 없어지고 언어에 대한 혐오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 광장을 탈출하여 시골로 가게 된다. 지남이 시골에 내렸을 때는 몹씨도 많은 눈이 펑펑 쏟아졌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인간의 짐승에 대한 잔학성을 목격하게 된다.

한편 한네는 상순과 함께 성호를 찾아나서며 지남과 함께 시골로 떠나면서도 상순을 줄곧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복도에 의해 서울로 잡혀간다.

지남의 동생 주검에 대한 기억→파괴적인 성격→

- 원폭환자(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혐오감
- 자신 본래의 선한 마음 동경
- 추한 외모

} 로 인한

이중인격의 형성→「시골동경－깨끗한마음」떠난다.

그러나 시골에서 다시「인간의 잔학성」을 보게된다.

C. 관객의 반응

○ 지남의 여동생 순실의 아버지에 의한 끔찍한 죽음 장면, 아이들의 광폭한 시가전놀이, 산부인과 병원 밑에서 태아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는 장면,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인공수정에 의해 다량으로 아이를 생산하려는계획, 감방과 다름없는 정신수련실, 그리고 뭉치라는 사내의 폭력과 구속 등이 계속되면서 원폭의 비극을 다시 불러들일 것 같은 인간의 잔학성을 느끼게 했다.

또한 여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갈등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곤경에 처해지며, 결국은 현실의 자신의 흉한모습, 가압처럼 조여오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 새로운 세계를 꿈꿔야하는 어린 나이의 지남을 볼 때는 기성세대의 범죄를 이제 자라나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 댓가를 치루게 하는 가혹함을 느끼게 한다.

○ 지남을 위로하고 도와 주며 보살피는 한네의 우정은 그 속에서도 유일하게 훈훈하게 적셔주는 인간미였다.

D. 시나리오

S # 62-64.65 일부 분실되었음

어머니「놔둬라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자 일어나.」아버지가 순실에게 말했다.

그런데 순실은 아예 움직이질 않았다.

뒤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지남은 하느님께 동생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사고 빌었다.

하지만 못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쇠판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일어나지 못해? 안 일어나면 정말 혼내 줄 거다.」

그리고 그걸 순실에게 던졌다. 그 거대한 쇠판이 순실의 얼굴을 때리는 순간, 그리고 살점 같은 것이 얼굴에 달라붙는 순간 한네는 눈을 감아야 했다.

13 장

67. 시가전

눈이 내렸다. 몹씨도 많은 함박눈이 끝없이 내렸다.
한네와 지남은 다시 역전광장 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남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불타고 있을 뿐 말 한마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남이는 열병을 앓고 있어서 말을 할 때면 불같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말한마디 없다고 한네는 짐작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연막탄이 거리에서 터지고 총소리가 연이어 골목안을 가득 메웠다.

몇몇 낯익은 얼굴들이 길 양쪽 아파트 창문에 내밀었다가 금새 없어졌다.

지남이는 건물 옥상 쪽으로 급히 올라갔다. 아이들은 연탄재로 벽을 쌓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진지를 만들었다. 지남이는 한 아이에게서 따발총을 빼어 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아래 쪽으로 내려갔다. 무전기, 컴퓨터를 두드리는 녀석도 있었다. 양동작전이니 게릴라전법이니 하는 말들이 오갔다.

지남을 따라서 한네가 맞은편 건물로 기습하여 들어갔다. 한네는, 지남이가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도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동생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번에 아버지도 누나 한순이 때문에 그렇게 술을 퍼마셨던 것이다. 지남과 한네가 다시 실탄을 지원받기 위해 아군 쪽으로 가려고 거리를 건널때 였다. 맞은 편에 보이는 역전 건물 앞문 쪽에서 한 열 두어 살 들어 보이는 놈이 튀쳐나오더니 달렸다. 그러자 문앞에 구두닦이와 함께 있던 뭉치도 같이 뛰었다. 광장에서 구걸하던 소년들도 일제히 뛰었다. 그 뒤를 역원과 경찰이

쫓았다.

「경호 자식이야, 하지 말랬는데, 에이 껌이나 돌리랬더니. 」

「잡히면 소년원 직행이다.」

지남이와 한네도 얼결에 지하도 속으로 숨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서자 문쪽에 있던 한네가 재빨리 모자를 벗어 구걸하는 자세를 취했다. 경찰이 그의 앞을 지나 지남이 쪽으로 내려가자 한네가 눈짓을 했다.

지남이는 언제나 한네가 주택복권을 살 때 말을 걸어오던 그 꼬마 계집애 옆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행인이 땡그랑 돈을 던졌다. 경찰도 역원도 지나갔다. 그 꼬마 계집애 원현이는 무관심한 듯 껑충껑충 뛰면서 이상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 애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경찰이 다음 순간에 다시 들이 닥쳤기 때문이다. 순간이었다. 한 녀석이 앞을 쏜살같이 지나면서 「야, 튀어. 」

한네와 지남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지하도를 빠져나가 골목으로 돌아섰다. 경찰의 발소리가 따라오는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지남과 한네는 어둠컴컴한 벽과 벽 사이의 좁은 틈새로 들어갔다. 벽돌 두 개 크기만한 공간이 산부인과 병원쪽 건물 밑에 뚫려 있었는데 쇠창살로 대어 놓았었다.

잠시 숨을 돌리자 지남은 직감적으로 그 안쪽이 말로만 듣던, 아이를 소위 교육시키기 위해 지금 시키는 「정신 수련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틈새로 안쪽을 올려다 보자 정말 한 아이가 저 위 벽돌한장 크기만한 곳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며 쪼그려 앉아 있었다.

호각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지남과 한네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시 밝은 거리가 나왔다. 얼결에 그들은 노란새가 뛰쳐 들어가는 맨홀 속으로 들어갔다. 그 노란새는 지하도의 꼬마계집애가 점을 치는데 쓰는 새였다. 그 새가 왜 갑자기 이 안으로 뛰어 들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발에 자꾸만 달라붙어 꺼림찍하긴 했지만 그래도 맨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깊숙히 패인 곳을 피해갈 수는 있었다. 둘이는 맨홀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안으로 계속 들어갔다. 왜 자기들이 잘못도 없이 여기까지 도망와야 하는지 한네는 생각해보았지만 해답은 다시 이 화자한테 들어가면 찐따말대로 나쁜짓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달리 나지 않았다.

지남은 집에서 나온 뒤로 계속 한마디 말도 안했다. 그 노란새가 푸드덕 발밑에서 날더니 바로 앞에 다시 앉아 뭔가를 열심히 쪼았다. 모르긴 해도 이 안에는 노란새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맨홀이 열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꼬마계집애의 단단한 새장까지 뚫고 갔으리라.

68. 실험실

한네와 지남은 안쪽으로 들어가다 빛이 새어 나오는 곳을 발견했다. 철사로 얽기섞기 엮어 놓은 철망 너머로 웬 기구들의 다리가 보였다. 그렇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아이들과 시가전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곤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네는 철망 밑을 살며시 밀어 보았다. 쉽게 들쳐졌다.

지남이 먼저 얼굴을 내밀고 들어섰다. 그 뒤를 바로 한네가 따랐다. 그 철망이 제법 큰 소리를 내며 다시 닫혔다.

한네의 등에 밀린 긴 원통형 관이 쓰러지려 했다. 급히 지남이 손으로 받았다.

그 비스듬히 눕힌 원통형 관 너머로 머리에 실험용 두건을 쓰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꼈으며 온통 비닐옷을 입은 2명의 사내가 뭔가 작업하는 것이 보였다.

그대로 관을 쓰러뜨려 들킬 수는 없다.

지남은 관을 두 손으로 받쳐 일으키려 했으나 이미 중심이 기울어져서 서서히내려 놓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관위 윗 쪽이 지남의 코 앞에 와 닿고 떨어져 내리는 뚜껑을 한네가 급히 받았을 때, 지남은 입

을 커다랗게 벌린 채 연신 「하아―하아―」하고 가는 숨만을 내 쉬었다. 그것은 분명 뼈다귀였다. 웎 뼈다귀들이 아래로 흘러내리자 해골들이 드러났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실험실 내에는 모두 안 쪽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투명한 관들이 갖가지 모형을 이루어 복잡한 기관실 같았다. 한네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왔다. 방광이 터질 것처럼 조여왔다. 술이 마시고 싶어졌다. 한네와 지남은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통 뒤에 쪼그린채 조심스럽게 눈알을 굴렸다. 저 사람들한테 들키면 꼭 잡아 먹힐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출입문이 열리고 긴 박스가 실린 이동용 수레가 들어왔다. 그 뒤로 흰 가운을 입은 이화자가 들어왔다. 다시 문이 닫혔다. 고무장갑을 낀 사내 하나가 긴 박스 안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다.

한쪽 뚜껑을 열자 어린 태아가 나왔다. 사내는 익숙하게 긴 관에 집어 넣었다. 둘, 셋, 넷 모두 열 두 개가 들어갔다. 스위치를 올리자 기관이 일제히 가동되었다. 입구 반대편 쪽에서는 호리병에 기름같은 우유빛 액체가 똑똑 떨어졌다.

한네와 지남은 그때마다 몸이 오싹오싹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산부인과 건물 밑에 복잡한 구조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 한 쪽에 태아를 넣으니 다른 한 쪽에서 기름이 나왔다. 태아를 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것일까? 인공수정에 의한 태아의 다량생산이라고 했다. 태아를 다량생산해서 기름을 다량으로 생산하겠다는 걸까?

두 시간쯤 지났을까 고무장갑의 두 사내가 작업을 마쳤는지 나갔다. 이화자도 따라 나갔다. 한네와 지남은 제빨리 지하수 통로 철망을 열었으나 이미 맨홀이 닫혔는지 전혀 빛이 없는 암흑이었다. 출입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남은 울먹이면서 호리병 쪽으로 다가가 종이로 찍어낸 뒤 불을 붙였다. 역시 기름이었다. 지하수 출입문을 빠져나와 맨홀 쪽으로 향했다. 노란새가 불 근처로 날으다가 벽에 계속 부딪쳤다. 발밑에 걸리는 것이 사람의 내장처럼 휘감았다. 맨홀을 열자 노란새가 한네의 볼을 치며 튀쳐나갔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깃들고 있었다. 산부인과 건물 밑에는 여기저기 세단차들이 주차해있었다. 한네는 그들이 금방이라도 그 기름을

마실것만 같이 여겨졌다.

14 장

69. 거리

산부인과 건물밑 맨홀을 빠져 나오자마자 한네와 지남은 반대편으로 무조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곳은 광장 주변이었다. 어느 방향도 뭉치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뭉치는 아이 둘을 충돌질하여 싸움을 시키고 있던 참이었다. 나름대로 상당히 심심했던 모양이다. 그런참에 지남과 한네의 거슬리는 행동이 눈에 띄었으니 더없이 행운을 잡은 것이었다.

한네와 지남을 옆에 세워놓고, 먹이를 아끼려는 듯 두 아이를 더 치열하게 싸우게 했다.

지남은 틈을 타 다시 튀었다. 그러나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시커먼 발이 얼굴 정면으로 날아왔다. 꽤 깊숙히 패인 보도에 고인 흙탕물속에 뭉치의 모습과 아이들의 얼굴이 비쳤다. 지남이 도망치려다 흙탕물에 넘치더니 분홍색 우산 위로 넘어지는 것을 저위 옥상에서 한네는 지켜봐야 했다.

70. 간방 식사시간

열댓 명의 아이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체 식탁 양 옆으로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복도가 손뼉을 치자 일제히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기도문이 끝나자 이화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 착한 일, 착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짓을 절대 하지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고 말했다.

따스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웬지 한네는 자꾸만 그 실험실 생각이났다.

지남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다. 이화자가「알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끝낼 때도 지남이만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뭉치는 광장에서와는 달리 아이들의 뒤통수를 문지르며 장난까지 걸었다. 한네는

딸그락 딸그락하는 소리가 지남에게 유난히 크게 들리리라고 생각했다. 지남은 뭔가를 계속 주시했기 때문이다.

71. 집 앞

어둠이 내렸다.

얼굴이 난해하게 제 멋대로 생긴 복도가 여자에게 술이 밴 입김을 뱉어내곤 하고 있었다.

복도는 드디어 이불을 박차고 나섰다. 기막힌 일이었다. 다른 애들은 모두 지쳐서 망치를 옆에 내려 놓은채 쉬고 있는데 그 지남이 조그만 녀석이 고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커다란 망치를 들고 고물을 짓이기면서 그렇게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다.

복도「야. 뭉치. 」

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옷을 추스르며 뭉치가 나타났다.

복도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거여, 저 자식. 저게 때도없이」

뭉치 :「개놈의 새끼. 죽고 싶다 이거지. 」

복도 :「너무 주무르지 말고. 」

72. 꼬마 원현의 집

고물상인 복도의 집 바로 옆 양철집 2층의 경사진 지붕과 천정사이에 달린 문 안 쪽에 소녀의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귀를 기울였다.

뭉치의 둔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뭉치 :「개새끼. 마음에 들었다 싶었는데. 뭐가 불만이냐. 나한테지. 말해봐. 어디서 승질부려새끼. 말해봐. 너 죽고 싶지. 나한테 그런거지 응? 말해」

지남「하아. 하아. 」

대답을 하지 않다가 간간히 뭔가 애타게 부인하는듯 뱉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뭉치「개새끼. 너 여관 뒷바리가 상급인거 알지. 오늘로 끝장이야 이새끼-. 」

지남「하아. 하아. 」

그런 잠시 후 완전한 침묵이 흐르다가 갑작스런 철장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15장

73. 지하 창고 (정신 수련실)

원현이였다. 그 꼬마 봉사계집애가 식단에 밥을 가지고 들어왔다.

원현의 옆을 빠져나간 지남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의자의 등을 책상에 바짝 붙여서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원현이는 망설인 끝에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 갔다. 지남은 경계의 눈빛을 늦추고 원현을 맞아 들였으며 자리를 내주려고 뒤로 옮겨 앉았다. 그렇게 가깝게 마주앉은 지남에게서 좀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원현이는 밖으로 몸을 내밀어 식반을 우리 안으로 끌어 들였다.

지남이 원현이에게 조그마한 동작으로 몸짓을 해 보였다. 휘젓고 뒤트는 손의 다급한 움직임이 손으로 하는 무용처럼 시적이었다. 그러나 원현은 알아 듣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앉아 있었다.

지남이 태이불에서 의자 하나를 밀어 내고는 팔을 뻗어 원현이 입은 스커트자락을 만졌다.

한쪽 손으로 아래턱을 아래로 잡아당겨 입을 벌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젠 정말 벙어리가 되었는지도 몰랐다. 앞을 보지 못하는 원현은 그저 노려볼 뿐이다.

「하아. 」지남은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약간 몸이 떨리는 것 같더니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벌떡 일어나면서 책상을 뒤엎었다. 벽에 마구 부딪치면서 방안을 쏘다녔다. 그는 절규하고 있었다. 만약 소리가 나왔더라면 그것은 요란했을 것이다. 입을 쩍 벌린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단속적으로 공기가 새어 나오는 숨소리 뿐이었다. 두 볼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뭉차가 들어왔다. 지남은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동안 간호원이 주사를 놓았다. 스르르 지남의 팔이 풀어져 내렸다.

74. 이화자의 사무실

복도가 지남의 심상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뭉치는 옆에서 자신이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화자는 의사답게 신중하고 확신있게 말했다. 또한 미소를 잊지 않았다.

그애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있고 너무 구속되는 느낌을 받고있다. 영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애라서 신경을 좀 써야한다.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책이나 잡지를 수련실에 넣어줘라. 곧 좋아질 것이다.

오늘, 강연회 관계로 나가봐야 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복도나 뭉치도 일단 보고는 했으니 그져 자신들이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알았읍니다.」하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75. 정신 훈련원

원현이 방에 다가가는데 지남의 목에서 나오는 기식음이 들려왔다.

「하아.」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아. 하아. 하아.」그는 마치 어렵게 발동이 걸리려는 엔진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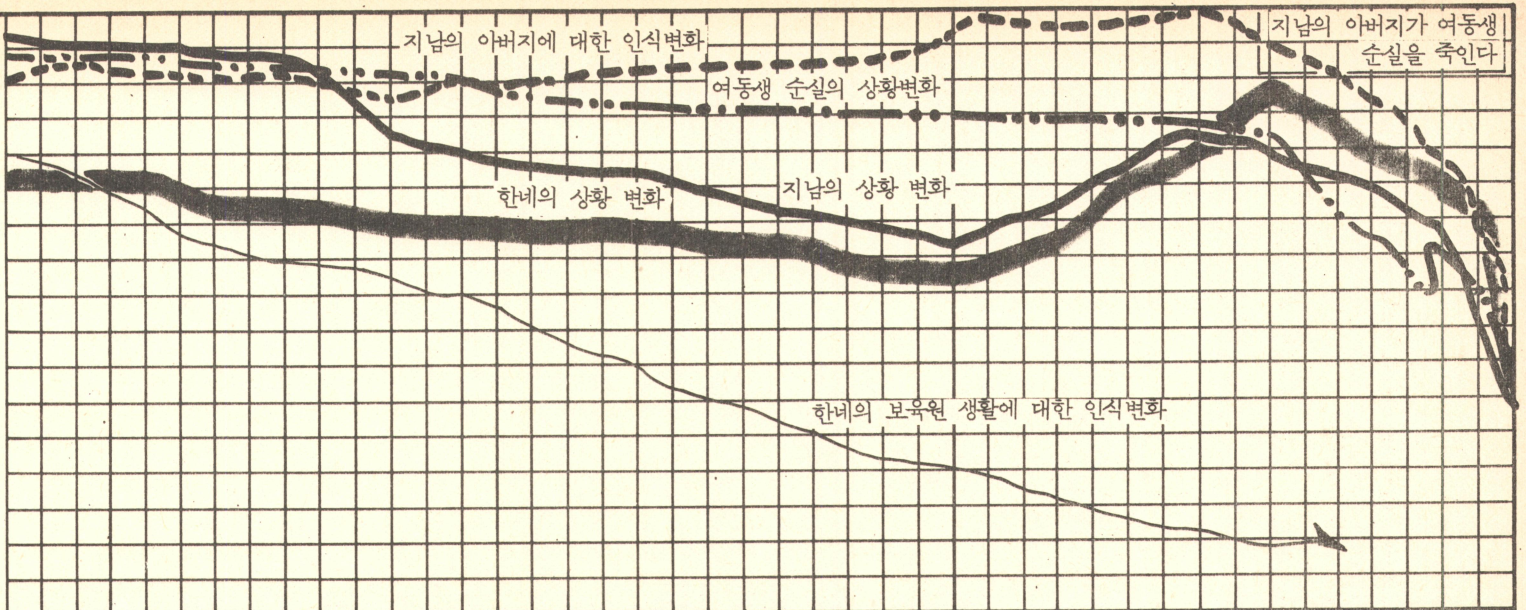
지남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원현이 들어와 앉을 자리를 비켜 주더니 계속「하아. 하아.」소리를 토해냈다. 몸이 마구 떨리고 머리와 상처투성이인 살갗 위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아아. 아아이.」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터져 나왔다.

자기 소리에 놀라 그는 얼어붙은 듯이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하아아아.」우선 한마디 해보고는 또 입이 얼어붙었다.

보 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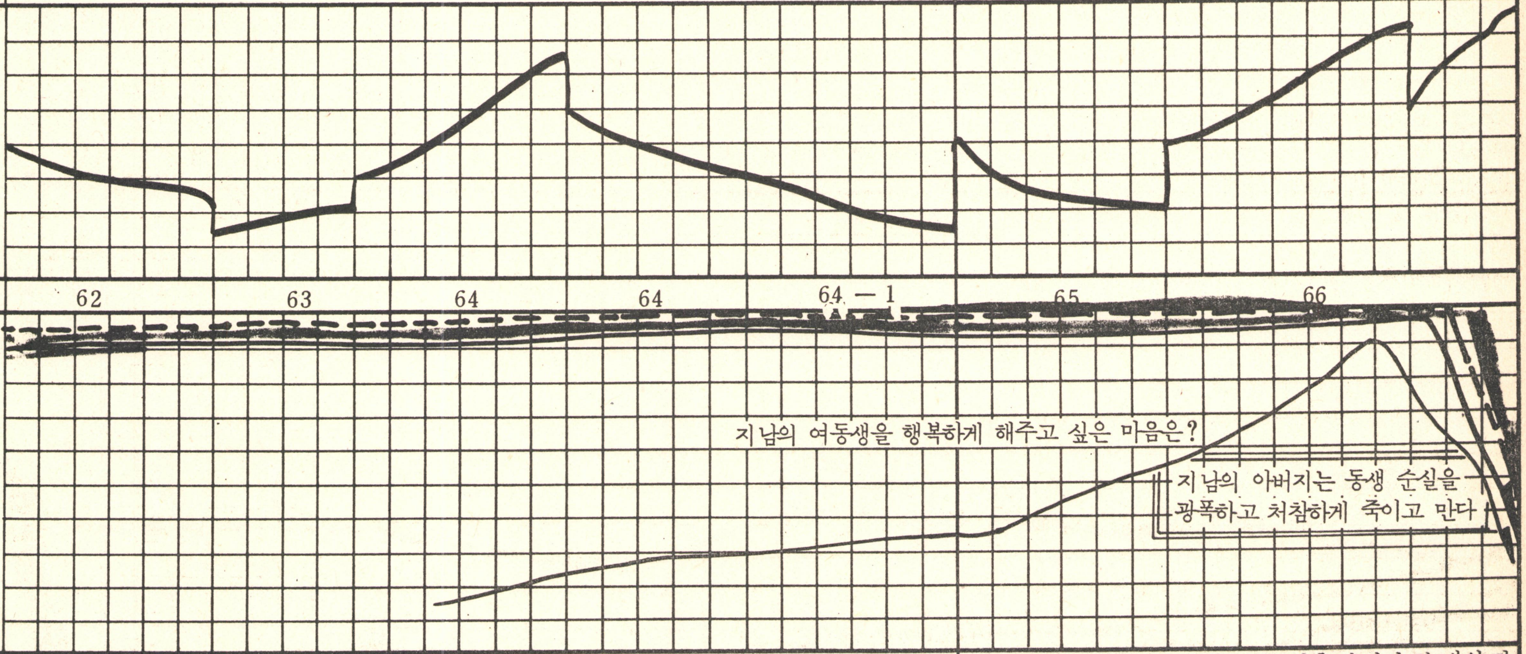
No.	62	63	64	64-1	64-2	65	66
SCENE	경 찰 서	이화자의사무실	긴 방	긴 방 생 활	긴 방 생 활	시 내 버 스 내	지 남 의 집 내
내 용	한네는 찐따에 의해서 염소시장 사건때문에 끌려오고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다.	보육원장겸 산부인과 원장인 이화자를 만난다. 복도라는 사람에 의해 긴방으로 데려가 진다.	한네는 여기서 먼저와 있는 지남을 만난다. 지남은 아버지가 두려워 다시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근 1 년간의 생활이 간략히 묘사된다. — 광장, 고철장소동을 무대로 한 생활이다.	지남은 대장인 뭉치에 의한 구박과 여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 한네도 함께 가기로 한다.	지남과 한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지남은 결심하고 들어간다.	아버지가 여동생을 때려 급기야 죽게 까지 하나 옆에 있는 새엄마는 그저 방관만 한다.
SEQUENCE	한네는 이 일로 해서 경찰에 잡혀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지남을 만난다. 지남은 아버지가 두려워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한네와 지남이 광장, 고철장 등을 배경으로 해서 생활을 한지 1 년쯤지나서 지남은 동생이 걱정되어 집에 돌아가겠다고 한다. 한네도 함께가나 막상 도착하던 그날 한네는 동생이 아버지에 의해서 맞아 죽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작가의 의도	ㅇ지남이 책에 집착하고 내성적이며 인간의 진학성, 압박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면을 부각시켜 후의 정신 이상에 대비한다. 한네와 지남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며 한네의 심리변화도 주시. ㅇ지남의 여동생에 대한 애착과 인간다움. 신에 대할 강한 믿음, 집착,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착한 영혼으로 묘사한다. 원자폭탄의 피해를 나름대로 소화시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자신의 힘을 기울일려고 마음 먹으며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ㅇ불안, 의혹, 예감, 속도감(심리 속에서 보여짐) → 부저를 누를 때의 주뼛하는 긴장감 ㅇ아버지(사리 판단력 인간적인 갈등 묘사로 인간성 부여)와 한 네와 여동생 어머니 사이에 강렬한 심리적인 대립이 팽팽하게 극도의 상태로 지속 ㅇ한네나 관객, 지남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시가전, 보육원 시절에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분 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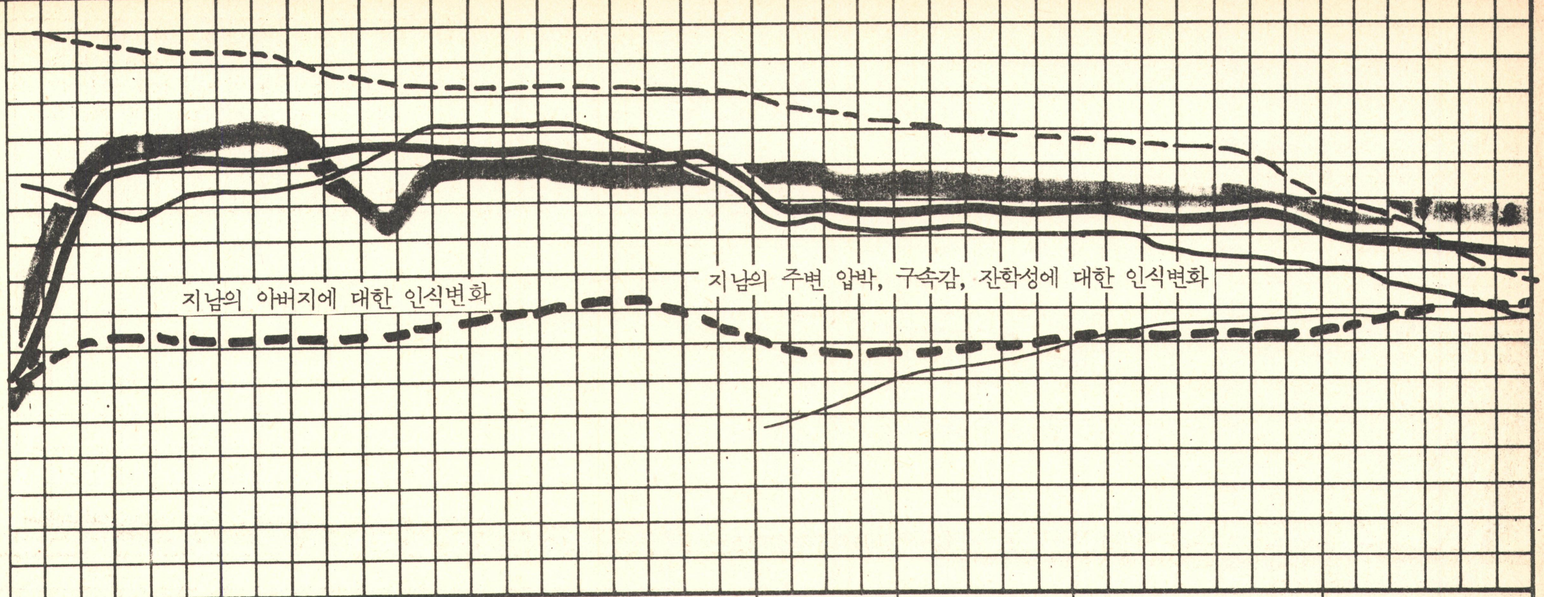
영화적인 요소

No.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장이 바뀌면서(환경이) 새로운 사건의 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남의 심리변화와 보육원 내 분위기에 관심이 쏠리도록 한다. — 의혹과 예감과 복선이 깔린다. ㅇ지남이 여동생을 찾아 보육원을 떠나고 그후 받게 될 충격 ㅇ보육원 내에서 인공수정, 태아를 이용한 기름짜기, 정신 수련실 운용, 아이들을 과로에 시달리게 하는 등의 윤곽을 제시, 후에 보여질 진상에 대한 근거 및 분위기 조성, 그로 인한 충격의 사실성의 부여 ㅇ위와 같이 관객의 반응이 호기심, 예감, 복선으로 지속되도록 한다.	ㅇ거대한 사건 발발에 대한 예감, 의혹 속에서 한 네와 같은 입장이 되어 지남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 ㅇ지울 수 없는 악몽 — 지남의 행동에 대한 근거 부여. 추진력의 역할 ㅇ여동생 죽음 이후, 관객들이 지남의 심리 속에 들어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PAUSE를 필요로 한다. (시가전 시)



광장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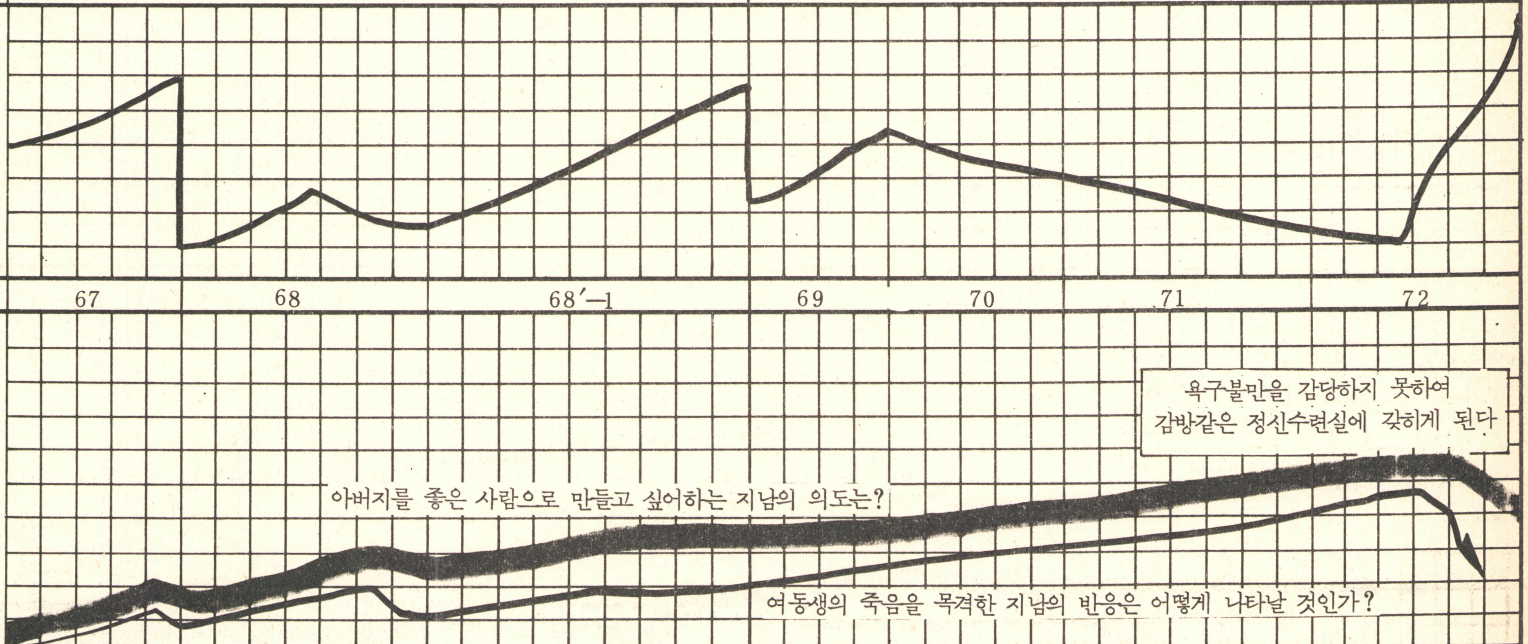
No.	67	68	68 — 1	69	70	71	72
SCENE	시 가 전	실 험 실	하 수 도	거 리	긴 방	집 앞	꼬마원현의집
내 용	지남과 한네가 시간전 놀이에 휩쓸려 욕구불을 터뜨리다가 역전 아이들과 함께 소매치기 혐의로 도주한다.	한네와 지남은 맨홀에서 우연히 들어가 태아로기름을 짜는 현장과 인공수정에 의해서 다량의 아기를 만들어 내려는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 주모자가 이화자라는 것도,	지남과 한네는 다시 하수도를 통하여 빠져나오려 한다. 발에 걸리는 뼈조각 푸드덕 날카롭게 부딪히고 비상하는 노란새 . 어듬 등이 그들을 공포로 감싼다.	두 아이는그 두려움 속에서 건물을빠져 나오려 하나 뭉치에의해 저지 되고 만다.	이화자 원장이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통한 좋은 말씀을 하나 지남은 그들 속에서 이중인격적인 면을 보게 된다.	지남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고철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지쳐서 쉬어도 홀로 망치를 두드리면서 욕구불만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복도의 비위를 거슬려 복도는 뭉치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라고 한다.	봉사원현이는 뭉치가 지남을 구타하는 소리를 듣는다.
SEQUENCE	한네와 지남은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남의 욕구불만을 터트리기 위하여 아이들의 시가전 놀이에 말려든다. 이때 광장에서 동료들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추적당하는 바람에 한네와 지남도 같이 도주 매홀속으로 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둘은 태아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고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다량생산하는 곳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주모자가 다름아닌 보육원 원장이며 산부인과 원장인 이화자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한네와 지남은 보육원을 빠져 나가려다 뭉치에게 붙잡힌다. 지남은 보육원 원장에 대한 혐오감과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욕구불만을 고물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에 의해서 풀려다 복도의 분노를 사 뭉치에 의해 정신수련실에 감금된다.			

작가의 의도	○악몽같은 동생의 죽음을 본 지남의 심리적인 변화, 반응을 한네의 시점을 통해서 예리하게 표출. ○강도 높은 사건에 지남의 심리변화가 묻히지 않도록 (지남과 대립적으로 설정), 항상 한네의 시점을 통하여 지남을 읽도록 한다. ○시가전, 실험실에서 사실감 유지에 유의하며 데모 등을 상징할 수있는분위기 조성(의도적인 공포, 드릴, 호기심 등 배제 내용 및 상황 전달에 충실)	○지남 심리변화의 긴박도, 여동생 죽은 후의 추진력은 계속 늦추지 않고 지남의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면서 지속, 고조 (인간의 잔학성, 학대, 압박이에 대한 반감), 표적은 뭉치가 아닌 아버지로 돌려야 한다. ○고철장, 정신수련실로 가기까지 등 사실감 (관념적이거나 허구, 과장되지 않도록) 유지에 유의. 이화자 복도 등에게 인격부여 한네와 갈등하게 하므로써 악한의 유형적인 인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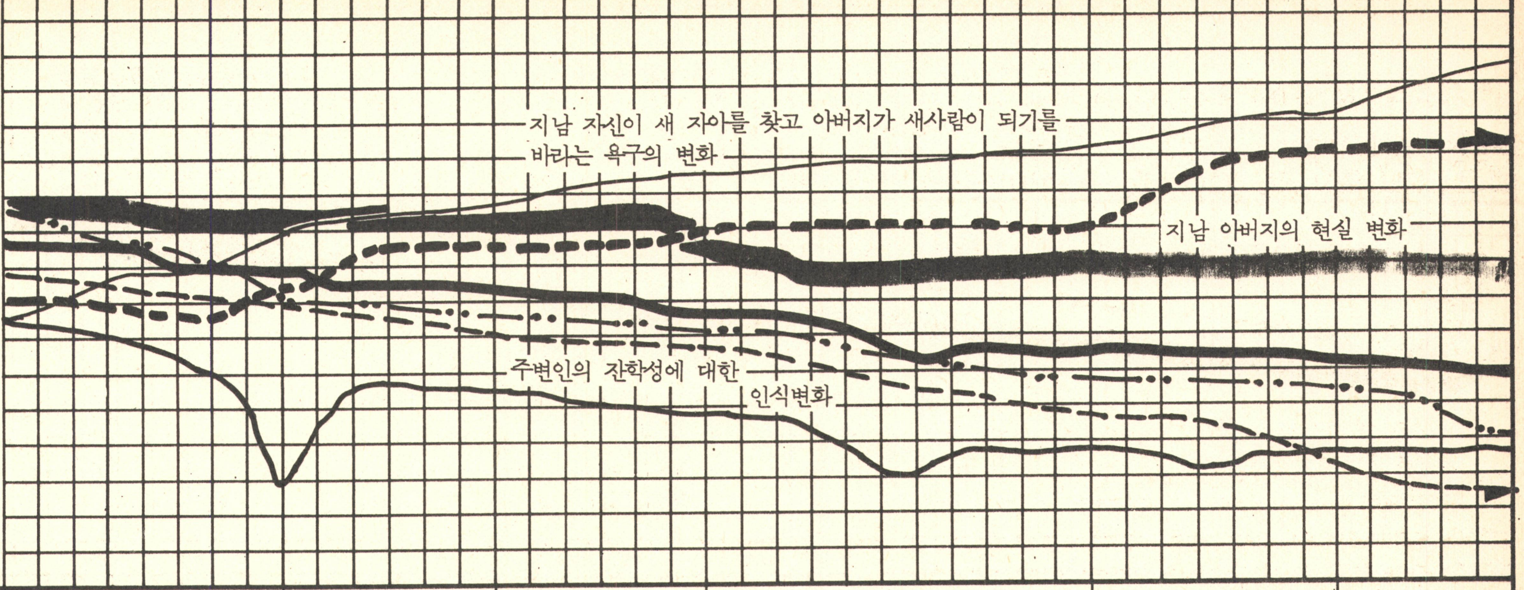
No.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시가전에 말려 들면서 Action, 전략, 승부, 지남의 심리적 반응에 관심. ○맨홀 속으로 들어가면서 공포와 드릴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지남의 반응에 관심을 쏟는다. 진상을 보고 난 후의 반응? ○이와 같은 일련의 흥미를 끄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항상 지남의 심리변화로 가도록 해야하며 그 심리변화가 후에 정신수련실까지 이어져야 한다.	○지남과 한네의 장래를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자칫 관심의 대상이 분산되기 쉬우므로 「지남의 심리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섬세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관객심리를 유도, 정신 수련실에 연결시켜야 한다. ○주변상황 (뭉치가 지남의 반응을 받아 들이는 것과 실제 지남의 행동 원인 사이의 괴리) 을 항상 유의하여 다룬다.

정신수련실



No.	73	74	75	76	77	78
SCENE	지하창고(정신훈련실)	이화자의사무실	정신수련실	정 신 수 련 실	정신수련실	정신수련실
내 용	지남은 정신수련실에 감금된다. 원현이 식사당번으로 지남 앞에 나타나자 지남은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나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남이 화가나서 책상을 뒤엎자 뭉치가 와 주사를 놓아서 잠재운다.	뭉치와 복도는 지남이 정신이 돌은것이라 생각, 염려되어 이화자에게 보고하나 이화자는 가볍게 생각하고 사무적인 말만 하고 자신의 일을 하려고 떠난다.	원현이 다시 나타나고, 지남은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남이는 스파게티를 보자 동생의 죽음을 생각해 낸다. 지남은 원현에게 칼을 내 보이며 복수를 하겠다고 한다. 원현은 지남의 그런 거친행동을 위험스런 장난으로 여겨 칼을 자신이 보관하게 된다. 지남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중인격을 보게 된다.	지남은 여동생과 정답던 일, 그러나 아버지의 불신으로 그것이 무참하게 깨지던 일. 지남은 다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벼른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이중인격 중에 껍데기인 육체가 자신이라는 경멸감을 가진다.	지남이 원현에 대한 정신병적인 행위 원현의 완강한 거부 지남의 자신에 대한 경멸감과 후회 등이 엇갈린다.
SEQUENCE	지남은 정신수련실에서 언어장애, 아버지와 새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살의 아버지와 자신속에 도사린 잔학성과 원폭에 희생된 흉한 외모, 양심 사이의 괴리 등으로 해서 고통을 겪게 되며 끝내는 식사당번인 원현을 어머니로 동일화시켜 어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욕을 보이려다 오히려 자책감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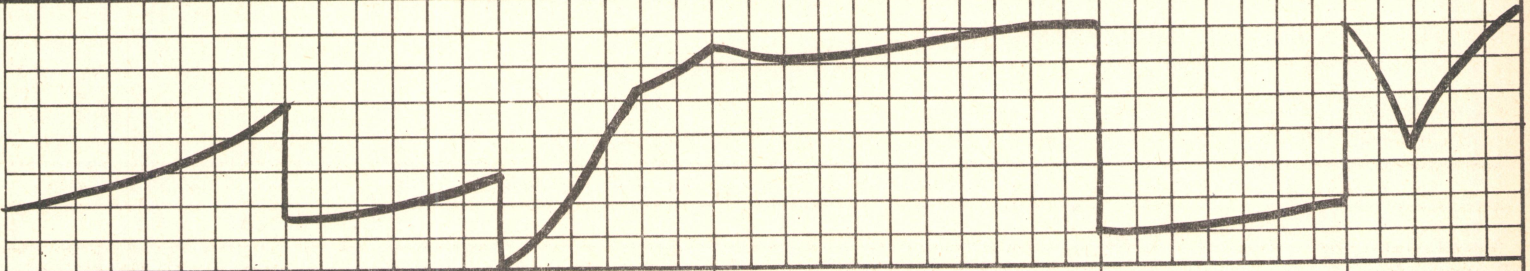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ㅇ지남의 심리변화가 전장에서 이어 받아 지속된다.
- 자폐증(언어장애)
- 인간의 작학성에 대한 혐오감(아버지, 어머니, 뭉치)
- 인간의 잔학성과 흉한 외모와 자신의 신적인 양심, 의지 사이의 괴리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반응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ㅇ지남의 심리변화에 사실성과 심리학적 근거를 주도록 유의한다.
ㅇ원현 한개인에 대한 경계, 혐오등의 감정을 풀고 자아의 문을 열게 되는 과정을 좀더 정확하게 연구해야 한다.
ㅇ너무 정신병자를 다루는 작품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원현」의 성격묘사에 대해서 연구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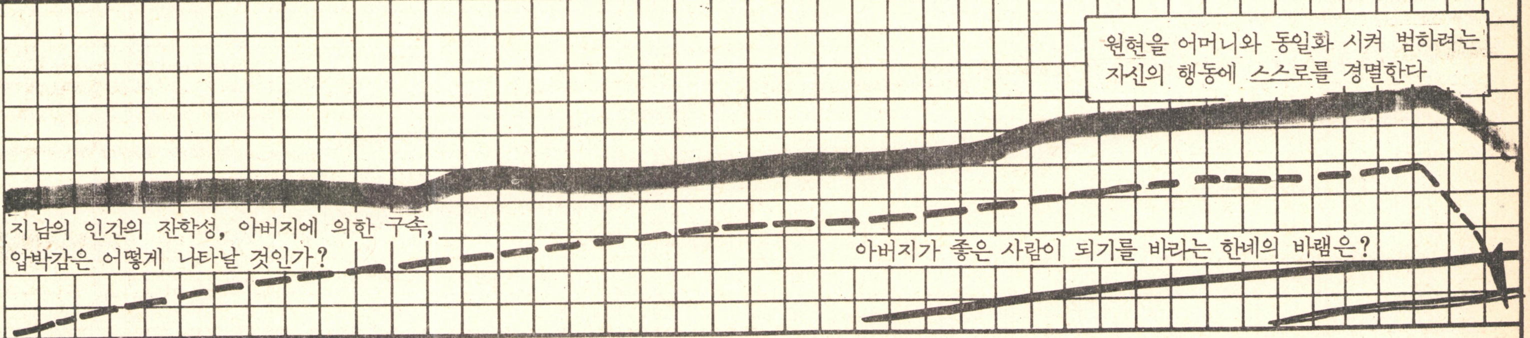
분위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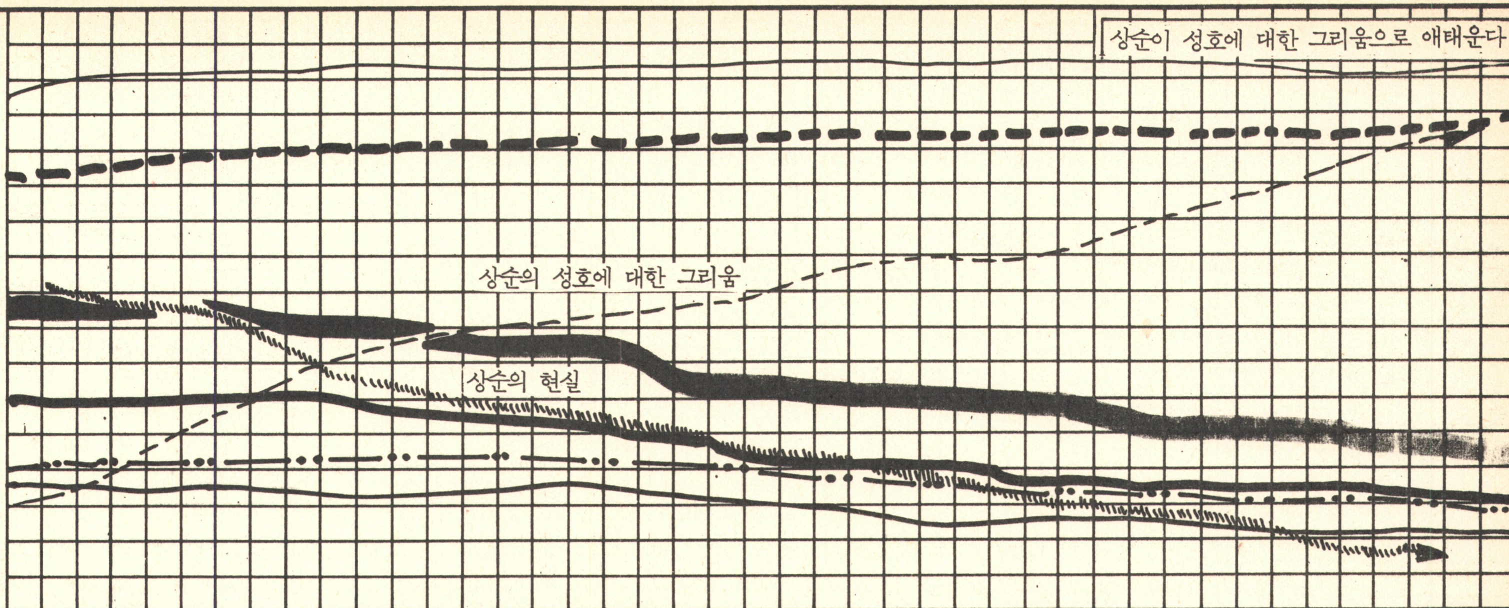
No. 73 74 75 76 77 78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지남의 정신병적인 현상이, 건강과 결별된 갑작스런 병이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인과관계, 병리현상의 세심한 표현방법이 요구된다.
ㅇ관객들은 { · 지남의「이상한 반응」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 왜 그러한 이상이 생겼는가? 원인 파악 · 원현과의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 하는 점에 관심을 쏟게 된다.
ㅇ지남의「이상한반응」이 단순한 정신병자의 반응이 아니라, 「신과인간과의 연관」위에서 신에대한의지, 양심을 지키려는 자의 번민으로서 관객에게 와 닿아야 한다.
결국 자아와 현실(인간의 잔학성, 추한외모)사이의 괴리에서 자신을 패쇄시켰으며 원현을 통해서 이 문이 점점 개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ㅇ관객들은 지남이 정신수련실에서 원현을 범하려한 이후에 어떠한반응을보일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최종적으로 쏟게된다.
cf. 극의 진행을 원현을 범하려 한 행위에 정점을 두고, 그 행위는 곧,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자아실현 욕구의 폭발」이라 보아야 한다.
→어머니의 냉담한반응에 대해서 그 벽을 깨뜨리려는 시도?

한강다리등 거리				
No.	79	80	81	82
SCENE	버 스 안	상 순 의 하 숙 집	정 신 수 련 실	한 강 다 리
내 용	한네는 버스안에서 껌팔이를 하면서 시내 중심가의 뭉치의 감시망을 빠져 나가며 상순의 애인이었던 성호를 넝마주이들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 모습을 상순이 보고 갈등에 빠진다.	상순은 아예 직장을 공장으로 바꾸어 성호를 찾아 다닌다.	지남은 원현을 범하려한 이후로 홀로 계속 초췌해진다.	상순과 한네는 오랜동안 성호를 찾아 다니다가 지쳐 한강다리에서 선다. 상순은 한강물을 보면서 성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느낀다. 한편 한네는 지남의 우산장수를 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한강다리 밑에 떨어지는 우산들은 묘한 해방감을 준다.
SEQUENCE	상순은 버스안내양을 그만두고 공장원, 콘장수 등으로 거리를 전전하면서 우산장사를 하는 한네와 함께 성호를 찾아다닌다. 한편 지남은 더욱 초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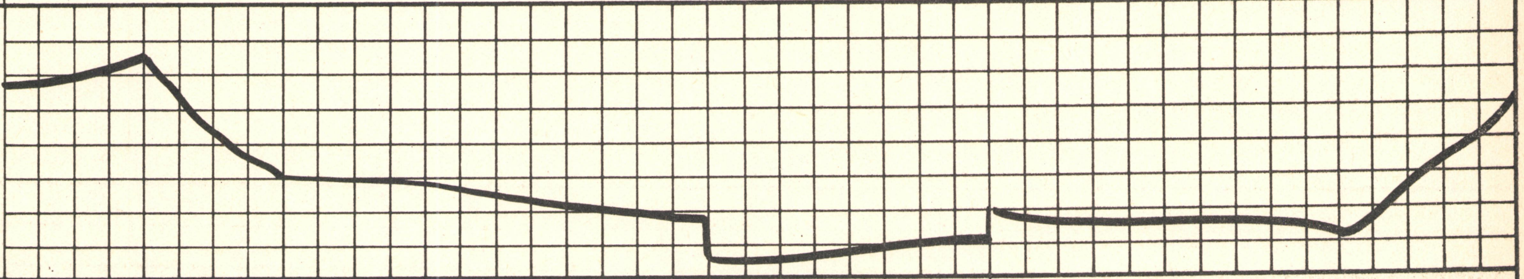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ㅇ정신 수련실의 시간경과를 나타내며
짧은 시간동안에
· 상순이 성호를 찾게되는 심리적 변화
· 긴여정
· 상순의 성호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
· 상순이 성호를 찾아다닐만한 성격적인 근거
등을 모두 함축성 있게 처리해 주어야후에 Last Scene에 match 된다.

ㅇ한네의 눈을 통하여 상순을 그리므로써 후에 우산을 뿌릴때의 눈이 나리는 모습과 같은 분위기가 그들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도록 한다.
ㅇ도중에 삽입되는 지남의 모습은 장면 전환시 한네의 음울하고 답답한 심정의 연속으로 match되게 한다.
ㅇ정신 수련실의 묘사 중에 Insert 식으로 인위적으로 들어 가게 될때 리듬 및 심리적인 흐름, 분위기에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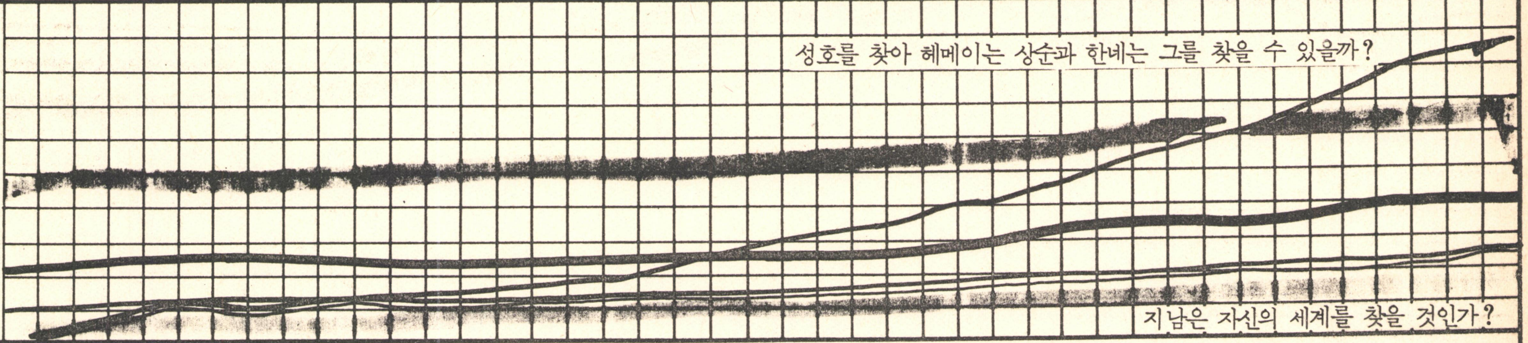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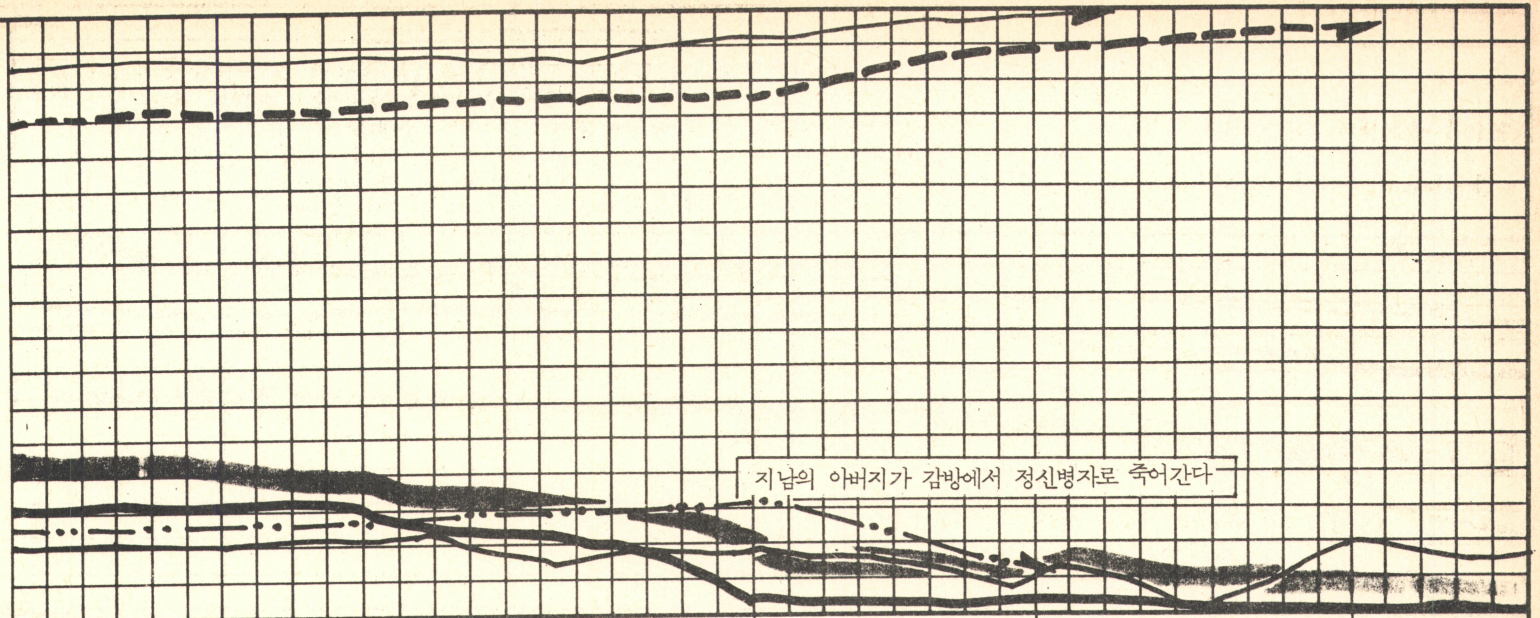
№.	79	80	81	82

관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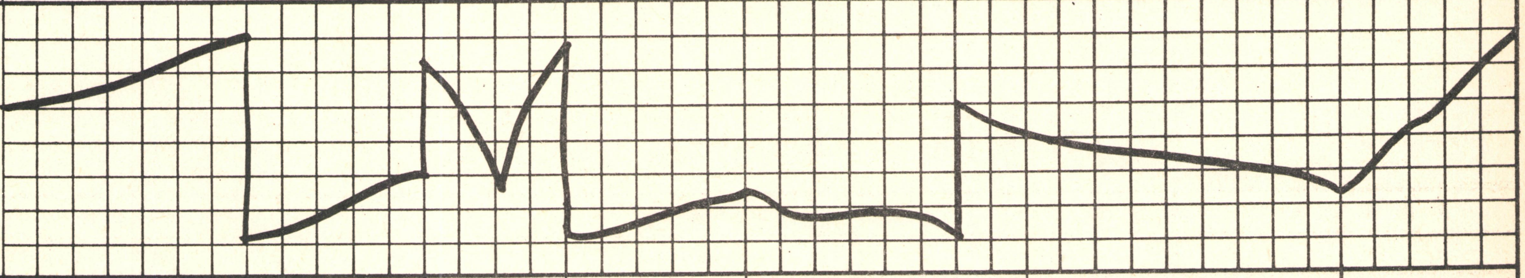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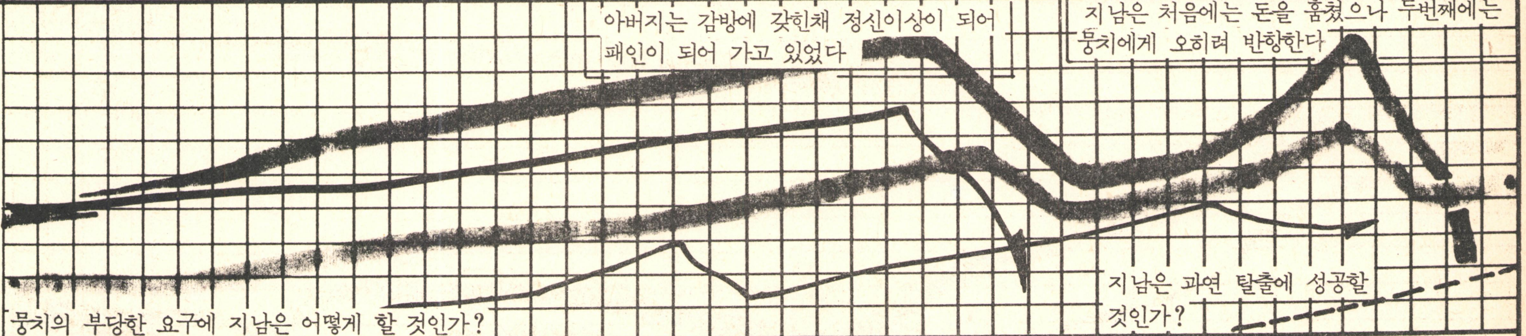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ㅇ관객들은정신 수련실에서 장면전환되어 한네와 상순이 나타나자, 그들이 벌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cf. 처음부터 상순이 찾아 나서는 것으로 설정?
그렇지 않고 망설이는 상태에서 찾아나서는 긴 여정을 짧은 시간안에 처리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ㅇ한네의 눈을 통하여 한 남자를 찾아 떠도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관객과 동일화 시키도록 유도한다.
ㅇ처음 차창 너머로 보이는 녕마주이들의 모습은 명화의 한 장면처럼 영상적으로 아름답게 처리한다.
ㅇ후에 우산을 뿌릴 때 역시 긴 여운과 애절함과 눈의 이미지를 살리도록 한다.
cf. 장면처리의 구체적인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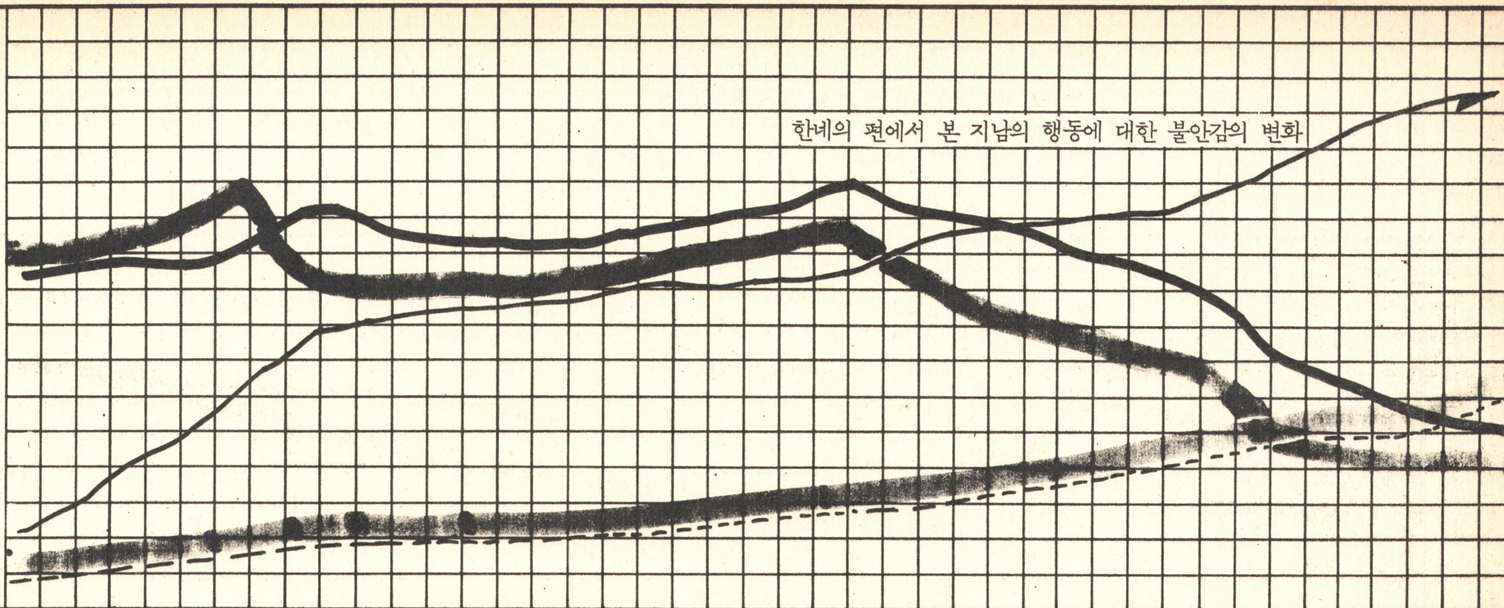


광장주변

No.	83	84	85	86	87	88	
SCENE	정신수련실	역전광장	후미진 벽	지하도	광장	광장	
내용	지남은 원현이 다시 나타나자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이날 수련실에서 해방된다.	지남은 수련실을 나와서도계속 초췌해 진다. 이 모습을 본 뭉치는 복도의 돈 요구에, 화풀이 감으로 이용하려 한다.	뭉치는 지남이 돈을 벌지 않자 구타하고 이용하려 한다.	뭉치는 지남에게 원현의 돈을 훔칠 것을 요구하며 지남은 요구대로 무심코 행한다.	지남은 점점더 초췌해지고 패인이 되어 간다. 그런 속에서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으며 한편 원현은 까닭없이 지남을 꼭 껴안는다.	뭉치는 다시 지남에게 돈을 훔칠것을 요구하나 지남은 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뭉치를 쏘아본다. 지남은 벽돌속에 모아둔 돈을 꺼낸다.	
SEQUENCE	한동안 뜸했던 원현이 나타나자 지남은 기뻐하며 용서와 화해를 빈다. 그리고 뭉치에 의해 출감된다. 지남은 이제 초췌한 패인이 되어 말이 없어졌다. 뭉치는 다급한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남에게 원현의 아버지인 봉사거지의 돈을 훔치라고 시킨다.				처음에는 응하나 두번째에는 무서운 분노의 눈으로 뭉치를 응시한다. 뭉치는 그의 이상한 눈빛이 두려워 도망치고 만다.		

작가의 의도	ㅇ원현과 화해하고 폐쇄된 문을 열게되는 심리적 변화과정 섬세하게 묘사. 뭉치, 복도 등과 접할 때는 대조된 표정 묘사로 지남이 한 개인에게만 문을 열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ㅇ관객들이 원현의 심리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빨려 들어 따르도록 표현기법과 심리묘사에서 섬세한 배려를 한다. ㅇ압박 등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도록 하여 탈출하려는 심리적 의도의 근거를 확실히 한다. 지남이 원현에게는 더욱 밀접하고 절실한 관계를 느끼는반면 그 외의 인물들과는 더욱 더 두꺼운 벽을 쌓도록 한다. 이 경우 한네의 반응에 유의한다. ㅇ지남이 굳이 시골로 가려는 근거의 확실한 제시(강렬한 동경? 제시?), 관객들이 그 성공여부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No	83 84 85 86 87 87-1 88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지남의 둔한 행동과는 대조되게 지남의 내면에서 이는 강한 심리적인 의지변화를 관객이 따라가도록 동일화시킨다. ㅇ그러므로써 동일화된 관객들이 지남이 갖은「신에 대한 양심」을 고수하려는 의지로 탈출에 강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 -단순한 한 인물의 심리변화가 아닌 위대한 정신의 수호가 되도록 유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지남의 행동하나하나에 무겁고 장중한 힘을 주도록 한다.(Midnight Exxpress) ㅇ한네의 시각을 통해서 보여 줄때 한네가 주변인물이 되지 않도록 심리묘사에서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광 장 주 변



No.	89	90	91	92	92-1	93
SCENE	역 전 매 표 소	광 장	지 하 도	광 장	역 전 안	역 전 개 찰 구
내 용	지남은 표를 사기위해서 매표소에 갔으며, 표를 사고 잔금을 받아 다시 광장쪽으로 나온다.	지남은 광장을 통과한다. 한네는 지남이 뭉치에게 발각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한다.	지남은 원현이에게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빌며 자신을 「칼」이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한네가 원현의 옷 두벌을 가지고 급히 광장으로 간다.	지남이 한네에게 다가가고 순실도 뒤따르며 뭉치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한네와 지남이 여자로 분장하여 개찰구를 무사히 빠져 나간다.
SEQUENCE	지남은 자신이 몰래 모아 두었던 돈으로 시골로 가는 표를 산다. 그리고 원현에게 훔쳤던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빈다. 한편 뭉치가 염려된 한네는 지남과 자신을 원현의 옷으로 위장, 무사히 개찰구를 빠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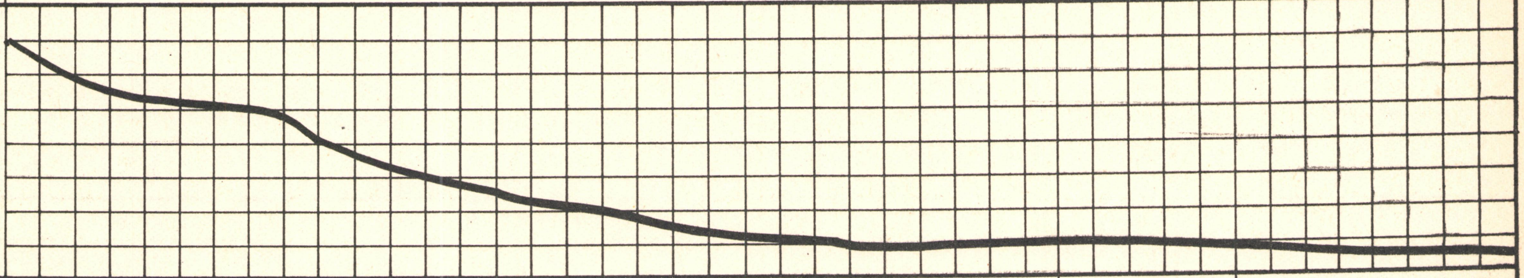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o자신의 세계를 찾아 떠나려는 지남의 의지와, 원현에 대해서 만은 정신적인 문을 열어 놓는, 그리고 양심적인 도리를 다하는 면과 한네의 지남을 위하는 우정을 그린다.
o지남이 차표를 사고→다시 원현에게→그후 한네와 원현의 행동에 심리적인 변화를 차분히 분명하게 제시하므로써, 상황의 긴박감을 관객이 동일화되어 피부로 느끼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객이 객관적인 시점이 될 경우 실패한다.

o왜 원현과 함께 떠나지 않는가?
원현과 함께 있는 쪽을 택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가? 하는데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o전철 개폐소를 나설 때가 관객심리 긴장도 및 성취감의 분수령이 되도록 인물묘사 및 관객심리 유도에 유의한다.
o한네가 주변인물이 되지 않도록 한네의 시점에서 지남을 묘사하며 관객과 한네를 동일화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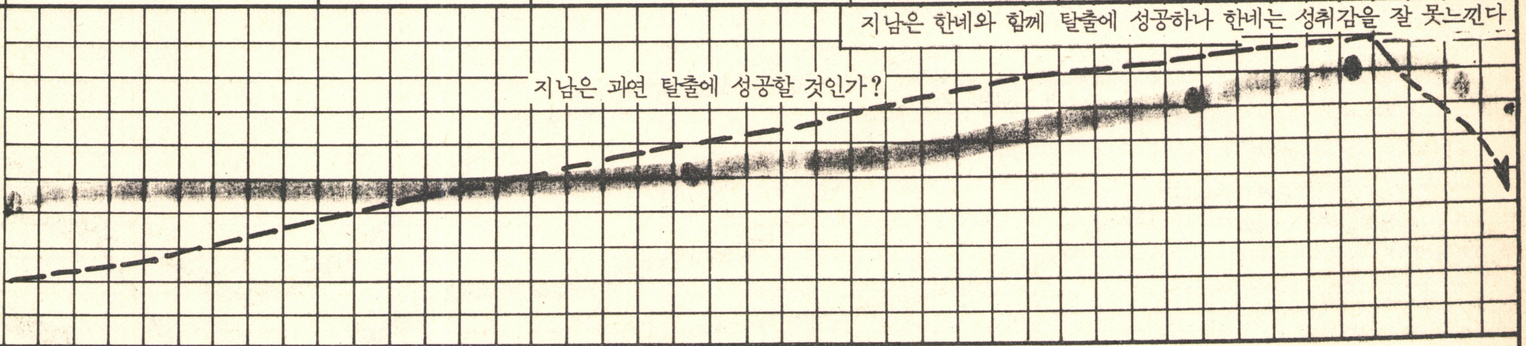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	89	90	91	92	92 —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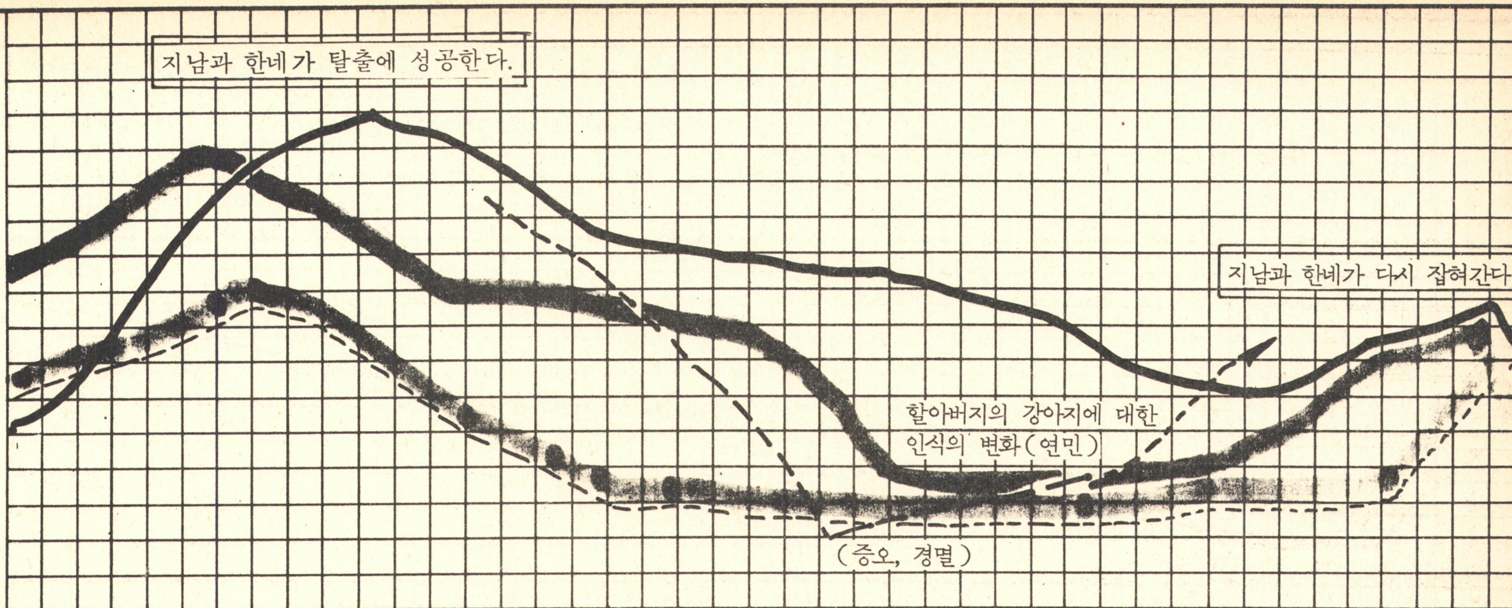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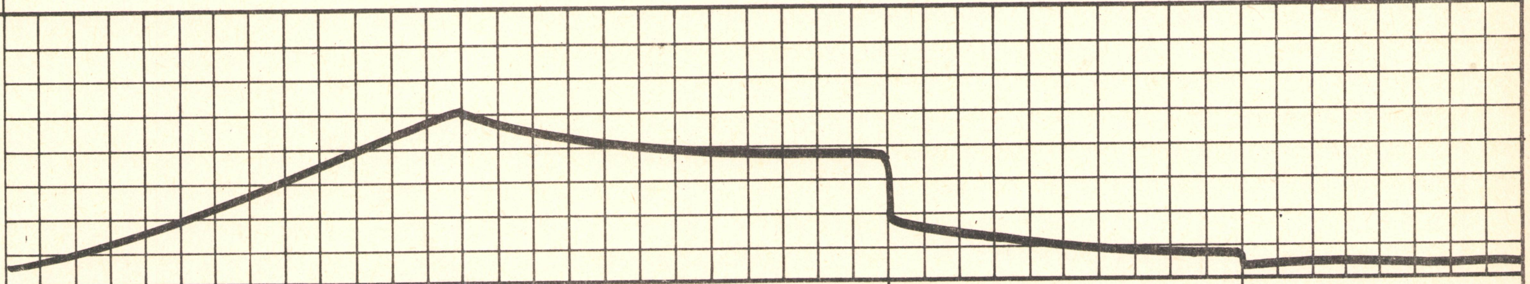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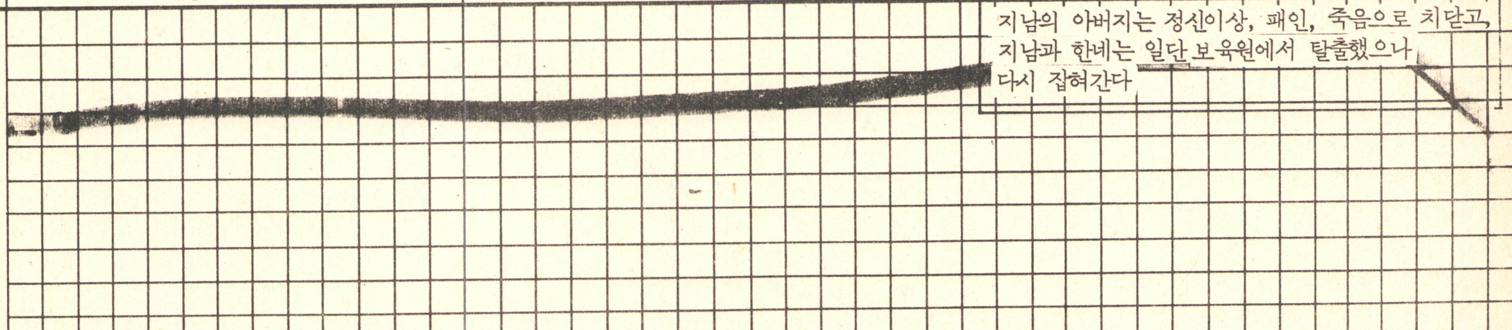
관객의 반응

o긴장이 감도는 상황속에서 관객들은 한네가 탈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지켜보다 개폐소를 나갈 때 탄성을 지를 정도의 성취감을 맛본다.
o개폐소를 나설 때 뭉치, 복도와 교감되는 「드릴묘사」에 유의한다. (Midnight Express)
o원현의 심리변화에 유의하며 원현의 초조감과 바램이 관객과 동일화되도록 한다.
o Action적인 요소를 살리지 말고 긴장감이 정적 속에서 감돌도록 무겁게 처리한다.

시 골



No.	94	95	96	97
SCENE	기 차 내	시 골	시 골 집	시 골 길
내 용	지남은 깊은 해방감을 느끼며 시골에 대해서 기대에 부푼다. 그러나 한네의 내심 깊이에서는 상순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솟는다.	지남과 함께 내린 곳에서 지남의 꿈과는 다른 인간의 짐승에 대한 잔학성을 보게 된다. 그날은 함박눈이 몹씨도 펑펑내린다.	손주는 자신때문에 죽은 강아지를 잘 먹으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인 강아지를 보고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며 지남은 「골」을 보고 그대로 수저를 놓고 만다.	한네와 지남은 다시 어디론가 터덜터덜 걷다가 복도에 의해서 서울로 잡혀간다.
SEQUENCE	지남은 시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고 이때 한네는 지금도 성호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을 상순이 누나에 대한 연민에 빠진다. 그러나 막상 농촌에 내렸을 때는 인간의 잔학성과 골을 보게 된다.		그들은 다시 터덜터덜 걸어간다. 그러다 복도에 의해서 다시 잡혀간다.	

작가의 의도	ㅇ관객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서 지남이 시골에 대해 기대에 부풀어 있게 하므로써 고조시키는 반면 전체적인 분위기와 관점을 한네로 쏠리게 하여 「상순에 대한 연민의 정」을 고조시킨다. - 바보들의 행진, 바다에 도착했을 때의 처리방법 - ㅇ할아버지와 강아지, 손자의 묘사에서, 지남의 심리를 통해서 봄으로써 「인간의 짐승에 대한 잔학성」관객의 관심을 유도시키는데 유의한다. ㅇ다시 길을 떠날 때의 한네와 지남의 허탈감 묘사에 유의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	94 · 95 · 96 · 97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관객들은 이상하리만큼 열병에 걸린듯 들뜨는 지남의 말과는 달리 심각하게 밑으로 깔리는 한네의 심리묘사 속에서 인간의 성취감의 진면목을 보고 여기에 공감한다. ㅇ강아지, 손자, 할아버지의 장면에서 지남의 심리변화와 연결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ㅇ관객들은 인간의 어쩔수 없는 잔학성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 - 할아버지의 소리없는 눈물 손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먹는 모습

4부

A. 작가의 의도

○ 관객의 관심을 한네와 지남이 과연 신세계로 가서 새로운 자아를 찾을 것인가 하는 점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 극장식 홀 내의 은하계와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객이나 지남, 한네 모두가 환희를 맛보게 하며 한없이 꿈에 부풀게 한다. 그리하여 지남 역시 자신의 세계를 찾으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한다.

○ 분위기는 그런 환상적인 화려함 속에서도 다이나믹한 오토바이 경주 등에서 불안과 의혹을 지속시킴으로써 후에 올 사고의 복선 역할과 흐름을 유지하게 한다.(이완 작용)

○ 은하계가 실제가 아닌 조작된 Set 라는 것을 지남과 한네가 끝까지 모르게 하며 관객들에게는 마지막에 보여 줌으로써 한네와 지남이 속았음을, 그리하여 분노를 느끼게 한다.

○ 전부와의 심리연결, 성격유지에 유의

－지남은 처음에 아무런 말이 없이 무반응이다.

－한네는 의혹 속에서도 환경이 좋아진데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남을 설득한다.

－지남은 우주여행이란 말에 응하나 도중에 오토바이 연습에서는 조그만 구속만 있어도 강하게 반항한다.

B. 내 용

극장실 홀에서 우주비행사를 하던 시절

극장실 홀에있는 복도에 의해서 팔아 넘겨진 지남과 한네는 자신들이 쇼무대의 광대로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감사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둘 모두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진상을 모르는 한네는 그만두는 날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그날 거리에서는 하얀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인간을 기만하는데 이용된다.

○ 한네와 동일감이 형성되어 우주가 아닌 조작된 쇼무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

○ 지남이 심하게 다치면서부터 의혹은 더욱 심해지며 한네마저 사고를 당하고 붕대를 감은 채 홀로 문을 나서서 눈 속으로 터벅터벅 걸어 갈 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속은자, 약한자의 억울함같은 것이 밀려온다.

— 지남의 자신의 세계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그 환희에 찬 기대와 일그러진 얼굴, 한네의 가난과 굶주림에서 영원히 벗어날 듯했던 그 부푼 꿈과 붕대를 감은 몸 등.

S# 75-93 분실 되었음

19 장

94. 기차 내

지남은 처음 한네를 만났을 때처럼 쉬지않고 말했다.

들녘에 대해서, 함박눈에 대해서, 꽃들에 대해서 지남이는 시의 문구를 읊조리듯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한네는 이상하게도 상순이를 떠올렸다. 왠지 슬펐다. 귤, 광주리를 머리에 인체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그날도 넝마주이를 만나고 있을 상순이를 떠올렸다. 서글프기만 했다.

95. 시골

눈이 내렸다. 몹씨도 함박눈이 내렸다.

먼데 후경으로 기차가 지나간뒤 두 꼬마가 남았다.

그날 따라 눈발이 펄펄 날렸다.

손주녀석이 첫눈이 내린다고 이리저리 길길이 뛰여 짚단을 흐트러 놓지만 농군 할아버지는 물에 잠겨 이미 싹이난 벼를 묶으면서 첫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저쪽에서 강아지 녀석이 손주와 어울려 뛰 놀았다.

그러나 그것이 강아지에게는 죽음을 초래할 줄이야 할아버지는 까닭모를 분노가 치밀어 작대기로 내리쳤기 때문이었다.

지남은 할아버지를 강아지처럼 때려 죽이고 싶었다. 그 학대가 압박이 몸서리치도록 저주스러웠다.

96. 시골집

할아버지와 손주가 앉아 있는 방에 지남이와 한네가 세면을 마치고 들어 왔다. 잠시 후 상이 들어 왔다. 골이 눈에 띄었다. 한네는 스푼을 든채 모처럼 권하는 고기를 먹지않고 지남의 눈치를 살폈다. 손주아이는 딸그락 딸그락하며 잘도 씹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지남이는 스푼을 놓고 일어섰다.

97. 시골 길

한네와 지남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 순간이었다. 오토바이가 그들 앞에 와서 멎더니 그들을 새처럼 나꿔채 달아났던 것이다. 그들은 은하수 내리는 밤하늘 아래로 마냥 달렸다.

「힘들지? 나하고 같이 있기 싫은가보지? 그렇게 해 주지. 진작에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어.」복도는 친근감있게 말했다.

20장

98. 지배인 접대실(극장식 홀)

벽에는 갖가지 별들, 은하수들이 있는 공간 한 가운데를 비행접시가 날고 있는 그림이 붙어 있었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비행접시를 안내하는 그림도 있었다. 땅딸하고 다부지게 생긴 지배인이 복도와 귀빈실로 들어 갔다.

서글서글하고 능글능글한 귀티가 나는 사내였다.

표면상으로 보아 흠이 없는 좋기만한 사내였다. 그러나 돈 관계와 지배인으로서의 역할만은 확실히 해내는 사내였다.

직업에서 주는 느낌과는 달리 인텔리에 속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복도는 요즘 돈이 딸려서 그러니 선금으로 좀 달라고 했으나 지배인은 두 아이를 직접 가동시켜 봐야지 한 두번 돌고 나자빠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안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자기가 보기에는 한 녀석은 몸을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거고 또 가동시켜도 몇 번 못갈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식으로만 말고 내 사정도 좀 생각해 줘라. 시골에까지 가서 겨우 잡아온 아이들이다. 성의를 봐서 가불하는 셈 치고 선불로 좀 줘라. 이번 거래로 끝낼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짜게 구냐. 다음에는 좀 탄탄한 애들을 데려올 테니까. 이번에는 사정좀 봐줘라. 고 복도는 말했다. 지배인은 복도가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캐비넷에서 돈을 꺼내주었다.

「야. 너희들 지내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감사하고 싶을꺼다. 몸조심하고. 이봐 지배인, 얘들 잘해줘」

복도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지남의 쓰라린 눈빛을 뒤로 하면서.

99. 방

그들은 정말 복도의 말대로 잘 대해줬다. 아니 잘 대해주는 정도가 아니었다.

몸을 깨끗이 씻기고, 산뜻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화장도 시켰다. 보지도 못했던 기름기 흐르는 고기들을 하루에 네 차례 씩이나 먹여 줬다. 도무지 지키는 일 하나도 없이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한네는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남은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로 살폈으며 말이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너희들은 스타가 되는거야 하늘을 나르는 거야.」

「우선은 그저 열심히 먹고 살만찌면 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한네도 지남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운동기구가 있는데서 적당히 운동도 했다. 몇일 사이에 몰라보게 살이찌고 몸도 좋아진 것 같았다.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 무렵 그들은 오토바이를 배우게 했다. 여기서는 오토바이만 잘 타면 된다는 것이었다.

지름이 20미터는 되는 실내 원형 운동장을 점점 속도를 가하여 돌았다.

한네와 지남은 열심히 배웠다. 이런 일이라면 돈 주고도 배울 일이었다.

100. 탈의실(분장실)

오토바이가 익숙해졌다 싶었던 어느 날이었다.

먼저 전에 입었던 옷들을 빤스까지 벗기고 다시한번 깨끗이 목욕시킨 뒤 빤스부터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혔다. 안에 타이즈 하나만을 입히고 무지개빛 온갖 색이 줄무늬져진 반짝이는 상하의 하나로 된 옷을 그 위에 입혔다. 화장을 시킨 뒤 역시 반짝이는 무늬가 찬여하게 세겨진 헤드를 씌웠다. 한네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이건 공상영화에서나 보던 우주복인 것이다. 정말 우리들은 하늘을 나는지도 몰라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101. 비행접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임에 틀림이 없었다.

한 발만 더 디디면 은하수와 별들이 가득한 무한히 깊은 허공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래도 위도 옆도 눈에 보이는 곳은 모두 은하수와 별들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네와 지남은 어느 순간에 우주공간 속으로 날아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중하고 신비한 우주음악이 신디사이저에 의해서 고요하게 흐르다가 점점 고조되더니 은은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행탑승시 스튜어디스처럼 꿈결같이 계속되었다.

한네와 지남이 서 있는 앞으로 역시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오토바이 두 대가 왔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시고갈 두명의 우주비행사를 소개합니다.」

우뢰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저 위에서 였다. 그러나 위에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무한한 별들이 있는 공간 뿐이었다. 예쁘장한 여인이 나와 알약 같은것을 주었다.

「지금. 비행사분들이 간단히 우주음식을 섭취하고 있읍니다.」

한네와 지남은 그 우주음식이라는 것을 먹었다. 과연 좋은 음식이었다. 이제까지 가졌던 다소의 두려움이 전부가시고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우주를 향해서 떠났다.

「모시고갈 손님」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한네와 지남은 우주비행사였다. 무한히 달렸다. 오토바이는 아마도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우주를 나르는 우주선인 모양이었다. 장중하고 신비한 음악과 박수와 은은한 스튜어디스의 우주 소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은 숱한 혹성을 지났다. 별들과 운석이 그들 옆을 휙휙 지나갔다. 지남은 끝없이 달리는 것이 한없이 즐거웠다. 가능하다면 아무 것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을 이렇게 달리고만 싶었다. 해방이었다.

102. 방 옥상

샹드리에에서 나오는 빛이 유난히 눈에 부셨다.

멋있는 꿈이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분명히 꿈이었다. 현실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신비한 일들이 정말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참 아쉬운 꿈이었다고 생각했다. 예쁜아가씨가 또 그 고기들을 잔뜩차린 상을 들고 왔다. 그들은 왕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음식을 가려서 먹었다. 그리고는 예쁜 그 아가씨의 말대로 외출을 했다. 옥상에 오르자 열대야자수와 갖가지 신비한 생물들, 호수, 비행접시 등이 보였다.

분명히 우주 정거장의 휴게실인지도 몰랐다. 우주여행을 했던 기억도 사실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자신들은 지금 어느 혹성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

지남은 호기심이 당기는지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난 어렸을 때 부터 우주여행을 하고 싶었어 아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갑자기 꿈이 실현되다니 수련실 안에서도 줄곧 이런 일을 생각해 왔어。달리고 싶어. 어디로든 끝없이 달리고 싶어. 」

복도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화자 원장도 좋았고 뭉치를 빼 놓고는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다. 한네는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연신 탄성을 지르던 지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머리가 좀 아프고 아랫배가 뒤틀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괜찮다고 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자신때문에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아니. 몸이 아파서 오토바이같이 생긴 우주선을 타지 못하면 우주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남은 화장실에서 음식을 토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남은 입술을 닦고 옷에 묻은 음식을 털어냈다. 조금이라도 내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한네는 지남이 아직 우주여행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멀미를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됐다. 그 안내원 아가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가.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그들처럼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103. 비행접시

다시 지남과 한네는 그 무지개빛 오토바이 모형의 우주선을 타고 또 다른 궤도를 향해 간단히 우주음식을 먹은 뒤 여행을 떠났다. 신디사이저의 음악이 계속되고 박수 소리가 계속되고 그 은은한 목소리도 계속

되었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고 수많은 별들이 뒤로 뒤로 다가왔다가는 물러났다. 한네는 자신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고 마냥 웃는 아파트의 그 예쁜 계집애를 떠올렸다. 그런데 지남이는 다시 머리가 아프고 창자가 뒤틀림을 느꼈다. 멀미를 하는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졌다. 한네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만 왜 그러는 걸까.

머리가 빙빙돌았다. 주변의 별들도 돌았다. 바보바보. 순간 핸들을 잡았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 뿐이었다. 한네가 지남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별들은 모두 사라지고 암흑만이 가리웠으며 그 스튜어디스의 은은하던 목소리가 긴장하면서 「착륙할 준비하세요. 속도를 늦추세요. 더.」

한네는 속도를 늦추었다. 잠시 후. 은하 한 가운데에는 접시모형의 작은 우주선이 무지개 빛을 말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한네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지남이 치료중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라고 했다. 그래도 다 들리며 화면으로 나온다고 했다. 안내원이 스위치를 누르자 정말 한네앞에 TV화면 같은 것에 지남의 반쯤 누은 상반신이 나타났다.

이마 부분이 헤드에 부딪쳤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안내양의 은은한 목소리는 다시 방금 착륙한 혹성에 대해서 소개 했으며 지금 두 비행사가 화면을 통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남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으며 자신의 부주의와 멀미하나 참지 못하는 약한 정신력 때문이라고 했으며, 한네는 나같이 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크게 다친건 아니며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지남은 자신의 얼굴 한쪽은 으깨어지고 피가나도 상관없다고 한다. 반대쪽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안내양도 한네를 위로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곧 익숙해 지리라는 것이었다.

21장

104. 탈의실

한네는 다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우주복을 입었다. 그런데 자신도 머리가 아프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이었다. 한네는 자신도 멀미를 하는구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자신마저 비행선을 조정할 수 없으면 지남과 함께 여기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남은 지금 병원실에서 치료중 이라고 했다. 한네는 친구몫까지 하여 오늘은 더 멋있게 조정을 해 내리라 마음먹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길거리의 거지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

105. 비행접시

오토바이는 그날도 두 대였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었다. 맞은편에서 비행사 한명이 다가 왔기 때문이었다. 한네는 기뻤다. 지남이가 그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자신도 예상 못했던 것이다.

「괜찮아?」

「응 괜찮아. 좋은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남이 아니었다.

그 옷도 오토바이도 모자도 혁대까지 같았으나 지남은 아니었다.

또 다른 아이였다.

한네는 갑자기 머리가 핑돌았다.

「아저씨 우주음식 줘요.」

한네는 급히 삼켰다. 거짓말 같이 나왔다. 옆에 아이는 자신은 먹고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다시 우주여행을 떠났다. 박수를, 그 은은한 목소리를 태우고 혹성들 사이로 은하수를 가로질러 밀려오는 운석을 피하며 앞으로 앞으로 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나타났던 것들이 똑 같이 나타났다. 어쩌면 왕복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네 옆에 아이는 기쁘다 못해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한네는 이 순간에 이상하게도 봇짐을 든 채

거리를 헤메고 있는 상순을 생각해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순간이었다. 뭔가 벽에 부딪치는 것 같았다. 그 은은한 아가씨의 말소리가 「오늘은 좀 빨리 혹성에 도착하게 됐군요. 그럼이제 이 혹성을 탐험해 보실까요」

지남은 현란하게 부딪치면서 여러가지 나무, 돌, 화구 등을 만들어 내는 갖가지 빛의 광선들이 얼굴 위로 지나감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발을 오그리고 일어서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움직일수록 심한 통증이 왔다.

자신이 넘어진 곳은 분명 단단한 바닥이었다. 푸른 하늘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은하수들이 수면에 비친 것처럼 무한히 많은 별들이 바닥 밑으로 보였다. 마치 밤하늘을 바닥 밑에 놓은 것만 같았다.

그러나 흥건히 그 투명판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감에 따라 별들도 은하수도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한네는 막연히 어쩌면 이곳은 정말 우주공간이 아니고 이와 같은 투명판으로 가려진 작은 공간 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우주공간이 아니라 그 작은 공간안에서 바닥이 투명판으로 된 궤도를 따라 뱅뱅 돌았을 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관객도 한네도 이 곳의 구조를 다 알 수는 없었다.

이것은 반구를 엎어 놓은 것과 같으며 밖에서 안은 볼 수 있으나 안에서 밖은 볼 수 없는 좀 특수한 투명판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모두 아는 사람은 없었다. 더군다나 요즘 새로 개발되는 레이저 디스크나 특수합성유리, 전자 컴퓨터 등의 고도과학기능을 동원한 일종의 쇼무대라는 사실을 또한 제아무리 철인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 질주를 두 번 이상은 견뎌내지 못하며 그 사실을 지배인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마치 2회용 대일밴드처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네가 알리는 없었다.

누군가가 그 우주음식을 입속에 넣어 주었다.

그뿐이었다. 모든 것이 가뭇했다.

106. 지배인 접대실

한네는 지배인을 마주대하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다. 잘은 몰라도 사 오일은 그대로 잠이 든것 같았다. 팔하고 머리,다리 부분은 아침에야 붕대를 풀었고 허리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감은 채였다. 그래도 붕대를 풀 정도의 시일이 지났음에는 틀림이 없었다.

겨우 두세번 우주선 조정을 하고 이렇게 신세를 망치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 것이다.

복도도 이화자도 이제는 찾아갈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바깥 거리로 보아서는 지금 지구에 도착했음이 틀림없었다.

한네는 나가겠다고 후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물론 다시는 쓰지 않겠지만 불러 달라고 말했다. 지배인은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주소 하나와 돈을 건네 주었다. 그동안 수고비라는 것이었다. 이분은 어쩌면 지구사람이 아닌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그의 눈매가 유난히 인자해 보였고 그 눈빛이 자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보는 것만 같이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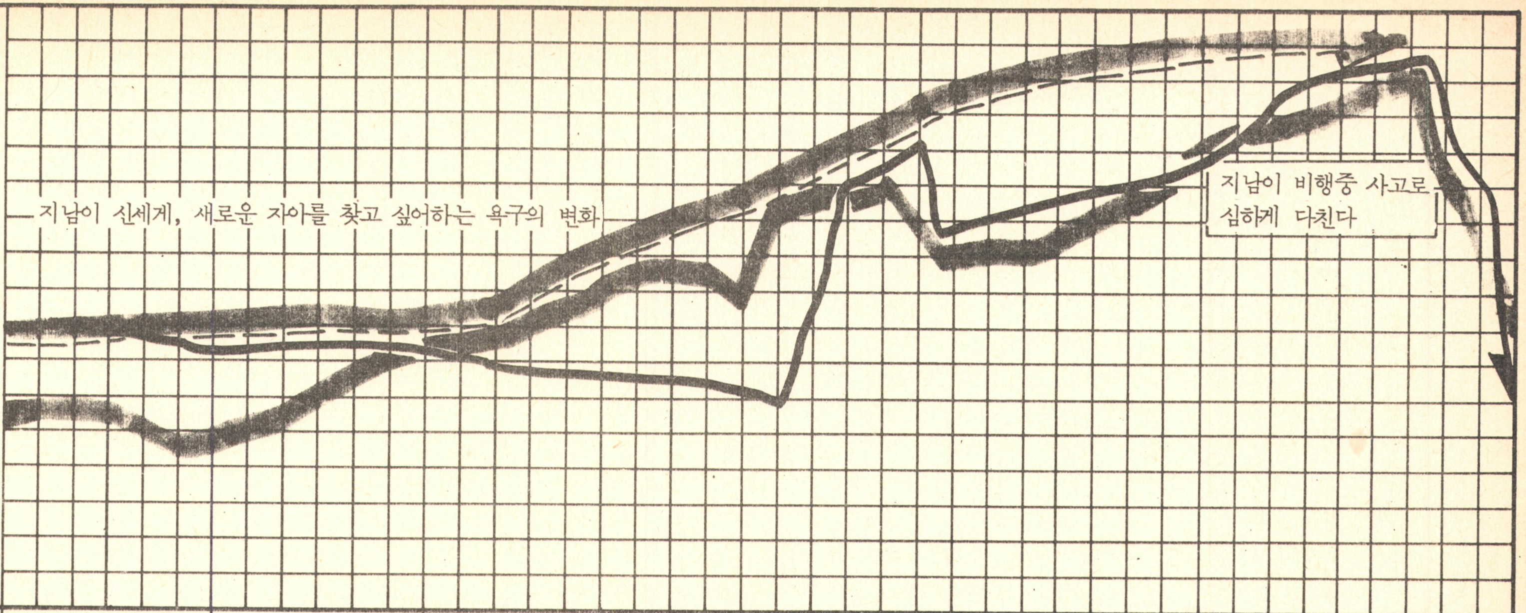
지남이는 그 주소적힌 데에 가 있다고 했다. 거기가면 먹고 자는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했다. 한네는 연신 꾸벅이며 그 건물을 빠져나왔다. 돈을 못버는 것이, 그 부유한 음식과 옷을 두고 떠나는 것이 한없이 아쉬웠다.

오랫만에 밟아보는 지구 땅이었다.

한네는 붕대를 감은 채 나왔다.

몹시도 하얀 눈이 펑펑내렸다.

극 장 식 홀



No.	98	99	100	101	102	103
SCENE		방	탈의실(분장실)	비 행 접 시	방, 옥상	비 행 접 시
내 용	복도는 우주여행을 쇼로 보여 주는 극장식 홀 지배인을 만나 한네와 지남을 돈을 받고 넘긴다.	한네와 지남은 뜻밖에 좋은 대접을 받으며 하는 일이라고 오토바이 배우는 일이 전부이다. 그들이 곧 스타가 될 것이라고 알지 못할 말을 주변인들이 한다.	그런 어느날 한네와 지남은 우주복을 입게 된다.	한네와 지남은 은하계 속에서 우주오토바이를 타고 은하계 속을 여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우주음식이라는 것을 먹자 금방이라도 나를 것만 같은 충동을 느낀다.	지남과 한네는 다음날 아침 우주정거장 휴게실로 보이는 곳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정말 우주정거장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남은 두통과 복통을 일으키지만 자신의 약한 체격으로 인한 멀미로 여겨 오히려 숨긴다.	지남은 결국 여행을 하다가 멀미로 해서 쓰러지고 심한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한네는 지남을 화면상으로만 보게 되며 지남은 곧 나을 것이라며 얽인 얼굴에 상처난들 어떠냐고 한다. 아니 오히려 미안하다고 자책한다.
SEQUENCE	복도는 돈을 받고 지남이와 한네를 극장식 홀의 지배인에게 넘기며 지남과 한네는 의외로 좋은 대우를 받다가 우주비행사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남은 결국 심한 상처를 입고 만다.					

작가의 의도

○지남과 한네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황 속에 던져져 일시적으로 꿈과 환상에 젖는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다음에 그들이 빠질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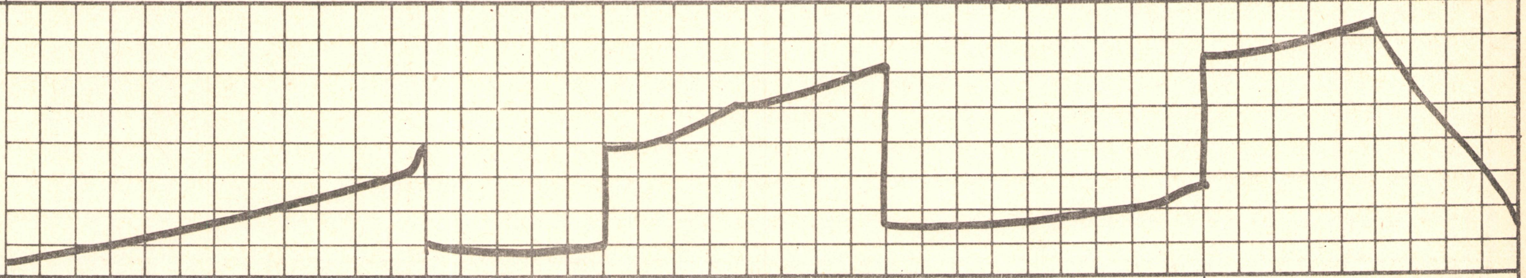
○관객들도 지남, 한네와 같은 관점이 되도록하여 같이 속아 넘어가도록 한다.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린다.

○지남과 한네가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일으킬 반응을 섬세하게 연구「사실성」의 부여에 특히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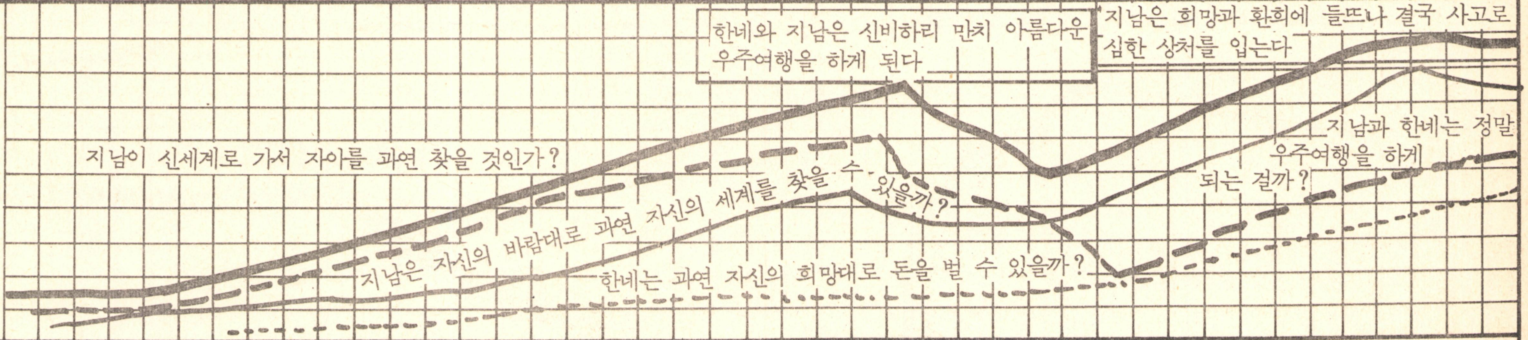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No. 98 99 100 101 102 103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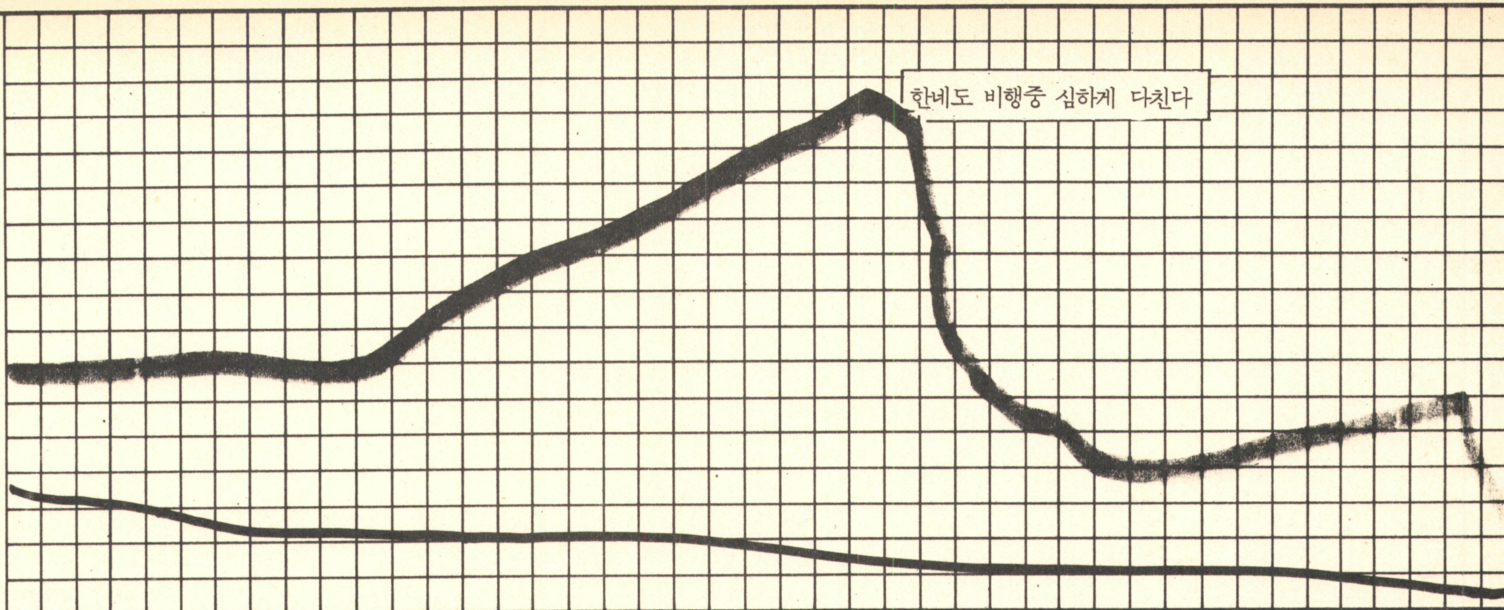
○관객들은 한네와 지남이 {어떤 상황에 던져질 것인가? / 어떤식으로 던져질 것인가?}

○그들은 정말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 걸까? 그들이 받는 대접은 뭔가 이용하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그런 대접을 하게 되는 걸까?

→관객의 의혹과 기대를 계속 뒤집고, 오히려 지배인 쪽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극이 진행되며 우주여행과 같은 강한 사실성을 부여한다.

○지남과 한네가 갑작스럽게 전환된 생소한 상황하에서 일으킬 반응을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므로써 관객들이 한네, 지남과 동일시되어 같이 그 신비의 세계를 겪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써 후반에 속았음을 알았을 때 「분노」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극 장 식 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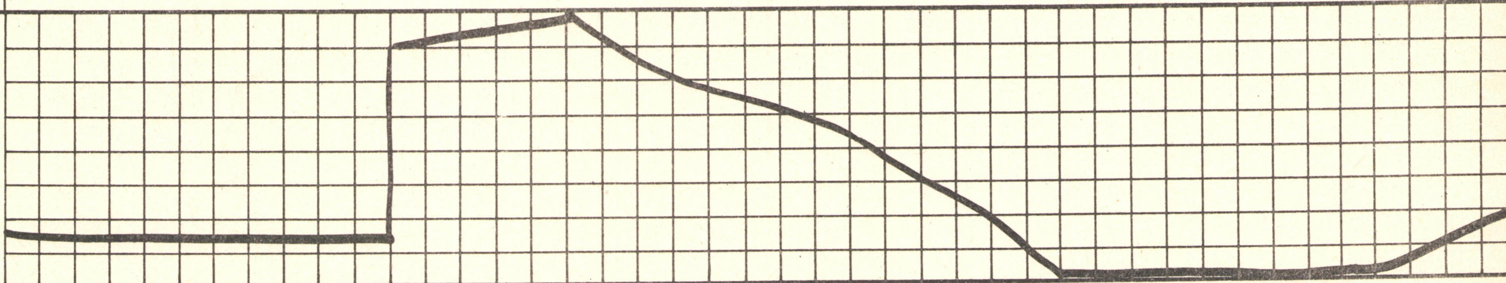
No.	104	105	106
SCENE	탈 의 실	비 행 접 시	지 배 인 접 대 실
내 용	한네는 두통을 경험하지만 이을 숨기고 지남의 몫까지 해내리라 마음 먹는다.	한네는 홀로인줄 알았으나 지남대신 다른 소년으로 대치 되었음을 알게된다. 한네도 역시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심한 상처를 입게 되며 막연히 나마 이곳이 어쩌면 정말 은하계가 아니라 쇼두대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감상객들은 비로소 은하계는 조작된 Set이며 일종의 쇼무대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카메라가 관객석을 보여 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다.	한네는 지배인에게 자신들의 약함을 자책하며 실제로 심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를 빈다. 한네는 오랜만에 지구땅을 밟아본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하얀눈이 몹씨도 많이 내렸다.
SEQUENCE	한네도 3번째 여행에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되며, 다시 나가면서 까지 그것은 꾸며진 일종의 쇼무대와 같은 세트이며 그들은 광대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오히려 감사하면서 붕대를 감은채 나간다. 그날은 몹씨로 많은 눈이 펑펑 내렸다.	(여행할때 상순의 떠도는 모습이 스치는 것으로 설정 –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에)	

작가의 의도

○한네가 어떻게 하든 지배인의 기대에 부응할려고 노력하며 감사하는 면을 진실되게 그리므로써 후반, 관객들이 진상을 알았을 때의 분노의 강도를 크게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객들이 진상을 알았을때 지배인의 눈하나 까닭하지 않는 사기성과 그 상황을 모르고 감사하며 자신의 모자람을 자책하는 한네의 진실성을 대조시킴으로써 극장식 홀에 대한 분노의 강도를 높인다.
○한네와 동일시되어 한네의 심리를 따르도록 관객들을 유도한다.
○한네가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에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나 한네는 붕대를 감도록하여 처량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도록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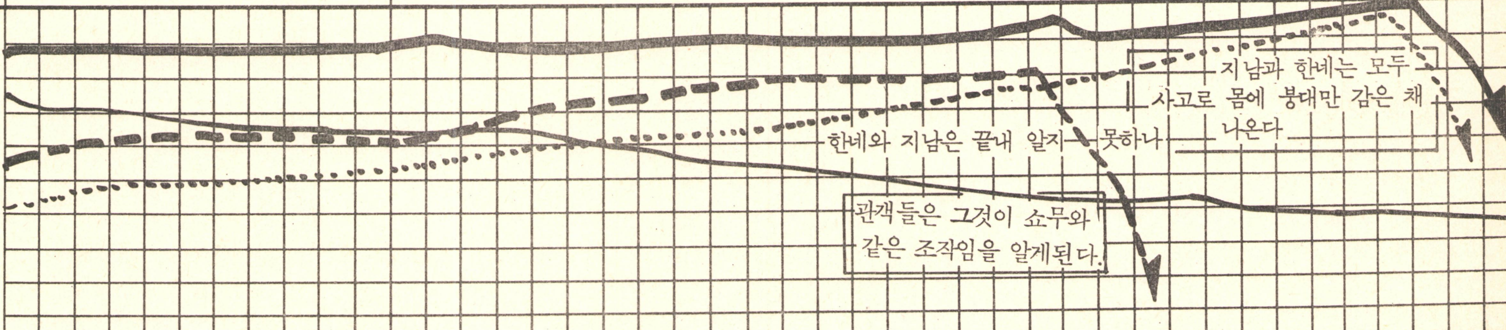
분 위 기

영화적인 요소



№ 104 105 106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한네의 심리변화를 따르던 관객들은 극장식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기 시작하며, 한네가 계속 타지 못하고쓰러지는 데에서 슬픔을 느낀다. 한네가 다시 일어나가를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다 지배인과 극장식 홀의 참 모습을 알게 되면서, 한네의 심리와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의 양면을 가지고 한네가 속는 줄도 모르면서 실상을 알면 목을 잡고 달려들 사람한테 감사하는 모습을 분노의 눈으로 보게 되며, 한네에 대해서는 동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동정의 감정을 눈속에서 깨끗히 서정적으로 승화시킨다.
○그 진상을 알게 될 때 자칫잘못하면, 관객들의 사기라는 예상이 들어 맞게 하므로써 오히려 실망을주게 되므로 그 이전에 한네와 같은 입장이 되어, 가짜라는 사실은 아예 생각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한네의 심리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래야, 관객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5부

A. 작가의 의도

ㅇ 관객들의 관심을 지남이 압박과 구속에 도전하여 관리인을 무찌르고 해방을 얻을 것인가 하는 점에 모은다.

ㅇ 빈민 수용소 내의 음침하고 답답하며 짓눌리고 압박당한 사람들의 인간쓰레기 같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리며 그들 속에서 도전과 반발이 일어날듯한 불안과 의혹의 분위기를 점점 가중시킨다.

- 지남이 정신이상이 되어 감에 따라 강박관념, 변태적인 성에 대한 집착, 외부와 차단하려는 자폐증으로 인한 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의 폐인에 가까운 증상을 일으킨다. 그 속에서도 압박과 구속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언제인가는 터트릴 것만 같은 위기감을 조정한다.
-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후는 그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내려 앉게 하므로써 죽음의 늪과 같은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게 하는 장소로 변화시킨다.
- 한네는 지남이 더욱더 폐인이 되어 갈 수록 그를 절실히 지키고 보살피게 하므로써 강한 우정을 그린다.

C. 내 용

빈민수용소 시절

ㅇ 지남은 정신이상으로 우둔하게 되어 본능에 집착하게 된다.

- 상대방에게 거짓을 못하는 두려움, 경계심
- 성에 대한 도착적인 집착으로 인한 변태적인 자위행위 (여자에 대한 열등의식)
- 책에 대한 병적인 집착 (외부와 차단하는 자폐증)
-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강박관념, 편집광, 결벽증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괴이한 행동은 그를 「지하인」이라 부르게 한다.

○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주변의 상황

즉 •원폭 피해로 인한 여동생의 죽음
•보육원시절의 속박
•수용소에서의 속박
•얼굴로 인한 멸시. 모멸감. 열등의식 등이

터져서 수용소인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들을 봉기의 열풍 속으로 몰아 넣는다. 이 울분은 궁극적으로 원폭의 주동자에게로 쏟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는 다시 모닥불처럼 꺼지고 지남은 관리인에게 몰매를 맞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다.

○ 그러나 한네는 항상 지남을 위해주고 보살펴 준다.

C. 관객의 반응

○ 극장식 홀에서 보여지던 분위기와는 달리 음침하고 짓눌리고 압박감, 구속감에 찌든 듯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관리인이나 또는 그들 자신에 의해서 인간쓰레기와 같은 대우를 받는 면 등은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 또한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서 그들 가슴속에 웅크린 것을 터트릴 듯한 도화선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이전에 비해 훨씬 폐인이 되어 버린 지남의 행동에서 더욱 엿보였으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남을 기점으로 해서 터졌을 때는 가슴 밑바닥에 있던 오랫동안 짓눌렸던 그 무엇이 함께 일어나는 듯 했다.

○ 지남을 위하고 지키는 한네의 우정은 눈시울을 적실 정도였으며 그 늘진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피어오르는 꽃으로 여겨졌다.

D. 시나리오

S#107-108.109 일부 분실되었음

109. 방

그런데 그때 관리인 덕배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남은 재빨리 캐비넷 문

을 닫았고 얼굴 표정은 금새 굳어졌다. 그의 눈은 덕배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관리인 덕배는 무슨말을 하려다 한번 쓰윽 보고 저쪽 바지를 입지 않고 팬티도 입지 않은 채 침상에 주저앉아 싸고 있는 김노인 쪽으로 갔다.

지남은 잡지책을 옆구리에 끼고 무표정하게 일어났다.

바지의 앞단추가 열려있고 앞이 툭 튀어나왔다.

110. 화장실

한여름인데 썰렁했다.

한네가 들어서는데 지남이가 저쪽 구석진 곳에 보였다. 그런데 오줌싸는 표정치고는 좀 이상했다. 뭘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른해지는 것 같기도 해보였다.

지남이 한네를 의식하자 그 표정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굳어져 한네를 경계의 빛으로 응시했다. 그러고는 뭘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발을 옮겼다.

그의 옆구리엔 여전히 그 영자 잡지가 끼어있고 바지 앞단추도 열려있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의 바지춤에 물이 흥건히 묻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네는 은근히 짐작이 가는 것도 있었다.

지남이는 자기보다 나이가 두 살 위니까 열 다섯 살이었다.

그 우주인에게도 어쩌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건지도 몰랐다.

꽃처럼 분홍빛이 아닌 어두운 지하로 검게 찾아오는 빛인지도 몰랐다.

23장

111. 방

그 희멀건 눈동자, 찌드린 주름살, 허연 몰골에 굼벵이처럼 쓰레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들에게 그래도 한가닥 빛이 스미는 계절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날이었다. 이번에는 평소에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는 해성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수용소인을

위한 잔치를 배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띠엄띠엄 오던 그 노수녀도 요즘에는 매일같이 와서 올해는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게 됐다고 누군가에게 인지는 모르지만 칭찬을 했다.

수용소 뒤편에는 갑자기 간이천막 이발소가 생겨서 머리 깎아 주기에 바빴고 덕배는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면서 머리를깎았다. 그 옷이 뭐냐, 세탁좀해라, 냄새난다., 목욕해라, 캐비넷이 더럽다는 등 평소때 안하던 친절까지도 베풀었고 털보영감은 이 기회에 아예 한 몫보려는지 아침부터 이곳저곳 부산히 다니더니 저녁때는 정말 말짱한 신사가 되어서 돌아왔다. 돈하나 안들이고 그쯤되었으니 살판난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생기가 돌았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던 저쪽 구석의 노인네들도 막상 목욕을 하니 기분이 좋은지 옷매무새까지 다듬어 보고 어떤 늙은이는 무슨 속셈인지 빤스하고 런닝셔츠를 유독히 신경썼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그 우주인만은 예외였다.

관리인 덕배도 처음에는 몇번 얼굴을 찌푸렸으나 나름대로 계획이 섰는지 책만 들여다보게 내버려두었다.

112. 방 (크리스마스 이브)

드디어 날은 왔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깨끗이 빨았던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 손질도 했으며 특별히 나온 크림을 얼굴에 발랐다.

털보영감은 넥타이까지 맸다.

사람들은 점점 밤 여덟시 쪽으로 시계바늘이 가까워질수록 긴장했다. 한네도 오줌이 마려웠다. 지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회 뒷편에 있는 목사용 사옥이 있는데 거기 창고에 임시로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도록 한 것이 관리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위안 잔치 장소가 바로 교회안이었기 때문에 이날 합창도 하고 무용도 하고 연구도 할 주역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관계로 세면장을 계속 들락거려야 했는데 이 세면장에 지남이 도깨비처럼 열댓번을 그것도 어느 때는 런닝셔츠만 입고 어느 때는 팬티만입고 왔다 갔다 했던 것

다.

그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생각으로서는 지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세면을 하려면 미리 도구를 가져와서 하고 변소도 함께 들리면 많이 왔다갔다해도 3번정도면 족할텐데.

한번은 비누를 다음에는 비누곽을, 다음에는 빨래비누를 심지어 면도칼까지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었다.

관리인이 이 사연을 듣고는 화가나서 지남의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그 줄기차게 왔다갔다하던 세면도구들이 거짓말처럼 일사불란하게 책상위에 정열되어 있고 창문쪽으로 있는 책상 위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백지로 깨끗히 싼뒤 주변에 압핀을 꽂아 더러운데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으며 벽에 걸려 있던 옷가지 등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방은 훤하고 깨끗하기만 했다.

관리인은 생각을 바꾸었는지「파티장엔 절대로 나오지마. 꼼짝말고 여기 있어 사고치면 알지.」

말투가 그리 거칠거나 높지는 않았다. 지남이도 성의를 다해서「예.」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어조에는 짓눌린 그 무엇이 겨우 억제되고 있었다.

관리인이 사라지자마자 지남은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바지를 꺼내 방한쪽 커튼으로 가린데에 던졌다. 그 안은 역시 그 방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모아 놓은 쓰레기장이었다.

113. 교회 안

빈민수용소인 위안잔치는 성대하고도 절차있게 시작되었다. 앞쪽에는 해성그룹 회장이하 고위 간부를 비롯하여 사회각계의 인사들이 수두룩히 앉아 있었다. 무대와 귀빈석 사이에 수용소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생전보지도 못한 갖가지 제과와 빵,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고위 간부의 잔치마련 취지를 알리는 말씀이 긴 인사말을 서두로 하여 장엄하게 시작되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쉬가 터졌다.

인사말이 끝나자 잠시 어두워지고 정적이 흐르더니 천사같은 여고생들이 나와 춤을 췄다.

수용소인들은 악착같이 참았다. 손이 올라가면 옆에 동료가 툭쳐서 좀 더 참으라고 체면을 지키자고 했다. 서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관리인의 뜻대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무용이 끝나고 합창이 시작되었다가는 연극이 시작되어도 그들은 체면을 지켰다. 그들은 순한 양처럼 위신을 잃지 않았으며 뒤쪽 귀빈석에서 먼저 음식을 들고 웃으면서 잡수시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먹기 시작했으며 그렇다고 마구먹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위신과 체모를 지켰다. 술을 마셔도 관리인의 말을 잊지는 않았다.

관리인 덕배는 흡족한 듯 다소 마음을 안정시키고 연극을 보기까지 했다.

연극이 끝난 뒤 특별 순서로 수용소인들이 조직한 밴드가 나왔다. 나팔을 유창하게 불어 제끼자 수용소인들은 일제히 건배를 했다. 그들은 야릇한 기분을 느끼는 듯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만 같았다. 저 관리인의 눈초리도 뒤에 앉은 감시인같은 눈초리도 이제는 두려울게 없을것만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웃으면서 잔을 권하고 음식을 권했다.

점점 말소리에도 자신감이 붙어 언성을 크게 높여 보기도 했다. 참으로 오랫만에 맛보는 아니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을 그 무엇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껏 마셨다.

관리인 덕배가 아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중하라고 소리치고 안면을 찌푸리고 눈에 힘을 주어도 뒤에서 그룹 회장이라는 자가 미간에 주름을 잡아도 알 바 아니었다. 그야말로 해방이요 축제였다.

한네는 이런 자리에 지남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오랫만에 마셔보는 술탓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됐다는 석연찮은 점도 있었지만 아뭏든 지남이 함께 있어야 했다. 관리인같은 것이 뭐라고 해도 좋았다. 한네는 총알처럼 튀어가 지남을 끌어왔다. 지남은 미리 알고 있었기라도 한듯이 옷을 깨끗이 갈아 입고 있었다.

지남은 오랫만에 우주음식을 먹어본 기분이었다. 하늘로 다시 날을 수

있을 것만 갔았다.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회자의 말만 아니었다면 정말 하늘을 날았을 것이다.

밴드가 끝나자 교회안은 일순 조용해 졌다. 수용소인들도 자신들이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여겨졌는지 모두 평소때 자세로 그 짓눌린 표정으로 돌아가 관리인을 힐끗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사회자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수용소 여러분들이 실력이 하도 대단해서 자리를 한번더 마련해 보겠다고, 여러분들 중에 좋은 장기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본래의 자세로 이미 돌아갔던 것이다. 한네는 지남을 쿡쿡 찔렀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털보가 돌발적으로 「지하인」이 여기있다고 갑자기 소리쳤다.

지남은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적을 지켰다.

지남은 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주비행사 시절에 비행접시를 탈 때의 흉내까지 내가면서 혹성에 대해 다가오는 운석에 대해 그 무지게빛 우주복에 대해서 그때 그 스튜어디스의 은은한 목소리처럼 이야기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놀랐다. 지남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남의 목소리는 점점더 고조되고 빨라졌다. 한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또 그 열병이 우주인을 엄습할 것만 같았다.

한네의 염려는 맞아 들었다. 지남은 스파게티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며, 사람의 골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스파게티를 보면 골이 생각이난다고 했으며 여러분은 여러분을 때리고 구박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고 물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자신은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며 누구든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어느 쇠붙이로도 칼을 만드는 법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수용소인들은 점점 음식먹던 것을 중단하고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으며 뒷좌석에 사람들도 의자에 꽂꽂이 눌러앉아 있다.

덕배는 오히려 수용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점 무대쪽으로 다가갔다.

분위기가 확 바뀐것은 수용인들 중의 한 명이 갑자기「맞아. 죽여야해.죽이자. 」고 소리쳤을 때였다. 수용소인들은 술렁술렁해졌다. 그들의 눈빛은 오랫동안 가리운 두려움과 짓눌림의 껍질을 벗고 분노로 빛났다. 그들은 뭔가에 도전해야 함을 느꼈다. 부수고 쟁취해야함을 느꼈다.

관리인이 무대위로 올라가 지남을 잡으려 무대에서 끌어 내렸다. 귀빈실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빠져 나갔다.

사회자의 말은 이미 들리지 않았다. 고등학생들도 귀가를 서둘렀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용소인들은 역시 쓰레기, 병신, 머저리 들이었다. 그들은 돼지처럼 먹고, 원숭이처럼 떠들고 소리치다가 제풀에 쓰러져 잠들었다. 그 뿐이었다. 승리자, 생존자들이 떠나고난 전쟁터처럼 여기저기 쓰러져있는 쓰레기들 위에 정적이 깔렸다.

114. 수용소 뜨락

그날 예수님 오신 날에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듯 수용소인들은 시들어가는 무우말랭이처럼 늘어져 뜨락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

관리인이 한네를 만난 곳은 지남이 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사태의 그 창고에서였다.

지남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어제 사태로 보아서야 관리인에게 그정도 맞은 것이 수긍은 가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남은 자신의 얼굴은 으깨어져도 괜찮다고 한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관리인이 보기에도 사람이 아주 못쓰게 돼버린 것이다.

114. 수용소 내. 2월 초순

그날은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힘이 좀 남아있다 싶은 젊은 쪽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이 새벽부터 짐을 쌌다. 짐이래야 세면도구하고 옷가지지만 한보따리는 족히 되었다.

「 7시까지야. 빨리들 서둘러, 희망자들이 더 있으면 말해, 버스지나가고

손들지 말고. 아무나안돼 하루종일 막노동에. 잘 생각들 하라고」

그들을 빤히 한쪽 구석에서 바라보며 지남이를 부축이고 있던 한네가 뭔가 생각해보려는 듯 듣고 있었다.

지남은 힘들게 입을 떼면서 무조건 떠나고 싶다고 했다. 관리원을 보면 죽이고 싶다고 했다.

114. 수용소 입구

넝마주이 패들을 실은 트럭이 입구에 와 멈췄다.

한 사내가 운전석 쪽에서 내려 관리인 쪽으로 다가왔다.

「이 사람들 안가요?」 사람들은 이 사내를 대장이라 불렀다.

보따리를 옆에 놓고 일렬횡대로 열두어 명 쭉 보리자루처럼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다소 초조감마저 가지고 늘어서 있었다.

「얘는 병자인가 본데요.」

지남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한네가 말하려 하자 관리인이 나서서 자신도 안된다고 했는데 이 꼬마녀석이 한사코 자기가 책임진다며 같이 가겠다고 해서 일단 데리고 나와 본 건데 정 안된다면야 할 수 없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네는 자신이 충분히 두 몫을 하겠다며 열심히 말했다. 이 굶주리고 죽은 자처럼 사는 곳에서는 못있겠다고 그곳에가서 열심히 일만하면 돈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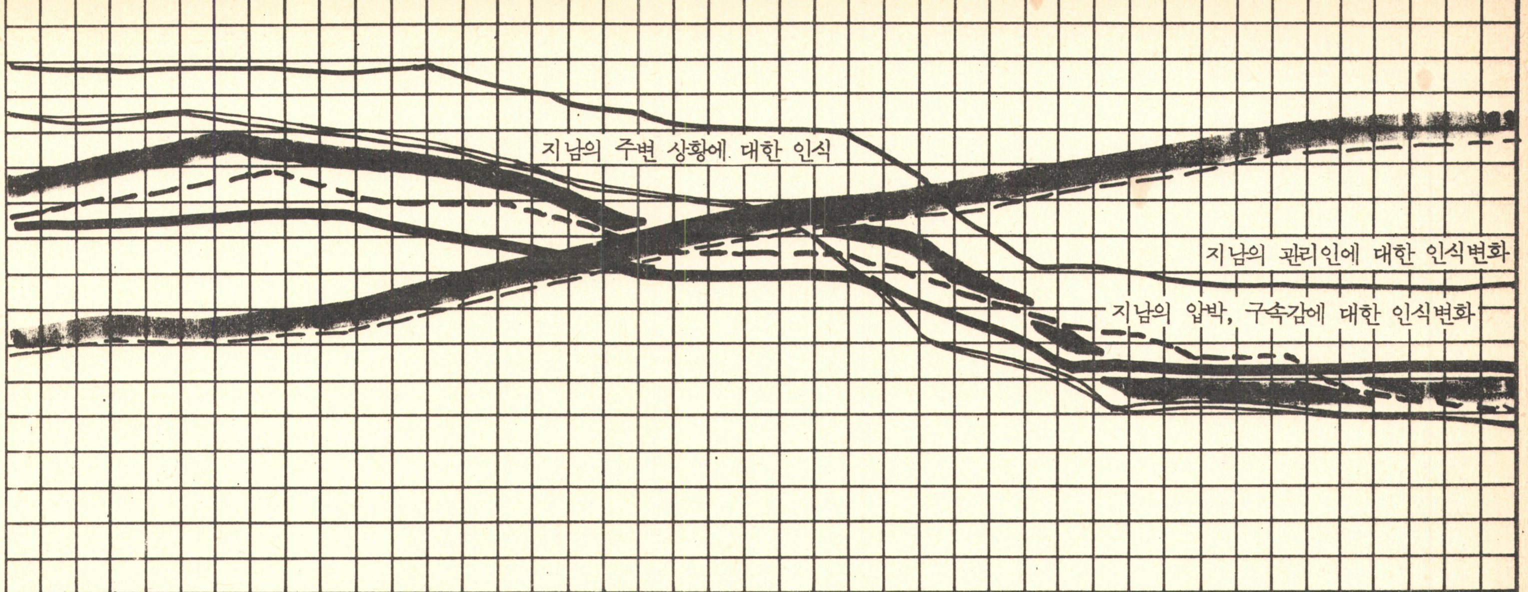
넝마주이 대장은 대답대신 한네를 빤히 들여다 보는 것이었다. 이제보니 한네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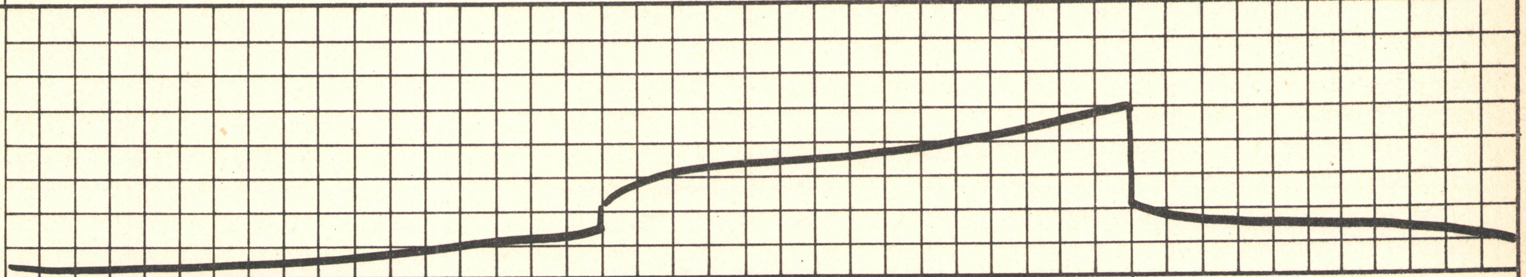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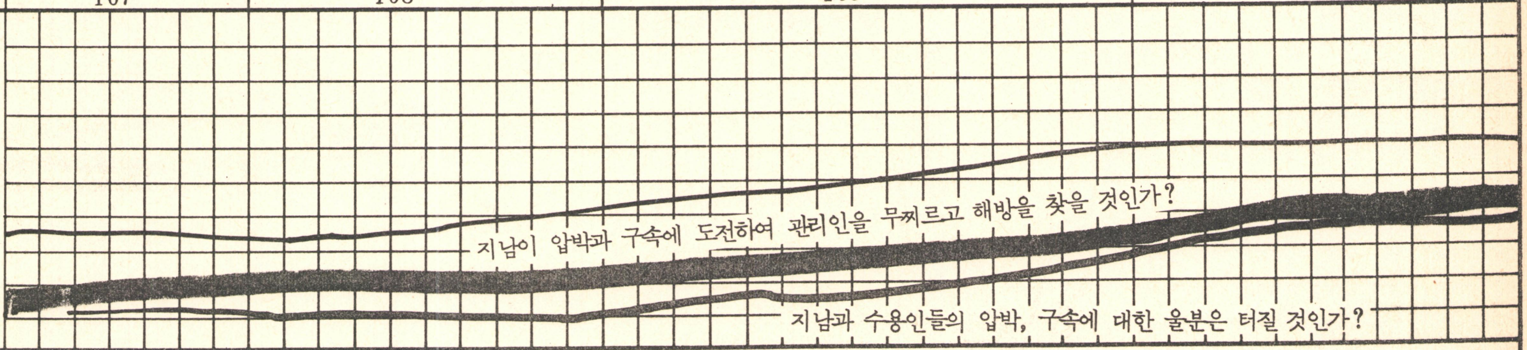
한네는 어쩌면 상순이 누나가 그렇게도 애타게 찾는 성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더부룩한 수염하며 늙어 보이는 얼굴이 믿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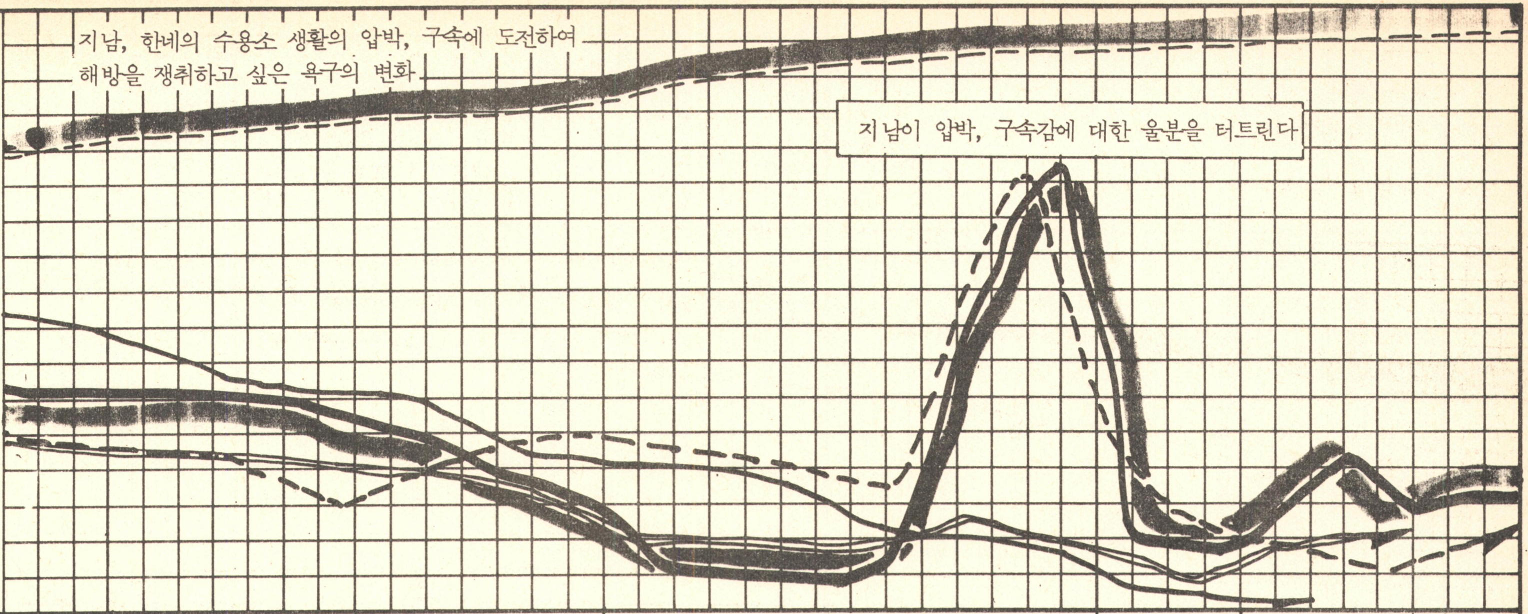
아무튼 그 덕분에 그럭저럭 한네도 수용소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담배 한 개비씩을 돌리고 떠나갔다.

빈민수용소



No.	107	108	109	110
SCENE	빈민수용소(식당쪽)	식 당 내	방 (침 상)	화 장 실
내 용	그 이후로 지남은 거의 정신이상이 되어 한여름에 땀을 뻘뻘흘리면서도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먹지않는 우둔한 행동을 한다.	통제되고 지겨우며 생기없고 더러운 수용소 생활속에서 한네는 지남의 우둔한 강박감에 싸인 면을 인내심을 가지고 보살펴 준다.	지남은 사람들과 벽을 쌓고 영자책만 들여다 보는 자폐증, 강박관념(결벽증과 기억력 감퇴에서 오는), 도착적인 자위행위 등으로 시달린다.	한네는 지남의 음울하고 어두운 변태행위를 보고 지남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껴야 했다.
SEQUENCE	그 지겹고 따분하며 더러운 빈민수용소 생활속에서 지남은 우주비행사 이후 정신기능의 이상, 강박관념, 기억력상실,성도착 등의 증세를 일으키며 거의 패인이 되어 괴인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한네는 항상 그를 보살펴 준다.			

작가의 의도	ㅇ지남이 우주비행사를 한 이후 일으키는 정신적인 이상을 인과적으로 표현해 내도록 한다. - 광장시절에 가졌던 정신적인 증상을 극장식 홀에서도 틈이 나는데로 묘사해줌으로써 수용소로 연결시킨다. - 수련실에 있을 당시 가졌던 꿈이 극장식 홀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ㅇ강박관념, 성도착, 자폐증 등의 표현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ㅇ한네가 지남을 감싸고 보살펴 주는 우정을 유의해서 표현해 준다. ㅇ주변인물들은 「빼꾸기둥지위로 날아간 새」에서 처럼 짓눌림를 당하는 것으로 설정 - 압박, 짓눌림, 구박, 핍박등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No.	107 · 108 · 109 · 110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관객들은 패인이 된 지남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그 원인과 증상을 알고 싶어하며, 지남같은 인간형이 어떻게 증상을 일으키는 가를 분명히 보고 싶어한다. ㅇ관객들은 지남과 한네 사이의 우정을 발견하나 평이하게 처리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ㅇ빈민 수용소 생활을 관념적으로가 아닌 그 진상을 알고 싶어할 것이다. ㅇ관객들은 뭔가 새로운 사건이 발발되기를 기다리며 그 복선을 찾으려 할 것이다. ㅇ누추하고 음울하며 느린 분위기 속에서 관객의 흥미는 지남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의 리듬을 타야 지루함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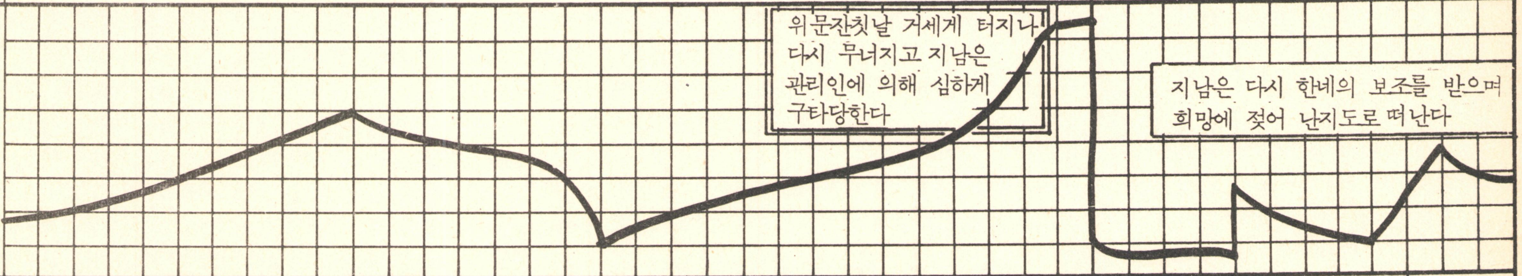


빈민수용소

No.	111	112	113	114	114-1	114-2
SCENE	방	방(크리스마스이브)	교 회 안	수용소뜨락	수용소내	수용소입구
내 용	따분하고 변함없는 생활속에 크리스마스이브날 빈민수용소에서 위안잔치를 열게된다는 사실은 모두 나름대로 준비하게 한다. 그러나 지남만은 계속 책속에만 묻혀있다.	관리인은 지남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로 거처를 옮겨 주나 지남의 강박관념과 결벽증은 추태를 부려 여학생들을 당황하게 하며 관리인을 화나게 한다.	수용소인들은처음에는위신과 체면을 지켰으나 관리인을 의식해서 분위기가 점점 풀리자 마음대로 놀아난다. 한편 한네는 술을 한잔 마시자 지남을 불러왔으며 지남은 무대에 나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 한다. 그러다 결국은 압박받는자, 구속받는 자의 서러움, 적개심을 선동하여 수용소인들을 봉기하게만든다. → 원폭희생으로 연결, 수용소인들은 그러나 스스로 다시 무너져 돼지처럼 잠이들고 만다.	수용소인들은 다시 맥이 풀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지남은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한네가 이를 돌봐 준다.	수용소내서는 다시 움직임이 보인다. 난지도로 집단이주 하는데 수용소에서 몇명 차출해 간다는 것이었다.	한네와 지남의 합류 넝마주이 대장과 한네의 시선 교차.
SEQUENCE	단조롭고 음울하며 더러운 수용소 생활속에 「크리스마스이브 수용소인 위안잔치」라는 파문이 일게 되고 사람들은 이날을 위해 관리인의 독촉속에 몸과 수용소내를 가꾼다. 크리스마스날 관리인의 눈치 속에 수용소인들은 조용히 진행에 따르나 술을 마시고 수		용소인 밴드, 지남의 언변으로 해서 분위기는 흥청이고 지남의 말은 마침내 그들을 봉기, 반항, 적개심의 분위기 속으로 집어 넣는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붕괴하고 지남은 관리인에게 심한 구타를 받는다.	수용소내에는 난지도로 가는 넝마주이들의 대열에 속할 인원을 차출하는 바람이 분다. 한네는 제몸도 가누지 못하는 지남과 함께 굳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 나선다. 한편 한네는 넝마주이 대장이 혹시 성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나 서로는 묻기를 그만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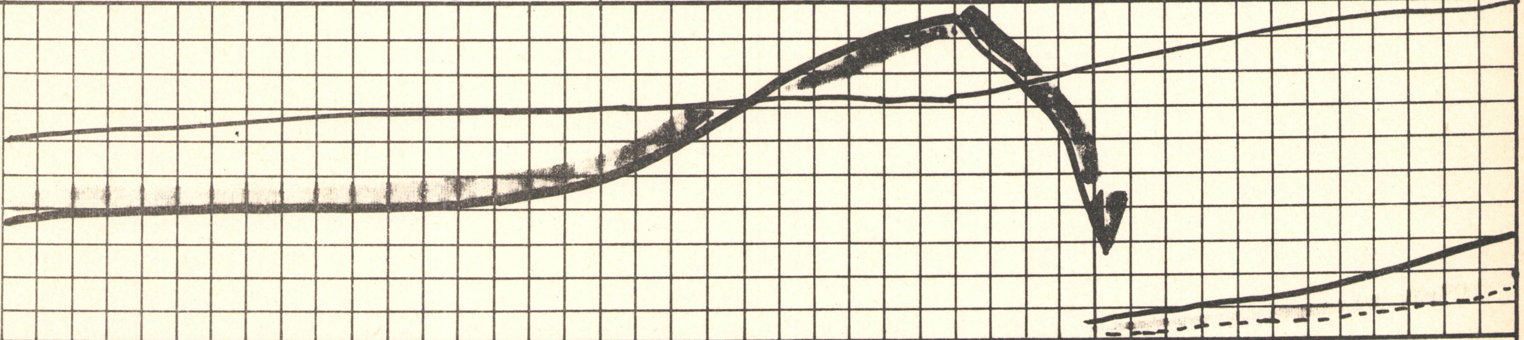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ㅇ지남의 심리묘사를 통하여 짓눌리고 압박받는 자의 분노와 폭발을, 그리고 그것이 원폭이라는 원주제로 돌아 가도록 하므로써 이 작품의 가장 높은 분수령이 되게 한다. 주변상황을 모두 잔치에 맞춤으로써 관객들의 관심 역시 그날을 기다리게 한다. 수용인들이 그날 터트리게 되는 압박, 구속감을 점점 강하게 표출해 냄으로써 구성력을 구축 ㅇ관객들이 지남의 심리 변화를 주시하도록 하며 지남은 압박감, 구속감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 의혹, 불안 등의 복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ㅇ관리인이 그날의 표적이 될 수있도록 그의 성격묘사에 유의하며 군중 특히 이러한 하층부류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요	ㅇ눈시울을 적시는 우정 – 지남의 죽음에 대비 ㅇ무덤, 시체, 그늘(죽음의) – 생명, 자유에의 욕구, 꿈틀거림.
분 위 기		

영화적인 요소



No.	111	112	113	114	114 –1	114 –2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그날이 다가오고 공연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공연을 자신들도 관객이 되어 보기 시작한다. 이때 수용소인들과 동일감을 형성시키고 뒤에 간부와 관리인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ㅇ수용소인들의 밴드가 나오면서 관객들도 사건이 터지기를 기대→그러나 약간 폭발하려다 수그러 들고→다시 폭발하기를 원할 때에 지남이 나타난다.→관객들의 환상적인 욕구를 통쾌하게 만족시켜 주면서 마력적인 힘으로 압박, 구속에 대한 울분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이때(수용소인들의 봉기 때), 관객이 그들에게서 떠나 관조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처리 ⇨ 관객의 감정도 욱해야 하며 저 밑에 잠재된 욕구불만을 끌어올려야 한다.	ㅇ죽음의 그늘 ㅇ관객과 동일화 – 해방과 보람에 대한 강한 의지 공유 ㅇ넝마주이 행렬의 통쾌함에 대한 심리적인 예비구축

6부

A. 작가의 의도

ㅇ 관객들도 넝마주이들과 함께 난지도로 떠나도록 그들과 동일화시켜 서부로가는 개척민들처럼 모든 굴레와 통제를 뚫고 통쾌하게 삶의 의지를 싣고 달리게 한다.

ㅇ 넝마주이들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인간적인면 삶에의 순수한 의지, 노인을 선봉으로 삼는면 등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면을 보여준다.

- 걸어가는 모습들과 난지도에 집을 짓는 모습 등에서는 서정적이고 목가적으로 처리하여 정서를 순화시킨다.

  인간적인 따스한 면을 인정과 아이들의 모습에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긴장도 해소시키고 관객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한다.

ㅇ 행렬 속에서 한네가 지남을 옆에 누인채 꿈에 부풀어 난지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밖을 보며) 지남에게는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혀오는 면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ㅇ 긴 세월을 한 남자만을 찾아 헤멘 여인의 애절한 사랑. 그러나 저 밑에 은근과 끈기로 남아있는 그리움을 상순의 몸짓과 표정에서 차분하게 서정적이고 목가적으로 처리한다.

ㅇ 한네와 상순 사이에 교차되는 내면 깊숙히 흐르는 심리적인 동요, 체념, 억제하는 면이 하얀 눈 속에 승화되도록 섬세하게 처리한다.

B. 내 용

난지도시절

ㅇ 한네는 속박을 떠나 뻐꾸기처럼 자유로운 난지도로 떠나고 싶어한다. 그곳이라면 한네나 지남이 살 수도 있는 곳이리라. 누구하나 압박하는 자도 못사는자도 잘사는자도 없으리라.

그들이 넝마주이 패를 따라 떠나는 날은 몹시도 많은 눈이 내렸다.

4 년후

ㅇ 한편 상순은 계속 성호를 찾아다녔으며 4 년만에 성호가 있는 난지도에까지 왔으나 이미 부인과 아이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병신스런 발이 오랫동안의 걸음으로 해서부터 터지고 갈라진 것을 볼 뿐이다

ㅇ 한네와 상순이는 할 이야기가 많았으나 다만 하얀 눈에 대해만 이야기 한다. 지남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상순은 한네 모르게 그 오랫동안 간직해온 성호의 때묻은 편지를 개울에 버린다. 한네와 상순은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고 화면엔 하얀 눈만이 가득 멘운다.

C. 관객의 반응

ㅇ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질주하는 넝마주이들의 트럭행렬은 통쾌한 것이었으며 이제까지의 음울하고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짓눌린 자들과 함께 모든 것들에서 풀려나 끝없는 자유를 향해서 달린다.

ㅇ 그 속에서 한네의 지남에 대한 우정과 죽음이 깃드는 지남의 모습을 섬세하게 드러내어 깊은 인간미를 꽃피게 했다.

ㅇ 그 이후 하얀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때는 사람들의 숱한 고뇌를 싣고 혹은 벗어버리고 먼 하늘나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D. 시나리오

115. 마 을

이곳을 관에서는 뭐라고 이름지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네 곳을 기러기 마을이라고 불렀다. 누더기 누더기 알록달록한 판자집들이 무늬를 놓은 산들이 사면을 둘러싼 한 가운데에는 한 그루 늙은 소나무가 섰고, 그 소나무를 받들어 모시듯 마을 둘레에는 집집마다 울 안에 빨랫줄의 빨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영마루에서 내려다 보면 꼭 새둥우리 같았다.

이른새벽.

소나무 둘레에는 트럭 리어카 등이 열을지어 서로 꼬리와 머리를 맞대

고 있었다. 넝마도 다 실었다. 때때로 트럭 뒤에 가득탄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쇠피리를 불 뿐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네는 몇겹되는 이불위에 지남이를 눕히고 굵직한 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묶었다. 미경이도 대장의 가족들도 모두 침묵을 지켰다. 그들 중 가장 나이들어 보이는 박영감은 지팡이로 턱을 괴고 소나무 옆에 앉아 말없이 마을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은근히 박영감의 얼굴을 살폈다. 이윽고 박영감은 수염 속에서 입을 한일자로 꾹 다물었다. 한 번 머리를 끄덕거렸다.

「대장 꽹과리를 쳐라.」

그들은 일제히 열을 지어 마을을 떠났다.

행장이 초라하긴 했으나 영마루를 넘을 때 그들은 함성을 울렸다. 혹은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트럭의 긴 행렬은 그야말로 일대 장관이었다. 맨 선두에는 페인트를 새로 칠한 차로 박영감이 탔으며「난지도를 찾아서」라는 플랭카드까지 걸었다. 그 옆에는 대장이 호위병처럼 서 있었다. 어느 아이가 꽂았는지 세번째 차엔 태극기가 펄럭였다. 그들은 그 쓰레기더미, 쓰레기산 난지도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다.

116. 변화가

그들은 처음으로 동대문을 지나 종로에서 명동으로 향했다. 행인들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눈빛으로 대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쳐다 봤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남의 희미한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117. 한강변

한네는 수용소 생활의 구속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난지도에 가면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리라 생각했다. 주변사람들의 인정있고 생기 있는 모습이 한없이 좋았다.

그들은 한강다리를 넘고 확 트인 강변을 달렸다.

118. 길

멀지 않은 곳에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룬 산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다. 차편이 닿지않아 이쯤에서부터는 걸어야 했다.

비탈에는 얼음틈새긴하나 풀싹이 돋아나 있었다.

채석장을 떠날 때만해도 대장이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되었던 박영감이었으나 이번에는 대장과 미경이가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했다. 영감은 그동안 점점 쇠약해졌다. 수염이 기운없이 축 늘어졌다. 폭 꺼진 두 눈만이 애써 앞을 더듬고 있었다.

「얘야 늙은 것이 공연히 널 고생을 시키는구나. 허허허.」

길가에 앉아 쉴 때면 혼자 돌아앉아 불어터진 발가락을 어루만지는 미경의 등을 영감은 가엾게 쓸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미경은 얼른 신을 신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앞으로 둘러 앉는 것이었다. 웃어 보려고 해도 어쩐지 자꾸 눈물이 쏟아져 나와 미경은 끝내 고개를 못 들었다. 박영감은 미경과 대장의 어렸을때 모습을 어슴프레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흘렸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만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사코 떨구고 서울로 올라오자고했던 자신이 죄스러웠다.

대장이 다시 괭과리를 두들겼다.

한네와 대장은 지남을 들것에 싣고 양쪽에서 들었다.

한네는 가슴 깊숙히서 뿌듯한 그 무엇을 느꼈다. 또한 보았다. 대장과 미경 사이에 오가는 눈빛은, 저 눈빛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네도 언젠가는 그런 여자를 꼭 만나야 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남은 눈을 뜰 줄 몰랐다. 한네는 그의 말없이 눈을 감은 모습이 껴안고 싶도록 사랑스러웠다.

119. 난지도

쓰레기산 옆에 그들은 판자집을 열을 지어 짓기 시작했다.

말뚝을 박고 천막을 쳤다.

아이들은 쓰레기 속에 묻힌 숱한 장난감들이 마냥 좋기만 했다.

TV부속을 가져다 쓰다만 밧데리를 연결하면 불이 켜졌다.

공도있고 의자도 있었다.

천막을 치고 담을 쌓을 수 있는 비닐도 판자도 많았다.

아이들은 모처럼 천국을 만난 듯 했다.

26장

(4년후)

120. 기러기 마을

마을 한 가운데는 여전히 그 노송이 서 있고 그 밑에 노인도 앉아 있었다. 그러나 빨간 노을을 등에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노송은 새까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 밑에 기대고 있는 노인은 옆에 놓인 넝마처럼 축 늘어져 좀처럼 움직일줄을 몰랐다. 노인이 뭔가에 의해 무거운 눈꺼풀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머리에 귤 광주리를 인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까만 얼굴엔 긴 여장의 피로가 쌓여 있었으며 어느덧 잔 주름이 내려 앉고 있었다.

「모두 떠났어 난지도로 갔소.」

노인은 희멀건 눈을 힐끔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121. 난 지 도

쓰레기 위에도 겨울은 오고 눈은 어김없이 내렸다.

눈 덮인 하얀 산 위에서 몇몇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 뿐 이토록 하얀 대지에 쓰레기치울 일은 없는 듯.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람은 몹씨도 매서웠다.

기러기마을 떠나온 여인은 하얀 발자국을 그리며 버스로 이루어진 술집에 들어갔다.

주인은 저 쪽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을 가리켰다.

여인은 분명 누군가를 찾으러 온 듯 했다.

122. 집 담

저녁 노을이 한참 타오를 때였다.

연기가 나는 집 담벼락을 돌아서던 여인은 제 자리에 가만히 걸음을 멈추었다. 안에서 장작타는 소리와 함께 가냘프고 섬세하면서도 숙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인듯 했다.

여인은 긴장했다. 그러나 잠시 후 티없이 맑게 들려오는 「여보—.」하고 시작되는 여인의 정겨운 말에 그녀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변했다. 이어서 아이들 소리와 영감의 구수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여인은 가만히 담벼락 밑에 있는 긴의자에 몸을 앉혔다.

안에서 들리는 그 남자의 가족들의 대화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몹시도 정겨운 듯 했다. 단란한 듯 했다.

여인은 그저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상순은 말없이 자신의 병신이되어 굽은 그러나 숱한 걸음으로해서 찢어지고 닳아빠진 발가락을 들여다 본다.

아까부터 계속 이쪽 여인을 힐끔힐끔 보면서 깡통을 부대에 담던 열서너 살 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다가왔다.

한네였다. 목소리도 제법 굵어진 한네였다.

「추운데 이런데 계셔요? 이집은 목사님 댁이에요.」

여인이 고개를 한네 쪽으로 돌리는 순간 한네의 말은 거기서 뚝 끊겼다. 상순이 누나였던 것이다.

「누나! 들어가서 이야기해 목사님도 반기실 거야.」

상순이는 그저 살짝 미소지으며 한네를 마냥 바라볼 뿐 말이없다. 그러다 고개를 흔들며「눈이 참 곱다.」고 말했다.

27 장

123. 길

상순이와 한네는 그 하얀 눈길을 걸었다.

그들은 하얀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지남이는 우주비행사를 하다가 다친 후 수용소에서 두들겨 맞기 까지해 결국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 우리는 그냥 화장시켰어라고 한네는

말하고 싶기도 했지만 하지않았다.

누나. 누나는 성호 형을 찾았어? 여기는 뭣하러 온거야 하고 묻고도 싶었지만 왠지 묻지 않았다. 한네는 다만 포플러 나뭇가지에 쌓인 눈에 대해서 말했다. 상순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성호라는 분은 니가 목사라고 하는 바로 그 분이다. 너는 정말 그 목사라는 사람이 성호라는 것을 모르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니 몇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몰랐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순이는 마음 속에서만 묻고 또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다.

하얀눈이라고, 몹시도 하얀 눈이 이렇게 한없이 언제까지나 하얗게만 내리면 좋겠다.

그들은 개울을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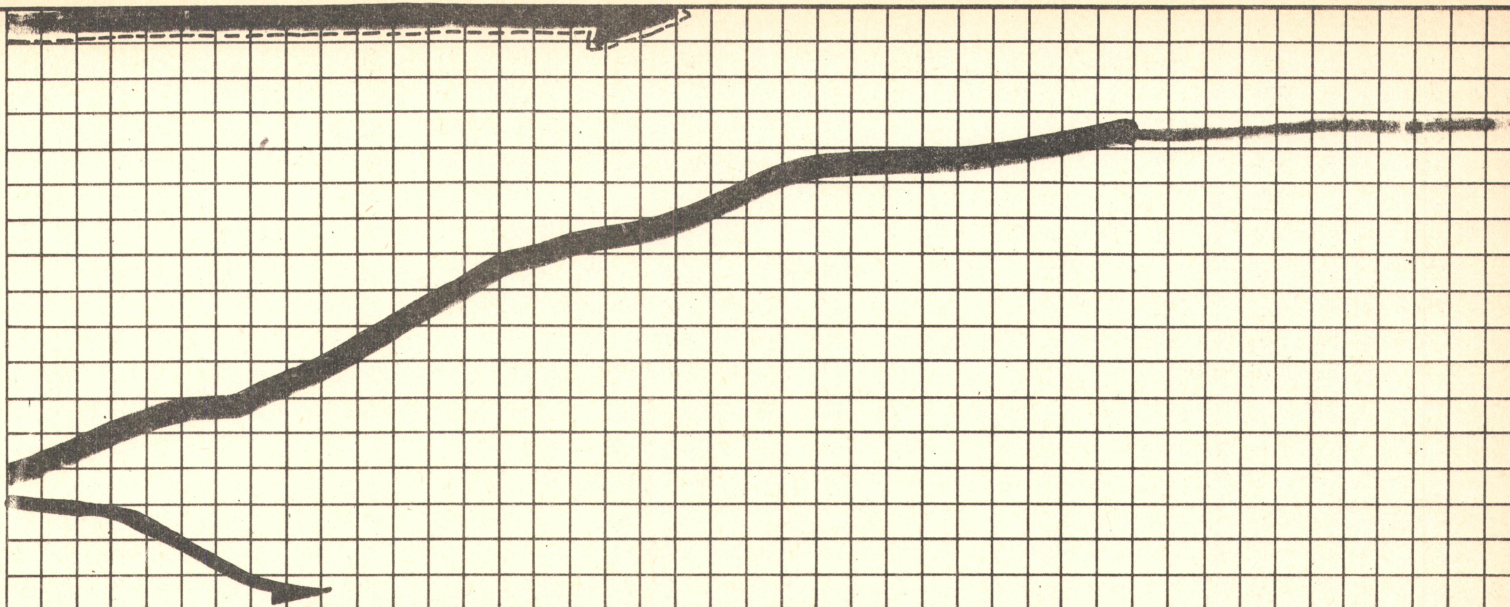
상순이는 손에 쥐고있던 때묻은 종이를 한네 몰래 개울에 버렸다. 빨리 떠나가버리기를 바랬지만 자꾸만 얼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간간히 깨알같은 글씨가 보이기까지 했다.

상순은 그러나 굳이 잊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눈이 참 하얗다고만 생각하려 했다.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

하얀 눈도 내리고 또 내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을 어슴프레 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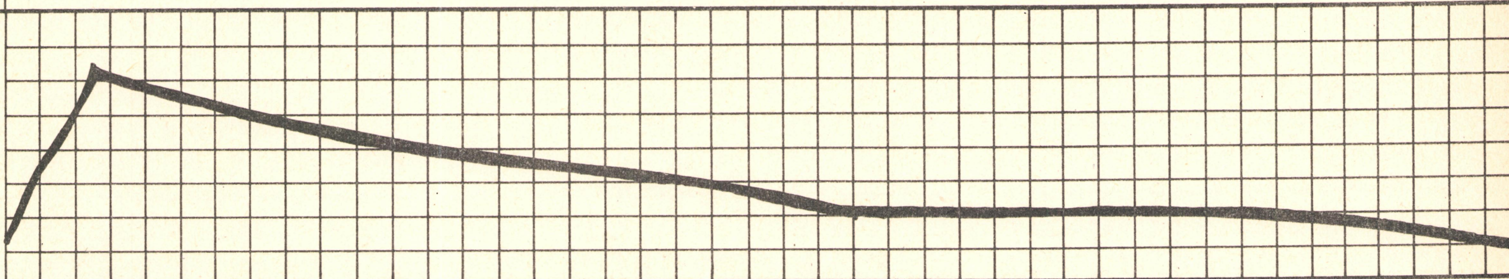
난지도로가는길



No.	115	116	117	118	119
SCENE	마 을	번 화 가	한강다리	길	난 지 도
내 용	한네와 지남은 넝마주이 패들과 함께 난지도를 향해서 떠난다. 그 날은 몹씨도 많은 눈이 내렸다.	그들은 트럭의 긴 대열로 번화가 한복판을 이색적으로 지나게 된다.	한강다리를 건넌다.	한네는 지남을 마대에 실어 대장과 함께 들고 가면서 대장과 시골처녀인 미경과의 관계를 막연히 짐작한다. 참 좋은 아가씨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짓고 터전을 닦으며 어린이들도 여러가지 물건들에 흥미를 가진다.
SEQUENCE	한네와 지남은 넝마주이의 트럭대열에 함께 타고 난지도로 향한다. 그들은 서울 번화가를 지나 마침내 난지도에 새로이 집을 짓고 터를 잡는다. 한네는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미경과 대장의 관계를 부러운 눈으로 보았다.			그녀는 몹시도 수줍고 정숙한 여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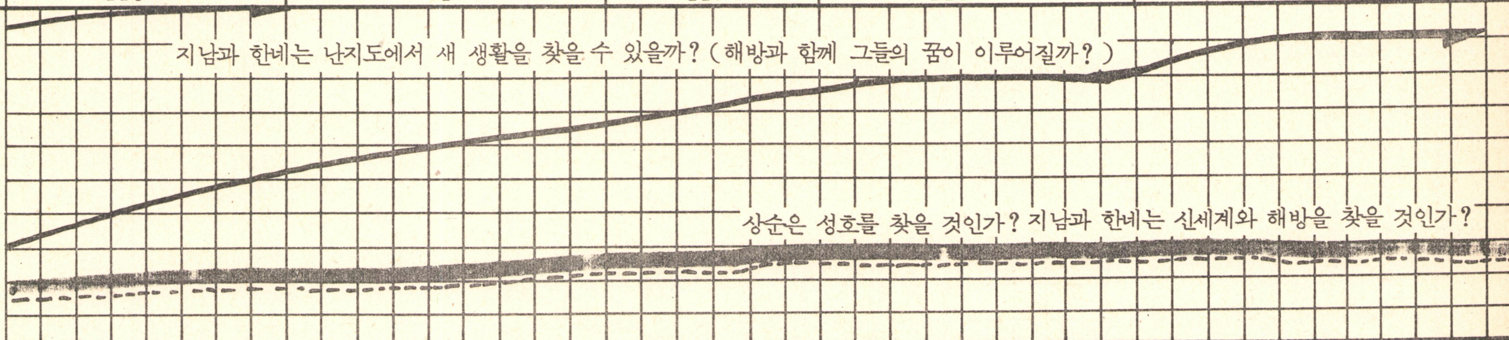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서부로 가는 개척민들 처럼, 모든 굴레와 통제를 뚫고 통쾌한 삶에의 의지를 보여 준다. ○지남과 한네의 뜨거운 우정이 그 속에서 배어나게 한다. ○대장인 성호의 인물묘사에 유의한다.	○넝마주이들의 세계를 보여주되 인간적인면, 삶에의 순수한 의지 노인을 선봉으로 삼는 면 등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면을 보여 준다. ○관객들도 그들과 함께 떠나도록 동일화 시킨다.
분 위 기		

영화적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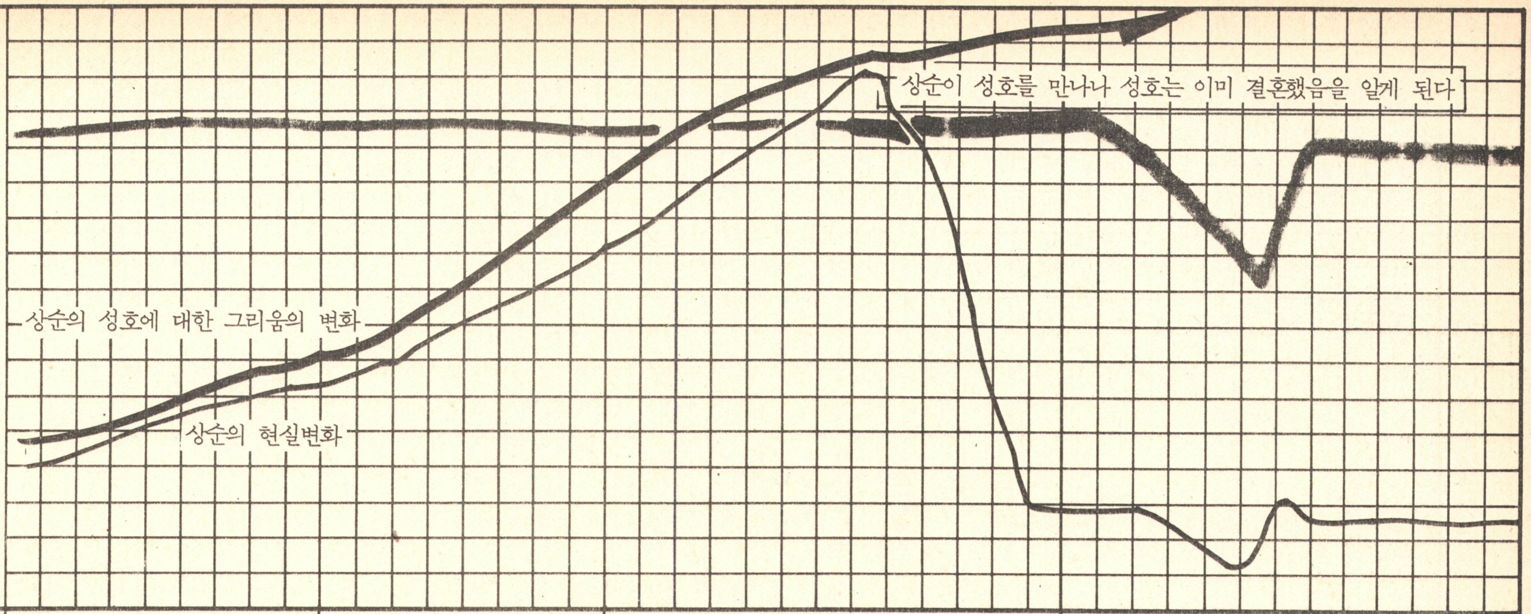
№	115	116	117	118	119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나기를 기다리는 트럭의 대열 →명동을 지나는 넝마주이들의 통쾌한 행렬 →한강을 질주하는 모습 ⇨여기에서 관객들은 지금까지 쌓여진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게 된다.	그런후에 걸어가는 모습들과 난지도의 집을 짓는 모습 등에서는 서정적이고 목가적으로 처리하여 정서를 순화시킨다. (인간적인 따스한 면을 인정과 아이들의 모습에서 부여한다. 그러므로써 긴장도 해소되고 관객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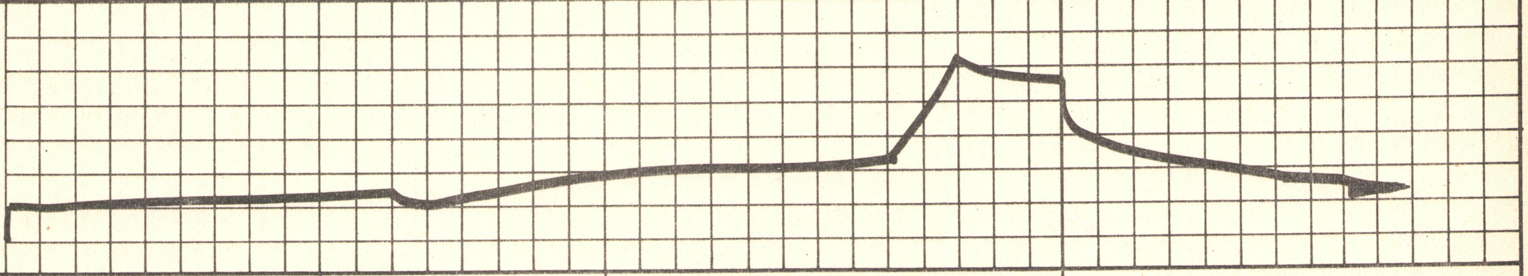
마 을 길



No.	120	121	122	123
SCENE	마 을	난 지 도	집 (옆)	길
내 용	한 여인이 녕마주이들이 모두 떠난 마을에 나타나 노인에게 누군가의 행방을 묻는다.	그 여인이 다시 난지도 주점에와서 누군가의 행방을 묻는다.	그 여인은 연기가 나는 담벼락 옆에서 문득 집안에서 들려오는 어느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이어서 그 남자를 가장으로한 가족들의 다정한 식사대화를 듣게 된다. 여인은 발길을 멈추고 긴의자에 그대로 앉는다. 그 여인은 다름아닌 상순임을 한네는 알게 된다.	한네와 상순은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와는 관계없는 하얀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그리고 상순은 지남이 몰래 그 오랫동안 간직해 온 성호의 때묻은 편지를 개울에 버리게 된다.
SEQUENCE	4년이 지난 어느날 넝마주이들이 떠난 마을에 한 여인이 찾아와 누군가를 찾는다. 그녀는 난지도의 어느 연기나는 집에까지 오나 대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담벼락에서 멈추고 만다. 안쪽에서 성호의 목소리와 함께 부인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한네는 그녀가 바로 상순임을 알게 된다.	한네와 상순은 서로가 할 이야기가 많았으나 다만 그날의 하얀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몹시도 하얗다고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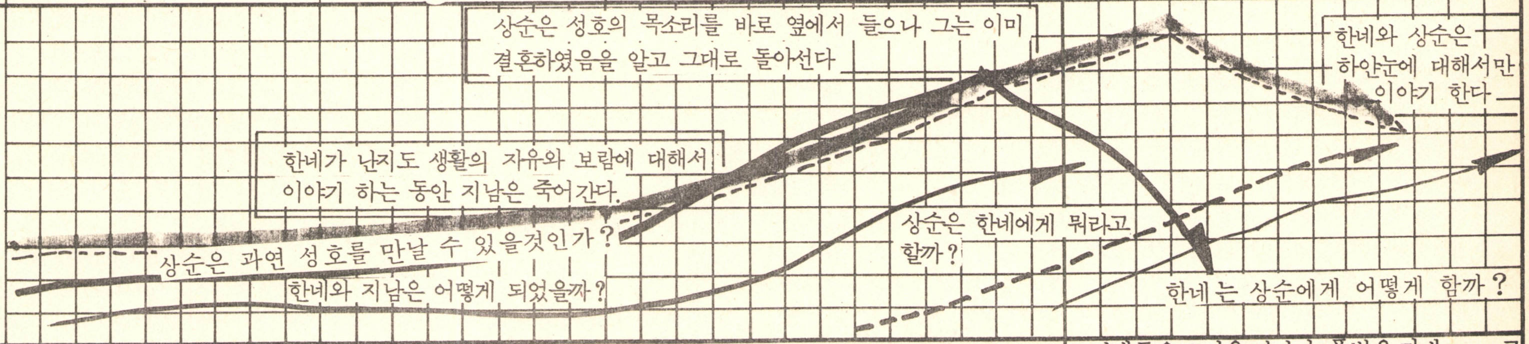
작가의 의도	ㅇ오랜 세월의 경과를 관객의 심리 속에서 느끼게 한 뒤 서정저이고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한 여인을 멀리 LS 로 계 속 처리하면서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보여준다. ㅇ분위기 속에서 계속 기 다림, 애수 등이 스며나오게 처리, 긴 세월을 한 남자만을 찾아 헤맨 여인의 애절한 사랑, 그러나 저 밑에 은근과 끈기로만 남아있는 그리움을 그린다. ㅇ점점 관객들의 시점을 여인과 동일시하여 담벼락에 오게 하며 여인의 심리 속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잡게 한다. 한네와의 심리 교차에서도 섬세한 심리묘사에 특히 유의한다.	ㅇ애절한 그리움으로 몇년간을 찾아헤맨 한여인이 그 목표를 잃었을때 오는 허탈감이나 감정의 폭발을 내색하지 않고 아름다운 눈 속에 승화시킨다. (섬세한 심리변화 유의) ㅇ한네와 상순이 관객들의 마음속깊이 비집고 들어가 더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도록 화면 전체가 관객속으로 그대로 흡수되게 처리
분 위 기		

영화적인 요소



No.	120	121	122	123

관객의 반응



관객의 반응	ㅇ멀리 그림같은 노송 쪽으로 다가오는 여인, 약간은 절룩인다. 사람들은 그녀가 상순이라는 짐작 속에서 그녀를 따라 난지도까지 온다. 그녀와 함께 관객들은 성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관객들은 그녀가 울지 않을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기다린다. ㅇ한네가 다가오고 대화가 진행, 많은 대화, 사건이 있기를 기대 ⇨ 그러나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 넘어 관객들의 호기심이 아닌 저 밑바닥에 호소하는 그 무엇을. 그 밑바닥에 와 닿는 짜릿한 것을 해 낸다.	ㅇ관객들은 뜨거운 이야기, 폭발을 기대, ─ 그러나 화면은 그 모든 것을 떠나 아름답기만 하다. 한네의 마음도, 상순의 마음도 모두 갖고 싶도록 사랑스럽다, 잊고 싶지 않다. 그들이 눈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다. 한네와 상순의 마음과 전경의 아름다움 부각.

(7) 인물의 성격분석

지남의 성격분석

구　　분	내　　　　용
원폭피해이후	ㅇ 흉한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생각이 깊다. 책과 만원경속에서 생활 (자폐증) ㅇ 아버지의 구박→아버지의 압박에 대한 Complex,반항. 저항감. 인간의 잔학성에 눈뜸
아버지가 여동생을 죽인다→시가전 →실험실 →정신수련실	죽인다→시가전→실험실→정신훈련실 ㅇ 구속,압박하는 자에대한 경멸, 반항, 저항감 ㅇ 인간의 잔학성에 대한 증오심 ㅇ 현실과의 괴리 ㅇ 열등의식 →자폐증 이중인격 형성
원현의 사랑으로	ㅇ 인간혐오 ㅇ 자폐증 ㅇ 열등의식 어느 정도 무마됨
뭉치의 비인간적인면	ㅇ 인간의 대한 혐오감(인간의 잔인성, 압박, 비열) → 자폐증의 지속(원현 한개인에게만 통한다.)
시골	ㅇ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 목격
극장식 홀	ㅇ 열등의식 ㅇ 인간혐오 ㅇ 압박감 등이 일시적으로 잠재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신이상 초래
빈민 수용소시절	ㅇ 기억력의 둔화, 상실 —·강박관념(정열, 정돈) ㅇ 본능에 집착 ㅇ두려움의 극대화—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관리인에 대한 두려움, 불만 ㅇ성도착-성에대한 열등의식과 성본능의 눈뜸

빈민수용소 시절	○ 자폐증 : 의부와의 괴리를 눈감으려 책에만 집착한다. ➡ 강박관념, 성도착, 두려움, 자폐증 등의 욕구불만은 점점 누적되어 폭발을 기다린다.
X-마스 이브날	○ 가장 뿌리가 깊은 원폭의 희생물로서의 외모에 대한 욕구불만 → 아버지에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난다.

한네의 성격분석

구 분	내 용
진석이 죽기 이전까지 거리에서 전전하던 시절	○ 평범한 서민층의 착실한 아이 ○ 애정의 결핍으로 인한 성격의 포악성, 파괴적, 비굴해짐 ○ 굶주림 등 의식주의 미해결상태 방관적, 반항적인 노예 근성
지남을 만나던 시절	○ 애정의 결핍이 {·우정에 대한 그리움 ·상순 누나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으로 나타난다. ○ 거지신분—동년배에 대한 열등의식, 수치심 → 생활에 대한 강한 적응력이 생긴다.
보육원시절	○구속 통제된 생활에 대한 저항감→해방되고 싶어함 ○생활에 적응하면서 수동적으로 반항(요령 비굴) 등을 배우게 된다. ○지남과 상순에 대한 애정
극장식 홀	○자신을 위해 죽는 자에 대한 갈망을 채워준 그들에게 감사
빈민 수용소	○무력감 ○압박, 통제, 구속된 생활 ○의식주의 구차한생활 ○지남에 대한 애정 } → 해방되어 자유를 찾고 싶음.

ㅇ 난지도	ㅇ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성취감) ㅇ지남을 잃어버림

상순의 성격분석

구 분	내 용
ㅇ 성호와 만나기이전	ㅇ후반부에 체념. 한을 품을 수 있는 동양적인 은근과 끈기 ㅇ자신의 절름발이 발에 대한 열등의식 ㅇ순수사랑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믿음
ㅇ 성호를 만나면서	ㅇ순수한 사랑의 잉태 ㅇ절름발이라는 사실에 대한 열등의고조
ㅇ 성호가 떠난후	ㅇ사랑의 욕구불만 팽배 ㅇ열등의식을 무마시켜주는 찐따에게 자아를 던짐 ➡ 허탈감. 자아상실. 무력감
ㅇ 성호의 편지를 받은 후	ㅇ순수사랑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ㅇ열등의식의 해소 ➡ 성호를 찾아 오랜생활 방랑
ㅇ 성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ㅇ허탈감(소유하지 못하는)-체념과 한

지남의 아버지 성격분석

ㅇ 원폭의 희생자로 유전병을 앓게 되자 그 지병으로하여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생김
- 본래 집착적이고 비타협적인 성격
- 직업 등 사회적 지위면에서 실패(외모와 연관시켜)
- 부인이 변변치 못함(병신?)-이성에 대한 욕구불만

위와같은 요인들 즉 ·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 사회적 지위면에서 실패
· 성적 욕구불만
· 집착적이고 비타협적인 성격

} 으로 인하여 성격이 파괴적, 방관형이 이된다.(방탕아)

➡ 이러한 성격은 지남과 여동생에게 「 잔인성, 학대 」로 나타난다.

· 자식 역시도 하나같이 병신들

(구제될 가능성이 없는 그렇다고 관심을 끊을수도 없는사이) ➡ 사랑이 미음으로 변신

➡ 파괴적인 성격과 미움이 합쳐저 잔인함. 학대로 나타난다.

➡ 자아학대와 같은 행위로 지남과 딸의 괴로운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 여동생의 죽음을 초래한다.

한네아버지 진석의 성격분석

ㅇ무능력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열등의식을 가짐
- 체념하고 달관하며 술을 통하여 해소

ㅇ애정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부여함
(작품 중에서 확실하게 제시필요)

어머니, 딸의 떠나감 ㅇ어머니의 떠남은 무능력감과 애정을 모두 무너뜨림.
ㅇ딸의 떠남은 나머지 애정마저 잃게 함
➡ 생의 의미, 가치, 보람의 상실,

실직 　ㅇ애정, 무능력감이 송두리째 상실됨.

→ 술이 자아파괴, 기만의 방법으로 이용

ㅇ알 콜 중독자가 되어 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

➡ 결국 그로인한 죽음 초래

한순이의 성격분석

ㅇ 벙어리, 백치

-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집착이 없음으로 해서 두려움도 없어짐

➡ 주검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음

- 자연과의 교감이 성장하면서도 끊이지 않아 짐승과 대화가능 (초능력)

어린아이들과도 정신적 교감이 순조롭다.

- 아버지, 동생, 고향,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 행위를 자의적으로 하지않고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한다.
- 자아에 대한 열등의식

➡ 「길」에서 제소미나처럼, 진석은 시골고향으로 가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 위로 한다.

한순은 슬프면서도 자신이 떠나가면 아버지 진석의 고생도 덜되고 한네도 병신 동생이란 말을 듣지않아 좋다고 생각.

후에 꼭 찾아 올 것을 약속(혹은 감자 등을 보내 줄 것을 약속)

Cf. 전반부에서 한네의 한순의 병신스런 면으로 해서 놀림당하는 하는 장면

-절정? (약하게 분위기로만)

뭉치의 성격분석

- 시골에서 골치거리로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 후 지하도 주변을 전전하는 20대 약간 작은 체구의 가무잡잡한 청년이다.

- 얼굴 한 쪽은 칼 자국이 있고, 손에는 문신이 새겨진 자국이 있다. 잔죄로 해서 영창에도 몇번 들락거린 처지다.
- 복도 밑에서 아이들 대장 노릇을 한다.
- 아이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도하고, 그들과 장난을 하기도하고, 그들을 노리개 감으로 삼기도 한다.
- 그러나 집요한 악의는 없으며 성격도 간악하지 않다.

관리원 (빈민수용소) 의 성격분석

- ㅇ 배운것이 없는 무식함으로 하여 사회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하는 체격이 건장한 40대 초반의 시골출신 사내다.
- ㅇ 수용소인의 무력하고 굼뱅이같으며 권한이 없는 돼지같은 인간들의 생리를 잘 알고 그것에 의해서 체제를 유지시킨다.
- ㅇ 규칙을 어길때는 시범으로 개패듯이 패버려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평소 때에는 되도록 잘 대해주고 타이른다.
- ㅇ 자신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는 절대 용서치 않는다.
- ㅇ 다소 인간적인 면이 있으며 자신도 수용인들과 같은 처지라는 동료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체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한다.

지배인 (극장식 홀) 의 성격분석

- ㅇ 서글서글하고 능글능글한 귀티가 나는 사내
- ㅇ 표면상으로 보아 흠이 없는 좋기만한 사내
- ㅇ 그러나 돈관계와 지배인으로서의 역할만은 확실히 해내는 사내
- ㅇ 직업에서 주는 인상과는 달리 인텔리에 속한다는 인상을 준다.

찐따의 성격분석

- ㅇ 차표관리원으로 기억력이 없고 능력이 거의 없다.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적응방법만으로 살아간다.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잘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한없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멸감을 준다

- 여자에게는 무조건 잘 해준다.

○ 소탈하고 인정있게 보인다.

○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무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는 믿음이 없고 일을 해내지 못하고 언변으로 책임회피만 하려 든다.

○ 둥글둥글한 얼굴에 모가 없는 이목구비, 털털한 차림새 약간 큰키, 체구 비교적 약간 비만형이다.

- 집요한 의도나 악의가 없다.

복도의 성격분석

○ 곰보인 얼굴에 비만형이다. 40대

○ 무능력감, 열등의식이 성년으로 접어 들면서 강박감으로 작용. 현재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하든 놓치지 않으려는 생존에 급급한 형이다.

○ 이화자의 하수인으로 그녀의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한다.

○ 아이들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가진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강권을 행사하나 그로해서 아이들이 죽거나 병신이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도 미리 생각한다.

○ 애정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이렇다할 만하게 정신적으로 사귈 처지가 되지 못하여 창녀 등과 욕구충족에 급급한다.

○ 성격이 과해지거나 술이 취할 경우 잠재되었던 욕구불만이 강하게 폭발, 파괴적이고 방관적이 된다.

○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떨리는 듯한 열등의식이 깔려 있으면서도 말씨는 애써 그것을 떨치려는 어조가 강하고 비웃는 투의 말씨다.

Ⅳ

임자없는 나룻배 분석

각본。감독 **이규환**

슬픔이여 안녕 분석

프랑소와즈·사강저

— 둘 모두 한네씨 여동생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들이다.
한네씨가 컴퓨터 영화론을 정립하기 훨씬이전에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실어본 것이다.—

-필자 주-



20. 임자 없는 나룻배 분석

제2부

1. 주요갈등 요소

가. 개 관

나. 세 부

1) 문지기와의 갈등

2) 순자와의 갈등

3) 지게꾼과의 갈등

4) 오토바이 소리에 의한 갈등

5) 광열과의 갈등

6) 옥분의 죽음으로 인한 갈등

2. 타자인식

1) 춘삼의 광열에 대한 인식

2) 광열의 춘삼에 〃

3) 춘삼의 옥분에 〃

4) 광열의 옥분에 〃

5) 옥분의 광열에 〃

6) 문지기의 춘삼에 〃

7) 춘삼의 문지기에 〃

8) 춘삼의 순자에 〃

9) 순자의 춘삼에 〃

10) 창수의 춘삼에 〃

11) 지게꾼의 춘삼에 〃

12) 춘삼의 창수에 〃

13) 창수의 춘삼에 〃

3. 도 표

4. 그래프

1) 문지기와의 갈등

2) 순사와의 〃

3) 지게꾼과의 〃

4) 오토바이 소리에 의한 갈등

5) 광열과의 소리에 의한 갈등

6) 옥분의 죽음으로 인한 갈등

7) 춘삼의 광열에 대한 인식

8) 광열의 춘삼에 〃

9) 춘삼의 옥분에 〃

10) 광열의 옥분에 〃

11) 옥분의 광열에 〃

12) 문지기의 춘삼에 〃

13) 춘삼의 문지기들에 〃

14) 춘삼의 지게꾼에 〃

15) 춘삼의 순자에 〃

16) 순자의 춘삼에 〃

17) 지게꾼의 춘삼에 〃

18) 춘삼의 창수에 대한 〃

19) 창수의 춘삼에 〃

도표

씬	인 물	본 질	구체적인 의도,희망	상황(객관적인 입장에서봄)
30	춘 삼	고향에 대한 애착		
	옥 분	직업에 대한 애착		
31 32	춘 삼	옥분에 대한 애정	○옥분이를 호강시켜주고 싶다.	
		타인에게서 가치를 획득하고 싶은 욕구 + (도덕적 가치기준)	○타인에게 동조하고 싶은 욕구 + (몸에 배인 성격, 습성)	서울지리나 풍습에 대한 무지로해서
	옥 분	춘삼을 위하는 마음		
33 · 37 · 46	춘 삼	직업에 대한 애착		○광열이 문명의 적응면에서 우위에 있는 두려운 존재로서 나타난다.
		가치획득에 대한 욕구(도덕적)	창수에 대한 기대	약삭빠르지 못하여 얼떨떨한 결에 갓과 짚신을 만담가에게 주고 만다.

인식(주관적인 입장)	예상작용	정서적 반응	의지적 반응	가치기준의 늪	자아인식
고향을 떠나야 한다.		두눈에 방울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창수에게 기대		
새로운 풍물에 대한 호기심?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옥분을 인력거에 태워 준다.		
		○인정과 겸손과 사정 등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된다.(?)			
인력거를 타면서도 같이 타기를 원하며 춘삼이 짐들고 가는 것을 걱정스레한다.					
오토바이 소리 인식		기계 소리에 대한 히스테리적 반응 광열에 대한 두려움			
짚신하고 바꿨는데 문지기는 도둑놈으로 몰아 세운다. 사실 들어온 것도 변사 창수를 찾아 손님으로서 왔다. 잘못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휘두른다.		자신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해를 입히려는 문지기에 대한 분노 →문지기를 던져 버리고	○사실여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무대로 끌고가야 겠다. ○객석 사람들게 미안하다고 사과 ○자신이 도둑이 아님을 해명시켜야 겠다.		

씬	인 물	본 질	구체적인 의도, 희망	상황(객관적인 입장에서봄)
47	춘 삼	ㅇ생존욕구 ㅇ문명에 대한 이미지		
	옥 분	ㅇ타향에서의 정에 대한 욕구		
48 · 52	춘 삼	직업에 대한 욕구 (생존욕구) 옥분을 위하는 마음 + 직업에 대한 욕구 자식에 대한 욕구	빌어먹고 살아야 한다.	거리질서를 몰라 차도로 나갔기 때문에 교통 마비를 초래하여 순사에게 제지 당한다. 옥분이 애기가 있음을 말한다.
	옥 분	춘삼을 위하는 마음		

인식 (주관적인 입장)	예상작용	정서적 반응	의지적 반응	가치기준의 늪	자아의식
<타자인식> 거짓말을 한 창수가 잘못이 아니다. 서울 물정을 모르고 믿은 자신이 잘못이다 그러므로 창수를 원망하지 않는다.		극한 상황에대한 도전의식	하지만 죽지 않음 살기다, 이대로 지고만 있을 내가 아니다. 무슨 수든 살고 볼 참이다. (극한 상황에서 솟는의지)		
서울이 무서운 것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인정이 없다는등) 이제 알았다.					
		○옥분에게서 따스한 정을 느낌			
단순히 생존하기 위하여 하는 일인데 그것마저 제지 당한다.		반항←무수히 두들겨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하란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옥분이 벌써 알고 쑥까지 준비해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저고리를 벗는다.		○서러움이 밀려든다. (쭈루루 눈물을 흘린다) ○기쁨	○옥분에게는 맞은 사실을 숨겨야 겠다. ○옥분이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게 벌이를 해야 겠다.		
○춘삼이 주재소에서 맞고와서 몸은 아프고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으리라					

씬	인 물	본 질	구체적인 의도, 희망	상황(객관적인 입장에서봄)
53	춘 삼	ㅇ직업에 대한 애착 (생존욕구) + 불의에 지지 않으려는 의지(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대로 밀고나감)		ㅇ지게꾼 세계의 텃새나 약삭빠름. 주먹 등을 몰랐다.
54	옥 분			
	광 열	ㅇ옥분에대한 소유욕 ㅇ춘삼에 대한 질투. 증오		
55	춘 삼	직업에 대한 애착		집주인이 돈을 후히 주겠다고 하며 직업을 권함
	집주인	ㅇ잘해주고 싶은마음 (인정) + ㅇ오토바이를 끌 사람을 구하고 싶다.		

인식 (주관적인입장)	예상작용	정서적반응	의지적반응	가치기준의 늪	자아인식
ㅇ춘삼의 맷자국을 봄		ㅇ서러움과 안스러움에 등에 얼굴을 대고 흐느껴운다.			
ㅇ먼저 맡은 사람이 지고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하지 않으려한다.			ㅇ일감을 맏기는 맡아야한다. 또한 A나 B에게 지면은 안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ㅇ광열이 자신을 요정에 드나드는 여자로 보고 있다. ㅇ좋지않은 사람이니 피해야 겠다.		광열에 대한 두려움 → 분노→피함		광열이 요정에 드나드는 여자로 보고있다.	
ㅇ옥분이를 요정에 드나드는 것으로 착각 빨래만한다는 말에 아직 주인의 눈에들지않아 접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말해준다고 한다. ㅇ옥분이가 더 예뻐졌다.		기쁨에 넘친다.		ㅇ옥분을 꼭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겠다.	
ㅇ마침 고지식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말한다. 상대방이 인심을 쓰는데 정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ㅇ오토바이를 성실하게 잘 끌게 될 것이다.	ㅇ기쁨	오토바이 일을 할 것을 권하고 약속받음		

씬	인 물	본　　질	구체적인 의도, 희망	상황(객관적인 입장에서봄)
56	춘 삼 옥 분	○ 직업에 대한 애착 ○ 옥분이를 위하고 싶은 마음		
57 · 61	춘 삼	○ 직업에 대한 애착 ○ 옥분을 위하는 마음		
62 · 65	옥 분	춘삼을 위하는 마음		

인식 (주관적인입장)	예상작용	정서적반응	의지적 반응	가치기준의 늪	자아인식
충족됨 (대 횡재)		○ 기쁨을 느낌			
춘삼과 같은 마음		○ 기쁨에 겨워 회한의 눈물을 흘림			
○ 많은 돈을 벌기위해 간다는 사실 - 지게는 영영쓰지않으리라는 생각 - 밥상도 따스한 정으로만 느낌 - 오토바이의 기계소리인식		○ 들떠서 밥도 먹지않음 ○ 설움에 복받쳐 지게를 붙들고 흐느낀다.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킴 (설움) →자기모멸감에 빠짐 → ○ 기계에 대한 증오감 ○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희망이 터무니없이 무너지는데서 오는 허무감 ○ 옥분에 대한 미안감	○ 다시지게를 붙들려하나		
		○ 아는 처지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서도 경계하고 두려워함	정조관념		

씬	인 물	본 질	구체적인 의도, 희망	상황(객관적인 입장에서본)
62 ・ 65	광 열	옥분에 대한 소유욕구		
66 ・ 68	춘 삼	옥분을 위하는 마음		춘삼이 형무소로 끌려감으로 인해 서로는 헤어져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70 ・ 71	옥 분	춘삼을 위하는 마음	죽어도 살아서 춘삼의 고생을 덜고 싶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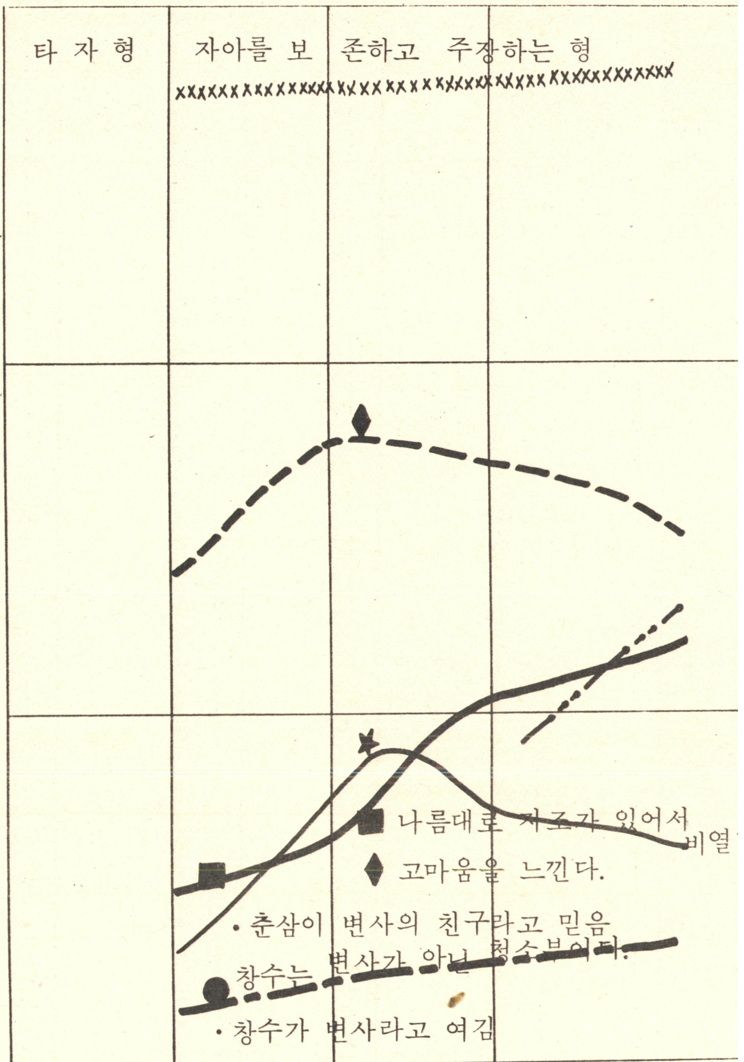
인식(주관적인 입장)	예상작용	정서적반응	의지적 반응	가치기준의 늪	자아의식
그러나 옥분의 마음이 변화가 없다.			ㅇ옥분이를 끌어들여 자신이 옥분이를 좋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을알려준다.		
		욕구불만에 싸임	ㅇ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음을 밝히고 옥분을 범하려 한다.		
그러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춘삼이 할 고생을 예상하고	괴로와하며	춘삼이 괴로와할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고함		
		옥십을 위하는 마음과 기계문명에 대한 증오 →광열을 향한 증오감으로 바뀜	ㅇ옥분이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형무소에 가는 것을 숨기라고 하며 옥분의 몸조리를 부탁함		

씬	인 물	본 질	구체적인의도, 희망	상황(객관적인 입장에서본)
72	춘 삼	옥분을 위하고 싶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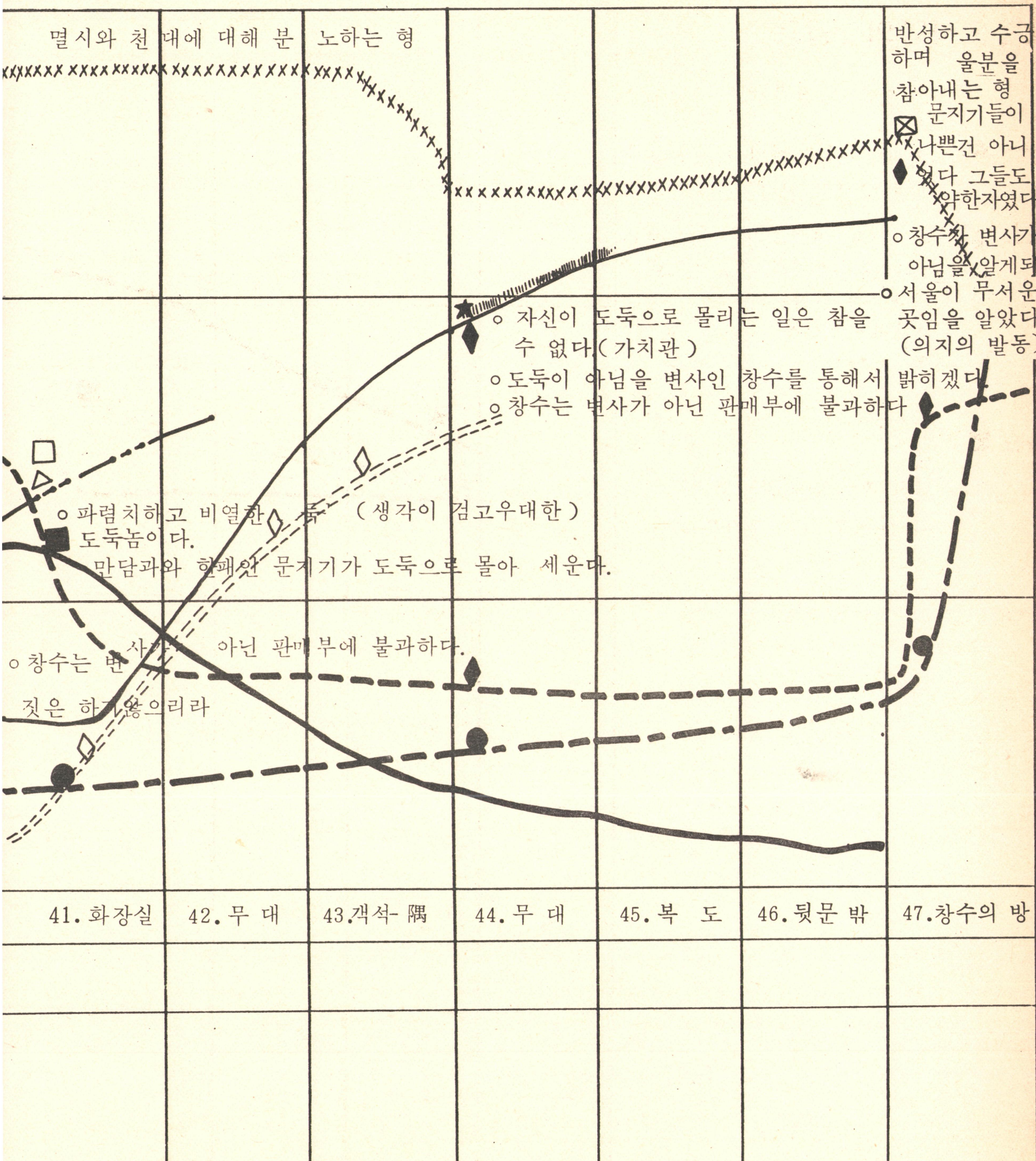
인식(주관적인 입장)	예상작용	정서적 반응	의지적 반응	가치기준의 늪	자아인식
ㅇ 딸을 본다. ㅇ 옥분이의 몸조리를 부탁하고 옥분이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림		ㅇ 기뻐함			
ㅇ 옥분의 죽음을 알게됨 ㅇ 옥분이 편에서 생각 - 고생만 하다가 보람도 없이 죽음 - 자신의 편에서 생각 :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혼자만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야 함		가엾은 생각			
- 어린 핏덩이 〃		불쌍한 마음 →옥분에 대한 원망형식으로 나타남(야속함)			

1. 문지기와의 갈등

- ━━ ■ 문지기의 춘삼에 대한 인식
- ━·━ ●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정도의 변화
- --- ◆ 춘삼의 문지기에 대한 인식
- —— ★ 춘삼의 가치획득욕구(가치관)의 변화
- —·—·— □ 춘삼이 곤경에빠지게되는 원인적인 요소
- —··— △ 머리회전이 재빠르지 못하며 이해 타산적이거나 이기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 ===== ◇ 극장의 질서나 공중도덕에 대한 인식이 없는면
- ||||||||| ○ 도둑이 아님을 관객들 앞에서 해명하고 싶은 타인에 대한 가치획득 욕구의 실현 가능성의 변화 (창수를 통한)
- xxxxx ⊠ 창수로인한 직업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 심리의 변화



씬	36.뒷 문	37.38.복도	39.
장 소			
내 용			



멸시와 천대에 대해 분노하는 형
반성하고 수긍하며 울분을 참아내는 형
문지기들이 나쁜건 아니었다 그들도 약한자였다.
○창수가 변사가 아님을 알게되다.
○서울이 무서운 곳임을 알았다 (의지의 발동)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는 일은 참을 수 없다.(가치관)
○도둑이 아님을 변사인 창수를 통해서 밝히겠다.
○창수는 변사가 아닌 판매부에 불과하다
○파렴치하고 비열한 (생각이 검고우대한) 도둑놈이다.
만담과와 한패인 문지기가 도둑으로 몰아 세운다.
○창수는 변사가 아닌 판매부에 불과하다.
짓은 하지않으리라
41.화장실
42.무 대
43.객석-隅
44.무 대
45.복 도
46.뒷문 밖
47.창수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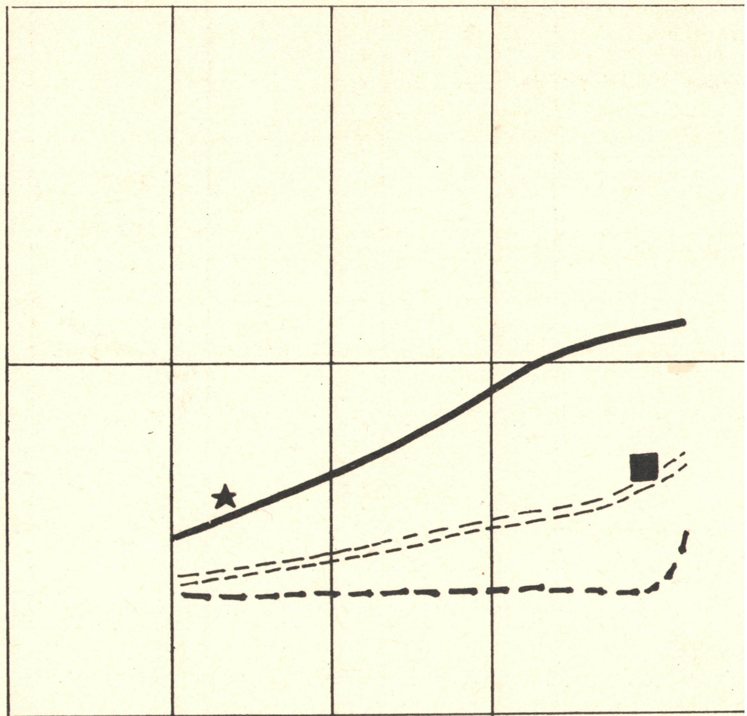
2. 순사와의 갈등

< 자아에대한 인식변화>

—— ★ · 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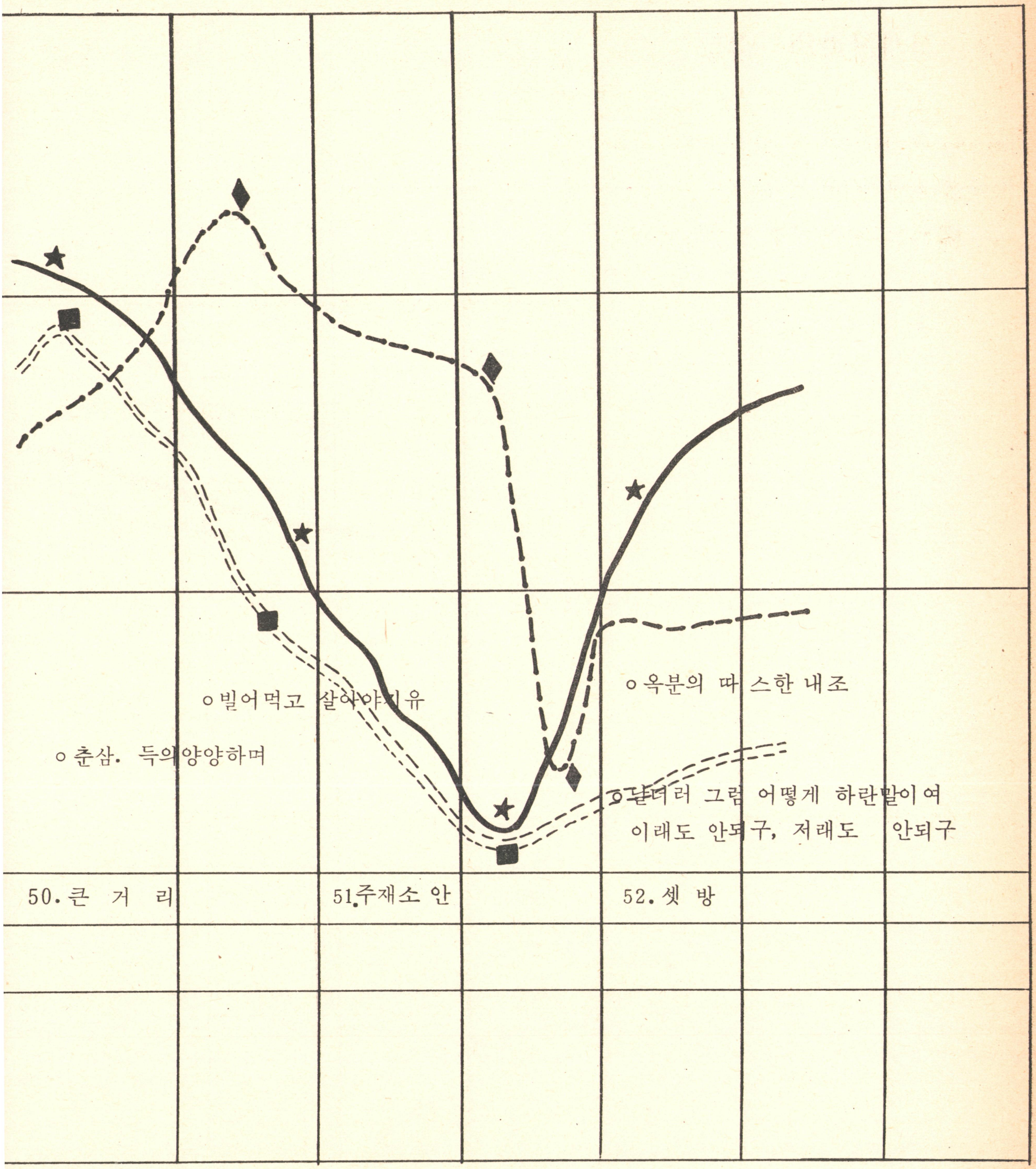
--- ◆ · 타자형의 변화 : 단순한 생존욕구의 제지에대해 본능적으로 반항하는 반항아
- 자기비하 : 설움에 빠진 길 잃은 승냥이

==== ■ 조직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한없이 크고 무서운 괴물



ㅇ하지만 죽지않음 살기여, 이대루지고만 있을 내가 아녀

씬	47. 창수의방	48.극장뒤	49.어느거리
장 소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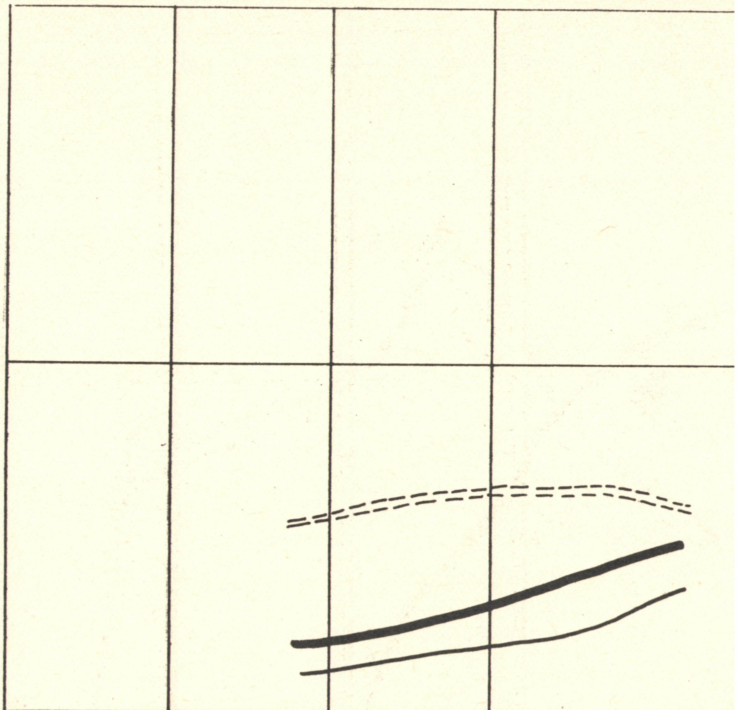

ㅇ빌어먹고 살아야지유
ㅇ춘삼. 득의양양하며
ㅇ옥분의 따스한 내조
ㅇ날더러 그럼 어떻게 하란말이여
이래도 안되구, 저래도 안되구
50. 큰 거 리
51. 주재소 안
52. 셋 방

3. 지게꾼과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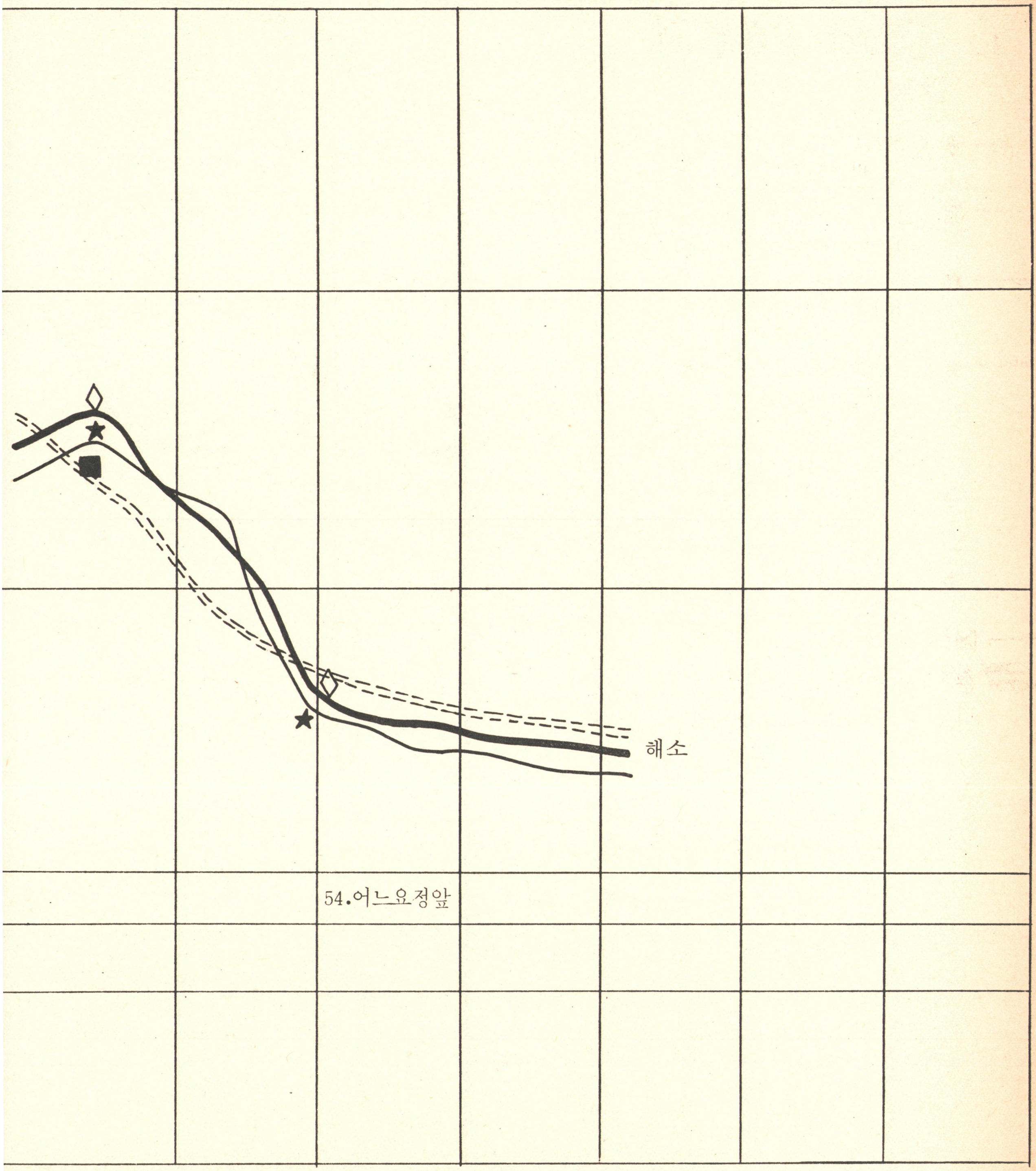
━━ ◇ 자아에 대한 열등의식의 변화

── ★ 패배의식의 변화

===== ■ 지게꾼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씬		53.어느거리	
장 소			
내 용			


해소
54.어느요정앞

4. 오토바이 소리에의한 갈등

—— ◆ ㅇ오토바이 소리에대한 춘삼의 반응변화

--- ■ ㅇ오토바이가 기계소리를 내는 괴물임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

······ ★ 많은 돈을 벌리라는 예상에서 피어난 희망의 변화과정

▲ ㅇ옥분에대한 심리적 태도의 변화 떳떳함. 어색함

<자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 - 서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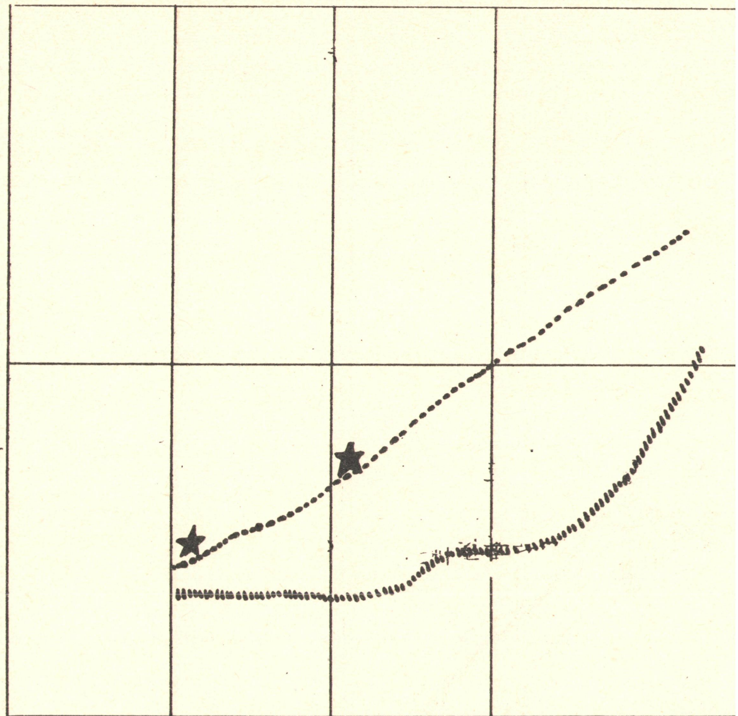
---- □ - 열등의식

===== ☆ - 무능력감

—·— △ - 패배감

—··— ⊠ - 모멸감

⊕ - 삶에 대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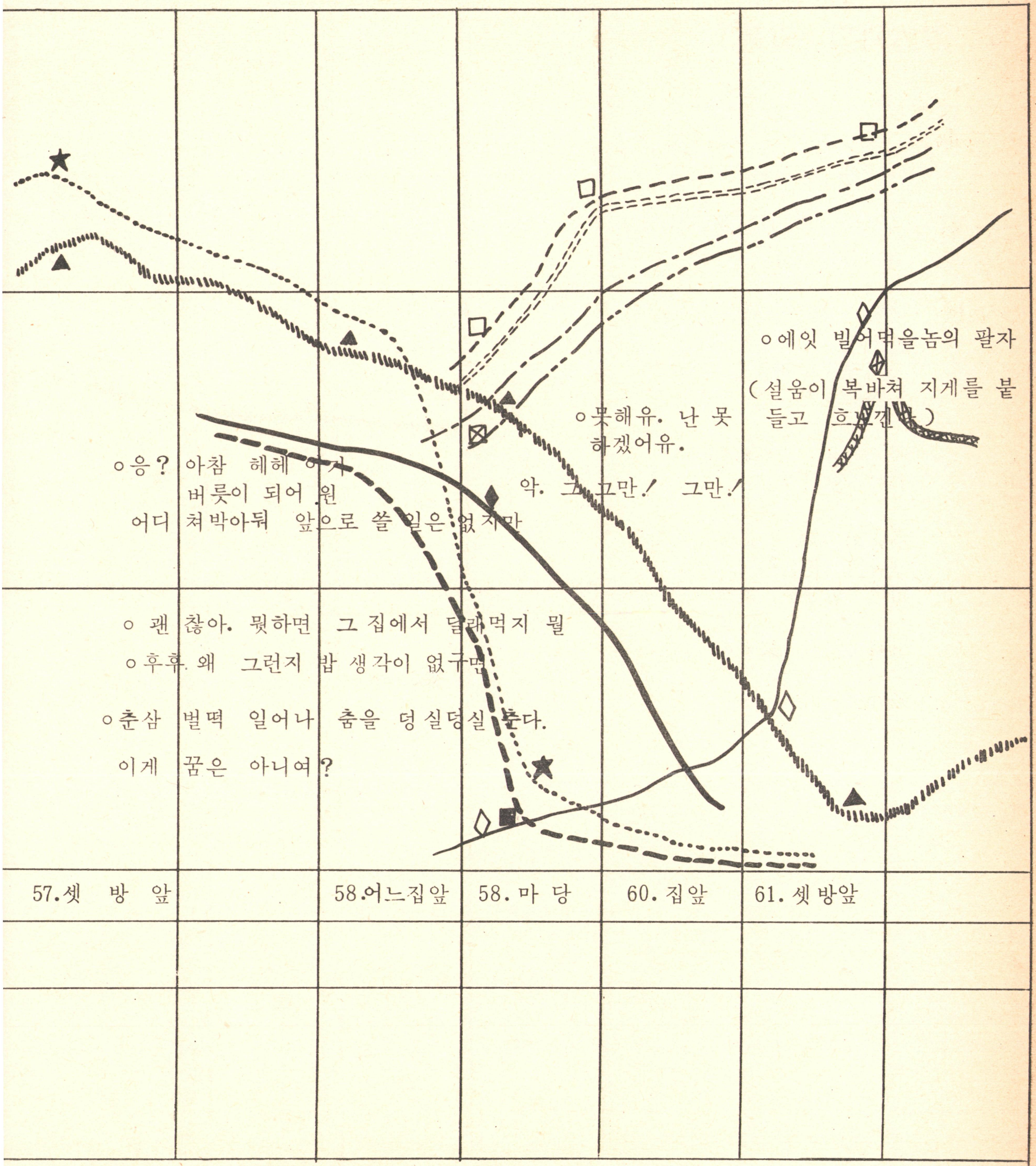


ㅇ헤헤. 네비고마워유. 삼십원

ㅇ네에? 三○원유? 아니 그렇게 많이?

ㅇ네…뭔진 몰라도 해보쥬

씬	55.어느집앞		56.셋 방
장 소			
내 용			


○에잇 빌어먹을놈의 팔자
(설움이 복바쳐 지게를 붙들고 흐느낀다)
○못해유. 난 못 하겠어유.
○응? 아참 헤헤 어서
버릇이 되어 원
어디 쳐박아둬 앞으로 쓸 일은 없지만
악. 그 그만! 그만!
○ 괜찮아. 뭣하면 그 집에서 달래먹지 뭘
○후후. 왜 그런지 밥 생각이 없구먼
○춘삼 벌떡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춘다.
이게 꿈은 아니여?
57.셋 방 앞
58.어느집앞
58. 마 당
60. 집앞
61. 셋방앞

5. 광열과의 갈등

—— ★ · 광열의 옥분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의 표면화 정도

--- ◆ · 옥분의 광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표면화 시키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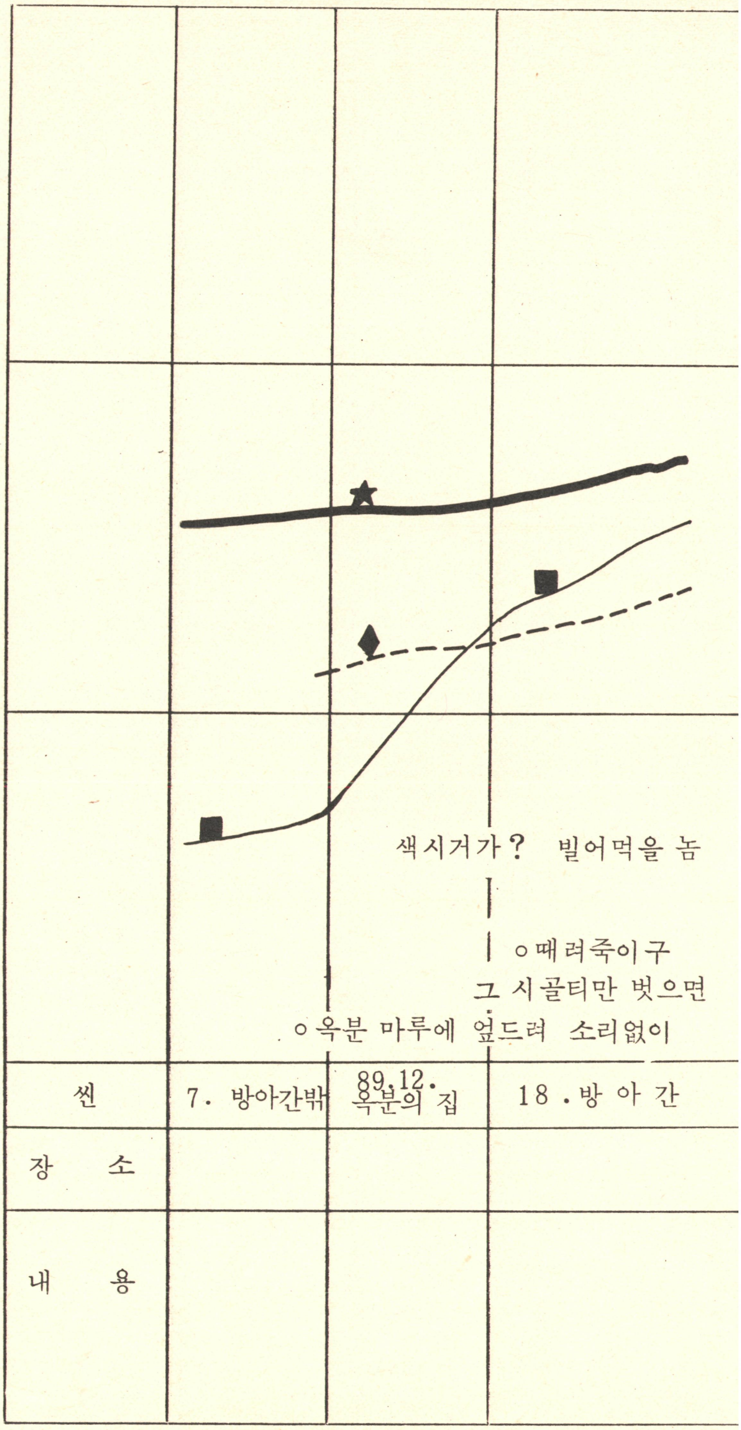
—— ■ · 광열에 대한 증오,분노심의 변화
(→허무로, 옥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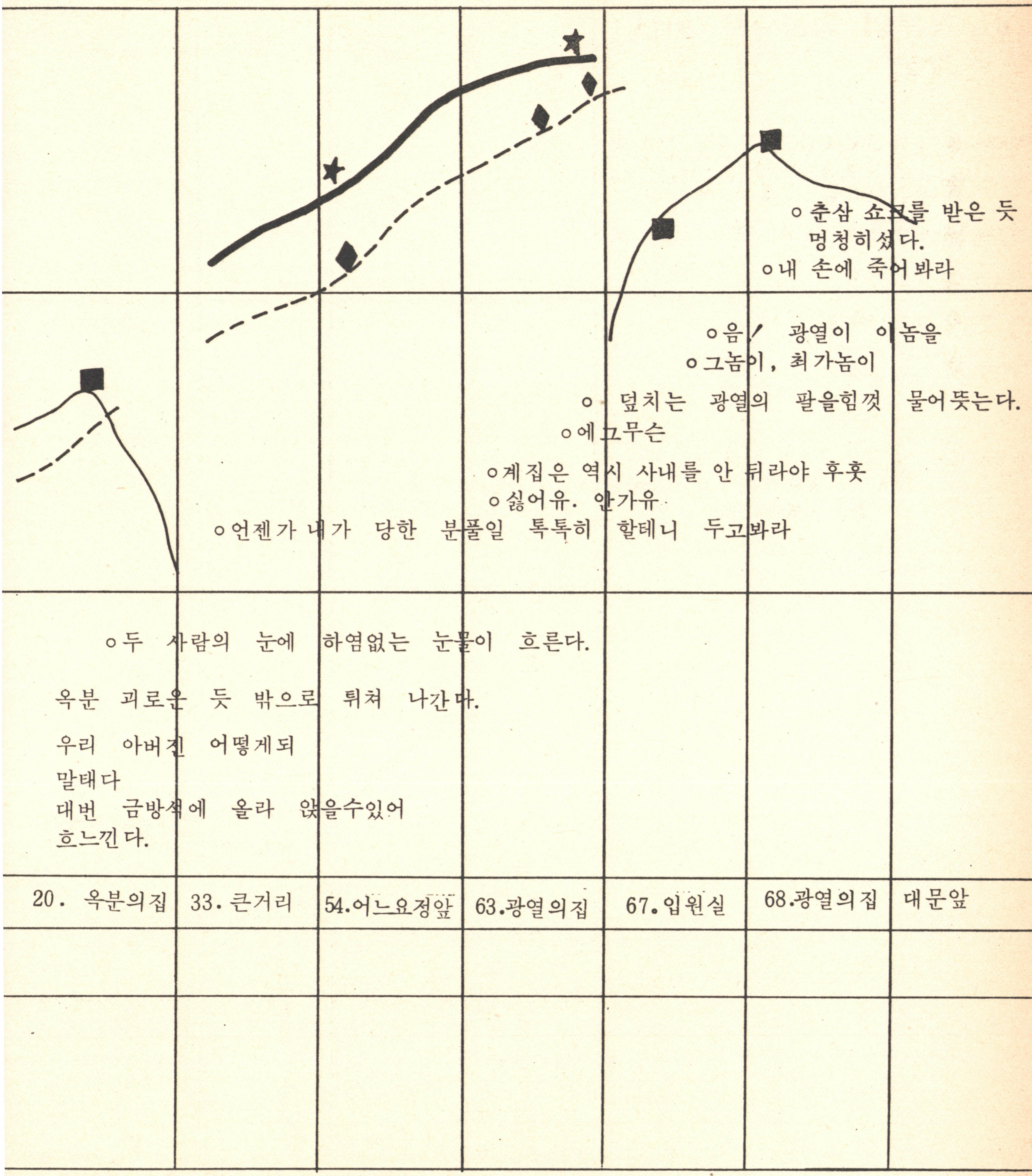
≪ · 광열에대한 인식의 변화
(타자인식)≫

· 증오와 분노심을 품을만한 강하고 교묘한 존재→ 약하고 허망한 존재

· 자아에대한 인식의 변화

· 자아타자형




○춘삼 쇼크를 받은 듯
멍청히 섰다.
○내 손에 죽어봐라
○음! 광열이 이놈을
○그놈이, 최가놈이
○ 덮치는 광열의 팔을힘껏 물어뜯는다.
○에그무슨
○계집은 역시 사내를 안 뒤라야 후훗
○싫어유. 안가유
○언젠가 내가 당한 분풀일 톡톡히 할테니 두고봐라
○두 사람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흐른다.
옥분 괴로운 듯 밖으로 튀쳐 나간다.
우리 아버진 어떻게되
말태다
대번 금방석에 올라 앉을수있어
흐느낀다.
20. 옥분의집
33. 큰거리
54.어느요정앞
63.광열의집
67.입원실
68.광열의집
대문앞

6. 옥분의 죽음으로 인한 갈등

——♦ ○옥분에대한 소유욕구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그로인한 감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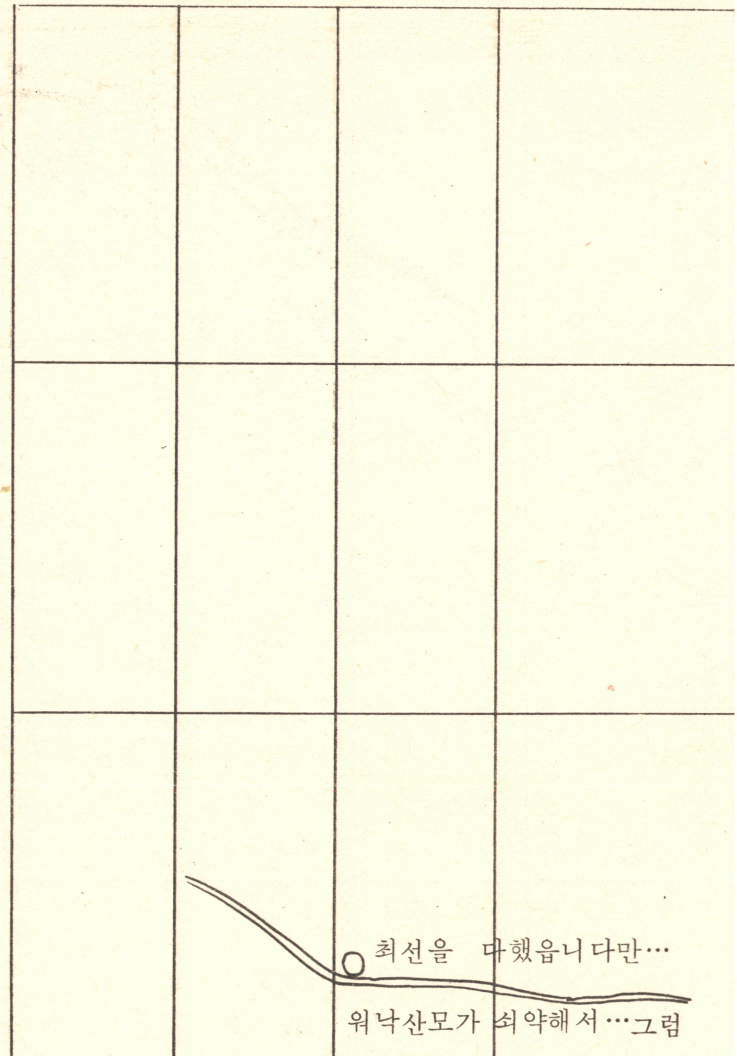
===== ■ ○옥분에 대한 인식

—— ● ○자아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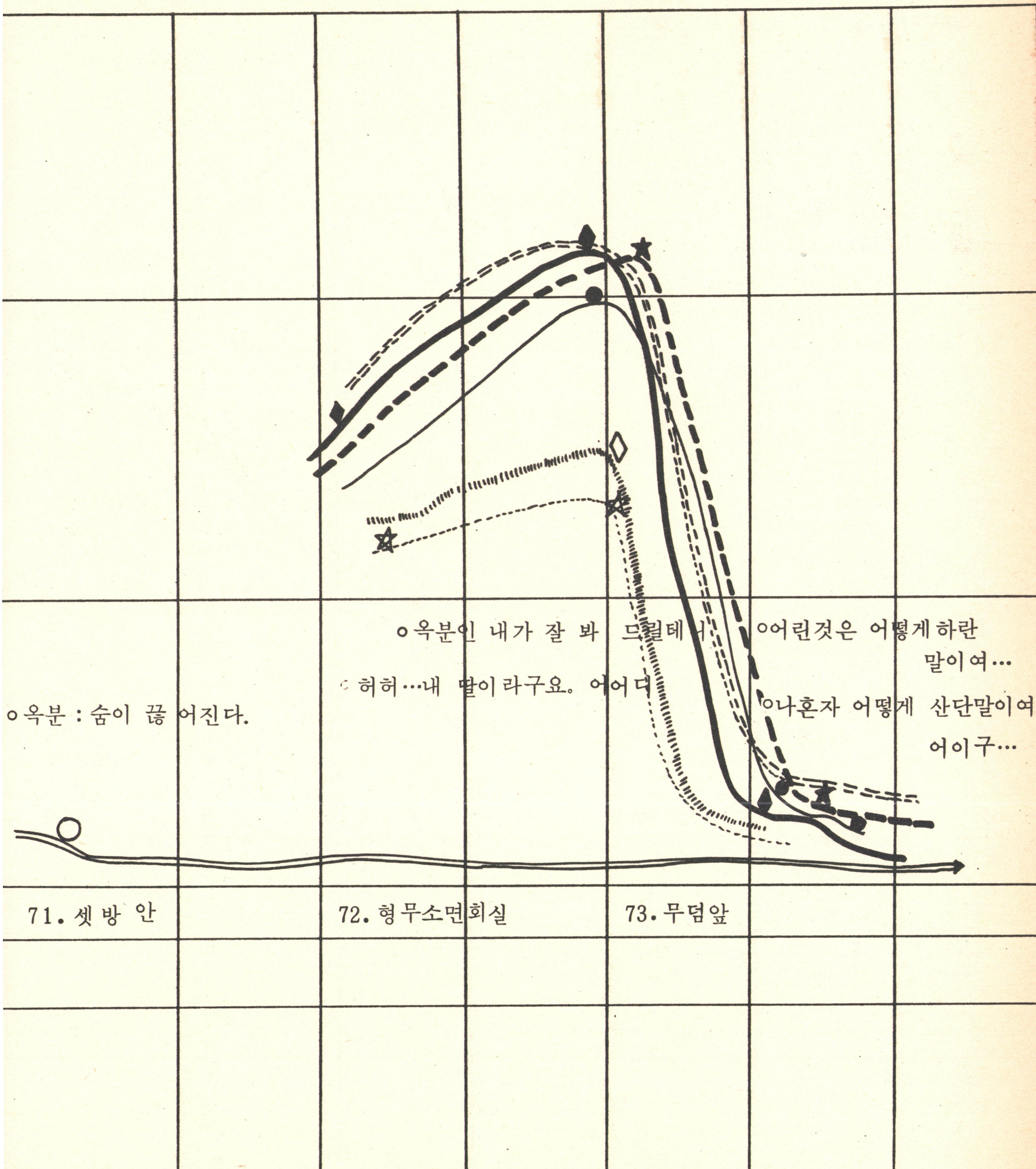
ıııııııı ◇ ○갓난애에 〃

········ ☆ ○앞날에 〃

═══ ○ ·춘삼의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불충족되어질 가능성의 정도 변화



씬		70.셋방앞	
장 소			
내 용			


ㅇ옥분이 내가 잘 봐 드릴테니
ㅇ어린것은 어떻게하란 말이여…
ㅇ허허…내 말이라구요. 어어디
ㅇ옥분 : 숨이 끊어진다.
ㅇ나혼자 어떻게 산단말이여 어이구…
71. 셋방 안
72. 형무소면회실
73. 무덤앞

7. 광열에대한 춘삼의 인식

—— ★ · 광열의 자아의식적인 발언에 대한 춘삼의 가치획득에대한 욕구의 반응

--- ■ · 광열의 자아의식적인 발언에 대한 춘삼의 가치기준 (겸손을 미덕으로 아는)면에서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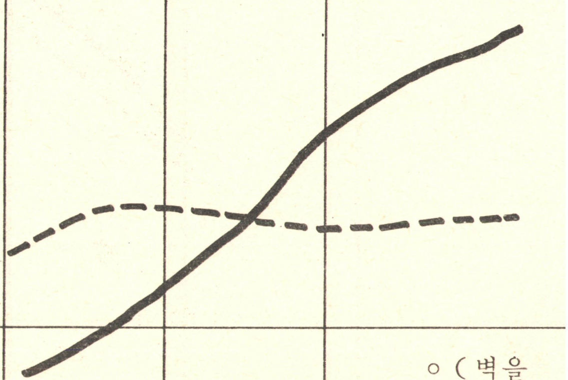
≪광열의 타자형의 변화≫
- 객관적인 순수한 존재
- 부러움과 질투를 일으키는 대상
- 사기와 질투를 〃
- 경멸감을 〃
  (약사빠르고 요령있으며 쥐새끼 같은 놈.)

≪-광열이 옥분을 팔려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해가는 과정의 변화≫

- 춘삼의 정서적인 반응의 변화
  춘삼의 옥분에 대한 소유욕구
  가치 기준에의한 판단

- 광열이 옥분을 욕보이려 했으며 그로인해서 옥분이 다쳤음을 인식
  · 옥분을 소유하고 싶은 배타적인
  · 옥분을 위하는 마음
  · 도덕적 가치기준에 이반된 야비하고 더러운 행위에대한 경멸감

→ 증오의 회오리바람으로 몰고간다.

타 자 형	부러움과	질투 - 시기 -	경멸감
			
	○ 색시거간? 빌어먹을놈! ○ 헴. 가봐야겠군 ○ 헷! 이 두메산골에선 평생가야 땅두더지 진흙투성이 핫바지꼴루 죽는 수밖에		○ (벽을 ○ 죽일놈 색시
씬	7. 방앗간	8. 옥분의집앞	18. 방앗간
장 소			
내 용			

생쥐같은놈		ㅇ두려움을 집요하고	일으키는 교활한 괴물	ㅇ증오감을 ㅇ춘삼	일으키는 쇼크를 받은 섰는데	경멸스런인간 듯 조용히
ㅇ줄테여! 손해배상까지 줄테여. 생쥐 같은 놈아!		ㅇ춘삼이 너무 별수없이 서울바닥에 나타났구나 헤헷 잘됐다. 언젠가내가 당한 분풀이 톡톡히 할테니 두고봐라	ㅇ음! 광열이 이놈을…	ㅇ이자식! 어딜도망쳐 (덜미를 잡아챈다) 내 손에 죽어봐라!		
주먹으로 치구 거간이란 말은 이자식 때려죽이구 말테다. 마냥일만 죽도록하다 더있다구	울부짖다) 들었지만	에잇! 이놈의 세상! 옥분일 건드려 어림없다.				
20. 옥분의 집,	마루와 마당	33.큰거리	67.입원실	69.대문앞		

8. 광열의 춘삼에 대한 인식

<춘삼에 대한 심리변화>

——— ⧫ 두려움, 증오, 복수심

- - - - ★ 증오

-·-·- ■ 복수심

· 옥분에 대한 심리변화

· 애정

——— ◊ · 성욕

- - - ☆ 춘삼이 옥분을 소유한데 대한 부러움. 질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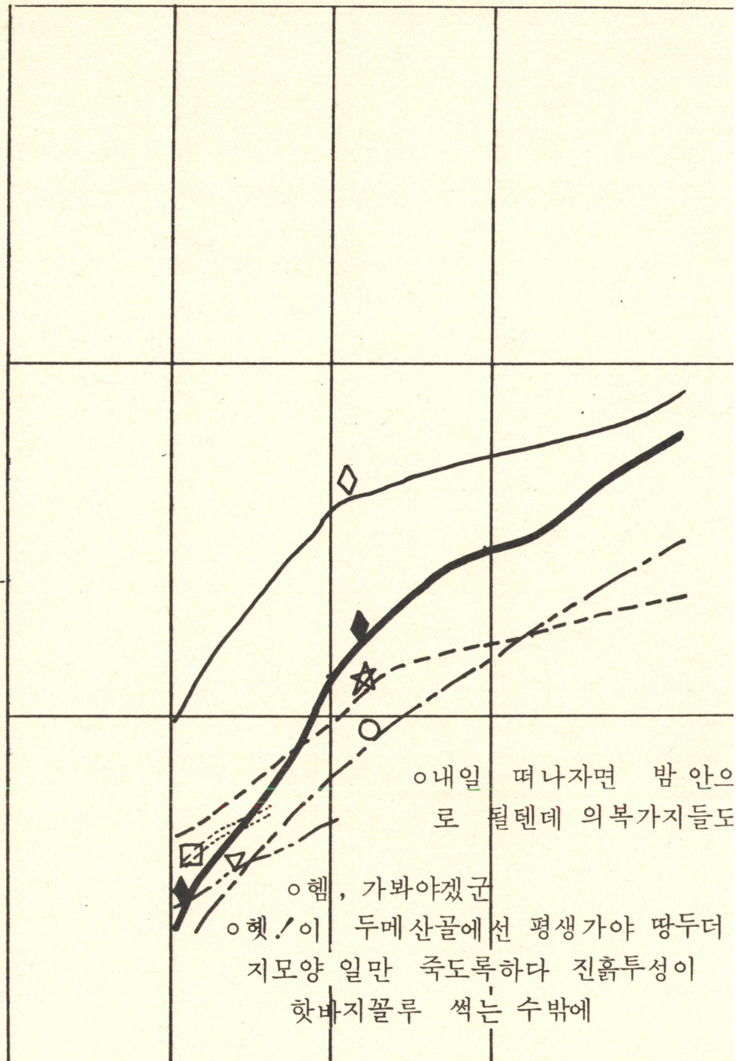
········ □ 춘삼의 외모에대한 경멸감의변화

· 〃에 대한 복수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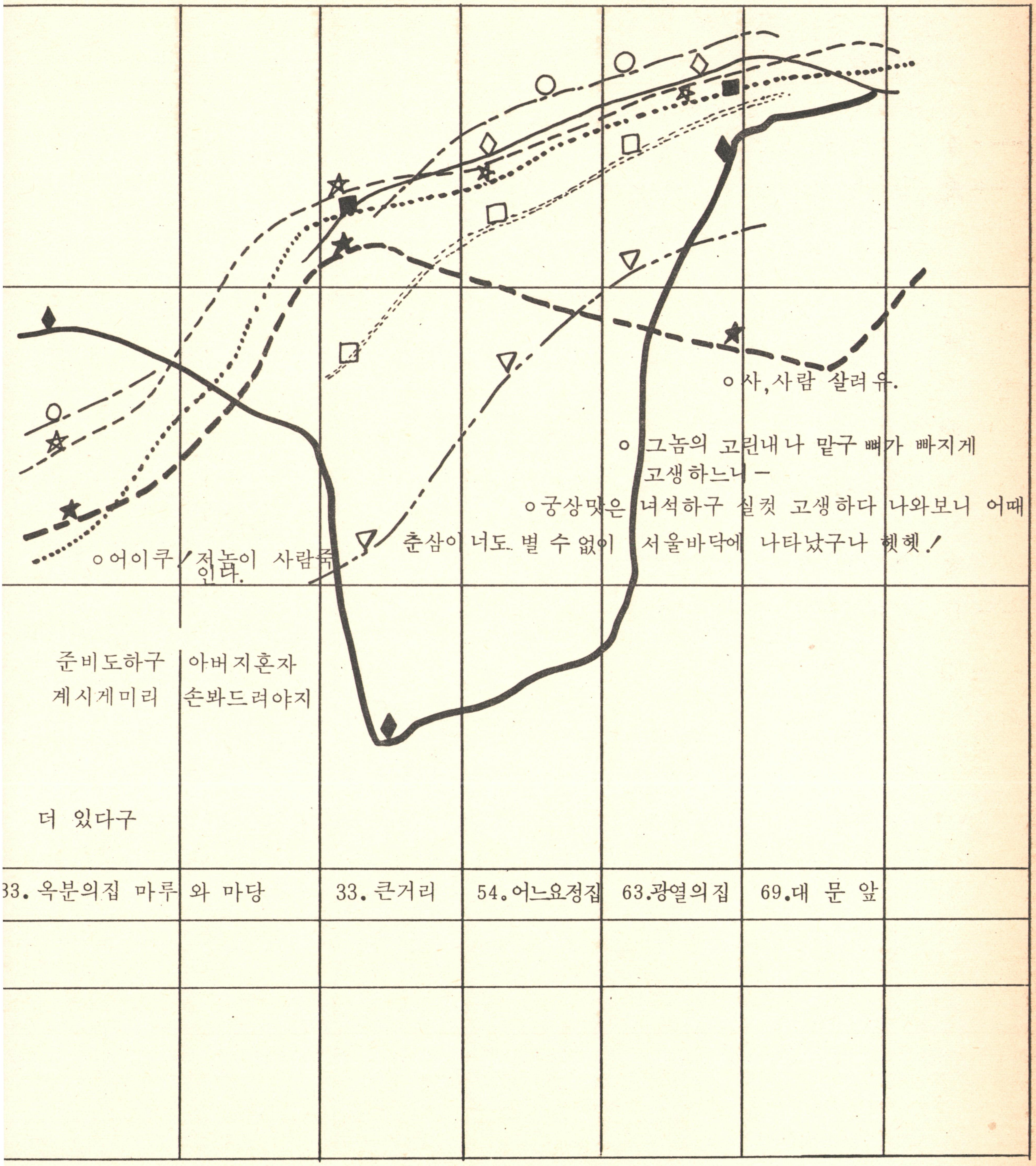
- - - ○ 광열이 옥분의 춘삼에대한 사랑을 의식하는 정도의 변화

-·-· ▽ 춘삼의 생활방식에 대한 경멸감의 변화

· 춘삼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



씬	7. 방앗간밖	18. 방앗간	
장 소			
내 용			


ㅇ사,사람 살려유.
ㅇ그놈의 고린내나 맡구 뼈가 빠지게 고생하느니 -
ㅇ궁상맞은 녀석하구 실컷 고생하다 나와보니 어때 춘삼이 너도 별 수 없이 서울바닥에 나타났구나 헷헷!
ㅇ어이쿠! 저놈이 사람죽인다.
준비도하구 계시게미리
아버지혼자 손봐드려야지
더 있다구
33. 옥분의집 마루와 마당
33. 큰거리
54. 어느요정집
63. 광열의집
69. 대 문 앞

9. 광열의 옥분에대한 인식변화

• 옥분에 대한 소유욕구의 변화

——— ◆ -여영업소에 넘겨 돈을 벌려는 의도?

- - - ★ 옥분을 사랑하기에 결혼이라는 틀로 묶어 영원히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

·········· ■ 아름다운 육체적 매력에대한 탐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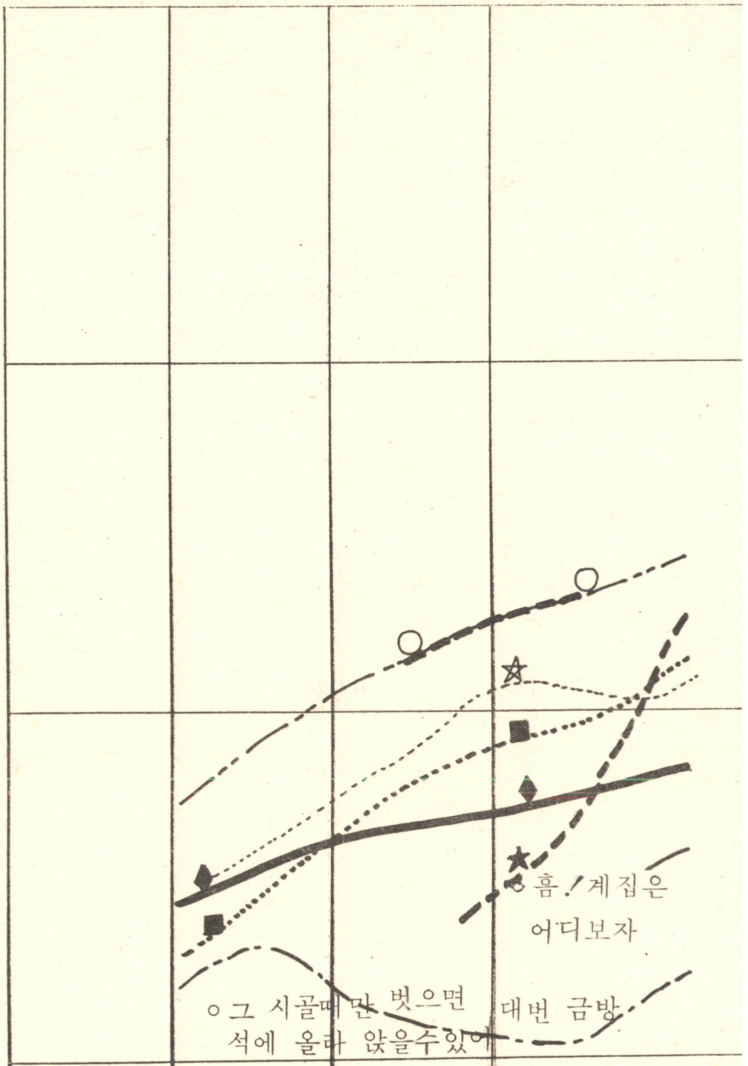
——— ● 옥분의 눈을 통해 자아를인식 (괴물)

- - - - ◇ 맹목적인 정복욕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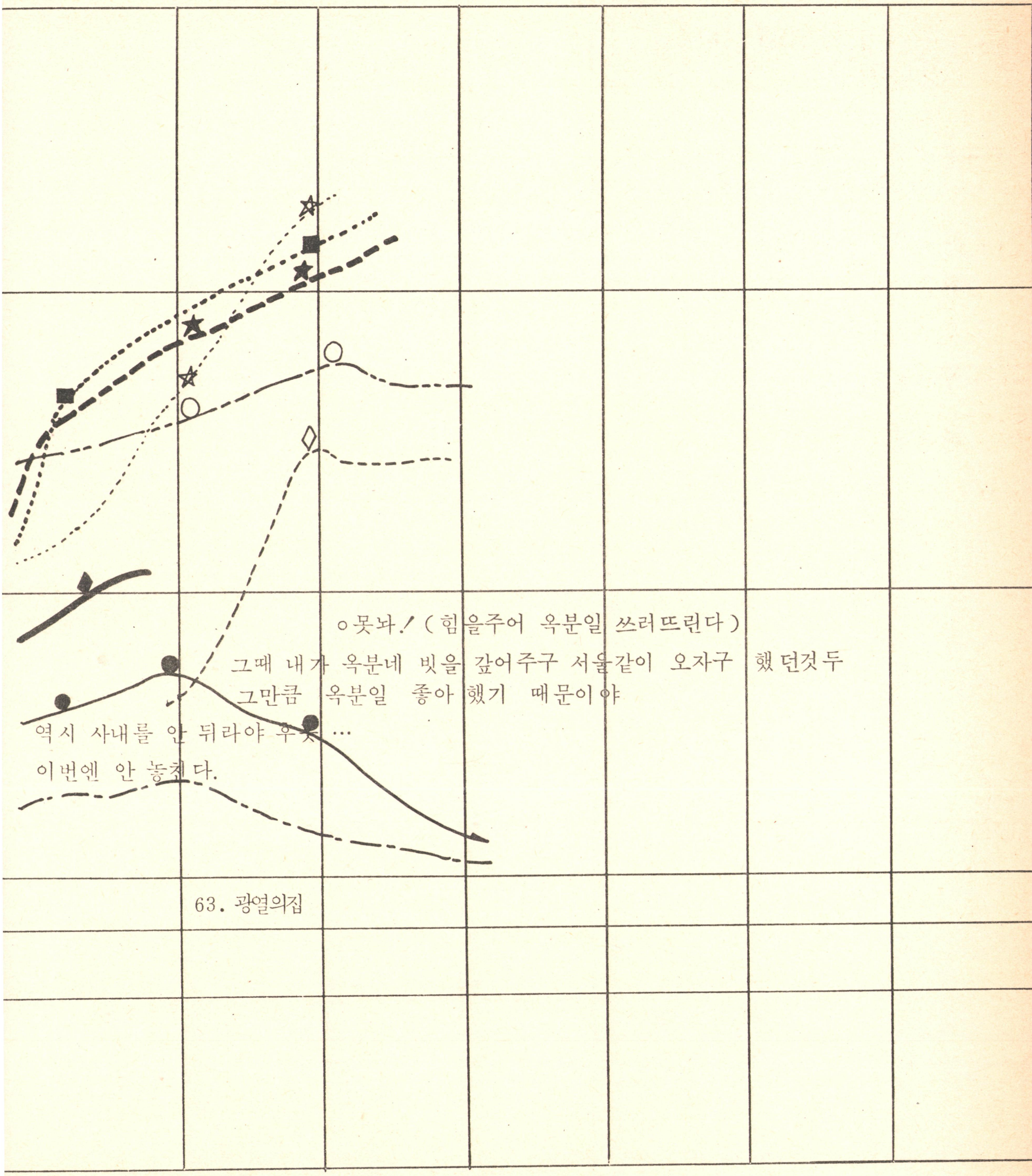
··········· ☆ 옥분에 대한 애정표현 방법의변화

—·— □ 옥분에 대한 애정표현 충족정도의 변화

—··— ○ 옥분에 대한 타자형 인식의 변화



씬	12.마당과마루	20.옥분의집	54.어느 요정앞
장 소			
내 용			


ㅇ못놔! (힘을주어 옥분일 쓰러뜨린다)
그때 내가 옥분네 빚을 갚어주구 서울같이 오자구 했던것두
그만큼 옥분일 좋아 했기 때문이야
역시 사내를 안 뒤라야 우…
이번엔 안 놓친다.

63. 광열의집

10. 옥분의 광열에 대한 인식변화

——◆ 옥분의 자신이 상경해야 한다는 운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옥분의 춘삼에 대한 애정인식의변화

■ 옥분의 아버지 병간호에 대한변화

▲ 옥분의 광열에 대한 변화

·········▼ 옥분의 태도변화

——● 광열의 태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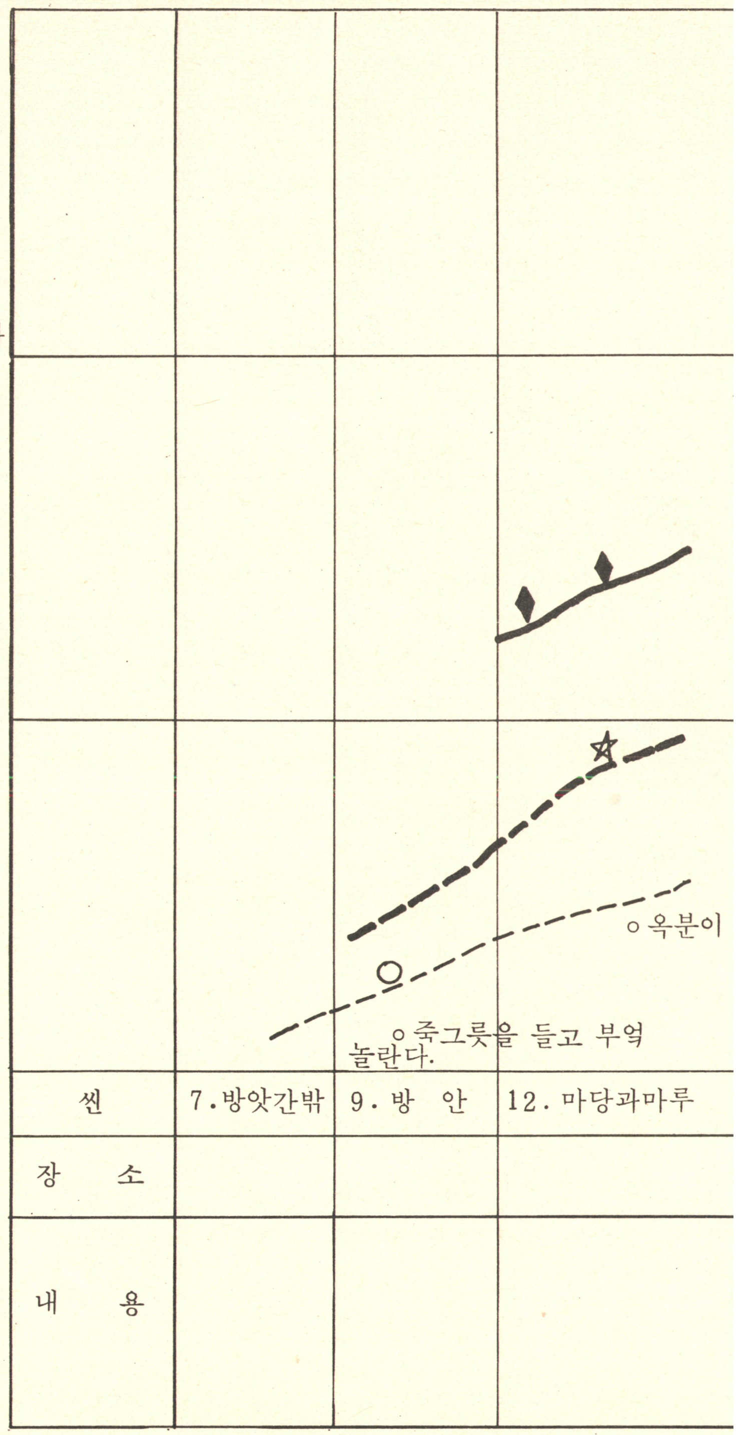
• 양가죽을 벗고 본심으로 돌아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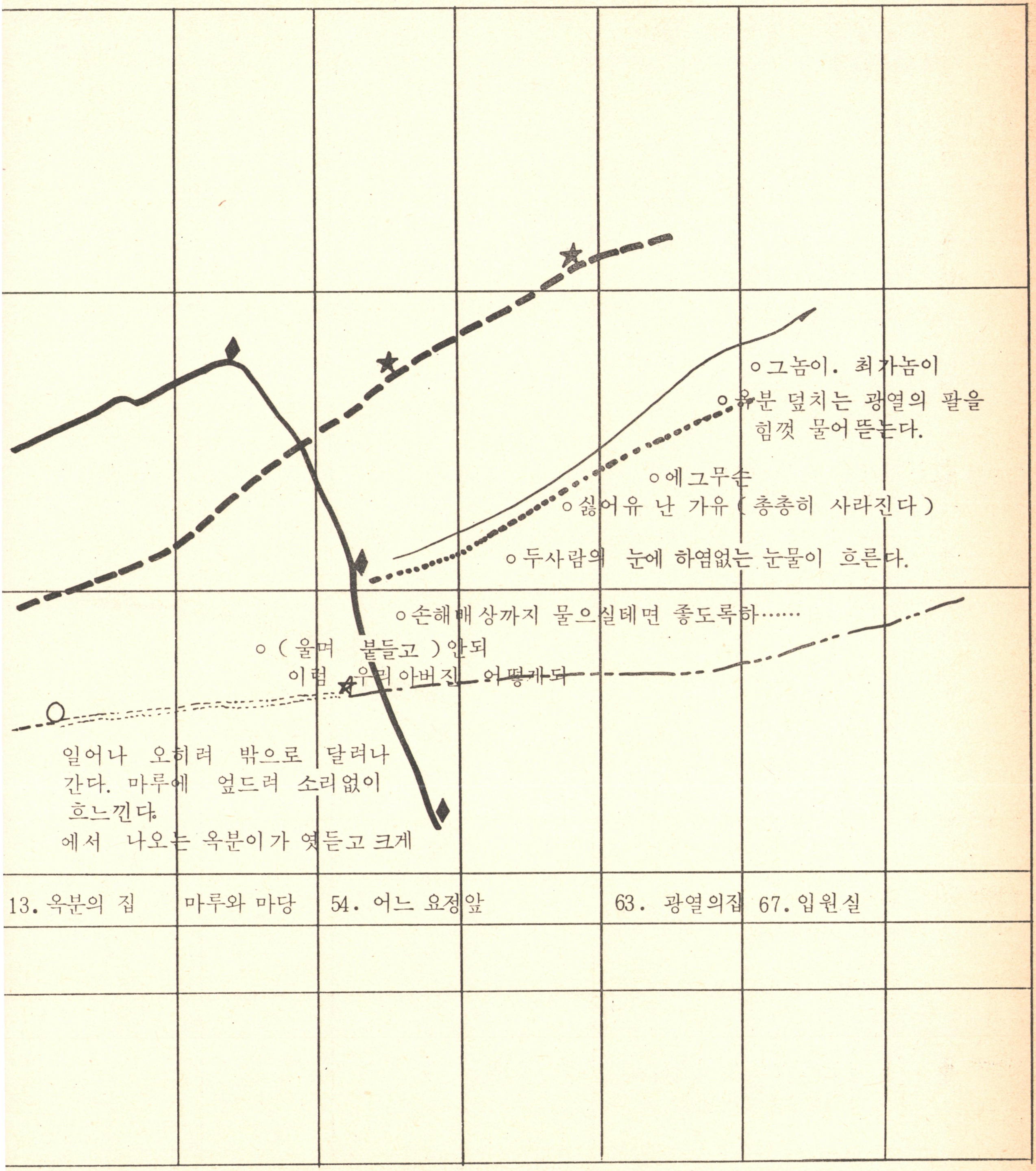
--- ○ • 집요한 괴물

::::::::☆ • 현명하고 교활한 인상

—·— ◇ • 소유하려는 마의손

----□ • 저돌적인 그리고 정욕에 이글거리는 늑대





○ 그놈이. 최가놈이
○ 옥분 덮치는 광열의 팔을
힘껏 물어뜯는다.
○ 에그무슨
○ 싫어유 난 가유 (총총히 사라진다)
○ 두사람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흐른다.
○ 손해배상까지 물으실테면 좋도록하……
○ (울며 붙들고) 안되
이럼 우리아버진 어떻게되
일어나 오히려 밖으로 달려나
간다. 마루에 엎드려 소리없이
흐느낀다.
에서 나오는 옥분이가 엿듣고 크게
13. 옥분의 집
마루와 마당
54. 어느 요정앞
63. 광열의집
67. 입원실

11. 문지기의 춘삼에 대한 인식변화

—— ◆ 걸맞지 않는 정신적인 지조와 자존심을 가진 인간(자신의 체면치래는 할 수 있는 사람)

--- ★ 엉큼하고 파렴치한 도둑

······ ■ 막무가내인 괴물

- 문지기들의 춘삼을 대하는 태도변화

—— ● · 평범한 객관적인 인물로써 극장의 규율에 좌우됨

--- ◈ · 변사와 친구라는 사실에서 호감을 가지며

········· ☆ · 동시에 변사는 시골출신이 아니었으며 또한 춘삼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므로 의심

—·— □ · 춘삼의 밀투가 투박하여 거짓말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또한 동정심과 변사의 권위등이 작용하여 승낙함. 친절하게 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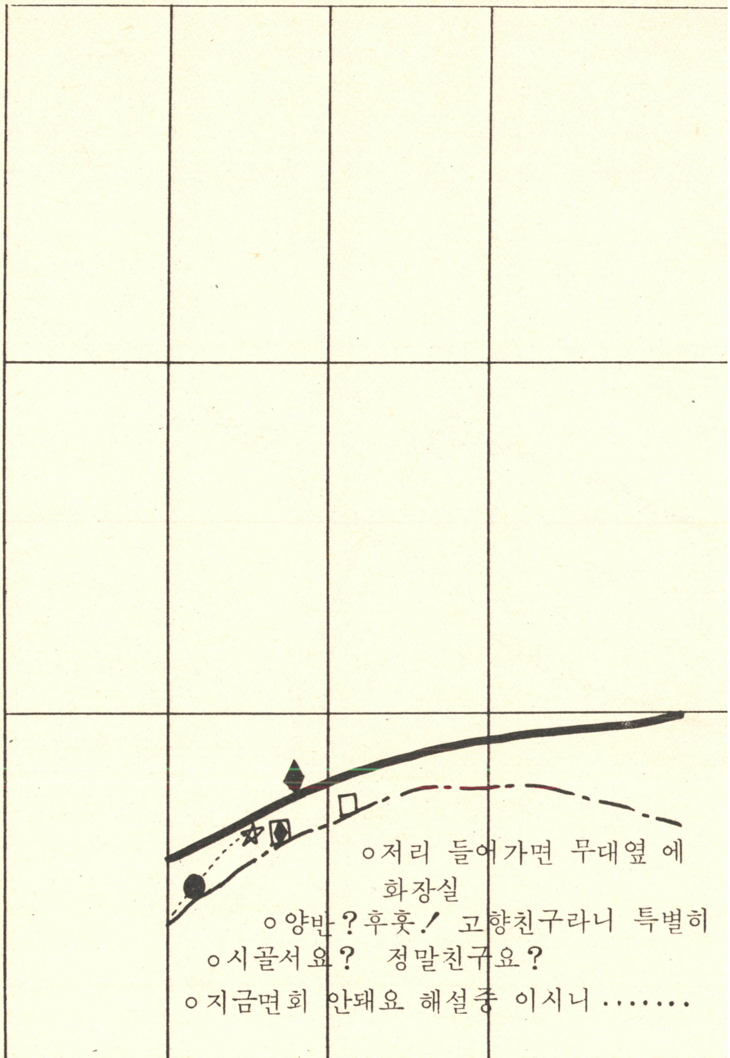
—··— ○ · 거짓말을 하였으며 엉큼하고 파렴치한 도둑으로 증오와 경멸감을 일으킨다.

⊠ ·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우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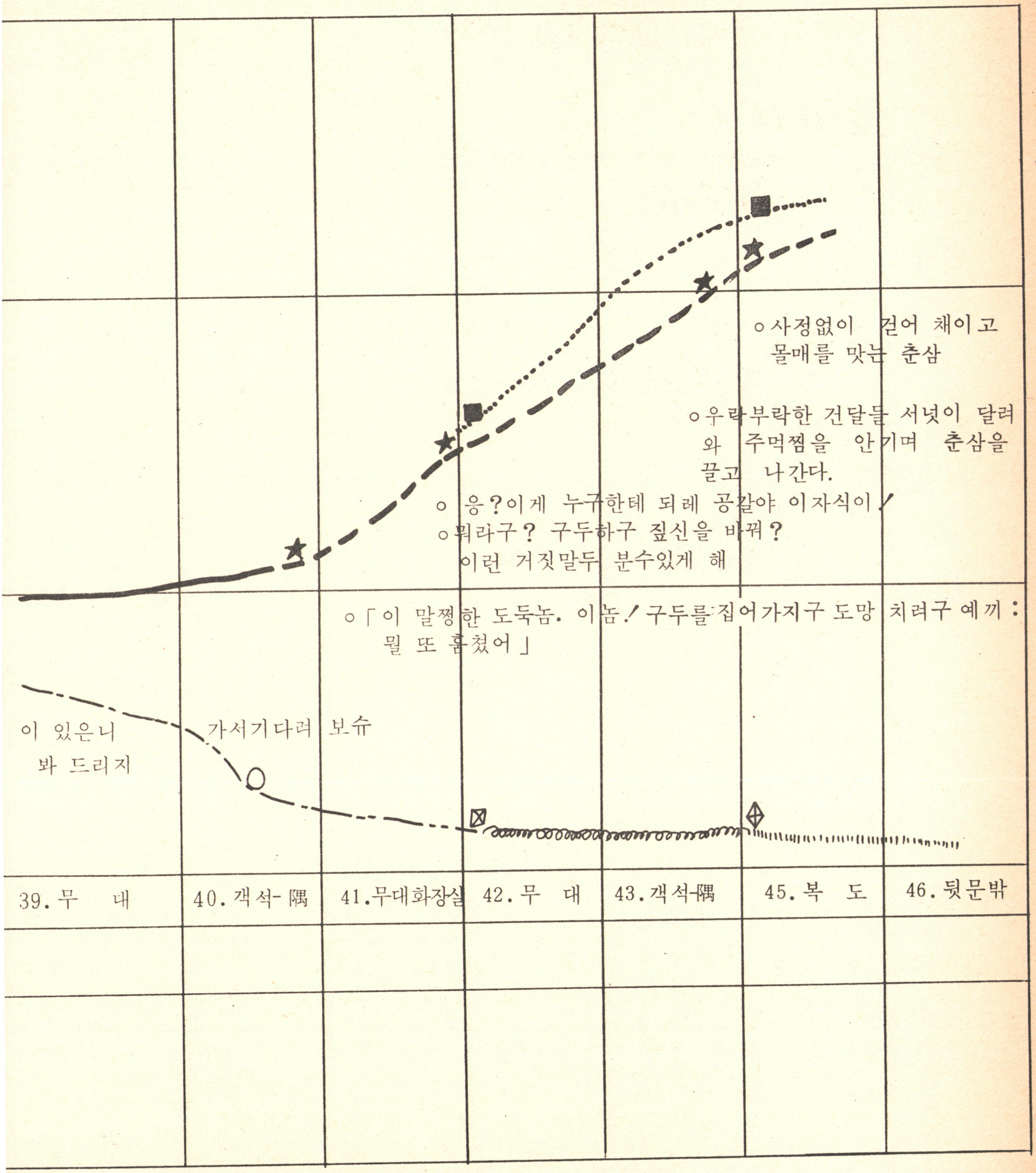
- 인정사정봐 줄 필요가 없는놈이다.

→ 오히려 당함

◆ ○ 개 패듯이 두들겨 패버린다.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놈)



씬	36. 뒷문	37. 복 도	38. 무대 화장실
장 소			
내 용			


○사정없이 걷어 채이고
몰매를 맞는 춘삼
○우락부락한 건달들 서넛이 달려
와 주먹찜을 안기며 춘삼을
끌고 나간다.
○ 응?이게 누구한테 되레 공갈야 이자식이!
○뭐라구? 구두하구 짚신을 바꿔?
이런 거짓말두 분수있게 해
○「이 말쩡한 도둑놈. 이놈! 구두를 집어가지구 도망 치려구 예끼:
뭘 또 훔쳤어」
이 있은니
봐 드리지
가서기다려 보슈
39. 무 대
40. 객석-隅
41. 무대화장실
42. 무 대
43. 객석-隅
45. 복 도
46. 뒷문밖

21. 슬픔이여 안녕

분 석 대 상

· 슬픔이여 안녕 (프랑소와즈 사강 저)

— 제1부6장

분 석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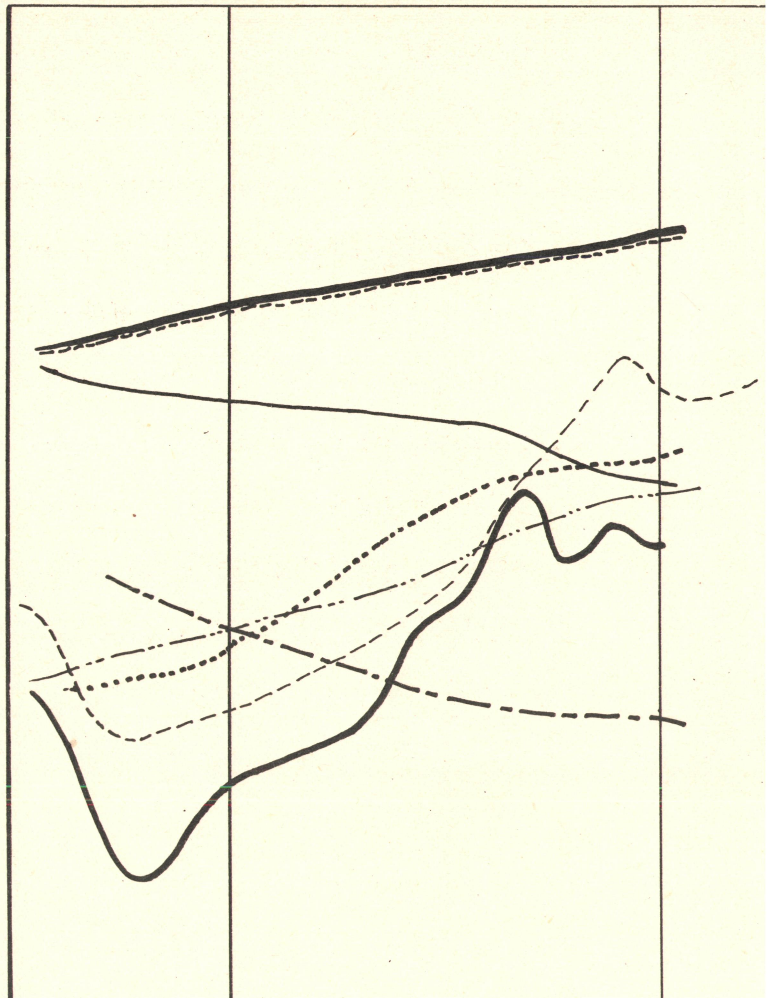
· 작품 공동제작 가능성의 영역을 넓힌다

분 석 중 점

· 작품요소의 시각화 및 구체화

차 례

심리의 변화 그 래 프



—— 자아인식

══ 성본능

—·— 애 정

.... 안느에 대한 증오심의 변화

—— 자유스런 생활에 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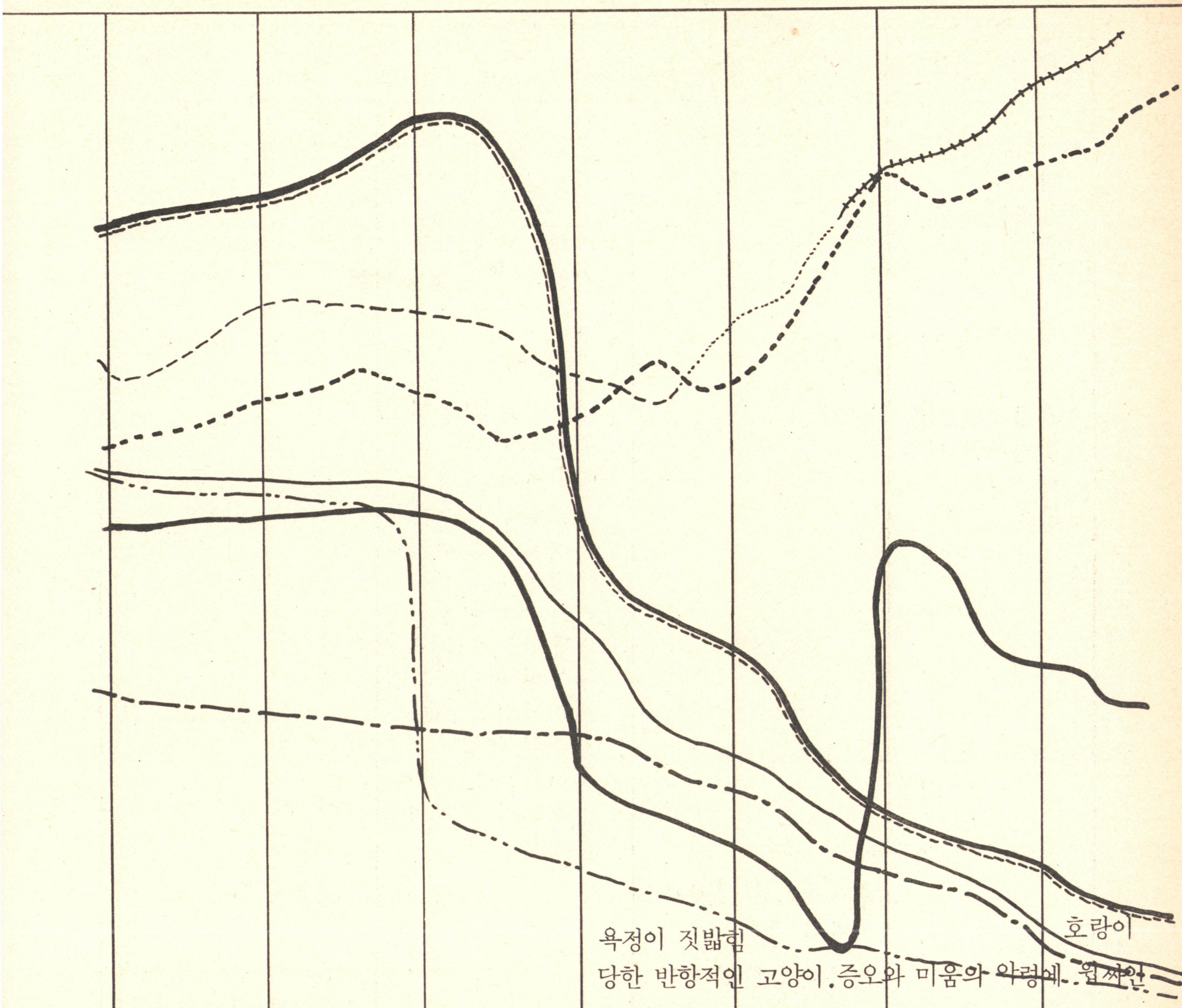
---- 아버지 : 안느에열중, 행복감에 빠짐

—·-- 가치획득에 대한 욕구

.... 아버지 : 무능력감+배신감

+++++ 아버지 : 배신감

타 자 형	버릇없고 천한 방탕아. 작고 애정이 깊은 한마리의 고양이		
시 간	아 침		
장 소	새 실 의 방	테 라 스 (식탁앞)	
주 요 사 건	거울을 들여다 봄	결혼 예정을 알림	



	일 주 일	어느날	6 시	저녁식사	이틀날 아침	저녁식사	밤
	실내장식	요 트	소나무 숲	테 라 스	새실의 방	식 탁	
	계획적인 생활	시릴르와 키 스	안느에게 시릴르와 함께 있는 장면을 들킴	시릴르와의 일과 공부 에대한 대 화	공 부	아버지의 걱정	안느와 아 버지의 모 습응시

도표

부 장	대 상	본 질	인 식	영 향
	ㅇ아침. 새실의 방 ㅇ자가비하 퇴폐 슬픔		ㅇ부은 눈 부르튼 입술이 낯선 얼굴 천하게 변한얼굴 ⇒방탕으로 야위고 지친 늑대의 얼굴	자아회의 상태에빠짐
	ㅇ아침. 일주일 ㅇ테라스의 식탁 앞 ㅇ결혼	ㅇ애정+알고 싶은 욕구	ㅇ아버지의 행복한모습인식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오래오래? 엘자와 구별?) -안느가 아버지와 결합한동기(결혼)? ·관능의 마지막강습 아버지의 굳센팔 생활력 열정 -아버지가 안느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동기?	
		ㅇ자유스런 생활에 대한 욕구		ㅇ자유를 잃게 됨
		ㅇ안느형 생활에 대한 동경		ㅇ안느형 생활의 계상 ㅇ완성에 이르게 되리라
			(타자인식) ㅇ실존인물(확신. 우아함. → 약한지성면	
	ㅇ요트. 소나무숲 ㅇ시릴르와 함께	ㅇ오락욕구 ㅇ성본능		

정서적 반응	의지적반응	기 타	자 아 인 식
ㅇ혐오하는 것을 재미로 여김 ㅇ슬픔을 느낌 - 열등의식을 느끼지않는이유 (더욱 나아지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		ㅇ약하다면 어떻게 그것도 확실하게 자신과 반대의 것이라고 느꼈을까?	ㅇ자신이 약하고 비겁해 졌는가? ㅇ자기와는 반대의 것이라는 느낌
ㅇ속이 매슥거림		(가치기준의 늪) ㅇ아버지와 안느의 관계가 한평생 계속되기를 원함	
ㅇ그리고 나는 그녀를 부러워 했다.			
ㅇ기뻐함	ㅇ내 나이에 어울리는 역할로 돌아 옴		ㅇ애정이 깊은 작은 한마리의 고향이
ㅇ충족		ㅇ애정에 대한 도착적인 욕구 충족	

부 장	대 상	본 질	인 식	영 향
	○소나무 숲 ○실릴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안느가 본다	○성 본 능	○새실의 성본능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	
		○가치 획득에 대한 욕구 (+수줍음+부끄러움)	○경멸보다도 더 심한 무관심의 형태	
	○저녁식사 ○테라스식탁앞 ○안느의대사(전)	○가치획득에 대한 욕구	○생각이 깊지 않으며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리라. ○자신을 경멸(능력. 인격면)하는 인상을 받음	○가치획득에 대한 욕구에 상처를 입음
		○성본능	○욕구충족행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경멸 ○자신의 욕구를 경멸하고 억제시키려 함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던짐
		○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	○안느가 공부를 시킴으로해서 생활을 속박하려 한다.	
	○저녁식사 ○테라스 식탁앞 ○안느의 대사(후)	○타자인식	○어투가 상냥하고 이지적이다.	○그녀의 이런 점으로 해서 반항할 수도없이 그녀가 원하는타자형이 되고 말리라. ○그녀를 경멸하고 싶으나 그렇지도 못하다.

정서적 반응	의지적 반응	기 타	자아인식
○욕구 불만 ○안느에 대한 반항감			
○안느에 대한 경멸 증오 ○자기비하, 열등의식 →자아의 이중성	○돌파구를 찾지 못함 (성행위 부인)	←성행위에 대한 죄의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열등의식, 자기비하 ○가치를 획득하고 싶은 욕구→안느를 끌어 내리고 싶어한다 →요즘			
○자아의 이중성에 빠짐	○욕구의 억제에 대한 반항		
○괴로운 일이다.	○공부의 굴레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증오 ○좌절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한다.		

부 장	대 상	본 질	인 식	영 향
		ㅇ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 ㅇ가치를 획득하고 싶은 욕구	ㅇ숲속의 아저씨 →착한 학생 ㅇ어투가 다분히 설득적이다. ㅇ자신을 사고가 깊지않은 아이로 보고 있다.	
	ㅇ새실의 방 ㅇ공부 ㅇ자아인식	ㅇ내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되어있다. (자연스럽게 행복을 위해 친절함을 위해 안락함을 위해 되어 있다.) 나는 반죽할 수 있는 찰흙이었을 뿐이지만 주형을 거부하는 찰흙이다.	ㅇ야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타자인식) ㅇ안느의의도 : 그녀는 아버지를 필요로 했고 얻었다. →안느라르생의 남편과 의붓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통 수완이 아니다) → ① 아버지는 나한테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②나 : 안느에게 영향받아 수정되고 이끌리게 될 것이다. ③그녀는 이지, 야유, 상냥스러움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반항할 수도 없을것이다. →반항하려는 생각마저 버리게될 것이다.	

정서적 반응	의지적 반응	기타	자아인식
ㅇ욕구불만 ㅇ안느에대한 경멸, 증오 ㅇ열등의식. 자기비하 ㅇ그녀의 사고방식을 고쳐주겠다.	ㅇ벗어나야 한다.		
ㅇ자아의 이중성으로 인한 갈등	ㅇ안느는 해롭고 위험하다 비난당할 만하다 - 안느를증오. 경멸 - 복수 결심	←바보스럽고 무서운 일	ㅇ자신을 경멸하고 비웃음 ←응석꾸러기에다 게으름뱅이
ㅇ아버지에 대한 애정욕구에 갈등 초래			
	ㅇ반항하고 싶다. ㅇ그러므로 옛날의 우리들 생활을 되찾아야 한다.		

부 장	대 상	본 질	인 식	영 향
		○ 나는 소유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열적으로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 안느는 소유욕구를 경멸하고 무관심해하며 공부를 강요하여 억제시키고 있다.	
	○ 저녁식사 ○ 아버지의 초상	○ 나는 아버지한테 애정을 느꼈고 또한 충족시켰었다.	○ 아버지는 청춘을 사랑하고 있다. (타자인식) ○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청춘의 무기 (애정, 정열, 자유)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배신)	○ 아버지에 대해 배신감을 가짐

정 서 적 반 응	의 지 적 반 응	키 타	자 아 인 식
ㅇ자아의 이중성으로 인한 갈등 ㅇ가치획득 욕구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으로인해 열등의식과 자기비하 안느에대한 증오 ㅇ성본능의 강렬한 욕구저지로 욕구불만 → 증오	ㅇ욕구를 되찾으려함 ㅇ안느자신도 역시 강렬한 성본능에 의해서 사고와 행동이 영향받고 있음을 그녀앞에 증명해보이고 싶다. →복수결심 →승리확신 ㅇ아버지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어한다.	cf. 안느는 애정과 성본능을 소유하고 있어 욕구만족을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자신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ㅇ자신을 가엾게 생각하려함

새실의타자형

o 버릇없고 천한 방탕아

새실은 그 전날 밤 아버지와 안느의 애정에 대한 배신, 앨자의 슬픔, 그로 인한 자신의 분노 등으로 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와 안느가 앨자를 비정하게 배신하였음을 알게되자 새실은 앨자에 대한 연민의 정과 아버지와 안느에 대한 증오와 분노, 질투심 등으로 해서 부담감이나 기타 다른 생각의 개입이 없이 아버지와 안느에게 평상시 같으면 하지 못할 폭언과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어젯밤 거세게 일어났던 감정들이 밤사이에 모두 가라앉아 지금에 와서는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생각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침착함, 어제 있었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야기될 앞으로의 아버지의 안느와의 변화된 관계가 흔적처럼 남기는 부담감과 어색함 등이 내면으로부터 어둡게 떠올라 왔다.
거울에 다가서자 부은 눈, 부르튼 입술 등 낯설게 변한 얼굴이 자신과 자신의 행위가 정말 천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실제로 얼굴을 낯설게 변하게 한 동기가 되는 감정은 그때 당시 새실이 판단할 때 인간의 정을 가치기준으로하여 정당하고 순수하며 위대하게까지 생각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판단할 때는 아직 그러한 감정이 정당하고 위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안느에 의해서 가치지워진 자신에 대한 인상, 즉 천하고 버릇이 없는 타자형이 전자의 인상을 가리워 버린다.(왜냐하면 새실은 아직은 아버지와 안느의 가치판단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자신의 인상 즉 부은 눈, 부르튼 입술 등 천하게 변한 얼굴의 모양과 그 모습들이 연상시키는 지난 밤의 행위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든 인상으로 이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상념이나 또는 되고자 했던 타자형과 너무도 다른 이질감을 느낀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상으로해서 자기비하에 빠져들어 갔으나 곧 그러한 감정에서 풀려나 오히려 빨려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겸연쩍게 생각한다.

새실이 아버지와 안느의 앞에 서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에 부합되는 타자형 즉 버릇없고 귀엾고 작은 고양이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타자형은 자기로서도 괴로우나 도저히 그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기에 내면의 자아를 방치해 둔채 계속해 낸다.

때는 아침 아버지와 안느는 새실에게 커다란 벽(거인)이었으나 어제 그들이 그녀에게 보인 비위로 해서 존경심이나 두려움 이전에 은은한 반항심이 고양이형 타자에 더해진다. 한편으로 귀엾고 버릇이 없으며 반항기가 있는 역할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예민한 감정은 날카롭게 그들이 주는 인상과 행위를 감지하고 판단해 내게 된다.

애정이 깊고 작은 한마리의 고양이

이제까지 그녀와 아버지가 누려왔던 자유스런 생활을 잃어 버리리라는것, 부러워했던 안느형 생활의 예상, 아버지와 안느의 달콤한 감격에 차 있는 모습, 관능이 마지막 강습을 한 안느, 관념의 작품에 지나지 않을 생활계획。그런데도 질서와 부르조아적인 우아한 계획적인 생활을 격찬하는 아버지 등은 혹은 행복감을 혹은 은근한 두려움과 약간의 질투를 일으키면서 다가왔다.

그러나 새실은 작고 귀여운 고양이에 지나지 않기에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양보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생각하려하며 그들과 반대되는 의사를 가졌어도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는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의 애정을 점차로 잃게 된다는 데에서 고독감, 우울함, 허전함 등이 가슴을 텅비게 하여 안느에 대한 질투심이 부러움으로 나타나면 자신을 잊고 싶은 생각에 시릴르의 강렬한 쾌락 안으로 뛰어든다.

발정기 욕정이 짓밟힘 당한 반항적인 고양이

거대하며 부러움(질투)의 대상으로 부각된 안느가 조금도 헛점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다.

짓밟히고 빼앗긴 욕구를 이런 어설픈 방법에 의해서라도 해소하려 하는데 또다시 그녀로 인해서 발정기의 욕구마저 뿌리침 당한다. 새실은 한없이 거대해 보이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녀를 끌어 내리려 결점이나 비행 또는 자신과 공감이 되는 면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는 여전히 결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전함을 인식하게 할 따름이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이성면을 그녀 앞에서 부각시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으나 돌출구를 찾지 못한다) 돌출구를 찾지 못하고 다만 버릇없고 작은 고양이처럼 반항할 뿐이다.(그러나 이런 작은 고양이 형타자는 자신을 더욱 불만으로 몰고간다.)

저녁에 식탁 앞에서도 똑 같은 심리작용이 반복된다.

'그녀는 집요하고 교활한 거인이었다. 그녀 앞에서 자신은 작고 버릇없는 고양이에 불과하며 그녀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새실의 그녀에 대한 질투는 그녀의 헛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나 그럴수록 더욱 그녀의 집요함과 교활함을 인식하게되어 그녀가 한층 더 거대해 보이고 그만큼 질투심도 커진다.

증오와 미움의 악령에 휩싸인 호랑이

자기 비하에 빠진 새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치를 획득하고 싶은 욕구가 증오와 미움의 악령에 휩싸여 안느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은 안느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날카롭고 이해타산적이다. 분석대상은 교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이 자신을 얽어매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의 실행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곧 관념적인 실재물, 즉 사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사랑이 하나의 별다른 세계인 것처럼 증오가 그 나름대로 환을 이루는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1. 자신의 본질은 행복을 위해 친절함을 위해 안락함을 위해서 되어 있으며 그러기에 자기는 자신을 사랑하였는데 그녀가 여기에 죄의 개념을 집어 넣음으로해서 비난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세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은 이 이중성 속에서 갈등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2. 안느는 아버지를 필요로 했으며 얻었다. 상대적으로 자신은 빼앗겼으며 아버지는 자신을 배반했다.
3.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빠진 상태여서 아버지도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인식의 변화 그 래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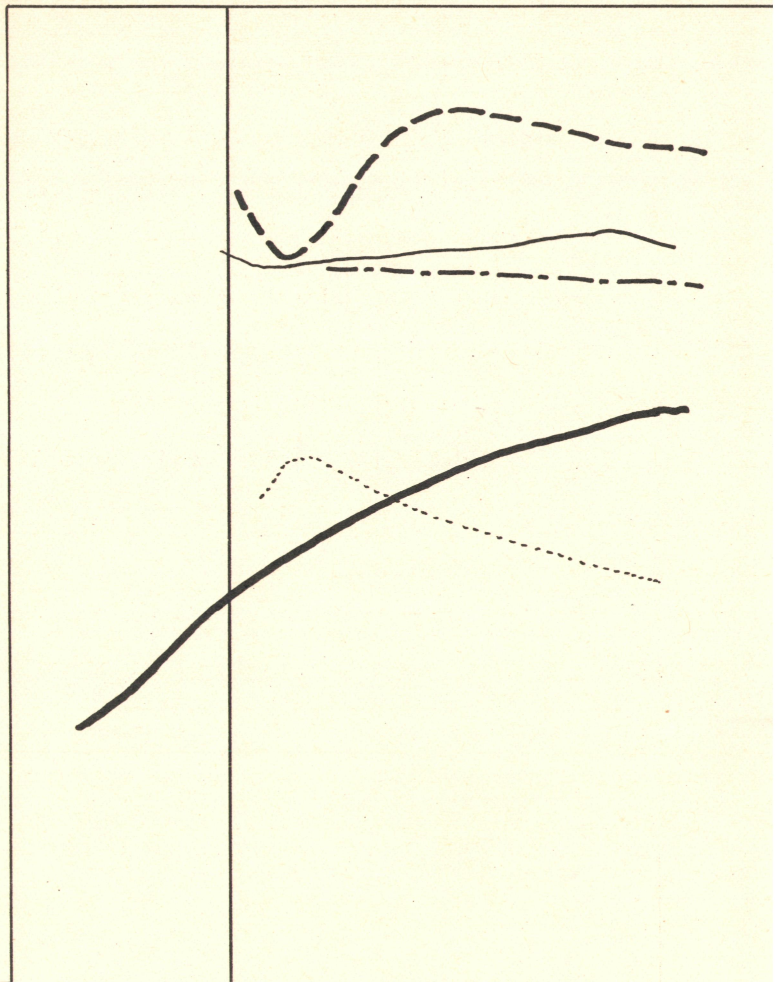
—— 안느→새실

– – – 아버지→안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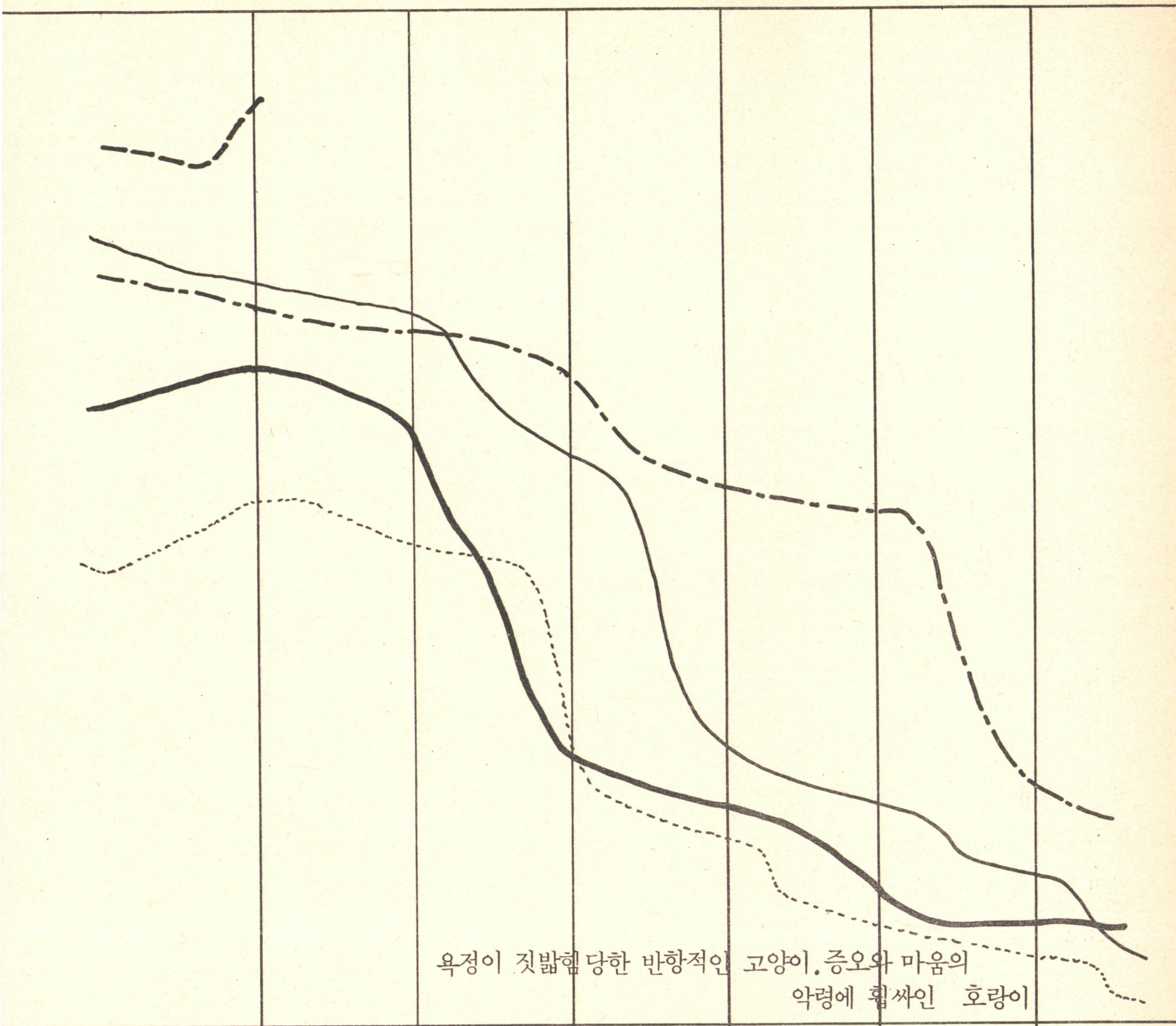
—·— 아버지→새실

······· 새실→안느

—— 새실−아버지



타 자 형	버릇없고 천한	방탕아. 작고 애정이 깊은 한마리의 고양이	
시 간	아 침		
장 소	새실의 방	테라스(식탁앞)	
주요 사건	거울을 들여다 봄	결혼 예정을 알림	



	일주일	어느 날	6 시	저녁식사	이틀날 아침	저녁식사	밤
	실내장식	요 트	소나무 숲	테라스	새실의 방	식 탁	
	계획적인 생활	시릴르와 키 스	안느에게 함께 있는 장면을 들킴 (시릴르와)	시릴르와의 일과 공부에 대한 대화	공 부	아버지의 걱정	안느와 아버지의 모습응시

해설

새실-안느에 대한 인식변화

안느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 놓여 있던 애정 속으로 언제인가부터 서서히 침범하여 어느덧 아버지를 소유하게되고 그에 따라서 나는 귀여운 고양이의 역할로 하락되어졌다.

당연히 그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이 일어나나 서로의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에 작고 귀여운 고양이 역에서 쉽게 튀쳐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릴르와의 사건이 있은 후 그녀는 내 마음에 갖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면들을 남겨 놓았다.

그녀는 시리르와의 애정행위를 경멸하였으며 나의 의견. 나의 부인을 경멸보다도 더 심한 무관심의 형태로 다뤘다. 마치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생명이 없는 형편없는 무엇인 것처럼 ……

열등의식과 욕구불만(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데서오는)은 그녀를 경멸하고 싶고 그녀에게 반항하고 싶으나 그녀가 이지와 야유와 상냥스러움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그럴수도 없다. 앞으로는 결국 안느에게 영향을 받아 수정되고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짓을 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다시 아버지와 옛날의 우리들 생활을 되찾지 않으면 않된다. 왜냐하면 나는 반죽할 수 있는 찰흙일 뿐이지만 주형을 거부하는 찰흙이었다. 꼭 복수하리라 안느여 그대 욕정을 찾아 흐늘흐늘 흔들거리는 손이 욕구의 승리를 찬미하는 구나.

안느-새실에 대한 인식변화

엘자와의 사건 등으로 해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으며, 전에 같이 생활했던 시절에 젖어든 나에 대한 무서움 등으로 해서 나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경계하고 위로하는 입장에서 대

했는데 한편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처럼 버릇이 없고 천하게 행동하여서 가엾게 여겨지기도 했다. 결혼 이야기가 있은 후에는 새실이 귀엽고 작은 고양이로 돌아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르릴와의 사건이 있은 후 그녀의 천하고 저속한 성적행위와 버릇이 없고 고집이 세며 생각이 깊지 않은 등을 인식하게 되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버릇이없는 고양이를 길들이리라 마음먹고 때로는 이지와 경멸과 무관심으로 때로는 상냥함으로 꾸짖고 타일렀다. 이러한 방법이 새실에게 받아들여 질 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않는 경멸과, 욕구나 의견을 존중하지않고 고려해 주지 않는 무관심으로 된다.

별지(1) - 새실 - 안느

- 안느의 얼굴은 핼쓱했다. 사랑의 하룻밤의 유일한 증거 였다. 두 사람 다 즐겁게 미소짓고 있었다.
- 그것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행복은 언제나 나에게는 시인해야 하는 것이며 성공인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그것은 나를 분개토록 함과 동시에 안심도 시키는 신호지만
- 내가 부러워했던 안느의 섬세함, 총명함으로 갑자기 균형이 잡힌 생활을
-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안느에게 미소지어 보였다.
- 사랑의 피로가 나타나 있는 안느의 얼굴은 내가 이때까지 본 안느의 어느 얼굴보다도 가까와지기 쉬운 다정한 것이었다.
- 아버지와 안느는 달콤한 감격에 차 나를 쳐다보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왜 나는 행복하지는 않았을까?
- 나는 완성에 이르게되며 아버지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 나는 그것을 보고 속이 매슥거렸다.
- 난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게 아닐까하고 걱정했었어. 나도 역시 웃었다.

- 그녀는 아버지 쪽으로 나로 하여금 눈을 아래로 떨어뜨리게 하는 행동을 취했다.
- 육감이나 약한면을
-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오래오래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 틀림없이 이러한 것은 모두 나에게 있어서도 그렇듯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관념의 작품 밖에는 아닐 것이다.
- 맹세하지만 이것이 한평생 계속될 것을 바랐다.
- 혹은 동정적인 시선을 모으는 것에 젖어온 나는 내 나이에 어울리는 역할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을 기뻐했다.
- 그리고 나서 그녀를 부러워했다. 키스는 키스로 끝나고 만다.
- 만약에 시릴르가 나를 조금만 덜 사랑하고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나는 그 주일로 그의 정부가 되었을 것이다.
- 그리고 그것이 안느를 오해케 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있다.
- 안느는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허세의 근엄한 태도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 나는 안느가 그 아름다운 경멸의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한결 아름답게 보이게하고, 나를 약간 무섭게하는 그 권태와 비난의 얼굴을
- 「과장해서 말하면 안돼요.」하고 나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 말대꾸는 하지 말아요. 너는 열 일곱 살이고, 현재 나는 너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 나는 너의 일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
- 게다가 너는 공부가 있잖니? 그것으로 오후가 꽉 찰거야
- 나는 어처구니 없이 땅바닥에 못 박혔다.
- 나의 부인(否認)의견, 그녀는 이러한 것을 경멸보다도 더 심한 무관심의 형태로 다룰 것이다.
-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생명이 없는 형편없는 무엇인 것처럼.

○ 왜냐하면 안느가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나는 그녀를 경멸할 수 있었으니까

○ 안느는 다른 실수도 하지 않고 겨우 포타아지 수우프를 끝냈을 때에야 사건을 기억해낸 것같은 모양을 했다.

○ 숲속의 아가씨 착한학생

○ 그것은 바보스럽고도 무서운 일이라고 그리고 나는 응석꾸러기에다 게으름뱅이여서 이렇게 생각할 권리는 없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 그런데도 나는 자신의 기분과는 반대로 줄곧 생각했다. 안느는 해롭고 위험하므로 우리들의 앞길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 그때의 나는 원한으로 상처입은 무참한 패배자 였다.

○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 것을 방해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행복을 위해 친절함을 위해, 안락함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녀때문에 비난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 그녀는 서서히 우리를 안느 라르생의 남편과 의붓딸로 만들어 내려는 것이었다.

○ 안느는 보통 수완이 아니었다.

○ 그녀는 이지와 야유와 상냥스러움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나는 반항할 수도 없을 것이다.

○ 어떤 짓을 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다시 아버지와 옛날의 우리들 생활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

○ 주형을 거부하는 찰흙이었다.

○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안느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데서 생긴 일이었다.

○ 너는 얼굴빛이 나빠, 난 너한테 공부하라고 권한것을 후회하고 있단다.

○ 나는 안느의 생기찬 긴 손이 흐늘흐늘 흔들며 아버지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 그들 앞에는 사랑의 하룻밤이 있었다. 나에게는 베르그송이 있었다.

새실-아버지에 대한 인식 변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새실은 아버지의 애정을 전부 차지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여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안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버지의 애정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실제로 아버지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전과 다름없으나 새실은 자신이 아버지와 안느 사이에 있는 작고 귀여우며 애정이 깊은 고양이로 변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질투심과 야유, 안느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이 점점 자라나던 어느날, 시릴르와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안느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됐다. 시릴르와의 애정행위는 새실이나 아버지의 측면에서 볼 때 탓할 아무러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의미있는 일인데.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나 안느의 완고한 도덕적인 타자형을 목표로한 치밀한 의도에 대하여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여기에 안느에 대한 사랑이 겹쳐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수하지 못한 채 안느의 교묘하고 날카로운 언변에 묵인되고 만다.

동시에 새실을 공부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데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새실에게 결정적인 실망을 준다.

그 다음날 공부하느라 틀어박혀 있던 방에서 사고한 결과 아버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곧 배신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려 한다.

- 이런 상황이란 아버지가 자신을 애정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새실에게서 시릴르와의 자유스런 성본능 충족과 생활을 빼앗고. 공부에 얽매이게 한 안느를 받아들인데 대한 증오와 멸시이다.-

아버지-새실에 대한 인식변화

아버지는 안느의 도덕적인 타자형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새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깊이 사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실을 예전과 다름없이 작고 귀여운 고양이라 여겼으며 그렇게 대우했다.
새실이 자신을 연인 친구로서 그녀의 애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아 차리지 못한 데에 문제는 있었던 것이다.
시릴르와의사건이 있은 후에도 새실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 주지 않아, 자신이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실로 하여금 시릴르를 잃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생활의 자유를 잃고 공부를 하게되는 운명에 처넣어지게하는 결과를 빗는다. 이러한 사태의 중대성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후 겨우 안느의 눈빛을 보고난 후 였으며 아버지는 새실의 심각성을 갑자기 인식하게 되자 놀라며 미심쩍어했다.

새실의 자아인식

나는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행복을 위해 친절함을위해 안락함을 위해서 되어있는데 안느가 죄의 개념을 불어 넣음으로써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여 본성으로부터 멀리하려 나의 사고와 행위를 절제하고 억제하도록 한다.
본성을 절제하고 억제하므로 인하여 죄의 비탈을 건너서 향하는 길은 관능을 배재한 도덕적인 타자형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보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본성은 「반죽할 수 있는 찰흙일 뿐이나 주형을 거부하는 찰흙이다.」 왜냐하면, 왜 주형을 거부하는가하면 「자기자신으로 존재 」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형이 될 경우 안느 라르생의 의붓딸이 되어 아버지의 애정을 잃게되고 생의 자유를 잃게되며 시릴르로부터의 성본능을 잃게된다.

이런 타자형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거나 진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느의 의도와 구상에 들어 맞는 안느를 위한 타지형이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제기된다. 자신의 본성 즉, 욕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가?

별지 (2) ·아버지 - 새실

- 두사람은 다 즐겁게 미소짓고 있었다.
- 아버지는 천연스럽게 보이려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 아버지는 자기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 아버지는 마음이 풀려 몹시 기뻐하고 있었다.
- 아버지는 행복했다.
-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오래오래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엘자에의 애정과 구별할 수 있을까
- 하지만 아버지는 유쾌한 듯이 방랑을 매장해 버리고 질서를, 부르조아적인 우아한 생활을 했다 (격찬)
- 믿음직하게 매우 부드럽게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 그들이 눈 언저리를 검게하여 서로 기대면서 웃으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 애정→미움. 증오 -

- 이미 아버지는 나한테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식탁에서의 얼떨떨하게 외면한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려 나를 괴롭혔다.
-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농담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 나는 아버지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 아버지는 전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지않다.
- 나를 배신했어

· 새실 — 아버지

ㅇ 두 사람 다 즐겁게 미소짓고 있었다.
ㅇ 아버지는 천연스럽게 보이려고 담배에 불을 붙었다.
ㅇ 아버지는 자기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ㅇ 나의 귀여운 작은 고향이 나는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ㅇ 나는 아버지가 의기양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ㅇ 나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였다.
ㅇ 아버지는 그것을 농담처럼 받아 넘기려했다.
ㅇ 가엾은 아버지……
ㅇ 가엾은 새실
그건 그렇고 그 시릴르란 좋은 놈이지?
ㅇ 아버지는 몹시 얼떨떨해하며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틀림없이 당신 말대로 겠지. 응. 아뭏든 너는 좀더 공부를 해야한다.
새실 또 철학시험을 다시 치르고 싶지는 않지?」
ㅇ 그게 나한테 어쨌단 말이에요
ㅇ 아버지는 미소지으며 나를 쳐다 보았다.
ㅇ 그리고 나는 입밖에는 내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시도했다.
나는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ㅇ 아버지도 갑자기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벌써 장난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가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놀라며 미심쩍어하는 것을 보았다.
ㅇ 두 사람은 다 즐겁게 미소짓고 있었다.
ㅇ 아버지는 천연스럽게 보이려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ㅇ 아버지는 자기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ㅇ 아버지는 마음이 풀려 몹시 기뻐하고 있었다.
ㅇ 아버지는 행복했다.
ㅇ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오래오래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앨자에의 애정과 구별할 수 있을까?

著 者 略 歷

全北 金堤 出生（1960）
弘益 大學校 2 年 修了
서울藝術專門大學 映畫科 卒業
現 韓國映畫 아카데미 在學

컴퓨터 영화론 I

1986년 4월15일 印刷
1986년 4월20일 發行



著 者　張 京 基
發行者　金 敎 斗

發行所　도서출판 한 미
서울特別市 龍山區 元曉路 1街 120－27
電話：714－3747
登錄：가 3－26 號　1976. 3. 11

定價 3,800 원

영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콘티단계 이전에 관객을 몇 명 정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흥행의 보장을 제작자에게 확신시키고 작품이 미비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미리 수정 보완하여 의도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면,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어느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호기심이나 감동을 어느 정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지 미리 시나리오, 콘티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반응 정도를 조절, 조화시켜 의도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거두고 구성, 성격, 분위기, 리듬 등 영화요소들 중에서 잘못된 점들이나 보강할 점들을 미리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
영화가 가지는 구성요소들을 객관적인 표시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원작자와 감독, 감독과 스텝, 케스트 상호간에 정확하고 능률적이며 빠르게 제작상 필요한 모든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을 감독이나 제작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좋은 작품」이 지녀야 할 모든 요소들을 아낌없이 정확하게 발휘시켜 최대의 완성도와 작품성과 흥행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序文 중에서—

